

## 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XV

- 일제강점기 문예계의 친일협력 -

##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XV

초판 1쇄 발행 2009년 10월 30일

발행인 ||成大경

발행처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청계천로 11 청계11빌딩 5층
- 전화 02)2180-2409 • 팩스 02)2180-2423
- 홈페이지 [www.pcic.go.kr](http://www.pcic.go.kr)

제작유통 || 도서출판 선인

- 전화 02)718-6252
- 팩스 02)718-6253
- E-mail [sunin72@chol.com](mailto:sunin72@chol.com)

정가 || 비매품

발간 등록번호 11-1560010-000003-10

#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XV

- 일제강점기 문예계의 친일협력 -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발간사

이제 마침내 우리 위원회 활동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05년 발족된 이래 4년 반 가까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그간 위원회는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시한 1904년 러일전쟁 개전부터 1945년 8·15해방까지 40년간 행해진 친일반민족행위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조사해왔습니다. 제1기는 러일전쟁에서 3·1운동까지(1904~1919년), 제2기는 3·1운동 이후부터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1919~1937년), 제3기는 중일전쟁부터 8·15해방까지(1937~1945년) 입니다.

그러나 8·15해방 후 60여 년이란 세월이 흘러가 버린 터여서 우리는 일제강점기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부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고 친일반민족행위를 찾아내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심의자료를 작성하기까지의 과정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누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인지를 가려내기 위해 기준을 만들고, 반민족행위의 경중을 가려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나아가 그의 친일반민족행위를 최종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은 수많은 논의와 고민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거쳐 2006년과 2007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제1기와 제2기에 대한 조사 결과와 그동안 확정된 301명의 친일반민족행위결정서를 수록하여 조사보고서를 출간한 바 있으며, 지금은 제3기 조사결과를 비롯하여 지난 4년 반 동안 있었던 위원회 전체 활동을 수록할 종합보고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과 재작년에 제1기와 제2기 조사과정에 참조했던 사료들을 묶어 모두 일곱 권의 사료집도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3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활용했던 사료들을 선별하여 세 번째이자 마지막 사료집을 발간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사료집은 제8권에서 제16권까지 총 9권이며, 제8권에는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의 전시총동원 정책을 분석할 수 있는 총독의 훈시와 법령을 비롯하여 조선인 노동력 동원과 병력동원 관계 자료와 친일언론의 전쟁지원 논설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제9권에는 1937년 이후 전시체제에 조선인을 적극 동원하기 위해 결성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국민총력조선연맹, 조선임전보국단,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등 친일단체의 자료를 모았습니다. 제10권에는 일제의 침략전쟁 및 식민통치에 협력했던 조선인의 글을, 제11권에는 1937년 이후, '만주국'의 조선인 통제와 해외에서의 친일협력 자료를, 제12권에는 일제로부터 훈포상을 받은 한국인(조선인)의 자료를 모았습니다. 또 제13권에는 유교계의 친일협력 글과

친일 한시를 모으고, 지금껏 번역되지 못하여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경학원, 조선유도연합회 관련 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제14권에는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과 종교계의 친일협력의 주제로 기독교·천주교·불교·천도교의 친일관련 자료를 담았습니다. 제15권에는 문화예술계의 식민화 정책과 관련 조직들의 자료를 묶었습니다. 끝으로 제16권에는 조선인이 친일협력을 목적으로 쓴 시와 소설, 희곡과 시나리오, 악보와 가사, 미술작품을 모았습니다. 특히 김용제의 친일 시집 3권 『아세아시집』, 『서사시어동정(敍事詩御東征)』, 『보도시첩』은 조선인이 일본어로 시를 써서 단행본 시집으로 묶어낸 희귀한 자료입니다.

이번 사료집은 우리 위원회의 활동 종료와 함께 발간하는 마지막 사료집입니다. 그래서 제3기에 조사 관련 사료에만 국한하지 않고, 1차 사료집(2007년)과 2차 사료집(2008년)에 실지는 못했으나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중요자료로 활용했던 조선인 훈포상 자료, 종교관련 자료, 문학예술관련 자료를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발간한 사료집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에 편찬하는 9권의 사료집뿐만 아니라 이미 간행한 7권의 사료집 내용도 함께 디지털화하여 CD에 담았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고 계신 시민사회와 학계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이 사료집을 연구와 교육에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세기 우리 민족의 과거사 가운데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기억을 되찾으려 노력하는 이유는,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역사적 교훈으로 남겨 정의로운 미래 사회의 윤리적 규범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발간된 사료집은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는 거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 10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성 대 경

◆ 일 러 두 기 ◆

1. 이 책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연구 과정에서 취합된 전체 사료 중에서 학술적·교육적 가치가 크거나 특별한 중요성 또는 희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료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2. 이 책에 수록된 사료는 현대어로 번역하거나 풀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인명, 지명 등의 고유명사 혹은 특정 한자어 등 원 상태로만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는 단어는 한자나 원어를 ( ) 속에 병기하였다. 풀어 쓴 단어, 외국인명의 원음 표기, 필명이나 창씨개명의 본명 등의 경우에도 ( )로 병기하였다.
3. 사료의 특정 부분의 해석이 필요하거나 역사적 배경 등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주를 달았다. 이 책에 수록된 모든 각주는 ‘번역자 주’나 ‘편집자 주’에 해당됨을 밝혀둔다.
4. 이 책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나 용어의 표기법은, 사료집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 사료의 표기를 따르고자 했다. 특히 친일적인 인사들이나 단체에서 나온 글의 경우, 그 ‘친일성’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그대로 두었다. 예를 들어 천황, 내지, 반도, 지나, 국어, 지나사변, 대동아전쟁 등이다.
5. 장·절 등을 구성하고 있는 제목의 경우, 가급적 원 사료의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원 제목이 그 의미를 집약해서 드러내지 못하거나 신문기사 등 여러 개의 관련사료를 동시에 묶어 수록할 경우 적절한 제목을 붙이기도 했다.  
필자명을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경우, 제목 왼쪽에 표기하고 ‘,(콤마)’로 연결했다.  
단행본명을 그대로 제목으로 뽑은 경우, 『 』로 표시하고 연도를 병기했다.
6. 이 책에 수록된 ‘해제’의 역사용어나 개념, 서술내용 중 일부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및 특별법의 취지와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둔다.
7. 이 책의 말미에 있는 ‘찾아보기’는 인명, 단체 및 기관명, 사건명을 기본으로 하였다.

\* 발간사 ..... 4  
 \* 해제 : 문화예술계의 ‘일본국민’ 만들기 ..... 19

## I. 전시하 일제의 문화정책과 문예계 상황

1. 문화 일반 ..... 35

- 1) 조선문화의 장래(좌담회) 35
- 2) 쓰다 가타시(津田剛), 국책과 문예 -문인협회의 역할에 대하여 44
- 3) 문화운동의 발족(사설) 46
- 4) 야나베(矢鍋) 문화부장을 중심으로 조선의 ‘문화문제’를 말한다(좌담회) 47
- 5) 새로운 ‘문화단체’의 움직임 -8단체 간부는 말한다(좌담) 55
- 6) 야나베 에이자부로(矢鍋永三郎), 반도문화의 신체제 62
- 7) 반도예술을 말한다(좌담회) 66
- 8) 가라시마 다케시(辛島驍), 문화정책에 희망한다 74
- 9) 야나베 에이자부로, 대동아전쟁과 문화생활 75
- 10) 다나카 하쓰오(田中初夫), 조선에서의 문화정책 78
- 11) 귀환용사와 문인(좌담회) 80
- 12) 가라시마 다케시, 웅대한 구상 -대동아전쟁과 반도 문화인의 사명 89
- 13) 야나베 에이자부로, 대동아와 문화 92
- 14) 쓰다 가타시,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구상 95
- 15) 문화와 선전(대담) 99
- 16) 지식인 총진군의 시기(사설) 106
- 17) 국민문화의 방향(좌담) 107
- 18) 데라모토 기이치(寺本喜一), 전쟁과 문화 -전쟁을 지도하는 어능위(御稜威)의 문화 114

2. 문학 ..... 119

- 1) 문인의 입장에서 기쿠치 간(菊池寛) 씨 등을 중심으로 반도문예를 말하는 좌담회 119
- 2) 가라시마 다케시, 결전문학의 확립 -싸우고 있는 의식 128
- 3) 전쟁과 문학(좌담) 129

|   |            |
|---|------------|
| 4) 나가야 쇼사쿠(長屋尙作), 시사유감 - 징병제·전국(戰局)·문학자 등         | 141        |
| 5) 쓰다 가타시,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출석하여                         | 143        |
| 6) 다나카 스테히코(田中捨彦), 국어문학의 전진                       | 146        |
| 7) 결전태세즉응 재조선문학자 총궐기대회록                           | 147        |
| <b>3. 연극·영화</b> .....                             | <b>159</b> |
| 1) 다카시마 긴지(高島金次), 『조선영화통계사』(1943)                 | 159        |
| 2) 나카타 하루야스(中田晴康), 영화정책과 영화제작                     | 269        |
| 3) 구라시게 슈조(倉茂周藏), 조선영화에의 희망                       | 273        |
| 4) 가라시마 다케시, 조선과 영화                               | 276        |
| 5) 아마베 민타로(山部珉太郎), 벽지에서 싸우는 연극 - 조선이동연극 제1대를 살펴보다 | 278        |
| 6) 농촌문화를 위하여 - 이동극단·이동영사대의 활동을 중심으로(좌담)           | 286        |
| <b>4. 음악·무용</b> .....                             | <b>296</b> |
| 1) 가라시마 다케시, 연예와 대중(2) - 중국 신극운동의 경험              | 296        |
| 2) 히라마 분주(平間文壽), 문화에의 입찰(立札) - 특히 음악가에게 바라는 말     | 299        |
| 3) 히라마 분주, 문화 - 악단진어(樂壇讞語)(1)                     | 300        |
| 4) 히라마 분주, 악계근시(樂界近時)                             | 301        |
| 5) 나가조노 겐조(中園源藏), 반도교육 혁신론(4) - 과학·음악교육을 진흥시켜라    | 302        |
| 6) 오바 유노스케(大場勇之助), 기원 2600년 축전음악을 말한다             | 312        |
| 7) 테라모토 유타카(寺本寬), 시국수상 - 음악추방                     | 315        |
| 8) 아메미야 후미(雨宮史), 승리하기 위한 후생음악                     | 318        |
| 9) 다케하라 생(たけいら生), 음악도 군수품                         | 319        |
| <b>5. 미술</b> .....                                | <b>319</b> |
| 1) 결전미술의 동향(좌담)                                   | 319        |

## II. 문예계의 친일협력 조직들

|   |            |
|---|------------|
| <b>1.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b> .....            | <b>329</b> |
| 1) 총력전의 문화부대(기사)                        | 329        |
| 2) 문화익찬의 반도체제 - 금후 문화부 활동을 중심으로 1~9(좌담) | 329        |
| <b>2. 조선연예협회</b> .....                  | <b>340</b> |
| 1) 조선연예협회(기사)                           | 340        |
| 2) 조선연예계                                | 340        |



|   |     |
|---|-----|
| 3. 조선문예회 .....  | 340 |
| 1) 조선문예회 설립취의서  | 340 |
| 2) 요코야 다케오(横矢武男), '조선문예회'에 대한 시시비비적 소감                      | 342 |
| 4. 조선문인협회 .....   | 345 |
| 1) 조선문인협회 금일 발기인회 개최(기사)                                    | 345 |
| 2) 일본정신을 발양! '문(文)의 내선일체'를 절규, 조선문인협회 결성대회 성황(기사)           | 345 |
| 3) 조선문인협회 창립  | 346 |
| 4) 이광수 등의 조선문인협회 창립에 대한 비난에 관한 건                            | 348 |
| 5) 문예상(文藝賞)에 문인회관, '문예의 밤'과 시시(時時)로 지방도 순회, 반도문인협회 사업대강(기사) | 350 |
| 6) 조선문인협회에 보낸다 - 그 성과를 완수하라(사설)                             | 351 |
| 7) 조선문인협회, 지식인에게 호소한다(상·중·하)                                | 352 |
| 8) 폭풍인기 중에 개막되는 결전문화대강연회(기사)                                | 356 |
| 9) 대동아문학자회의 반도측 5명 출발일정 결정(기사)                              | 357 |
| 10) 가라시마 다케시, 조선문인협회의 개조에 즈음하여                              | 357 |
| 5. 조선문인보국회 .....  | 360 |
| 1) 반도문학 총력집결, 각종 단체통합, 조선문인보국회 결성식 성대(기사)                   | 360 |
| 2) 문보(文報)의 페이지  | 362 |
| 3) 조선문인보국회 각 부회 역원 결정(기사)                                   | 364 |
| 4) 조선대표 6씨 결정, 대동아문학자대회에(기사)                                | 366 |
| 5) 조선문인보국회 사무국, '문보의 페이지' 중 8월 16일 기사                       | 366 |
| 6) 문학자대회 대표 귀환보고 강연회 성황(기사)                                 | 367 |
| 7) '문보' 기구개혁, 일부 역원도 개선 강화(기사)                              | 368 |
| 8) 조선문인보국회 사무국, 반도문학자 총결기 대회                                | 369 |
| 9) 문화전선의 총공세, 17일, 적국(敵國) 항복 대강연(기사)                        | 372 |
| 10) 남경에서 문학자대회, 조선대표 향산(香山), 금촌(金村) 양씨(기사)                  | 372 |
| 11) 성과는 실로 다대, 제3회 대동아문학자대회서 귀환한 향산(香山) 씨 담(기사)             | 373 |
| 6. 조선연극문화협회 .....   | 374 |
| 1) 1942년도 사업경과보고서   | 374 |
| 7. 조선연극협회 .....   | 380 |
| 1) 조선연극협회 결성기념, 연극과 신체제 특집                                  | 380 |

|   |     |
|---|-----|
| 2) 극단 총진군의 시기, 연극보국에 매진하라, 연극협회 통첩(기사)            | 381 |
| 8.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 .....                               | 382 |
| 1)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 개황                                  | 382 |
| 9. 조선영화인협회 .....                                  | 390 |
| 1) 조선영화인협회 결성기념, 영화문화와 신체제 특집                     | 390 |
| 10. 조선음악협회 .....                                  | 393 |
| 1) 조선음악협회 회칙                                      | 393 |
| 2) 악단신체제운동(기사)                                    | 396 |
| 3) 악단의 신발족(기사)                                    | 396 |
| 11. 경성후생실내악단 .....                                | 397 |
| 1) 전시하 음악의 건전화, 경성후생실내악단 탄생(기사)                   | 397 |
| 2) 경성후생실내악단(기사)                                   | 398 |
| 12. 야담 · 만담부대 .....                               | 398 |
| 1) 4명이 용약출발(勇躍出發), 작일 천정부(踐政府)서 제1성, 야담만담순회부대(기사) | 398 |
| 2) 벽지맹산에서 성황 이룬 야담(기사)                            | 398 |
| 3) 신정언(申鼎言), 징병취지 야담만담 행각(1~4)                    | 399 |
| 4) 돌연히 나타난 진객(珍客)(기사)                             | 401 |
| 5) 사천여 관중을 매료(기사)                                 | 401 |
| 6) 매신(每新) 교화선전대 함남 도처에서 호평(기사)                    | 402 |
| 7) 청중책일(聽衆冊一) 일만을 돌파 벽촌에 계몽의 횃불(기사)               | 402 |
| 13. 조선미술가협회 .....                                 | 403 |
| 1) 미술도 전력증강에, '조선미협' 보도, 생산에 중점 제작(기사)            | 403 |
| 14. 단광회 .....                                     | 403 |
| 1) 신 양화(洋畵) 단체 단광회(丹光會) 탄생(기사)                    | 403 |
| 2) 결전미술의 정수, 금일 단광회전 개막, 수상자 발표(기사)               | 404 |
| 3) '조선징병제실시' 단광회전, 초일부터 인기 백열(기사)                 | 404 |
| 4) 징병제실시기념 단광회 합작화, 군에 헌납(기사)                     | 405 |

|                           |     |
|---------------------------|-----|
| 15. 전쟁선전전람회 .....         | 405 |
| 1) 충후미술전람회, 반도화단을 총동원(기사) | 405 |
| 2) 결전미술전람회 목록             | 405 |

### III. 문예계의 친일협력 논리와 선전

|  |     |
|--|-----|
| 1. ‘국민문학’·‘국민문화’ 주창 .....              | 415 |
| 1) 11월 중순 도쿄 대동아문학자대회에서 한 조선 쪽의 발언집    | 415 |
| (1) 이광수(香山光郎), ‘동아정신의 수립’에 관하여         | 415 |
| (2) 유진오(俞鎭午), 대동아정신의 강화와 보급에 관하여       | 416 |
| (3) 박영희(芳村香道), ‘문학에 의한 대동아전 완수방법’에 관하여 | 417 |
| 2) 문화로 맺는 대동아, 각광받는 반도대표 결정            | 417 |
| 쓰다 가타시, 김용제, 이석훈, 최재서                  |     |
| 3) 제2회 대동아문학자결전회의(1943.8.25~27)        | 419 |
| (1) 최재서, 결전 조선의 급전환 - 징병제의 시행과 문학활동    | 419 |
| (2) 유진오, 거대한 융화 - 결전문학의 이념 확립          | 421 |
| (3) 김용제, 황민생활의 강화                      | 422 |
| 4) 김용제(金龍濟, 金村龍濟)                      | 423 |
| (1) 조선문화운동의 당면 임무 - 그 이론·구성·실천에 관한 각서  | 423 |
| 5) 김문집(金文輯)                            | 430 |
| (1) 문화표현의 국어적 추세                       | 430 |
| 6) 김동인(金東仁)                            | 433 |
| (1) 국민문학과 제재(題材)                       | 433 |
| 7) 김종한(金鐘漢)                            | 434 |
| (1) 단가문외관(短歌門外觀)                       | 434 |
| (2) 시집 『어머니의 노래』의 ‘맺는 말’               | 435 |
| 8) 박영희(朴英熙, 芳村香道)                      | 437 |
| (1) 감격(수필)                             | 437 |
| (2) 신체제와 문학                            | 439 |
| (3) 다가서는 혼과 혼                          | 440 |
| (4) 국어에 대한 애정 - 황민 완성                  | 441 |
| 9) 백철(白鐵)                              | 442 |
| (1) 동아의 신문화와 ‘협동’에의 의지                 | 442 |
| 10) 유진오(俞鎭午)                           | 446 |
| (1) 시국과 문화인의 임무                        | 446 |

- (2) 대동아정신의 기초 448
- (3) 문화 또한 전쟁과 함께 449
- 11) 윤두헌(尹斗憲, 平沼文甫) 451
  - (1) 쳐들어가는 마음가짐 451
  - (2) 언어의 문제 452
  - (3) 추진이나 편승이나 453
  - (4) 사상적 전진 - 국민문학에서 신민문학으로 456
  - (5) 새로운 인간과 윤리 458
  - (6) 피안(彼岸)의 경종이 아니다 462
- 12) 이광수(李光洙, 香山光郎) 464
  - (1) 조선문화의 장래 464
  - (2) 내선청년에게 보낸다 468
  - (3) 창씨와 나 470
- 13) 이무영(李無影) 471
  - (1) '국어보급은 강제가 아니라 애정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 471
  - (2) 결전문학 수립을 위해 473
- 14) 이석훈(李石薰, 牧洋) 474
  - (1) 반도의 신문화라고 하는 것 474
  - (2) 문예총후운동 강연회를 듣다 476
  - (3) 국민문학의 제문제 480
  - (4) 사상전과 선전전 482
  - (5) '국어보급은 강제가 아니라 애정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 483
- 15) 정비석(鄭飛石) 485
  - (1) 작가의 입장에서 485
- 16) 정인섭(鄭寅燮, 東原寅燮) 488
  - (1) 국책문학의 수립 488
- 17) 정인택(鄭人澤) 489
  - (1) 작가의 마음가짐·기타 489
- 18) 조우식(趙宇植, 白川榮二) 492
  - (1) 역사의 자각과 함께 492
  - (2) 사랑과 기도의 노래 494
- 19) 주영섭(朱永涉) 499
  - (1) 시의 원주 499
- 20) 주요한(朱耀翰, 松村紘一) 502
  - (1)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502

|   |     |
|---|-----|
| 21) 최재서(崔載瑞)                            | 504 |
| (1) 사상전의 침범                             | 504 |
| (2) 조선문단의 혁신(권두언)                       | 505 |
| (3) 새로운 결의                              | 506 |
| 2. '국민연극'·영화신체제 주창                      | 508 |
| 1) 김정혁(金正革)                             | 508 |
| (1) 조선영화 진흥의 목표 - 진실한 영화정신의 수립을 위하여     | 508 |
| 2) 서광재(徐光霽)                             | 512 |
| (1) 조선영화계의 신질서 - '영화령'과 '영화인협회' 조직에 대하여 | 512 |
| (2) 신체제와 영화                             | 516 |
| 3) 안석주(安碩柱, 安田榮)                        | 518 |
| (1) 조선영화의 갈 길 - 영화와 신체제                 | 518 |
| 4) 오정민(吳禎民)                             | 523 |
| (1) 극작가의 희망                             | 523 |
| 5) 유치진(柳致眞)                             | 526 |
| (1) 국민연극 수립에 대한 제언                      | 526 |
| 6) 이서구(李瑞求, 牧山瑞求)                       | 528 |
| (1) 금후의 국민극                             | 528 |
| (2) 국어극의 현상                             | 529 |
| 7) 주영섭(朱永涉)                             | 531 |
| (1) 국민연극의 수립                            | 531 |
| 8) 주요한(朱耀翰, 松村紘一)                       | 535 |
| (1) '싸우는 연극'의 모습 - 제2회 경연대회를 보고         | 535 |
| 9) 함대훈(咸大勳)                             | 538 |
| (1) 국민연극의 현단계                           | 538 |
| (2) 국민연극의 방향                            | 542 |
| 3. '음악보국'·'화필보국' 선전                     | 545 |
| 1) 싸우는 반도문화 소식 - 음악                     | 545 |
| 2) 계정식(桂貞植)                             | 546 |
| (1) 신동아음악의 건설, 대동양적 이상을 표현하여            | 546 |
| (2) 음악보국의 의의                            | 548 |
| (3) 국민학교의 음감교육 문제                       | 549 |
| (4) 대중의 건전오락 희구, 다채한 11~12월 중의 음악회      | 552 |

|  |     |
|--|-----|
| (5) 가정과 음악                                       | 553 |
| (6) 음악경연회를 앞두고                                   | 555 |
| (7) 후생실내악단 제2회 공연평                               | 556 |
| (8) 개병의 노래 모집, 참된 사랑의 노래, 계정식 씨 담, 길이 빛날 군국의 노래로 | 557 |
| (9) 후생실내악단을 듣고(음악월평)                             | 557 |
| 3) 김관(金管)  | 559 |
| (1) 동아의 신정세와 음악문화의 재출발                           | 559 |
| (2) 국가의 신체제와 신음악의 건설(1~3)                        | 561 |
| (3) 음악회기의 년(1~5)                                 | 563 |
| (4) 국민·문화·음악(1~4)                                | 568 |
| (5) 음악시평 여러 가지(1~3)                              | 571 |
| (6) 예술은 격려되어야 한다(1~3)                            | 574 |
| 4) 김생려(金生麗, 金山生麗)                                | 576 |
| (1) 반도에서 후생음악의 문제                                | 576 |
| 5) 박경호(朴慶浩)                                      | 579 |
| (1) 사은음악회의 의의                                    | 579 |
| (2) 후생음악의 실제                                     | 580 |
| (3) 후생실내악단의 공연 후감                                | 581 |
| (4) 악단의 행적(상·중·하)                                | 582 |
| (5) 송(送) 히라마 분주(平間文壽)                            | 585 |
| 6) 심형구(沈亨求)                                      | 585 |
| (1) 시국과 미술                                       | 585 |
| (2) 현대미술문화정책과 기본개념                               | 587 |
| 7) 임동혁(任東赫)                                      | 588 |
| (1) 결전문화의 1년 - 음악의 1년                            | 588 |
| (2) 시국과 음악                                       | 589 |
| 8) 현제명(玄濟明)                                      | 590 |
| (1) 악단 1년, 경성후생악단의 연주활동 및 국민개창운동을 중심으로           | 590 |
| 9) 홍난파(洪蘭波)                                      | 591 |
| (1) 사변 3주년과 반도문화의 여명, 지나사변과 음악                   | 591 |
| 4. '내선일체론'과 '황민화론' 지지 .....                      | 592 |
| 1) 김문집(金文輯)                                      | 592 |
| (1) 조선 문단인에게 - 현실과 조선민족의 문제(1~5)                 | 592 |
| (2) 『충동원』 권두언                                    | 597 |

|   |     |
|---|-----|
| (3) 합리적 발전적 귀환을 논하는 말, 씨 설정을 주제로, 반도풍습의 그 조국에로의 것 | 598 |
| 2) 김용제(金龍濟, 金村龍濟)                                 | 608 |
| (1) 스승과 형에게 드리는 말(1~3)                            | 608 |
| 3) 윤두헌(尹斗憲, 平沼文甫)                                 | 611 |
| (1) 더욱 높이 더욱 멀리                                   | 611 |
| 4) 이석훈(李石薰, 牧洋)                                   | 612 |
| (1) 새로운 결의 - 성지참배로부터 돌아와서(상·중·하)                  | 612 |
| 5) 장혁주(張赫宙)                                       | 615 |
| (1) 황도조선의 완성                                      | 615 |
| (2) 엄매이지 않는 기분                                    | 621 |
| <br>  |     |
| 5. '총후적성'의 선전 .....                               | 622 |
| 1) 김기진·조용만·채만식, 작가·화가가 본 싸우는 증산 현지보고(좌담회)         | 622 |
| 2) 증산면과 문학자                                       | 628 |
| (1) 이서구, 새로운 농촌문화를 위하여                            | 628 |
| (2) 조용만, 탄갱에서 돌아와                                 | 630 |
| (3) 김기진, 생산과 문학                                   | 631 |
| 3) '조선군 보도반원의 수첩' 중에서                             | 632 |
| (1) 이석훈, 행군                                       | 632 |
| (2) 정비석, 사격                                       | 634 |
| 4) '조선군보도연습기' 중에서                                 | 636 |
| (1) 이석훈, 보도연습에 참가하여                               | 636 |
| (2) 이서구, 보도연습기                                    | 638 |
| 5) 안석주(安碩柱, 安田榮)                                  | 639 |
| (1) 대동아전과 영화인의 임무                                 | 639 |
| 6) 윤두헌(尹斗憲, 平沼文甫)                                 | 640 |
| (1) 들판은 전쟁터 - 충남을 둘러보고                            | 640 |
| (2) 입술에 노래를 담고                                    | 643 |
| 7) 정비석(鄭飛石)                                       | 645 |
| (1) 지식인   | 645 |
| 8) 조용만(趙容萬)                                       | 647 |
| (1) 찻간에서 생긴 일                                     | 647 |
| 9) 조우식(趙宇植, 白川榮二)                                 | 648 |
| (1) 보도연습보고 1 - 연련일기초(演練日記抄)                       | 648 |
| (2) 부여 증견청년수련소 방문기(상·하)                           | 653 |

- (3) 선감학원(仙甘學園) 견학기 661
- (4) 유성 농민도량을 보다 666
- (5) 흙에 기도하고 단련하는 농민혼 - 유성 농민도량 견학기 669
- (6) 싸우는 항공창 676
- 10) 주영섭(朱永涉) 681
  - (1) 평양대화숙 681
- 11) 주요한(朱耀翰, 松村紘一) 683
  - (1) 출범의 정신 683
  - (2) 직장(職場)·도장(道場)·전장(戰場) - 취직하는 지식청년에게 주노라 685
  - (3) 전 국민이 육탄으로 - 먼저 지도자에 필요한 반성과 과단 687
- 12) 최정희(崔貞熙) 688
  - (1) 맑게 갠 푸른 하늘 688

6. 일제의 침략전쟁과 ‘대동아공영권’ 지지 ..... 689

- 1) 김기진·이무영, 대동아전쟁에 의해 무엇을 배우십니까? 689
- 2) 이무영·정비석·정인택·채만식, 간도성시찰작가단 보고(좌담회) 690
- 3) 계정식(桂貞植) 699
  - (1) 음악은 군수품이다(음악시평) 699
- 4) 김관(金管) 700
  - (1) 전쟁과 음악(1939) 700
  - (2) 전쟁과 음악(1~2, 1940) 701
- 5) 김동인(金東仁) 703
  - (1) 태평양송(太平洋頌) 703
- 6) 김동환(金東煥, 白山靑樹) 704
  - (1) 내외 동포에 호소함 704
- 7) 김문집(金文輯) 705
  - (1) 조국에 목숨 바친 최초의 반도 지원병, ‘축하해야 할 죽음!’,  
피로 살다간 우리의 이인석 군 705
- 8) 박영희(朴英熙, 芳村香道) 710
  - (1) 전선을 순례하고 710
- 9) 신고송(申鼓頌) 711
  - (1) 성난 아시아 - 연극인총궐기예능제 기(記) 711
- 10) 양훈(楊薰) 714
  - (1) 전쟁과 음악 714
- 11) 이무영(李無影) 719



- (1) 이 날이 되어 719
- 12) 이석훈(李石薰, 牧洋) 720
  - (1) 전시하의 만주 720
- 13) 임학수(林學洙) 724
  - (1) 북지(北支)에 심부름을 하고(상·하) 724
- 14) 장혁주(張赫宙) 726
  - (1) 대동아전쟁에 즈음하여 726
  - (2) 역사에 불멸할 일순 -야마모토(山本) 원수 국장 참배기 727
- 15) 정인섭(鄭寅燮, 東原寅燮) 729
  - (1) 싱가포르 함락과 문화인의 감격 729
  - (2) 위대한 새벽 729
- 16) 정인택(鄭人澤) 730
  - (1) 다케야마 대위의 일들(1944.2) 730
  - (2) 다케야마 대위의 일들(1944.9) 732
- 17) 현제명(玄濟明) 734
  - (1) 싱가포르 함락 감상 734
- 18) 홍난파(洪蘭波) 735
  - (1) 사상전향에 관한 논문 735

7. 지원병 · 징병동원의 선전 · 선동 ..... 736

- 1) 명사, 징병의 감격을 말하다 736
  - 김동환, 김호영, 노창성, 모운숙, 박영희, 서춘, 유진오, 장덕수, 조용만, 주요한, 최정희
- 2) 김동환(金東煥, 白山靑樹) 742
  - (1) 애국정신과 지원병 742
- 3) 김종한(金鐘漢) 748
  - (1) 병제(兵制)와 문학 748
- 4) 박영희(朴英熙, 芳村香道) 750
  - (1) 자만보다도 연성(鍊成) 750
- 5) 송영(宋影) 751
  - (1) 영원한 충성 751
- 6) 오정민(吳禎民) 751
  - (1) 징병제와 연극 751
- 7) 이석훈(李石薰, 牧洋) 754
  - (1) 징병 · 국어 · 일본정신 754
- 8) 장혁주(張赫宙) 756

- (1) 입소일기 - 육군병 특별 지원자 훈련소(상·하) 756
- (2) 조선 징병제 실시(1·2) 759
- (3) 지원병 훈련소 760
- 9) 조우식(趙宇植, 白川榮二) 761
  - (1) 뚝뚝한 마음에 부쳐 761
- 10) 주요한(朱耀翰, 松村紘一) 764
  - (1) 다섯 가지 사명 764
- 11) 최정희(崔貞熙) 769
  - (1) 어국(御國)의 아들의 어머니에게 769
- 12) 함대훈(咸大勳) 770
  - (1) 전시에 책무익다(責務益多) 770

\* 찾아보기 ..... 771

# 해제 : 문화예술계의 ‘일본국민’ 만들기

윤대석(명지대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 1. 서론 - 문예계의 협력

1940년 전반기에 이 땅에서 이루어진 식민지 협력 행위를 알기 위한 자료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다. 가장 큰 이유는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간행된 서적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몇몇 자료들이 공간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이 시대의 자료 대부분은 도서관 서고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소수의 연구자에게만 독서를 허락했을 뿐이었다. 더군다나 식민지 협력 행위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일본어라는 언어적 특수성, 당대 특유의 맥락 등의 진입 장벽을 돌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대의 식민지 협력 행위에 대한 오해는 실체에 기반을 두지 않고 자기 증식을 통해 환상과 공상으로 발전해갔다. 이 자료집의 가장 큰 의의는 이와 관련되어 있다. 자료 자체의 소개가 식민지 협력 행위에 대한 오해를 어느 정도 불식시켜 줄 것이다.

이 책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편찬하는 자료집 15권으로서 문예계의 친일협력과 관련된 글을 수록하고 있다. 문예계의 친일협력이라고 하지만, 15권은 작품을 수록하지 않고 문예인의 비평문, 혹은 시평(時評) 등을 수록했다. 역시 문예계의 협력 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작품일 것이다. 소설가는 소설로, 시인은 시로, 배우는 연극과 영화로, 화가는 미술작품으로, 음악가는 연주나 작곡으로 자기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자료집은 작품 자체는 실지 않고 문예인이 쓴 비평문·시평 등을 수록한다. 따라서 15권은 문예계의 친일협력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파악하는 보조 자료로서 의미를 지닌다. 이것이 이 자료집의 두 번째 의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조 자료라고 하지만, 이 자료집에 실린 글들에는 식민지 협력 행위의 핵심적인 면모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국민화’로 설명될 수 있는 것들이다. 1930년대 후반, 1940년대 초반은 일본 제국에 큰 변화와 개조가 시도되던 시기였다. 1937년 중일전쟁과 그에 따른 고노에(近衛) 수상의 동아 신질서 성명, 1940년 10월의 신체제, 1941년 12월의 태평양 전쟁 도발 등은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것은 일본 국내의 개조와 국외로의 확장으로 나눌 수 있다. 내적으로는 서양에 경사된 근

대화를 반성하는 기운이 일어났고, 외적으로는 전쟁을 통해 그러한 개조를 이룩하려는 시도가 생겼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과 조선의 관계는 예전과는 다른 맥락에 놓이게 되었다. 그것은 확장되고 있는 일본 제국의 다른 지역과 조선을 비균질적인 공간으로 인식케 했다. 그에 따라 일본 본토와 조선의 균질화가 상대적으로 높은 단계로 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을 ‘국민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국민화’ 담론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동화 정책이라고 부르는 ‘내선일체’이다. ‘내선일체’의 핵심에는 ‘일본 국민 되기’가 놓여 있었고,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평행제후론이고 또다른 하나는 동화일체론이었다. 전자가 조선과 일본의 차이를 전제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방향이라면, 후자는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말살하려는 방향이었다. 1930년대 후반에서 1941년 정도까지는 전자의 발언력이 상당했지만, 전쟁이 확대되면서 후자 쪽으로 기울어간다. 또한 ‘내선일체’ 담론에는 넓게 보아 동양문화론이, 좁게 보면 일본문화론이 포함된다. 동양문화, 일본문화의 우수성을 찬미하는 글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는 조선문화를 강조하는 글도 이 부류에 포함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내선일체’ 담론이 힘을 가지는 것은 일본 제국의 여타 지역과의 차별성에서였다. 만주나 동남아시아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일본 본토와의 차별성은 사라지기에 거꾸로 일본 본토와의 차별성을 은폐하기 위해 만주나 동남아시아를 타자화했다고도 할 수 있다. 각종 진출, 혹은 개척, 만주 담론은 ‘내선일체’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국민화’ 담론의 또 다른 하나는 총동원 담론이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한 후 취해진 황국 신민서사 제정(1937.10), 국가총동원법 시행(1938.4), 육군지원병령(1938.4) 등은 모두 이러한 총동원 체제를 조선에까지 확산시키려는 조선총독부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당면한 전쟁에 조선인과 조선에 존재하는 물자가 동원된다는 물리적 차원을 넘어서 정신적인 영역에까지 이르게 된다. 식민지인인 조선인의 정신을 개조하여 일본인으로 만든다는 이데올로기 개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제말기의 문화예술은 이러한 이데올로기 혹은 사상 개조라는 정신 동원 운동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이제 문화예술은 정신 동원의 수단으로 전략하게 된다. 정신 동원의 차원과 더불어 고려해야 할 것은 문화 개조다. 이때의 문화란 인간의 정신적 산물이라는 좁은 내포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양식을 전반적으로 지칭한다. 이러한 총동원의 중심에는 전쟁이 놓여 있다. 이제 일상생활이 전쟁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하나는 직접 전쟁과 관련된 담론으로서 전쟁을 신성화하고 군인의 규율을 예찬하는 담론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전쟁을 후방에서 지원하면서 후방을 전쟁과 동일한 차원에서 규율하는 담론이다. 근대전이 총력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하지만, 이 두 담론은 군인적 규율과 그것의 사회적 확산으로 나눌 수 있다. 전쟁·군인 담론, 총후 담론과 더불어 생각해야 할 것은 여성의 동원이다. 근대 사회에서 타자로 놓여 있던 여성마저 적극적으로 주체화/종속화시키는 것이 ‘국민화’ 담론의 특징이라면 1940년대 전반기의 ‘국민화’ 담론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목격된다.

이 글(해제)에서는 자료집 15권에 실린 글들을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나누고 설명한다. 그것을 바라보는 큰 틀이 ‘국민화’이고 그 하위 틀은 ‘내선일체’와 ‘총동원’이다. ‘내선일체’는 다시 ‘일본국민되기’와 ‘동양문화론/일본문화론’, ‘만주 담론’으로 나누고, ‘총동원은 ‘전쟁’과 ‘총후’, ‘여성동원’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문예인이 쓴 협력의 글들을, 문학·음악·영화 등의 장르가 아니라, 담론의 성격 위주로 나누고 설명하는 이유는 여기에 실린 글들이 작품이 아니라서 장르적 차이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자료집에 실린 글들은 작품이 아니라 비평이나 시평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문학예술인의 사상을 핵심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보조 자료로서의 성격밖에 가지지 못한다. 문학예술인에게 비평이나 시평은 잡글에 지나지 않고 본령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학예술이 지닌 깊이를 이러한 글들이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자료집을 읽을 필요가 있다.

## 2. 국민동원 담론

### 1) 전쟁 찬양과 군인 담론

1940년대 전반기의 식민지 협력 행위가 전쟁을 계기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전쟁 담론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조선문단의 첫 협력행위인 황군위문 조선문단 사절단 파견(1939.4.15~5.15)이 이루어진 것도, 이를 계기로 하여 조선문단의 협력 단체인 조선문인협회가 결성(1939.10)되는 것도 중일전쟁이 직접적인 계기였다.

황군위문 조선문단 사절단은 김동인, 임학수, 박영희였는데 그들은 조선으로 돌아온 후 각각 보고문 및 문학작품을 쓰게 된다. 그 중요한 문헌은 박영희의 『전선기행』(박문서관, 1939), 임학수의 『전선시집』(인문사, 1939)이다. 이 두 문헌은 이 자료집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한국어로 쓰인 것이기에 일독을 권한다. 이 자료집에는 그 대신 임학수의 「북지에 심부름을 하고」와 박영희의 「전선을 순례하고」를 실었다. 이 글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전쟁의 필연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논법은 일본군에 의한 중국 인민의 해방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비판 대상은 중국을 식민화하고 있는 서양세력과 이와 결탁해 중국 인민을 착취하는 중국의 위정자다. 그러나 중국 인민에게 일본군도 그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자각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글들에서 중국에서의 조선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어 흥미롭다.

그 다음으로 전쟁에 관한 담론은 1941년 12월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에 따른 태평양 전쟁의 발발로 등장하게 된다. 김동인의 「태평양송」이 대표적이다. 그는 “태평양은 내 바다다. 인류에게 향하여 큰 소리로 능히 이렇게 부르짖고 이 권리를 주장할 지위와 실력을 가진 자는 오직 우리 일본밖에 없다”라고 하며 서양을 이기는 것을 공지로 삼았다. 이 자료집에는 당시의 글들이 많이 실려있지 않지만, 정인섭의 「위대한 새벽」에서처럼 매년 12월이면 태평양 전쟁의 발발을 소재로 한 글들이 많이 발표되고, 김기진의 회고처럼 전향의 계기가 진주만 공격이었다는 점(『김팔봉전집 2』, 277쪽)을 생각하면 진주만 공격으로 상징되는 동서양 대결사관이 문화예술인에게 가진 사상적 의의는 과소평가될 수 없다.

그에 비하면 1942년 2월의 싱가포르 함락은 이벤트에 불과했다. 『매일신보』에 연재된 「싱가포르 함락과 문화인의 감격」에서는 “싱가포르 강에 가득찬 무수한 정크선도 미소를 띠우면서 남국의 보배를 싣고 올 날도 머지 않을 것이다”(정인섭)처럼 자원 획득의 의미로 다가오거나, 안석영의 「동양문화의 빛날 때」나 “그동안 미영이 비인도적인 온갖 수간을 농하여 동양을 침략하고 동양인을 멸시하고 착취한 죄는 우리 황군의 신검에 의해 벌을 받았다”(현제명)처럼 진주만 공습에서 촉발된 동서양 대결사관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총독부 당국도 싱가포르 함락을 기념하여 각 국민학교에 고무공을

나눠주는 이벤트로 전쟁 동원을 독려했고, 문화예술인들의 호들갑도 이 범주를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나 1942년 5월의 징병제 실시 결정과 1943년 8월의 징병제 실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문화예술인들은 이 사건에 촉발되어 다양한 글을 썼다. 그것은 장혁주의 「조선 징병제 실시」에서 보듯이 “조선의 황도화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신체의 개조, 생활의 개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군인의 규율을 기준으로 한 이러한 자기 개조가 바로 ‘국민’이 됨을 의미했다. 『국민문학』 1942년 5·6월 합병호의 「명사, 징병의 감격을 말하다」에 실린 주요한, 서춘, 유진오, 최정희, 모윤숙 등의 글이나 김종한의 「병제와 문학」, 박영희의 「자만보다도 연성」 등은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 실시가 가진 의미를 이 두 가지로 서술하고 있다.

징병제 실시에 대한 감상의 연장선상에서 쓰인 글이 입소 체험이다. 군인 체험이나 입소 체험을 다룬 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서술하는 것은 바로 징병제 실시에서 찬양했던 이러한 신체와 정신의 개조이다. 이석훈의 「보도연습에 참가하여」, 장혁주의 「입소일기」, 「지원병 훈련소」 등은 군인의 규율을 찬양하고, 그것이 일본 국민이 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군인 규율의 찬양은 일본 군인과 전사한 조선 지원병의 찬양을 통해 모범적인 군인상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도 전개된다. 장혁주의 「아마모토(山本) 원사 국장참배기」, 정인택의 「다케야마(武山) 대위의 일들」 등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

## (2) 총후의 동원과 직역봉공

세계 제1차 대전 이후 근대 전쟁은 전방과 후방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총력전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에게는 조선인을 군인으로 동원하는 것 못지않게 후방에 대한 통제가 긴요했다. 1937년 8월의 ‘국민정신총동원 요강’의 제정을 시작으로 국민정신총동원 운동을 벌였고 같은 해 10월에는 국민정신총동원 중앙연맹이 결성되었다. 또한 1938년 4월에는 ‘국가총동원법’이 성립되어 이 운동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했다. 조선에서는 1938년 7월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 결성되고 1940년 10월 신체제 운동의 시작과 더불어 국민총력조선연맹으로 바뀐다.

조선의 문화예술인에게 후방의 동원은, 전쟁의 동원이 그랬듯이 단순히 전쟁에 참가한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기를 개조하고 사회를 개조하여 ‘국민’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총후의 동원이 ‘국민화’의 기제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한다. 전쟁과 총후 동원은 국민이 되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윤두현의 「새로운 인간과 윤리」에서처럼 새로운 인간을, 즉 국민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계기였던 것이다.

총후의 마음가짐을 군인의 규율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은 직역봉공이라는 말로 대변된다. 자기가 맡은 곳에서 전쟁에 도움이 되도록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직역봉공이라 한다면, 이 또한 단순한 전쟁에의 도움보다 자기 개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 주요한의 「직장·도장·전장」에서처럼 직장이란 자신을 연성하는 도장이며, 나아가 전장이다. 조우식의 「선감학원 견학기」, 「유성농민도량을 보다」, 「싸우는 항공창」, 김기진 등의 「작가 화가가 본 싸우는 증산」, 『국민문학』 1944년 7월호의 「증산면과 문학자」, 윤두현의 「들판은 전쟁터」 등 각종 생산현장 방문기는 생산 증강을 통한 전력 향상을 꾀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인간 개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인에게 지역봉공은 무엇보다 자신이 속한 지역, 즉 문화예술의 창작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음악도 군수품”이라고 하는 양훈의 「전쟁과 음악, 군국조 가요 이야기」에서처럼 수단과 도구로서의 예술이 주장되고 있다. 양훈의 글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정식의 「음악은 군수품이다」에서도 동일한 주장이 반복되고 있듯이 대중적 호소력이 강한 즉물적인 장르의 예술에서 이러한 주장이 두드러진다. 이 경우 오락적인 경향의 예술에 대한 자기 반성과 국민성의 형성, 그리고 국민 정신의 고취, 전쟁에의 참가 독려 등이 글의 주된 논지가 된다. 이러한 경향은 심형구의 「시국과 미술」 등 미술에서뿐만 아니라, 연극, 영화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야마베 민타로(山部珉太郎)의 「벽지에서 싸우는 연극」나 신정언의 「징병취지야담만담행각」 등에서처럼 공연예술계에서는 지방 순회 공연에 대한 보고서가 많이 씌여졌다. 또한 지역봉공을 위해 조선문인보국회나 조선연예협회, 조선문예회, 조선연극문화협회,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 조선영화인 협회, 조선음악협회, 조선미술가 협회 등 다양한 단체가 성립되었는데, 이들 단체의 성립 배경이나 취지, 창립문, 활동내역 등이 이 자료집에 수록되었다.

이 자료집에서 가장 비중있게 소개된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다카시마 긴지(高島金次)의 『조선영화통제사』이다. 일본인으로서 조선 영화계에 깊이 관계해온 다나카가 기록한 조선 영화에 대한 서술은 당시의 정책 수립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 문헌이 될 것이다. 많은 자본과 뛰어난 기술을 필요로 하기에 권력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지 않을 수 없었던 영화계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이 책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자료집의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가 이 책에 대한 번역일 것이다.

### (3) 여성의 동원

이 자료집에는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여성의 동원도 국민 동원 담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여성 동원은 총후 동원의 일종이긴 하지만, 직업이 아닌 일상 생활의 동원은 여성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전쟁 동원의 한 기제가 모성 동원으로 드러난다. 어떤 측면에서는 김중환이 자신의 시집 제목을 “어머니의 노래”라고 붙였듯이(『어머니의 노래』 후기) 조선 전체를 어머니, 혹은 여성으로 형상화하는 담론마저 가능했다.

이 자료집에서는 여성작가인 모운숙과 최정희의 글을 통해 여성 동원의 일단을 엿볼 수도 있고 또한 각종 징병 관계 글들에서 어머니의 인내와 뒷받침을 통해 아들에 대한 전쟁 독려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살펴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자세히 보고 싶다면 이 자료집에 수록되지는 않았지만, 최정희의 소설 「야국초」나 정인택의 소설 「돌아보지 않으리」를 읽으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직접적으로는 이 자료집에 실려 있는 최정희의 「황국의 아들의 어머니에게」에서 그것을 잘 볼 수 있다. 이 글의 배경이 되는 1942년 5월은 조선에 징병제가 실시되는 것이 일본 각의에서 결정된 때이다. 최정희는 그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이유 때문이었다.

이제까지의 저는 아이들에게 전쟁에 가서 죽어도 좋으냐고 물었을 때, 아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돈이 없어도 아버지가 없어도 군인이 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아들이 불쌍해서 어두운 얼굴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들이 갖는 희망이 이루어질지 어

절지, 그것이 저는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잠자코 나라를 위하는 여인이 되겠습니다. 나라의 역사를 만드는 아들의 어머니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황국의 아들의 어머니에게」)

아들이 전쟁에서 죽을지 모른다는 주저와, 돈과 아버지(조선민족)를 넘어설 강한 주체(군인)로 아들을 키울 수 있다는 확신 사이에서 후자를 선택하고 그것을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해가는 과정을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들의 죽음을 담보로 했다는 점에서 사이비 모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3. 내선일체 담론

#### (1) 일본인되기

‘내선일체’의 문제는 전쟁의 문제와 조금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내선일체의 중요한 계기와 동력이 전쟁에서 나온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일합방 당시부터 일제는 ‘일시동인(一視同仁)’이라는 동화정책을 내세웠고, 동화란 식민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점에서 보면 국민동원과 논리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

1910년대 한일합방의 이론적인 뒷받침 가운데 하나는 일선동조론이었다. 「한국병합조서」에서 밝힌 “조선은 천황의 충량한 신민”이라고 하는 일시동인이 식민지 정책의 기초였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소 조선의 문화적 독립성을 인정하는 정책을 취해왔지만, 1930년대 후반이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일본의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새로운 정체성 논리가 필요해지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정체성이란 미리 결정된 어떤 것이 아니라 정치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고 그것과 연동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선일체’ 담론이 새 장을 맞게 되는 것은 일본의 확장이라는 정치적 사태와 연동하는 것이다.

내선일체 운동은 우선 1938년 4월부터 실시된 제3차 조선교육령을 불러왔다. 조선교육령 개정은 그 목표를 ‘내선인’, 즉 조선인과 일본인의 공학(共學)에 두었다. 1935년 가을에 이미 공학 논의가 있었지만 이것은 조선인의 강력한 반대로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고, 1937년 가을에 다시 공학 논의가 일어났을 때는 조선인의 반대가 표면화되기 어려웠다.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였기 때문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조선인과 일본인의 공학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다. 첫째가 학계의 일치였다. 학령도 다르고 학교 명칭도 다르던 것이 제3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조선인의 그것과 일본인의 그것이 일치하게 되었다. 둘째는 조선어의 수의(隨意)과목화였다. 수의과목화란 조선인 학교에서 필수과목이었던 조선어를 선택과목으로 바꾼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공학의 최대 걸림돌 가운데 하나였다. 즉 공학이 되더라도 일본인은 조선어를 선택하지 않으면 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논의는 이에 그치지 않아 실질적으로 조선어 폐지로 이어졌다.

조선교육령이 조선 문화예술계에, 특히 문학계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1938년 10월 장혁주 각색, 무라야마 도모요시(村山知義) 연출의 일본어 연극 『춘향전』을 경성에서 공연하는 것을 계



기로 조선인 문화자와 일본인 문화자들이 모여 좌담회를 열었을 때(「조선문화의 장래」) 단연 화제는 언어 사용 문제였다. 일본인 작가들은 조선인 작가들이 일본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했고, 조선인 작가들은 일본어로 쓰면 표현하지 못할 것이 반드시 남는다고 하여 조선어 사용을 주장했다. 이러한 좌담회에서 논전은 1939년 7월에서 8월에 걸친 언어사용논쟁(김용제, 한효, 임화)으로 첨예화되었다.

언어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문제시되었다. 1942년까지 조선어는 문학의 언어로서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조선문단의 유일한 문학잡지인 『국민문학』이 처음에는 1년에 조선어 8회, 일본어 4회로 발행될 예정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조선인 징병제가 결정되는 1942년 5월, 그러니까 이와 병행하여 실시된 국어(일본어) 전해운동이 시작될 때 『국민문학』은 일본어 전용으로 전환된다. 문학계에서 내선일체에 일단락이 지어지는 것은 이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몇 달 후 예의 조선어학회 사건(1942.10)이 일어난다.

이 자료집에 수록된 국어(일본어)와 조선어에 관계된 글들은 대부분 1942년 5월 이후에 씌여진 것들이다. 박영희의 「국어에 대한 애정」이나, 윤두현의 「언어의 문제」, 이무영·이석훈의 「국어문제회담」 등은 이미 조선어를 폐지하고 국어(일본어)를 전용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잘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거나 국어 전용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에 머물고 있다. 일본어 사용에 대한 논란을 보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좌담회 「조선문화의 장래」나, 이 자료집에 수록되지 않은 김용제, 한효, 임화의 『경성일보』 논쟁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문학에서의 일본인되기, 혹은 일본문화되기가 언어를 매개로 하고 있다면, 사상에서 중요한 것은 창씨개명과 내선동조동근론이었다. 이 문제를 주로 다룬 것은 김문집과 김용제였다. 김문집에게 일본인이 된다는 것은 “조선민족의 집대강화”(「조선문단인에게」)를 의미했다. 세계사적으로 보아 일본이 옹비하는 시점에서 조선인이 일본 국민이 되어야지 조선 민족이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이광수나 김용제에게도 이어진다. 말하자면 “조선을 위해 친일했다”라는 논리가 그것이다. 강한 민족에 대한 선망이 친일을 가져왔다는 역설을 조판자는 ‘친일 내셔널리스트’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그 표현이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일본국민화를 이야기하기 위해 조선민족의 복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모순에 놓여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창씨개명의 논리적 근거는 내선 동조동근론에 있었다. 김문집의 「씨설정을 주제로」에서는 원래 일본과 조선은 하나였고, 그 사례가 고대의 이름이었다. 고대에는 일본식 이름밖에 없었고, 이후에 중국 문화가 들어와 중국식 이름이 탄생했다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조선인이 일본인이 되는 것은 근원으로 귀환하는 것을 의미했고, 여전히 옛 것을 지키고 있는 일본은 형이 되고, 외래 사상에 물든 조선은 아우가 되는 것이다(김용제, 「스승의 말, 형의 말」).

또한 일본인되기의 최종적인 귀착점은 천황에의 귀일(歸一)이었다. 이석훈의 「새로운 결의」는 그러한 감상을 일본의 각종 신사와 신궁을 방문한 후 토로한 기록이다. 장혁주의 「황도조선의 완성」에서는 일본인되기에 “대어심으로 귀일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반도문화정책의 근본은 일본문화의 반도에의 이식과 배양에 있”는 것이다.

이 자료집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최재서의 「밭드는 문학」(1944)은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은 후 씌여진 평론이라고 할 수 있다. 최재서가 일본인되기에 천황을 모시는 것임을 깨달은 이후 창씨개명을

한 것을 보면 일본인되기=창씨개명=천황숭배가 논리적 연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해당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달리 파악되어야 한다. 창씨개명이 사상적 의미를 띠지 않고 제도의 변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다. 법률을 전공한 유진오가 창씨개명하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다.

## (2) 동양문화론과 일본문화론

내선일체의 사상적 기반 가운데 하나는 일본문화론, 나아가 동양문화론이었다. 동서양 대결사관이 일본문화, 나아가 동양문화의 우월성을 찬양하게 한 것이다. 일본문화에 대한 찬양은 천황의 만세일계(萬世一系), 팔굉일우(八紘一宇) 사상에 집중된다. 만세일계란 동양의 대표적인 정신을 천황가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고대로부터 이어왔다는 사상이고, 팔굉일우란 이러한 정신으로 세계를 통치한다는 이념이다. 이러한 사상은 일본의 고대문헌인 『고사기』, 『일본서기』, 『만엽집』의 해석과 일본의 국학자인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장황하게 전개된다. 조우식의 「부여중견청년수련소 방문기」가 그러한 일본문화론을 대표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사상의 영역을 벗어난 것, 즉 종교의 영역에 속한다. 일본의 국가종교인 신도(神道)가 그것이다. 최재서가 '받드는 문학'을 주장하면서 논리로서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부분을 천황에의 귀일로써 돌파하고자 한 것도 그 때문이다. 논리가 이를 수 있는 최대한은 앞에서 본 고대문화론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조선인으로서 일본문화론, 그러니까 천황의 사상인 신도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거의 없는 듯하다. 필자의 공부가 짧아서, 혹은 필자가 신도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한지 모르나,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신도를 타민족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천황에 대한 언급과 찬양이 계속되는 것은 어떠한 이유일까? 그것은 당대의 상투구였거나 자기 기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둘 다 문화예술인의 감각에는 어울리지 않는 정치인의 감각이라 할 수 있다.

동양문화론, 일본문화론의 또 다른 형태는 각 예술장르의 개혁으로서의 국민문화론이다. 계정식의 「신동아음악의 건설」은 신동아음악을 “서양음악이론 기초 위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과학적으로 된 서양음악을 사용하되 동양의 정서를 강하게 표출하기 위하여서는 동양악기를 쓸 수 있도록 작곡하면 미래에 발전성 있는 동양적 음악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라고 하여 동양과 서양의 종합을 새로운 국민문화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국민문화는 서양적인 개인주의적, 형식적 문화를 넘어 일본 정신에 기반을 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김관의 「국가의 신체제와 신음악의 건설」에서처럼 “일본정신에 입각한 독창적인 것”이라고 말하지만, 일본 정신의 실체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적인 것의 배척이라는 네거티브한 방식으로만 일본 정신을 이야기할 수 있을 따름이었다. 일본에서조차 일본 정신이나 일본 국민문화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그러나 나아가 그것은 국민문화를 아직 미정형의 것, 새롭게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관의 「동아의 신정체와 음악문화의 재출발」에서처럼 그것은 “적극적으로 건설적으로 국민생활의 체제를 구축하는 일조건”인 것이다.

이러한 점은 국민문화를 미래의 것, 즉 앞으로 조선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구성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최재서에게서 가장 잘 드러난다(졸저, 『식민지 국민문학론』 참조). 1944년 1월 이전의 최재서에게 일본인이라든 현존하는 일본민족이 아니었고, 일본문화란 현존하는 일본문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이나 만주 등도 포함된 일본 제국의 재편된 문화를 의미했던 것이다. 최재서가 아니더라도 국민문화를 미정의 미래형으로 묘사하는 것에는 이러한 욕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어떤 측면에서는 국민문화란 현존하는 일본의 문화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고, 따라서 일본 정신을 파악하려는 노력도 이어졌다. 그러나 그것도 현재의 일본, 그러니까 서양에 물든 일본이 아니라, 서양이나 중국 문화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일본 정신을 보여주는 일본 고대의 문화를 전범으로 삼고자 했다. 이석훈의 「국민문학의 제문제」는 『만엽집』을 근거로 ‘간소미’를 일본적 미로 도출해냈다. 조우식의 「사랑과 기도의 노래」도 또한 고대 일본의 문헌을 바탕으로 일본적 미(美)를 도출해내고자 했으나, 그것은 일본적인 것이라기보다 서양과의 대립에서 도출된 동양적인 것 일반이라고 할 수 있었다. 정체성이란 이처럼 대립에 의해서만 의미를 가지는 정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인이 일본인이 되는 것은 일본의 문화를 흡수함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자를 만들 어냄으로써 가능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만주’라는 타자를 매개로 하여 내선일체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 (3) 만주 및 아시아라는 타자

정체성이란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1930년대 후반기에는 조선-일본이라는 관계에 덧붙여 만주와 중국이라는 제3의 존재가 등장함으로써 조선-일본의 관계에 변화가 온다. 일본의 만주 개발이 본격화되고, 이것이 중일전쟁과 맞물리는 상황은 식민지-식민지 본국이라는 관계에 또 다른 식민지가 등장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 속에서 조선은 구조적으로 피압박 민족이면서 압박 민족인 중간적 존재가 되었다.

조선이 내선일체를 추구하고, 또한 전쟁에 참여하는 주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는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에서의 조선의 위치 상승이었다. 조선이 일본이 됨으로써 식민지에서 식민지 본국으로 위치가 급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허위의식이거나 환상에 불과했지만, 당대의 일부 지식인에게는 상당한 기대감으로 다가갔다. 김문집의 “조선민족의 집대강화”(「조선문단인에게」)라는 말은 그것을 잘 보여 준다.

조선민족의 행복의 길은 이제는 두 가지밖에 남아있지 않다. 외국으로부터 아무런 위협과 침해와 간섭을 받지 않는 완전한 독립국을 세우는 것이 그중 하나이며, 민족의 일원화를 마지막 단계로 하는 내선일체제의 길이 또 다른 하나인 것이다.(「조선문단인에게」)

이러한 발언은 일본의 확대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싱가포르 함락에서 느끼는 조선의 문화예술인의 감정은 “아시아의 새로운 문화수립을 하는 데 아시아의 건설전사로서의 각오와 자부심”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역사의 주체로서의 사명감이다. 일본의 확장, 새로운 일본 제국의 건설에 스스

로 참여하고 있다는 착각이 이러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의사-제국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스스로의 입장을 확장과 침략의 대상이 되는 지역과 차별화함으로써 일본과 동질감을 느끼는 대타적인 정체성 확립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임학수와 박영희가 중국 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조선인의 현상을 보고하는 것에서도 그러한 대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중국을 야만으로 그림으로써 일본의 중국 침략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조선인의 활약도 정당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주를 중국인의 땅이 아니라 무주지로서, 즉 개척의 관점에서 묘사한 각종 만주 시찰기와 만주 개척기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이 자료집에서는 그 가운데 하나인 「간도성 시찰작가단 보고」를 통해 그 현황을 잘 살펴볼 수 있다.

#### 4. 결론

이상으로 자료집 15권에 실린 문화예술인들의 시평과 평론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개략적으로 살펴본다는 말은 해제의 분량이 적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필자가 1940년대 전반기의 담론을 바라보는 관점이 일정한 한계를 지님을 의미한다. 필자는 필자의 안경을 끼고 자료집 15권을 살펴보았을 뿐이다. 이 자료집을 대하는 독자들은 또 다른 안경을 끼고 이 자료집을 살펴볼 것이다. 그것은 이 시기의 담론이 현재 쟁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 글에서는 최대한 자료의 소개의 머물고자 했지만, 그것도 최소한의 분류와 시각을 거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필자의 안경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안경을 소개함으로써 글을 맺기로 한다. 그것은 1940년대 전반기, 특히 ‘친일문학’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이 해제가 갖는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해제가 문제 삼는 일제말기(1939~1945.8.15)의 담론은 여전히 논란 속에 놓여 있다. 한국사회에서 ‘친일’ 청산이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혹은 앞으로 ‘친일’을 청산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이 현재적·미래적 문제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제말기의 담론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어떤 것을 계승하고 어떤 것을 청산할 것인가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가 하는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재적·미래적인 과제인 것이다. 이 시기의 담론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과 입장은 대상을 규정하는 개념에서부터 충돌하고 있다.

우선 ‘친일’이라고 규정하는 입장은 민족주의와 제3세계주의에 입각해 각각 ‘친일/반일’, ‘저항/협력’의 이분법으로 이 시기 담론을 규정한다. 민족주의적 입장은 1990년대 이전의 연구에서 주류적 위치에 있었으며 임종국의 『친일문학론』(1966)으로 대표된다. 이 입장에서 보면 식민지 시기의 과제는 민족어·민족문화·민족정신의 건설과 수호에 있었고, 그것의 반대편에 서 있던 것이 일제말기의 ‘친일’인 것이다. 이러한 담론적 고발과 단죄는, 일제 식민지를 지탱하던 조선인 상층부를 그대로 지배계급으로 하여 성립되고 유지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했기에 도덕적 정당성마저 띠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와 경제적 성취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치가 격상됨에 따라 1990년대 이후에는 ‘친일’을 배제함으로써 순정한 민족문화를 이루려는 민족주의적 입장이 저항으로서의 의미를 잃고 배타

적 국수주의로 빠질 위험에 처하게 된다.

민족담론이 동아시아담론으로 확장됨으로써 계속 저항적 담론일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친일’론은 민족주의를 확장한 제3세계주의에 입각함으로써 저항의 거점을 갱신하고자 했다.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김재용의 논리(『저항과 협력』, 2004)이다. 그가 ‘친일문학’의 청산을 통해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민족사적 정의가 아니라 세계사적 정의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문학의 논리 자체는 긍정함으로써 ‘친일문학’을 배제하고 민족문학을 수립하려 했던 임종국과는 달리, 그는 제3세계론에 입각해 세계사 속에서 일본의 제국주의 논리를 비판하고 그것에 협력한 식민지인들을 비판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나 제3세계론이 그러하듯이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은 여전히 민족주의를 주요 동력으로 하여 전개되기 때문에 그것은 임종국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확장된 민족주의’, 혹은 ‘동일성에 의한 재영토화’로 비판되기도 한다. 임종국에 비해 민족주의적 기준을 훨씬 유연하게 적용하지만 그가 ‘저항/협력’의 이분법과 그 경계 설정에 여전히 집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제말기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은 『문학속의 파시즘』(김철 외, 2001)에 의해 제시된다. 이 입장은 ‘파시즘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것이 입각하고 있는 것은 탈근대론·탈민족론(포스트콜로니얼리즘)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친일’은 그렇게 쉽사리 청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친일’은 의식·행위·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무의식·구조·신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입장에서는 ‘친일’보다는 근대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식민주의가 부각된다. 식민주의는 근대의 앎과 제도가 형성한 것이기에 식민지 주체 또한 거기서 자유롭기 힘들다. 그에 따르면 오히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앎과 삶의 원리가 되었던 민족주의 자체가 식민주의의 부산물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입장은 앎과 문학의 명백하고 의식적인 일본 제국주의와의 근친성(친일)보다 무의식적·구조적 근친성을 더욱 문제 삼는다. 이 입장은 1990년대 이후의 한국사회가 독재정권의 폭력적 지배에서 동의·자발에 근거한 관리적 지배로 이행하고 있다는 진단에 근거를 두고 있다. ‘친일론’ 자체가 그러한 관리사회의 이데올로기로 전화되고 있기에 그에 대한 명백한 거부를 표하고, 일제말기의 담론에서 보아야 할 것도 의식적·폭력적 지배(친일)가 아니라 무의식적·관리적 지배라고 한다. 그 기원이 일제말기 총력전 체제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 ‘파시즘론’의 이러한 문제 설정은 일제말기의 담론을 근대담론으로 환원(근대의 외부는 없다)시키거나 식민지 주체의 담론을 제국주의의 담론으로 환원(주체=종속)시킴으로써 반제국주의적 저항의 가능성을 봉쇄했다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파시즘론’ 이후의 일제말기 문학에 대한 연구는 ‘친일론’이 제기했던 고정된 저항축과 ‘파시즘론’이 제기했던 저항의 불가능성을 모두 비판하고 저항과 협력축의 복수화를 꾀한다. 이 관점은 민족주의적 저항이라는 이름하에 가려졌던 다양한 계층과 계급에 주목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젠더와 서발턴(subaltern)의 문제이다. 과연 여성과 하위계층에게 남성 부르주아의 전유물인 민족주의적 저항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한 일제말기의 경험을 민족사로 환원시키지 않고 세계사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을 김재용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시하려 한다. 식민주의 협력행위에 대한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책임 추궁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 해제는 일제말기의 담론을 마지막 관점에 입각해 고찰했다. 마지막 관점이라고 해도 연구자마다 제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일괄해서 말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친일론’과 ‘파시즘론’의 입장도 한데 엉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에 객관적 입장에 서기가 힘들다는 점을 밝혀둔다.

## 〈참고문헌〉

- 김경일 외,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역사비평사, 2004.
- 김윤식, 『한일문학의 관련양상』, 일지사, 1974.
- , 『한일 근대문학의 관련양상 신론』, 서울대출판부, 2001.
- , 『일제말기 한국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대출판부, 2003.
- 김재용, 『협력과 저항』, 소명출판사, 2004.
- 외, 『친일문학의 내적논리』, 역락, 2003.
- 외, 『재일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의 논리』, 역락, 2004.
- 김진균 외 편, 『근대주체와 식민지규율권력』, 문화과학사, 1997.
- 김 철, 『국민이라는 노예-한국문학의 기억과 망각』, 삼인, 2005.
- 외, 『문학속의 파시즘』, 삼인, 2001.
- 송민호, 『일제말 암흑기문학 연구』, 새문사, 1991.
- 신희교, 『일제말기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6.
- 윤대석, 『1940년대 ‘국민문학’ 연구』, 서울대 국문과 박사학위논문, 2006.2.
- ,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2006.
- 윤해동, 『식민지의 회색지대』, 역사비평사, 2003.
- 윤휘탁, 『일제하 ‘만주국’ 연구』, 일조각, 1996.
- 이경훈, 『이광수의 친일문학론』, 태학사, 1998.
- 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66.
- , 『실록 친일파』, 돌베개, 1991.
- 최석영, 『일제의 동화이데올로기 창출』, 서경문화사, 1997.
- 최유리, 『일제말기 식민지 지배정책 연구』, 국학자료원, 1997.
- 榮澤幸二, 『大東亞共榮圈の思想』, 東京：講談社現代新書, 1995.
- 岡義武, 『近衛文麿』, 東京：岩波書店, 1972.
- 小熊英二, 『單一民族神話の起源』, 東京：新曜社, 1995.
- , 『‘日本人’의境界』, 東京：新曜社, 1998.
- 尾崎秀樹, 『近代文學の傷痕』, 東京：岩波書店, 1991.
- 川村湊, 『滿州崩壞』, 東京：文藝春秋, 1997.
- , 『酔いどれ船の青春』, 東京：インパクト出版會, 2000.
- 鈴木裕子, 『從軍慰安婦·內鮮結婚』, 東京：未來社, 1992.
- 高崎宗司, 『植民地朝鮮の日本人』, 東京：岩波書店, 2002.
- 京城日報社, 『朝鮮年鑑』, 1942.
- 中根隆行, 『朝鮮表象の文化誌』, 東京：新曜社, 2004.
- 南富鎮, 『近代文學の朝鮮體驗』, 東京：勉誠出版, 2001.

水野直樹編, 『生活の中の植民地主義』, 京都 : 人文書院, 2004.

宮田節子, 『朝鮮民衆と‘皇民化’政策』, 東京 : 未來社, 1985.

—— 外, 『創氏改名』, 東京 : 明石書店, 1992.

文部省, 『國體の本義』, 東京 : 文部省, 1938.

山室信一, 『キメラ』, 東京 : 中央公論社, 2004.

\* 해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나 일부 내용은 본 위원회의 취지와 다를 수 있음.





# I. 전시하 일제의 문화정책과 문예계 상황



## 1. 문화 일반

### 1) 조선문화의 장래(좌담회)

#### 참석자

아키타 우자쿠(秋田雨雀), 하야시 후사오(林房雄), 무라야마 도모요시(村山知義), 장혁주(張赫宙), 가라시마 다케시(幸島驍, 경성제대 교수), 후루카와 가네히테(古川兼秀, 총독부 도서과장)

정지용(鄭芝鎔, 시인), 임화(林和, 평론가), 유진오(俞鎭午, 보성전문학교 교수), 김문집(金文輯, 평론가), 이태준(李泰俊, 소설가), 유치진(柳致眞, 극작가)

#### 조선의 잡지

하야시 : 오늘 좌담회는 ‘조선문화의 장래와 현재’ 혹은 ‘문화에서의 내선일체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얘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일전에 만주와 북중국을 돌아볼 목적으로, 조선은 그냥 지나칠 생각으로 일본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관부연락선 안에서 우연히 같은 방에 있던 노인이 “덕도 조선은 돌아보지 않을 겁니까? 일본 내지에서 만주나 북중국을 시찰하러 가시는 분이 대개 조선을 그냥 지나치고 만주나 북중국만 머릿속에 있는 모양입니다만,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때는 “그렇습니까” 하고 흘려들었습니다만, 부산에서 경성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전 총독 우가키(宇垣) 씨의 조선에 관한 연설집을 읽으면서 문득 창 너머 경치를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우가키 씨의 연설집에 조선을 보려는 이는 이 경부연선의 풍경만 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이 철도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혹은 군사에 필요에 가장 편리한 곳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이 연선은 조선에서 가장 빈곤하고 생산이 적은, 또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이조시대의 주구(誅求)에 고통을 받아 보수적으로 되었고, 생산력도 생각하는 힘도 전부 잃어버린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연선만을 바라보고 조선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연설이 실려 있어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연선의 풍경은 당시와는 전혀 달라서 산은 푸르고 곳곳이 경작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마침 수확기였던 모양인데, 들판에는 남자도 여자도 전부 나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조선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성에 가서 총독부 사람과도 만나고 또 조선의 청년들과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밤 여기에 모인 여러분과 만나도 일본 내지와 가장 가까운 곳은 조선인데, 가장 가까운 곳을 모르면서 먼 만주나 북중국을 알리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말을 해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여비는 사실은 만주에서 받았기 때문에 경성에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정이 그런데도 오늘로 5일이나 머물고 있다는 것도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오늘 좋은 기회를 얻어 이런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부담 없이 얘기를 나누길 바랍니다. 주로 저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세요. 조선의 작가는 모두 의문을 갖고 있겠지만, 부디 부담 갖지 마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밤에는 여기에 바쁘신 와중

에도 불구하고 후루카와(古川) 도서과장님도 오셨습니다. 과장님도 의견이 좀 있으신 모양인데, 그 의견은 조금 뒤 들어보도록 하죠(박수). 이는 조선에서 이런 형태의 모임은 처음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조선에는 어떤 작가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본 내지에서는 조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반도를 지나갔다는 것만으로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가 많습니다. 조선에는 어떤 잡지가 있는지, 어떤 사람이 무엇을 쓰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잡지와 사람에 대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김문집 : 이전에는 여러 가지 잡지가 있었습디만, 요즘에는 줄었습니다. 월간 신문도, 아시는 것처럼 마라톤으로 유명한 손기정의 일장기 문제로 정간되었고, 작년 6, 7월경 허용된 『동아일보』가 있지만 『중앙일보』는 없어졌습니다. 잡지도 이전에는 상당수 있었지만 종이 값이 오르면서, 또 총독부에서 별로 조선 잡지를 장려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고 숫자도 줄어서 우리 밥그릇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일보』에는 출판부가 있어서 거기서 세 종류, 즉 하나는 일반적인 것, 그리고 부인들을 위한 것, 또 하나는 소년들을 위한 읽을거리가 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공론(四海公論)』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임화 씨가 주간으로 있었는데, 사장과 싸운 뒤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천리(三千里)』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는 역사도 오래되었고 7,800부나 팔립니다. 그 밖에 작은 잡지는 많이 있습니다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잡지에는 종종 비평도 있지만 그리 대단한 잡지는 아닙니다.

하야시 : 비평이요.

김문집 : 그렇습디만…… 비평이라기보다 일종의 사기(가짜 : インチキ) 잡지가 많습니다, 조선에는.

하야시 : 작가는 그 잡지에 투고하고 있습니까? 또 그걸로 충분합니까?

임화 : 그것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습니다.

하야시 :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화 : 작가로 먹고 사는 이는 한 명도 없어서 모두 다른 일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이 없는 이는 어쩔 수 없이 허기를 참을 수밖에 없어요(웃음).

하야시 : 그렇게 먹고 살기도 힘들어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줍니까? 작가로서…….

임화 : 인정을 받지 못해도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모두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하야시 :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런 작가들은…….

임화 : 글썬요, 80명 정도 될까요. 하지만 작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50명 정도 되려나.

하야시 : 일본에서 문학자라 불리는 사람은 2천 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그걸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글썬요, 2백 명 정도일 겁니다.

임화 : 옛날 작가라고 할까요, 인기 있는 작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실패하기 때문에 신문기자라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어요. 인기는 5, 6년이죠. 10년은 없어요.

무라야마(村山) (출석)

## 조선의 연극

무라야마 : 연극에 관한 얘기를 하자면, 조선에는 일본의 구극(舊劇)에 해당하는 것은 없고 신파(新派)와 신극(新劇)이 있는데, 현 상황을 조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유치진 : 그런 것은 시골에도 있지만, 주로 경성에 있습니다. 조선의 신극은 극연좌(劇研座), 중앙무대(中央舞臺) 등 4개 정도 있습니다. 신파에는 경성에 동양극장(東洋劇場)이라는 상설 간이소극장이 있고, 거기에 호화선(豪華船), 청춘좌(靑春座)라는 두 극단이 반년씩 교대로 출연하여, 하나가 거기에 출연하고 있을 때는 다른 하나는 지방을 순회합니다. 언제나 만원이죠.

무라야마 : 신파극도 신극과 마찬가지로 일본 연극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까?

유치진 : 그렇습니다. 신파도 일본 영향을 받았습니다.

무라야마 : 그런 신파 이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유치진 : 연예장(寄席) 같은 것과 옛 창극, 무용과 가면극이 있습니다.

무라야마 : 연극을 위한 독립적인 극장은 없습니까?

유치진 : 간이소극장 같은 것은 있었지만,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데서 하는 것은 연극이라 해도 즉흥적인 연극으로, 지금도 있습니다.

무라야마 : 그 각본이 문자로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유치진 : 일부는 있지만 대체로 그런 옛 조선의 문화, 특히 연극은 중국 영향을 받은 겁니다. 최근에는 일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

하야시 : 일본은 옛날에 조선의 영향을 받았죠.

아키타 : 덴가쿠(田樂) 등도 주로 조선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조선에도 일본의 덴가쿠나 가부키(歌舞伎)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임화 : 시골에는 덴가쿠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작은 북을 치면서 춤추는 겁니다. 여기서 약 20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아키타 : 보고 싶군요.

임화 : 춤이 재미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손을 흔드는 형태나 발 움직임이 마치 보리를 수확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라야마 : 제가 가장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점은, 조선의 춤과 노래에는 거의 대부분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애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군악도 마치 장례식 음악 같지 않습니까?

임화 : 춤에 인형과 탈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막을 치고 하는 겁니다.

유치진 : 그건 가면극으로 춤과 노래에 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라야마 : 탈은 저도 갖고 있는데, 참 독특해요.

아키타 : 나무로 된 탈도 있습니까?

임화 : 조잡한 것이지만 있습니다.

무라야마 : 바가지(일종의 호박. 껍질을 말려 물을 넣는 그릇 등으로 사용한다)로 된 것도 있고, 종이로 된 것도 있어요.

하야시 : 그런 것은 다른 도회지에 있습니까?

유치진 : 평양에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가면극은 신라시대의 기록에 남아 있는데, 가면을 사용해 춤을 추기 때문에 일본의 시시오도리(獅子踊り)-사자춤) 같은 겁니다. 봉산에는 유명한 가면극이 있는데, 이를 최승희(崔承喜)가 멋진 춤으로 만들었죠. 그 유장(悠長)한 몸동작은 봉산 가면극의 특징입니다. 고고학자의 말에 따르면 대체로 고려시대까지 있었다고 합니다만, 이조시대가 되면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조시대에는 유교가 번성하면서 그런 것을 금지하는 방침을 정한 거죠. 연극이라는 것을 매우 저급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예술적으로 뛰어난 것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취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습관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민족적인 것을 하려고 하면 조정에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숨어버렸어요. 다시 말해 가정에서나 춘 것이죠.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정으로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라야마 : 아악 이외에 그런 음악, 민요적인 것은 하나도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임화 : 관기(官妓)가 있을 뿐입니다.

정지용 : 이조에 들어와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조선의 문화, 극, 무용, 음악 등이 시들어버리고 말았죠. 즉 유교 정치가 그런 것을 매우 경멸했기 때문에 봉산의 가면극 등도 중단되고 말았고, 조선에는 음악이나 극문학 등 지금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용 쪽에는 요즘 다소 극적(劇的) 요소가 들어가 있지만.

무라야마 :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연극에 관해서 자세히 물어볼 수는 없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도 조선에서 연극이 어떤 이유로 발달하지 않았는지 알고 싶군요. 이 문제는 잘 몰라서…….

유진오 : 극문(劇文)이 어째서 발달하지도 충실하지도 않았는가 하는 문제는 조선의 정치에 비해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다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라야마 :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조선 문화의 장래는 현재 어째서 그런 상태인지, 그 점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발달할 수 없어요. 문학에 관해서는 나중에 상세히 논하기로 하고, 지금 이 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조치를 우리가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 『춘향전』의 번역

장혁주 : 『춘향전』을 문제 삼으면 얘기가 구체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임화 : 그 번역은 괜찮은 걸까? 『춘향전』은 제대로 번역되어 있습니까? 그 말이 지닌 맛을 번역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텐데.

장혁주 : 임화 씨, 과거의 조선과 현재의 조선을 소재로 한 희곡을 일본의 극계(劇界)에서 상연하는 것과, 또 하나 조선어로 된 것을 일본어로 번역하거나 각색하여 일본인에게 소개한다는, 이 두 가지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조선(어로 하는) 극단이 조선어 연극을 일본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미치게 될 영향은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어로 쓴 『춘향전』을 한 것 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성공했다고 봅니다.

유진오 : 그게 어려워요.

하야시 : 번역문이기 때문입니까?

임화 : 그렇습니다.

김문집 : 번역을 하면 서풍의 가치도 없어요.

임화 : 그것이 지닌 독특한 맛이 없어져요.

김문집 : 일본어로 번역하면 『춘향전』이 달라집니다.

하야시 : 그럼 번역 불가능론이라는 말이군요. 번역에는 번역의 사명이 있습니다.

가라시마 :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조선어로 된 것은 많이 판매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많이 팔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일본어로 해야 합니다. 그런 생활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만 일본어, 즉 번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하야시 :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조선어로 하면 됩니다.

임화 : 그러나 『춘향전』의 성격은 일본어로는 도저히…….

장혁주 : 그걸 일본어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정지용 : 『춘향전』을 소개할 경우 번역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무라야마 : 조선쪽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만엽집(萬葉集)』이 영어로 번역되더라도, 우리는 그걸 『만엽집』이라고는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더 많은 번역이 나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춘향전』을 일본에서 공연했을 때 일본인들 호응도 좋았고, 또 일본에 와 있던 조선 사람들도 울고 웃으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일본인이 모두 조선어를 배울 수 없는 이상, 번역된 『춘향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문집 : 일본에서 좋은 호응을 얻어도 경성에서는 어떨까요? 무라야마 선생님, 『춘향전』은 결코 느낌이 살아나지 않을 겁니다.

정지용 : 『춘향전』 그 자체의 느낌은 말이죠…….

김문집 : 일본인에게 느낌은 있어도…….

유진오 : 도쿄에서는 『춘향전』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무라야마 : 언어가 지닌 재미는 모른다 하더라도 『춘향전』의 에스프리는 전해졌다고 봅니다.

김문집 : 그건 시국과 관련 있다고 봅니다만.

하야시 : 그렇지는 않아요. 춘향이 몽룡을 그리워하며 정절을 지켜내는 것은 매우 훌륭한 것이었고, 저도 도쿄에서 봤는데 그건 만인을 움직인 훌륭한 정신으로 사람을 감동시킨 겁니다.

정지용 : 『춘향전』의 장점은 가령 유교정치의 시대에 그런 것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하야시 : 거기에 조선이라는 모습이 있고, 이를 예술화한 점이 매우 좋았어요.

정지용 : 조선의 것은 조선어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무라야마 선생님이 그걸 도쿄에서 조선인들이 보고 좋다고 말했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받아들일지 어떨지 물론 의문입니다…….

장혁주 : 신극 방면에서는 일본과 조선의 장래를 어떻게 하면 될지에 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라야마 :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조선인의 조선어 연극을 활발하게 하는 것. 일본의 극단이 좀 더 조선을 다룬 희곡, 조선의 고전을 번역, 각색하여 상연하는 것. 종종 일본의 극단이 조선에 와서 공연하고, 또 반대로 조선 극단이 일본에서 공연하는 것.

임화 : 우리도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도쿄와 오사카에서 할 수 있는 극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쪽 신극(단)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에는 좋은 후원자가 없어요. 우리는 조선의 좋은 극을 북중국이나 도쿄와 오사카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건 단지 조선을 소개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새로운 예술을 소개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김문집 : 그건 저도 찬성입니다. 하지만 『춘향전』이 도쿄에서 호응을 얻은 것은 시국 때문이라 생각해요. 『경성일보』가 〈애국조선박람회〉를 다카시마야(高島屋)에서 했을 때, 모인 사람들이 조선은 이런 곳이거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하야시 : 이제 『춘향전』 얘기는 이 정도로 해 둡시다.

아키타 : 조선의 『춘향전』은 실제로 보러 갔던 조선인뿐만 아니라 제 옆에 있던 60살 정도의 사람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 연극의 매력은 때와 장소를 뛰어넘어 통하는 휴머니즘에 있어요. 가령 언어라는 면에서 결점이 있어도 이같은 휴먼이라는 요소를 충분히 접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조선 문화 속에는 수많은 예술이 있어서, 그걸 넓히기 위해서 일본어로 번역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또 그와 동시에 일본의 것을 조선어로 번역하고, 조선어로든 일본어로든 상관없이 창작을 계속해나간다면 좋겠습니다.

무라야마 : 지금까지 조선에는 있지만 일본에는 없는 것을 무대 예술로 만들 수 있을 터이고, 이를 신극이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야시 : 지금까지 마치 『춘향전』의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김문집 : 이 『춘향전』이 만약 10년 전에 사회에 나왔다고 한다면…….

장혁주 : 일본에서는 조선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 조선어 문학

이태준 : 잠깐 아키타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방금 조선어로 쓰든 일본어로 쓰든 상관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본론과는 다른 내용이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일본의 선배분들은 우리 조선 작가들에게 조선어로 쓸 것을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상으로 일본어로 쓸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까?

아키타 : 우리 작가의 요망, 그리고 대중의 요망으로서, 즉 독자 또는 대상을 대중에 두는 작가로서는 일본어가 좋겠지요.

무라야마 : 조선의 문학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읽기를 바라고 반향을 얻기 위해서 조선어로 쓴다고 해도 독자가 적기 때문에 반향이 적을 겁니다. 아무래도 조선에서도 실제로는 국어(일본어)가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어로 쓰는 편이 널리 읽힐 것이고, 결국 일본어가 좋겠죠.



아키타 : 일본어로 써서 널리 읽고 일부를 조선어로 번역하면 되겠죠.

정지용 : 두 쪽을 다 써도 좋겠죠.

하야시 : 국어 문제가 나왔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조선의 여러분께 말씀 드리겠는데, 작품은 모두 일본어로 하길 바랍니다.

아키타 : 일본어가 자유롭지 않다면 조선어로 쓴 것을 번역하면 될 테고요.

임화 : 이는 우리 작가로서 큰 문제입니다.

무라야마 : 조선어로 쓰면 표현할 수 있지만 일본어로 쓰면 표현할 수 없다는 조선어의 독특한 것이 있다면, 그걸 잃게 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여기까지 온 지금의 문제로는 일본어로 써도 거의 지장이 없는 듯 합니다. 조선어로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정치문제 이외에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태준 : 사물을 표현할 경우에 일본어로 정확하게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독자적인 문화를 표현할 경우의 맛은 조선어가 아니면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본어로 표현하면 그 내용이 일본적인 것으로 변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선의 독자적인 문화가 사라질 것입니다.

하야시 : 그건 번역을 하면 됩니다.

무라야마 : 우리는 일본의 독자적인 가부키나 인형연극을 보존하는 데 찬성입니다. 과거의 것이라도 세계적으로 독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와 같이 조선의 고전적인 예술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 것은 정부로서도 보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임화 : 그런 박물관적인 것이 아니라…….

유진오 : 문제가 큼니다만, 일본어로 지장이 없는 것은 써도 되지만 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번역 가능하고, 게다가 일본인들이 즐겨워하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은 우리도 가능한 한 하겠지만, 조선의 문학은 조선의 문자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문학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무라야마 : 그건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좀 더 크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겁니다. 조선어로 쓰는 것이 좋다고 처음부터 정하지 말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다는 점에 눈을 돌렸으면 합니다.

임화 : 시를 쓸 경우 그 말에 담겨 있는 감정, 즉 문자가 번역된다면 그 의의가 사라집니다. 번역서는 아무래도 와 닿는 부분이 없어요. 이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순수하게 예술적으로 바라보고, 문화적으로 이해해야 할 겁니다.

하야시 : 영국이 아일랜드에 취한 정책은 어땠습니까? 그래도 아일랜드 문학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과 좌담회를 열어도 의미가 통하게 되었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앉아 있는 지금, 조선어가 아니면 안 된다고든, 일본어에 저항한다고든 하는 것은— 오늘날 일본의 영향에서 벗어난 예술은 없을 텐데요.

김문집 :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자연스런 경향이긴 하지요.

임화 : 언어의 예술이라 아무래도…….

하야시 : 아일랜드어를 사용한 문학이 있는 것처럼, 결코 조선문학도 사라지지는 않을 테니 그렇게 고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본어가 좋다는 것뿐입니다.

정지용 : 그런 점에서 보자면 유망합니다.

김문집 : 아키타 선생님은 좀 더 큰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계시겠죠.

무라야마 : 여러분이 작품을 내고 무엇을 원합니까? 많은 반향을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또 작가로서의 개인적인 문제에서 보더라도 작가는 문학으로 수입을 얻어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조선어로 쓰면 거의 생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작가는 일본어로 쓰는 편이 행복할 겁니다.

(무라야마 퇴장. —무라야마가 말하길, “오늘은 마침 신흥극단(新協劇團)의 조선 공연 전날이고, 부민관(府民館)에서 연극 강연회가 있어서 저와 아키타 씨와 장혁주 씨는 강연 도중에 잠깐 시간을 내어 출석하였다. 때문에 이런 언어 문제에 대해서도, 또 그 밖에 대해서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훗날 상세히 논할 기회가 있겠지”라고 했다.)

유치진 : 연극에서 마치 조선 한복을 입고 일본어로 말한다는 것은…….

하야시 : 일본의 연극 역시 그래요. 양복을 입고 일본어로 한 것이 20, 30년이 지난 지금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게다가 전부 번역한 것들뿐이고…….

유치진 : 그건 번역한 극이죠.

하야시 : 일본은 주로 번역극입니다. 연극 초기에는 전부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일본어로 작품을 많이 만들어 보내주길 바랍니다.

후루카와 : 저는 문학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물론 맞지 않는 부분도 많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끼고 있던 점은, 예술 쪽에서 보건대 조선의 문예 방면의 일부분은 매우 좋아지긴 했지만, 이를 일본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관민 모두 부흥시키겠다는 의사가 없어요. 어쨌거나 모두 중단되어 버렸고, 지금은 일본과는 비교도 안 되는데도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합니다. 앞서 김문집 씨가 정치적 특수사정 운운하셨는데, 이 방면에서 언어 문제, 혹은 교육 정도가 낮고 구매력이 없고 민도(民度)가 낮다는 등의 이유로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독립된 훌륭한 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신문과 잡지는 오늘날 가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문예가들이 경시한 결과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 현재 조선에서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예술적인 방면에 별 관심이 없는 등, 결국 그런 여러 요인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식자는 각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목적을 위하여 상당한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기운이 점점 커져서 하나의 일이 일반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기대할 만한 것이지요. 대개 문장, 예술은 중국의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정과 풍속에 중국색이 있어요. 게다가 일본과의 관계는 최근의 일이라서 일본적인 부분은 매우 적고 빈약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일본식으로 진전된 방면을 여러분이 소재로 삼은 경우에도, 또 사물을 받아들일 때도 그런 점을 잘 이해하고 하지 않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또한 영화나 레코드를 보더라도 요즘 매우 발달한 일본의 영향으로써 특수한 것이 적은 조선의 문화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영화에서도 전체적으로 통제

된 발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큰 협회 같은 것을 만들어, 거기서 가능한 한 원조를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촉진운동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빨리 그런 기관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레코드 제작을 보더라도 일본의 문예 전체, 신문·잡지, 레코드·영화 등과 비교하면 전혀 문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장래를 위해 참고할 생각이니, 느낀 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문집 : 조선의 문예부흥에는 아무런 기관도 없어요. 돈이 있는 사람도 학교 등에는 돈을 내지만, 문예방면에는 돈을 내는 이가 없어요.

하야시 : 바로 그 점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이 작품을 일본어로 많이 썼으면 합니다. 그 반향은 반드시 있어요.

이태준 : 그것은 일본문화를 위해서입니까, 조선문화를 위해서입니까?

하야시 : 세계문화를 위한 것입니다.

유진오 :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조선어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거기에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하야시 : 이제 조선어는 학교에서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유진오 : 그렇습니다만, 조선어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점차 희미해지겠지만…….

하야시 :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 조선 작가들은 일본어로 쓰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써도 독자가 없어요. 독자가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 문학의 단속

하야시 : 이제 이런 얘기는 그만하고, 여러분이 이번 사변에 조선인 문사들이 종군할 수 있도록 총독부에 한 번 건의해 보는 것은 어때요?

유진오 : 그건 좋은 생각입니다. 대찬성입니다.

하야시 : 그럼 총독부에 건의해 보도록 합시다(박수). 그리고 여기에 후루카와 도서과장님이 나오셨으니, 아무 질문이라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평소의 불만이라도…….

임화 : 사무적인 일입니다만, 검열을 좀 더 원활하고 빨리 할 수 없을까요?

후루카와 : 되도록 빨리 처리하려고 합니다만, 요즘은 빠르지 않습니까?

임화 : 도청을 통해 낸 검열은 한 달이나 걸립니다. 예컨대 제가 황해도에서 낸 것도.

후루카와 : 총독부에 오면 빨리 하겠습니까.

유진오 : 어떤 것이 걸립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것도…….

후루카와 : 반사회적인 것, 반일적인 것은 단호히 단속합니다. 그 외의 순문학적인 입장에서 본 것은 대체로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진오 : 결론까지 보지 않고 압수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후루카와 : 공산주의 방식을 길게 쓰고 마지막 5,6행에서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는 것도 얼핏 결론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걸립니다.

유진오 : 중간 단계가 나빠도 결론이 좋으면 상관없지 않을까요?

후루카와 : 그렇지 않습니다. 도중이 나쁘다고 지금 말한 것처럼…….

하야시 : 이제 이 정도로 합시다. 한 잔 하면서 계속 얘기 나누도록 하죠. 이 좌담회는 일본의 『문학계』에 게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박수).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

[주] 이 좌담회는 10월 하순 하야시 후사오 씨가 만주로 가던 도중에 경성에서 계획된 것이다. 입수한 원고는 출석자 교열을 거치지 않았고, 또 시간 관계상 다시 조선에 보낼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도쿄에 있는 무라야마 씨 부분을 제외하고는 가필을 부탁할 수 없었고, 때문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출석자와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바란다.

〈출전 : 『朝鮮文化の將來(座談會)』, 『文學界』 제6권 제1호, 1939년 1월〉

## 2) 쓰다 가타시(津田剛), 국책과 문예 - 문인협회의 역할에 대하여

### 1

최근 세계의 대세가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 나아가는 식으로 바뀐 이후부터는 ‘국책’이라는 말이 지닌 의미가 종래와는 현저히 다른 울림을 갖게 되었다. 종합국력을 발휘하는 것이 현대 국가의 가장 확실한 특징이 된 오늘날, 그 국가의 방침 곧 국책은 모든 국민의 생활 부분에까지 관계를 갖고 있고 또 이를 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모든 문화현상은 예민하게 이에 반응했다. 그래서 문화와 국책이라는 텔리케이트 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문예 또한 문화의 한 분야를 차지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어떤 영향이 있을 터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문인이라는 자는 대개 국책이라는 무겁고 딱딱한 것과 자신들과는 인연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근대적인 자연주의의 발흥으로부터 다이쇼(大正) 시대를 거쳐 쇼와(昭和) 시대에 들어선 동안의 수십 년, 대개 문예는 이러한 국책이라는 선과는 떨어진 곳을 걷고 있었다.

지금 나는 그 좋고 나쁨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현대에 대해 건정한 상식을 갖고 있다면 누구나 여러 문화는, 따라서 문예 또한 반드시 국책의 선에 따라 나아가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음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현대에서는 문예가 국책에 따른다는 표현방식은 아직 제각각이어서 국민이 지닌 문예적인 힘 자체가 이미 종합국력을 구성하는 유력한 한 영역을 형성한다. 그것이 현대 문화현상의 대략적인 본질이자 경향이다. 이를 깨닫지 못한 모든 문화는 현대사회에서 쓸모없는 것이거나 사회의 전진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무력화되거나 배제되어야 할 운명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문예가 국책의 도구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종합국력으로 구성되어야 할 현대의 국가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문화를 국책의 도구로 보는 것이다.

만약 문예가 국책의 도구가 되어버리면 거기에는 이제 페인트를 칠하는 인간과 광고쟁이가 존재할 뿐, 진정한 문예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현대에서 진정으로 문예를 전진시키는 길은 스스로 종합국력의 일환을 형성하는 것처럼 문예를 전개하는 데 있다. 자신을 도구로 보는 것과 같은 근시안적 부류를 배제하는 동시에 사회의 진전 방향을 알지 못하는 구래의 보수자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반동자를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여기에 진정한 새로운 문예의 길이 있다.

## 2

우리 반도에서는 이와는 또 다른 사정이 있다. 그것은 반도가 예부터 특수한 역사를 갖고 있던 지역이고, 일본 문화권과 교류가 시작된 지 아직 비교적 역사가 짧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문제가 있다.

문예에서도 국문<sup>1)</sup>에 의한 것과 언문에 의한 것이라는 두 분야가 있다. 게다가 둘 다 일본 내지와 비교해서 그 사회적인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현저히 계몽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도에 살고 있는 문인이 자각하건 하지 않건 간에, 또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간에 반도에서의 문예에는 그 자체가 지닌 예술적 가치의 문제와 동시에 지도적·교육적인 사회적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여기에 반도의 문인들에게 부여된 특수한 이중성이 있다.

반도에 살고 있는 일부 문인들이 설령 이 일을 자각하지 못하고 또 이러한 역할을 좋아하지 않아도 그것과는 무관하게 사회는 당연한 일로서 문인들을 예술가 외에 어떤 의미에서의 교육자이기를 요구한다.

따라서 반도에서의 문예의 진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합국력의 일환을 구성하며 전개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국민적 교양에 대한 계몽적 역할을 하며 전진해야 한다. 후자는 어쩌면 문예 그 자체에서 보자면 별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를 넓고 높은 입장에서 본다면 두 작용은 문인에게 부여된 큰 역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3

이상의 반도에서 문예의 전진로에 대해 획기적인 사명을 띠고 조선문인협회가 탄생했다. 새로 탄생한 문인협회는 출발점에서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점을 가장 잘 인식한 반도 문예사상 한 시대의 획을 긋는 문인 집단이다. 당 협회는 반도 출신, 일본 내지 출신의 문인들 200명을 회원으로 삼고 큰 희망을 갖고 탄생했다.

원래 이러한 집단은 많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목적 없는 간친회가 되기 쉽고, 또 무책임하고 수미일관하지 않은 구락부 같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탄생한 문인협회는 드물게 보는, 목적이 분명한 출발을 갖고 결합했다. 반드시 유종의 미를 거두리라 확신한다. 그렇지만 물론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회원의 자각과 시국의 진전이 이를 강하게 밀고나갈 것으로 본다.

문인협회는 발회식에서 새로운 국민의 문학을 제창했다. 국문이든 언문이든 모두 순진한 국민으로서

---

1) 일본어.

의 문학이 되어야 함을 논했다. 이를 다소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본론 1과 2에서 논한 것 같이 될 수도 있다. 어쨌거나 문인협회의 탄생은 이러한 의미에서 반도의 문예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전진시킨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려는 사명을 갖고 있는 만큼 임무는 무겁다.

그와 동시에 이 협회가 이론 큰 역할 가운데 또 다른 하나로는 협회의 성립을 통해 그동안 별개였던 일본 내지와 조선의 문인들을 하나로 결합한 일이다. 대부분의 문인들은 초면 혹은 다소 면식은 있지만 함께 일하는 것은 거의 처음인 사람들이었다. 예컨대 간부 박영희(朴英熙) 씨의 시나리오인 <지원병(志願兵)>이라는 영화의 주제가 작사가로 같은 간부인 데라다 아키라(寺田瑛) 씨와 스기모토 나가오(杉本長夫) 씨 등이 맡기로 한 것은 훈훈한 에피소드이다.

아무튼 반도는 지금 모든 방면에서 격렬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문예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문예를 올바르게 강하게 진전시켜야 한다.

〈출전 : 津田剛, 『國策と文藝』, 『朝鮮』 제296호, 1940년 1월, 63~66쪽〉

### 3) 문화운동의 발족(사설)

단지 지나사변<sup>2)</sup>뿐만 아니라 내외의 여러 정세가 오늘날과 같이 긴박해질수록 국민의 생활에 풍요를 제공할 필요가 생긴다. 물론 이 풍요란 사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건강성이 깃든 문화를 가리킨다. 총력운동이 놀라운 실천 영역으로 진군하면 할수록 문화 측면의 보조는 활발해져야 한다.

국민총력조선연맹에 새롭게 설치된 문화부도 이처럼 드디어 그 실천의 일보를 내딛기 시작했는데, 지도 방침으로서 거론되고 있는 “고도국방국가체제의 완수를 목표로 하여 건전한 국민문화의 종합적 발전을 기하”기 위해 과학 사상의 보급, 국민교화의 철저, 예술 오락의 정화, 출판문화의 쇄신, 생활문화의 질실(質實), 실천요강의 구현을 내세우고 있는 것도 일단 납득할 만한 항목이다.

이를 하나하나 나누어 고찰하면, 과학 사상의 보급에는 먼저 기획 협조에 완전함을 기하고 일본적이자 실용적인 방면에서 출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를테면 상아탑에 갇혀 있는 대학 교수들도 직접 가두에 진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국민교화의 철저는 결국 일본정신의 체득이고, 이를 위해서는 족출(簇出)하는 각종 교화단체를 통합하는 일도 운동 이념을 귀일(歸一)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예술 오락의 정화는 곧 각 예술분야를 담당하는 자가 총력정신을 각자의 직역(職域)에서 표현함으로써 대중들이 따라야 할 방도를 알게끔 하는 것을 근본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수사정에 있는 조선에서는 번역이라는 사업도 당연히 고려해야 하는 동시에 그에 앞서 ‘국어’<sup>3)</sup>의 보급이 급선무이다.

출판문화는 신문이든 잡지든 일반 도서를 불문하고 이를 통해 지도정신을 보급하는 부문인 만큼 여

2) 중일전쟁을 뜻함.

3) 일본어.

기서도 언어의 문제를 새롭게 거론할 필요성이 있다. 생활문화의 질실은 결국 각자의 일생생활의 반성 문제에 달려 있고 간소한 생활미라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실천요강의 구현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총력운동 문화부의 실천의 근본은 무엇보다 ‘국어’의 보급이고 내선일체(內鮮一體), 총력, 총궐기, 총대비의 결실은 바로 여기에 배태되어야 함을 고려해 함부로 지엽말절(枝葉末節)에 구애받지 말고 학무당국의 시조(施措)와 맞물려 한뜻으로 ‘국어’보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소문에 따르면 근래 몇 년 동안 대만의 ‘국어’ 보급률은 56%에 달했다고 한다. 이를 반도의 현재 정세와 비교하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요원하기에 분기를 다짐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문화운동 개개의 문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그 근거를 ‘국어’보급에 두어야 한다는 이념을 역설·강조하는 바이다.

〈출전 : 「文化運動의發足」(社說), 『京城日報』, 1941년 2월 25일〉

#### 4) 야나베(矢鍋) 문화부장을 중심으로 조선의 ‘문화문제’를 말한다(좌담회)

일시 : 2월 중순

장소 : 반도호텔

##### 출석자

국민총력연맹 문화부장 야나베 에이자부로(矢鍋永三郎)

경성제국대학 교수 가라시마 다케시(辛島驍)

문화부위원 김억(金億)

경성일보 학예부장 데라다 아키라(寺田瑛)

문화부 다나카 가즈오(田中和夫)

문화부위원 마쓰다 레이코(松田黎光)

보성전문 교수 유진오(俞鎭午)

영화협회 이사장 안전진웅(安田辰雄)

연극협회장 목산서구(牧山瑞求, 마키야마)<sup>4)</sup>

삼천리 사장 김동환(金東煥)

매일신보 상무 김동진(金東進)

매신 학예부장 백철(白鐵)

4) 이서구(李瑞求)의 창씨명.

매일신보사 금본(金本)<sup>5)</sup> 상무 : 이번에 국민총력연맹에 문화부가 새로 설치되어 야나베 선생님이 문화 부장에 취임하셨다는 사실은 이미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이 문화부에 대해서는 매우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을 비롯한 모든 문화단체도 총력연맹의 문화부가 젊어지고 있는 사명의 일익을 분담해야 하는 책임감을 한층 더 강하게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부디 오늘은 기탄없는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조선 문화정책의 향방에 대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백철 매신 학예부장 :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은 문화부 그 자체에 대해서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새로 탄생한 문화부의 존재가 다소 막연하고 그 일의 한계 또는 일의 성질이 분명치 않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 대중들뿐만 아니라 문화부에 참여하고 있는 문화인들도 문화부의 일이 매우 막연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니, 이는 조선에서뿐만 아니라 일본 내지의 익찬회(翼贊會)의 문화부에 대해서도 일반 문화인들의 비평은 막연합니다. 그래서 문화부가 어떠한 주안점을 갖고 있는지, 또 문화부의 의의와 사명 등 문화부의 전면적 활동 범위와 한편으로 점차 중대성을 띠고 있는 시국을 맞이해 문화부로서 어떠한 각오를 갖게 되는지, 그런 점 등을 일반 국민들의 눈앞에 제시하는 것이 문화부의 급선무라고 봅니다. 야나베 문화부장 부디…….

야나베 국민총력 문화부장 : 국민총력연맹 문화부가 대개 어떤 일을 할지, 또 어떻게 하나갈지에 대해 다소 막연하지만, 그것을 먼저 명확히 하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희망이라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아직 문화부의 준비라든가 방침이 완전히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명확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부를 앞으로 어떻게 전진시킬지는 문화부에 종사하는 여러분과 종종 문화부 회의라는 회합을 열어 대강의 항목을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심의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각 방면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일전에 문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방면의 문화인들을 망라해서 문화부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이 문화부위원회는 앞으로 구체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 예를 들자면 음악에 관해서는 음악가, 영화에 관해서는 영화인, 문예에 관해서는 문인 등 각각 그 전문적인 방면에 맡기고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연락회를 여는 등 각각 전문 부문을 거쳐 협의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68명이라는 위원을 선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부의 움직임이 좀 더 명확히 세상 사람들에게 제시되기 위해서는 시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문화부에서는 어떤 방침으로 나아갈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총력연맹 본부에서 그 실천요강을 정확히 정해 두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나아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부디 이런 방침에 따라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각 방면에서 어떠한 형태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 나갈 것인지, 또 그 조직이나 준비와 방법 등은 차차 결정하기로 하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자신의 일을 이 실천요강에 따르는 한편,

5) 김동진(金東進)의 창씨명.



일반 국민들을 지도 혹은 감화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으신 분들이므로 영화, 연극, 미술, 문학, 음악 등 각 방면이 힘을 합쳐 같은 목표, 같은 마음가짐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호소한다면 일역일심(一億一心) 분산하지 않고 이 사명을 완전하게 완수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 각 부문에 계시는 여러분이 국책에 따라, 즉 오늘날 국가가 요구하는 방면으로 국민들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만약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문화부가 언제든 함께 협의할 생각입니다.

요컨대 문화부가 문화인을 이끌어 간다든가 끌고 간다기보다 여러분 자신이 자발적으로 오늘날의 국책에 따르는 문화인을 창조해야 할 것입니다.

## 2

**백철 학예부장 :** 가라시마 선생님, 하실 말씀 없으신지요?

**가라시마 경성제국대학 교수 :** 글썄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말해야 할지 다소 막연합니다만, 문화부의 일이라 하면 문화부장의 배려 속에서 우리는 그저 일을 돕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달리 할 말은 없습니다.

**김동환 :** 야나베 선생님께 이 기회에 평소 제가 생각한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부는 앞으로 어떤 국민층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매우 절박한 중대한 사항이라 봅니다.

그래서 조선의 현 상황을 보건대 반도에는 80만 정도의 일본 내지인이 있습니다만, 이들은 평소 높은 교양을 받고 또 실제로 관청이나 은행, 화시 등의 직장에서 전시하의 황국신민(皇國臣民)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 조선인 층을 보면, 지식층이라 할 만한 것은 오늘날 소학교에서 대학까지의 학생 수가 150만 명이고, 학교를 졸업한 사회인을 그 두 배라고 간주하면 약 300만 명 정도는 대체로 지식계급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2천 만 명은 거의 지식이 없는 문맹계급입니다. 참으로 곤혹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문화부가 앞으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국민층은 80만 명의 내지인도 아니고 300만의 반도 지식층도 아닌, 그야말로 가장 먼저 이들 2천 만 문맹계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올해 지원병 숫자를 보면 13만 명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13만 명이라면 거의 한 가구 당 한 명 꼴입니다. 실로 13만 가정이 움직이고 13만 명의 어머니들이 움직인 셈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원병은 도회지보다 대부분 농어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지원병들의 어머니들은 문자와 별로 인연이 없는 사람들뿐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20세 전후의 청년이 있는 가정의 어머니들의 나이는 40세 이상, 50세에 달하는데, 일한병합 이후 이제 30년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들은 합병 전에 태어난 여성들로 학문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아마 이런 현상에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이후부터는 지원병들의 어머니들도 소학교나 고등여학교 출신자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성급히 이런 어머니들을 학교에 데려가 교육을 시킬 수도 없습니다.

만약 이 어머니들이 교양 있는 부인이었다면 올해도 두 배, 세 배의 응모자가 나왔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물론 문화운동이 지원병 양성에만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아무래도 이러한 시국하에서 지원병 어머니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싶습니다.

요컨대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한 이러한 2천만 문맹층을 교화시켜야 할 텐데, 이를 위해서는 '국어' 보급운동 같은 계몽운동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더 필요한 일은 눈과 귀로 가르치는 연극, 영화, 소설 같은 문화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리라 봅니다. 따라서 문화부의 일의 중점은 반드시 이런 점에 두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야나베 문화부장 :** 김동환 씨가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부에서도 '농촌생활문화운동'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농어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적절히 이끌어 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국의 인식을 높이는 연극이나 영화, 야담 혹은 기타 여러 방법으로 가령 종이연극 등으로 농촌에 적합한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 방면의 여러분들의 협력을 얻어 진행하고자 합니다.

**목산 연극협회장 :** 우리는 조선연극협회라는 것을 결성했는데, 아직 결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별다른 일은 하지 않았습시다. 하지만 봄이 되면 방금 김동환 삼천리 사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방면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즉 농촌위안연극을 통해 농촌 사람들의 교양도 되고 오락도 되는 한편, 지원병에 응모하는 각오라고 할까요, 어쨌거나 국민으로서 알아야 할 것을 인식시키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 지방의 극장, 또 극장이 없는 곳에서는 소학교 대강당을 빌려 10명 내외의 단원이 지방순회를 해볼 생각입니다. 일본 내지나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는 이미 그런 일을 실시해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가라시마 선생님께서 들었고, 중국과 스페인 등에서도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들에게 그런 식으로 연극을 보게 한답니다. 아무튼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당면한 문제는 대본의 필요인데, 이는 우리와 연극협회에서 그 선택에 노력하고 있지만 문화부에서도 부디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현상모집 등도 해주길 바랍니다.

**다나카 문화부원 :** 그렇지만 그런 것은 실시 과정이 어려워요.

**목산 연극협회장 :** 그건 그렇습시다.

**다나카 문화부원 :** 건전한 오락으로서 향토극(郷土劇)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본 내지에서는 그런 것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목산 연극협회장 :** 물론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실시할 수 없겠지만 언젠가 할 작정입니다. 우선 농촌과 각 부락 지도자들과 연락을 취해서 하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다나카 문화부원 :** 또 하나는 연출자와 연기자의 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목산 연극협회장 :** 물론 필요하죠. 도저히 지금 상태로는 어려워요.

**다나카 문화부원 :** 연극협회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목산 연극협회장 :** 네, 바쁩니다. 그런 일까지 함께 해야 하니 말이죠.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 자주 연극을 해서 연기자 자신이 국책에 부응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다나카 문화부원 : 요컨대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것이 이르면 건설적 의의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직접 그 효과가 민중들 속에 깊이 침투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동화하면 좋겠습니다.

목산 연극협회장 : 정말 그래요. 그 일에 대해서는 그 효과를 낼 수 있을 정도의 대본을 다나카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념 하에 선택하고 싶군요.

다나카 문화부원 :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활 일부분이 직접 문화 속으로 잠입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백철 본사 학예부장 : 뭐든 그렇겠죠. 소설이든 음악이든 영화든 전부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데라다 경성일보 학예부장 :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와는 다른 것인데, 제가 경성일보 학예부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38년 1월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경성일보는 학예면뿐만 아니라 가정면을 비롯한 모든 것을 일본 내지의 신문을 그대로 이식했기 때문에 조선적인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지에서 보내오는 통신을 그대로 제목을 붙여 내보낼 뿐이었죠. 사실은 조선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일본화 할 필요가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조선 '로컬' 신문으로서 발전하지 않으면 국민과 친밀해질 수 없고 동시에 판매성적도 나쁘기 때문에 과거의 경성일보와는 완전히 다른 상상도 하지 못한, 조선부인 기사를 입사시켜 먼저 가정방문을 하거나 음식 담그는 법이나 조선의복 만드는 법을 게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게다가 '국어'<sup>6)</sup> 신문입니다. 그 신문이 '국어'의 일반 보급과 병행해서 상당히 조선인 민간에 확산된 것입니다. 특히 학예란에서는 일본 내지 문사들의 집필을 되도록 피하고 조선 거주 문화인들의 원고를 게재하기로 하고, 처음에는 경성제국대학의 선생님, 다음에는 의전(醫專), 법전(法專), 고상(高商) 선생님들의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제 교제가 넓어지면서 조선 문사들에게도 원조를 받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처럼 일본 내지인과도 조선인과도 친밀해지는 것이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일조가 되리라 봅니다. 특히 지나사변이 시작된 이래 그런 생각이 더 깊어지고, 현재 일본 내지의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나 조선의 총력운동과 비교해보면 앞으로의 진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총력연맹으로부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말을 듣기 전에 솔선해서 국책에 부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 한 예로 저희 신문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원고를 받았다 해도 한 번은 반드시 건설적인지를 확인한 뒤 그 원고를 다루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교양 기관으로서 만전을 기하고 그 담당자로서의 책임을 충분히 발휘하고자 합니다.

백철 본사 학예부장 : 지금 데라다 씨의 말씀은 신문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오늘날 문화를 통해 내선일체가 심화하는 문제에 있어서 매우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화제를 바꿔서 앞으로 문화부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본방침이 있으리라 보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에 대해 문화부가 나아가야 할 길이 두 가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요즘 같이 미국이나 외국과의 시국 관계가 절박한 시기에서 조선의 경우에는 비교적 영미문화를 숭배해온 경향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고려해 영미문화를 비판하는 측면과 내부에서 국민문화를 건설하는 측면이라는 두 가

---

6) 일본어.

지 측면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문화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3

**야나베 문화부장 :** 글썄요, 이것은 제 편견입니다만, 일본의 그동안의 문화가 진화해온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는 외래문화를 흡수하는 데 비교적 뛰어난 힘을 갖고 있다는 점이 자칫 일본인은 흉내를 잘 낸다든가 혹은 창조력이 없다는 식으로 오해를 받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 문화가 진보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모든 사물을 흉내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이 축적되면서 다른 뛰어난 창조적인 어떤 것이 나온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또 모방이란 어떤 우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타인의 것이라고 해서 채용하지 않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고, 모방도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비난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간이 소학교에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단지 가르침을 받고 흉내는 내고, 그리고 그 뒤 점차 자신을 보존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와 거의 같은 것이라 봅니다. 즉 일본의 문화는 지금 모방시대와 창작시대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그 진가를 발휘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동양공영권(東亞共榮圈)이 성립하면 태국, 네덜란드령 동인도 등 여러 나라의 문화를 흡수하고 확대해 참신한 문화를 만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외래문화에 대해 경도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일본 문화의 독자적인 것을 동양공영권의 민중들에게 인식시켜 새로운 문화를 수립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요망하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에 부여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철 매일신보 학예부장 :** 유진오 씨 하실 말씀은…….

**유진오 보성전문 교수 :** 현재 조선에는 일본 내지 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인사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지의 독특한 문화를 이해하는 힘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원인은 내지의 학자나 사상가 또는 일류 철학자들 역시 외국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렵게 도쿄까지 유학을 가서도 내지 문화에 대해 존경이나 인식하는 점에 있어서 다소 소홀했던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일본 문화는 비약적으로 전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관념은 머지않아 시정되리라 봅니다. 가령 그동안 니시다(西田<sup>7)</sup> 철학이 큰 관심을 끌었고 우리 학도들도 열심히 이를 연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런 경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선 사람들 중에는 ‘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은 ‘국어’를 통해 내지 문학이나 구미 각국의 문화에 익숙하겠지만 ‘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이 일은 문인협회가 해야 할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일본의 우수한 작품을 조선어로 번역해서 가능한 일본 내지의 작품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리라 봅니다. 종래에 그에 상응하는 번역물도 있었고 뛰어난 문사들에게 의뢰해도 원고료가 맞지 않아 뜻대로 되지 않은 감도 있었는데, 이런 점도 문인협회와 문화부가 협력해서 더 왕성하게 했으면 합니다. 그런 예로는 일전에 히노 아시헤이(火野葦平) 씨의 『보리와 병사(麥と兵隊)』을 번역한 일이 있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이 정도라도 일본 내지의 작품을

7)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多郎, 1870~1945)는 ‘니시다 철학’이라 부르는 철학체계를 만든 인물로 일본을 대표하는 철학자이고 이른바 교토학파(京都學派)의 창시자이다.

번역해서 읽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백철 매일신보 학예부장** : 마쓰다 씨, 화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쓰다 문화부원** :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나카 문화부원** :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중국과 조선으로부터도 문화를 받아들여 일본적인 사상이라든가 풍류를 가미한 고대문학을 인식시키면 좋으리라 봅니다.

**백철 매일신보 학예부장** : 가라시마 교수님, 중국 문학이 일본에 들어와 어떤 식으로 소화되었습니까?

**가라시마 경성제대 교수** : 글썄요, 단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일본 문화의 지속성이랄까요, 즉 유교 같은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유교는 본고장인 중국보다 오히려 그 진가가 일본 내지나 조선에서 발휘되었고, 중국에서는 형식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그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앞서 놓어준 또는 광산 방면의 문화문제에서 김동환 씨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방면에 연극, 영화 등으로 문화를 발전시키려는 것은 대찬성입니다. 다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지식계급입니다. 현재 문화부나 문화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도리어 지식층보다 그 지식층의 통합여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우리 문화부 내부 사람들이 종종 그런 기회를 만들어 그런 방면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건설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백철 매일신보 학예부장** : 김억 씨, 조선의 시인층에 대해서 협력 지도 입장에서 한 마디 하실 말씀은 없으신지?

**김억 문화부위원** : 앞서 유 교수님께서 번역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번역만큼은 문화인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저도 번역에 관해서 한 마디 하고 싶군요. 어떤 문화라 해도 그 문화에 진정한 친근감을 갖는다고 한다면 번역물 정도로는 그 윤곽은 파악할 수 있겠지만, 그 진의와 독특한 미각 등은 도저히 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맹인에게는 “마흔부터 공부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어’ 보급에 극력 노력해서 쉬운 내용을 시작으로 점차 읽히는 것이 적당하리라 보고, 또 그것이 내선일체에 있어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철 매일신보 학예부장** : 앞서 다나카 씨가 국민생활의 일부분이 직접 문화 속으로 침입하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직능을 충분히 발휘해서 국민 대중을 문화에 접근시키는 의미가 아닐까 하고 저는 추측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야스다 씨, 영화 방면에 관해 한 마디 의견을…….

**야스다 영화협회 이사장** :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선에서 다루고 있는 영화는 대부분 일본 내지나 외국물입니다. 그동안 조선 영화도 몇몇 작품을 내기는 했지만 구성이나 기술적으로 매우 빈약합니다. 일반 국민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역행하는 것이 종종 있어서 곤혹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총력연맹 문화부는 영화 방면을 어떻게 지도할 생각인지, 야나베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군요.

**야나베 문화부장** : 이런 갑자기 그런 어려운 문제를 제시하셔서……. 제 의견으로는 지금 조선에는 배우는 나중으로 미루고 일반 국민을 지도할 정도의 인물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그런 방면의 인물을 양성하는 것 외에 방법은 없지 않을까요.

**목산 연극협회장** : 조선 영화의 빈약함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기성 영화를 충분히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조선 전체에 별로 없는 영화극장의 상영만으로는 1만 원이

나 2만 원 정도의 비용이라면 그렇지 않겠지만, 10만 원이나 드는 제작물일 경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요. 그것이 일본 내지나 외국으로 수출할 정도의 작품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지금까지 담보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10만이나 20만 원의 거금을 기꺼이 내놓는 독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자금 부족으로 촬영기나 기타 물건들을 일본 내지 쪽에서 사용한 낡은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좋은 영화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가라시마 경성제대 교수 : 게다가 또 우수한 각본가와 연출가가 없는 것도 원인이 아닐까요? 하지만 앞으로는 조직을 개선해서 크게 비약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유진오 보성전문 교수 : 일전에 <집 없는 천사> 시사회에 갔는데, 조선 영화가 그 정도까지 발전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듣기로는 '수업료'도 좋았다고 하더군요. <집 없는 천사>도 근래 드문 작품이라 봅니다만 영화기술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다나카 문화부원 : 네, <집 없는 천사>는 좋았습니다. 저는 두 번이나 봤어요. 촬영기술도 연출도 전례를 볼 수 없는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일본 내지 영화 수준을 따라잡을 겁니다.

목산 연극협회장 : 빈약한 설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작품을 내놓은 그 내면의 고심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다나카 문화부원 : 자본도 모든 설비도 부족하겠지만, 장래를 대비해 큰 활약을 해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한 가지 어려운 문제는 조선 영화에 대한 국민 심리입니다. 외국 영화를 보고 있던 그들이 재래의 조선 영화에 친근감을 갖지 못하는 것은 무리도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지도 않고 하나에서 열까지 악평하는 것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불란서가 전쟁에 패한 이후에도 여전히 우수한 영화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 국민 심리가 어떠한지를 엿볼 수 있을 겁니다.

백철 : 문화 영화는 어떻습니까?

야스다 영화협회 이사장 : 최근 일본 내지의 문화 영화는 물론 당국의 원조도 있겠지만, 상당히 빠른 템포로 발전하고 있고, 영화사상 특필할 만한 것이라 봅니다. 조선은 아직 빈약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촬영기도 망원 '렌즈'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본 내지 쪽에서 빌려서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외에도 불비한 점이 많아서 그 방면의 활약은 장래에 맡기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목산 연극협회장 : 영화의 매력은 상당히 큼니다. 도회지는 물론이지만 영화관이 없는 농촌에서도 '막사(barrack)'나 광장에서 영사하는 것이 큰 인기라고 합니다.

가라시마 경성제대 교수 : 당국에서도 농촌 영화에 대해서는 열의를 갖고 협력해 주실 겁니다. 그 방면에 좀 더 노력하길 바랍니다.

유진오 보성전문 교수 :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에서는 영화를 영사할 때 설명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출전 : 「矢鍋文化部長を圍んで朝鮮の「文化問題」を語る(座談會)」, 『三千里』 제13권 제3호, 1941년 3월, 40~48쪽〉

## 5) 새로운 '문화단체'의 움직임 - 8단체 간부는 말한다(좌담)

일시 3월 25일, 경성 금천대(金千代)회관 홀에서

|            |                  |
|------------|------------------|
| 조선문인협회 간사장 | 박영희(朴英熙, 芳村香道) 씨 |
| 조선영화협회장    | 안종화(安鍾和, 安田辰雄) 씨 |
| 조선연극협회장    | 이서구(李瑞求, 牧山瑞求) 씨 |
| 조선음악협회 간사  | 김재훈(金載勳) 씨       |
| 조선연예협회장    | 이철(李哲, 靑山哲) 씨    |
| 극작가동호회장    | 유치진(柳致眞) 씨       |
| 조선미술가협회 간사 | 심형구(沈亨求) 씨       |
| 국민연극연구소장   | 함대훈(咸大勳) 씨       |

새로운 정열과 신체제의 이념에 따라, 이제야 우리 반도의 새로운 문화운동은 각 부문의 조직을 각각 마치고, 바야흐로 발족하고자 하는 자세가 되었습니다. 당사에서는 이러한 각 단체 간부로부터, 그 포부를 여쭙는 좌담회를 열었으나, 시간과 준비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충분한 성과를 얻지 못했으나,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2차, 제3차 좌담회를 열고, 이것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독일문화원의 조직을 살펴보면,

- 1, 독일국 도서국
- 2, 독일국 신문잡지국
- 3, 독일국 라디오국
- 4, 독일국 연극국
- 5, 독일국 음악국
- 6, 독일국 미술국
- 7, 독일국 영화국

### 지방문화진흥에 대한 구체안

본사 측(김동환=白山靑樹) :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빠짐없이 출석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저녁에는, 지금부터 만들고자 하는 각 단체의 사업플랜이나 포부 같은 것을 듣고자 초청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과 같이 신체제이념 아래서, 문화 각 분야에서 각각 새로운 단체가 결성된 것은 아마도 병합 이래, 처음 있는 장관(壯觀)으로서, '신체제문화와 국민오락'의 건설이, 한창 창도(唱導)되고 있는 오늘날, 민중은 여러분의 활동에 대단한 기대를 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야기를 여쭙기로 하겠으나, 다만 단체의 간부라는 입장이 아니더라도, 개인입장에서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전시 하에서의 우리 반도에서는 어떤 문화활동을 통하여, 어느 층에 어떠한 식으로 작용해야 할까요, 너무 어려운 이론은 빼고 실제 사실에 맞는 정책이나, 계획 같은…… 그 구체안을 여쭙고 싶는데.

**박영희(문인협회) :**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 해 봅시다. 문인협회가 결성된 것이, 제작년 겨울이었습니  
다만, 그동안 우리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먼저 문화를 통하여 신체제이념을 넓히고자 생각해서,  
내선문인이 전부 일어나, 전 조선 24개 도시에 두 번이나 강연활동에 나섰습니다. 인텔리 청중 4,  
5만의 공명은 얻은 것 같습니다.

또 ‘국가문화건설’의 입장에서, 제도(帝都)의 유명한 군사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기도 하고 지  
원병훈련소나 부대에 입영과 견학, 그리고 내선일체의 발상지인 부여(夫餘)로 근로봉사대를 보내는  
등의 일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협회원 2백여 명은 애써 시가(詩歌)나 소설 등의 창작을 통  
하여 항상 국방사상을 보급하고 내선일체의 정신 고취에 노력해 왔습니다.

이후도 이와 같은 작업을 끊임없이 계속하고자 합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내지에도 연락을 해서, 전  
시출판물의 발행 및 그 전람회 등을 개최하고 또 ‘문학의 저녁’도 개최할 작정입니다.

**본사 측 :**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만, 곁들여 농산어촌의 대중을 상대로 무엇인가 문학적으로 계획하는  
바는 없을까요.

**박영희 :** 그것은 ‘중이와 자본’만 허락한다면, 알기 쉬운 팜플렛이나 ‘그림이 들어간 문고본’ 같은 것의  
출판물을 만들어서, 널리 보내고 싶습니다. 조선은 아무튼 이후 10년 뒤인 1950년도가 아니면 의무  
교육제가 보급되지 않으며, 지금도 문맹층이 7, 8백만이나 있으므로, 학교교육을 보충할 필요에서도  
간이 교화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편 국어보급을 철저히 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상세한 것은 또 다른 기회에 말하겠습니다.  
다. 아무튼 우리는 문필인들이기 때문에, 문학을 통하여 위대한 국민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싶은  
것입니다.

**본사 측 :** 잘 알았습니다. 문학도 그러합니다. 지금 총독부나 연맹 쪽에서는, 농산어촌에 ‘건전한 오락’  
을 보내도록 대단한 열의를 표시하고 있으나, 무엇인가 연예협회 쪽에서도 그런 계획이 없을까요.

**이철(연예협회) :** 네. 지금 ‘이동 연예대’를 편성하는 중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이미 사변 이래 “황군장병  
의 위문”에 전력을 다 하고, 지금까지 북지, 중지, 북만으로 몇 차례나 위문연예에 나갔었습니다. 그  
래서 북쪽은 신경, 가목사(佳木斯), 목단강으로부터 남쪽은 북경, 제남, 청도, 석가장 등 16, 17개소를  
돌았고, 내지에도 도쿄, 오사카 등과 같이 ‘백의용사’에게 약간의 위안을 주었으며, 이후에도 물론 제  
일선 장병에게 봉사를 하겠으나, 또 한편 농산어촌의 가난한 대중에게 건전한 오락을 주고 싶습니  
다. 그러나 아무튼 조선은 넓어서 면만도 2천여 개가 있으므로 이러한 곳에 전부 보낼 수는 물론  
없겠습니다만, 먼저 한 부대에 7, 8명에서 12, 13명씩을 편성하여, 약 10부대쯤을 중요지점에 보내고  
싶습니다. 즉 몇 천, 몇 백 명과 함께 있는 광산부락이거나, 멀치어부들이 모여 있는 어촌이나 그러  
한 집단부락에 보내고 싶습니다.

**본사 측 :** 어떤 모습으로 편성하겠습니까. 또 경비에 관한 것은.

**이철 :** 연예협회에는 가극이 있으며, 무용도 있고, 만담이 있으며, 교향악단이나, 인형극도 있어서, 개략  
적으로 연예라는 이름이 붙는 모든 오락단체 17개가 결성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가무나 마술에서부



터, 간단한 연극(芝居) 등을 섞어서 만들어 갑니다. 물론 신체제이념을 골격으로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웃으면서 시국인식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경비가 문제지만, 내지의 사례를 보면, 익찬회(翼贊會) 생활지도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돈을 물 쓰듯이 하고 있었으며, 그렇지 않으면 ‘도호(東寶)’와 같이, 1년에 몇 만 엔을 국가봉사비로 책정하여, 처음부터 써 버릴 셈으로, 희생적이라 할 만큼 활동을 하고 있지만, 조선에서 우리 같은 입장의 것은 몇 만 엔을 실제로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결손이 없이 이것을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평양, 대구 등의 대도시에서는 순전히 ‘홍행’을 하고, 이익을 올려서, 그 돈으로 멀리 있는 벽지로 나섭니다. 요는 주재소나 면이나 연맹지부에서, 장소라든지 청중을 잘 모아주면, 이일은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사 측 : 영화 쪽은 어떻습니까. 내지의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 쪽에서는, 이미 16밀리 영사기를 이용하는 순회영화반을 만들어서, 전국에 70개반을 파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래에는 6백개반을 만들어서 연속해서 돌린다고 하는데, 조선에도 아쉬운 대로 1, 2백개반은 돌리고 싶습니다.

안중화(영화협회) : 지금 조선에는 영화관이 설치된 도시가 약 30군데 쯤 있고, 나머지는 1년에 한두 번, 소학교라거나 면사무소의 홀을 빌려서 관청영화를 상영할 정도가 아닐까요. 아무튼 국민교화의 도구로는, 무솔리니도 이야기한 바 영화가 최강의 무기이지요, 독일에서도 나치스당 선거전에, 군비확충에, 반영(反英)사상 선전에, 참으로 위대한 활약상을 보이고 있으나, 과거 조선에서의 영화라고 하면, 너무나도 상업적이고 저속한 영화만이 발호(跋扈)했지요. 최근에 와서 겨우 내지에서 <흙과 군대>라든지 <5인의 척후대>와 같은 이른바 국책적인 영화가 수입 되었으며, 반도에서 만들어진 것도 <수업료>, <지원병>, <집 없는 천사>, <승리의 뜰> 등이 나오게 되어서, 매우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는 바이지만요.

이 농산어촌에 “좋은 영화를 보내자”고 행동을 시작했더니, 첫째 좋은 작품이 드문 것입니다. 도쿄로부터 배급되는 내지 영화는 언어나 습관상 조선농촌용으로는 맞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관청영화는 딱딱하며…… 그럼으로 우리가 할 일은 연극과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우선 농촌용 영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군소영화회사의 난립으로는 자본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금년 7월까지 영화사의 통합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우수한 영화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전에도 ‘문화영화’나 단편영화의 제작을 바랄 수 있겠지만, 역시 재미가 있는 줄거리와 우수한 기술에 의한 좋은 영화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오락에 굶주린 농민일지라도 달가워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전 국민의 모든 계급과 지역으로 빈틈없이 선전과 교화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사 측 : 대체로 영화의 관객은 전 조선에 얼마만큼 있을까요.

안중화 : 글썽요, 확실한 통계는 손에 쥐고 있지 않으나, 연인원 1천 7, 8백만 명 정도겠지요. 더욱이 해마다 2백만 명 정도로 영화관객은 급속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본사 측 : 조선 내에 있는 제작소와 자본투자액은 어떻습니까.

안종화 : 2, 3년래, 영화사업이 더욱 더 번성해져, 제작 본(작품)수는 11개, 70여 권, 거기에다가 관청 쪽의 것까지 넣으면 20분을 넘겠지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제작된 “조선영화”의 총 본수는, 나운규(羅雲奎)의 〈아리랑〉 이후, 2백분을 넘겠지요. 현재 투입되고 있는 각 회사의 총자본은 백만 엔이 넘으며 제작소는 조선영화, 고려영화 등 9군데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사 측 : 연극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함대훈(국민연극연구소) : 현재의 경우 선결문제는 불건전한 도회문화를 그대로 보낸다고 해서, 해는 있어도 이익이 없고 오히려 ‘지방문화진흥’의 과제와는 서로 반대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데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먼저, 진정으로 국민문화를 담당하기에 충분한 연출자와 배우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산사업에 더 한층 열심히 하고, 근로 민중에게 농촌오락을 제공한다고 해도, 외설적이고 저속한 가무연극을 제공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으로 제 연구소에서는 먼저 연극인을 양성할 작정으로, 4월부터 3개월간 단기강습회를 열어 약 30명 정도의 신인을 양성하겠습니다. 강사로는 군부, 본부(本府), 연맹을 비롯하여 폭 넓은 문화 분야의 여러 선생께 부탁하여 그야말로 착실한 새로운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신체제적, 연극 실천의 전면적인 전개는 그 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진(극작가동호회) : 물론 그렇습니다. 새로운 각본에, 새로운 연출자와 배우 - 먼저 이것을 얻지 않으면 예술적인 실천은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연극운동은 자연히 두 갈래로 나누어져서, 하나는 도회의 교양이 높은 인텔리 층에, (이것은 고정극장을 가지며) 또 하나는 순회식이동연극의 형태로 일반대중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현대극장’이라고 하는 신극운동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많은 상업주의극장이 아닌, 그야말로 진짜 국민극 수립의 요람답게 하는 것이나, 현재는 농산어촌의 연극이야기로, 이것을 먼저 이쪽부터 보내는 것도 좋겠지만 수천이라고 하는 부락으로 빠짐없이 보급하는 것은 도저히 바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각각 향토적인 아마추어 연극 육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방에 따라서는 그 지방 독특한 민요와 전설이 있는 것처럼, 지방풍토에 맞는 연극이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것을 취급하며 좋은 지도자 손으로, 재조직하여 그들 자신의 연극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흙냄새와 햇빛에 가득 찬 소박한 연극이야말로 농민노동자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나라에 봉사하는 셈으로, 20개 정도의 이동연극반을 조직해서 전선(全鮮)에 순회시키고 싶은데, 반 한 개에 연 1만 엔씩 쓰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비에 관해서는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20반을 순회시키면, 3천 정도 있는 각 부락에 연 1회 정도는 순회시킬 수 있을 예정인데요.

함대훈(국민연극연구소) : 그리고 또 하나, 시기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향토문화와 동떨어진 연극을 보내봤자 쓸모가 없는 것처럼, 또 그들이 원하지 않는 시기에 보내봤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동연극대는 모내기가 끝난 때라든지 수확이 끝난 후라든지 때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훈(음악협회 간사-경성음악학원장) : 저는 오랫동안 독일에 살아서 잘 아는데, 나치스는 위대하지

요, 극장에 국립, 시립, 주립이 있으며, 전국에 2백 3십 개나 있었지요. 사립극장은 불과 5십 몇 개, 연극과 같이 유효한 교화기관을 개인에게 맡기는 것은 국가의 손실이라고 생각하지요. 마치 우리가 '학교'의 필요성을 보는 것 같아요.

이 밖에 농민극장 13개, 방언무대와 저(남부)지방 독일어 방언을 존중하는 무대가 서른 몇 개, 여름에는 야외극장 30개가 있으며, 큰 것은 2만 5천명도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극대는 끊임없이 조국애를 불러 넣지요. 그리하여 해마다 '독일연극제 주간'을 대대적으로 개최하지요. 그러나 현재의 조선의 경우, 제 생각으로는 연극은 독자적으로가 아니라, 음악부분과 서로 제휴하여 서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에는 다행히 민요가 왕성합니다. 남쪽에 가면 〈육자배기〉, 〈성주풀이〉 북쪽으로 가면 〈수심가〉 등등 황당무계한 줄거리는 개작하고, 야비한 가사는 새로 만들어, 리듬을 존중하면서 그와 같은 소박한 민요를 간단한 악기에 맞추어 연주하면서 순회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단오, 추석, 칠석, 설이라거나 그런 때에 전국적인 연극, 음악의 제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년에 수십만 장이 팔린다고 하는 현재의 유행가를 정화했으면 합니다. 가정에서 안심하고 자녀에게 부르게 할 정도로 정화했으면 합니다. 지금 같은 것은 완전히 극도로 비천하여 신체제에 역행하는 노래가 거리에 범람하고 있지요. 그리고 저희 협회에서 이번에 '음악보급주간'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즉 신체제에 맞추어 전선적으로 음악운동을 일으키게 되어, 처음으로 제1회 음악보급주간을 6월 1일부터 1주간 실시하고, 이 기간에 경성부민관에서 조선음악, 일본음악, 교육음악, 경음악, 양악 등 5개 부문이, 각각 가장 잘 하는 것을 연주하기로 되어 있다. 그 마지막 날은 애국가를 소리 높이 부르는 날로 정하여, 경성운동장에서 경성의 전 중등학교 생도를 모아서, 애국가를 소리높이 부르도록 각 학교당국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이것과 병행하여 6월 4일에서 8일까지 경성 미쓰코시(三越)에서 음악 관련 문헌, 악기, 사진 등의 음악전람회를 개최합니다.

**이서구(연극협회) :** 지금의 수확(추수)제라거나, 중양절(重陽節) 같은 날에, 음악을 넣은 연극을 널리 보급하는 것은, 조선의 현실에 알맞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민중 자신의 전래의 춤이나 연극이 있지요. 황해도도의 〈봉산 탈춤〉이나 〈산태도감〉, 춘향전, 심청전 같은 것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조금 손을 보아 넓혀 나가고 싶습니다.

제 협회 측에서는, 지금 9개의 연극단체로 결성되어 있는데, 우선 이동연극대로 3개 반을 만들어서, 남선, 북선, 서선을 중점적으로 순회하도록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도로 성지(聖地)의 부여 말인데요, 거기에 신궁봉납(神宮奉納)의 '연극대'도 보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몇 천, 몇 만이라고 하는 근로봉사대가 부여로 밀려들고 있지만, 내선일체의 지나간 과거의 사실(史實)에 제목을 붙인, 엄숙한 연극을 여기에 보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제 조선은 연극이 매우 잘 수용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체제를 입으로 설명하기보다, 서책을 주는 것보다 영화와 연극을 통하여 보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요. 다만 오늘날까지의 조선영화연극은, 영리주의 위주로 발달해 왔기 때문에, 사상 선도라거나 건전오락의 공급이라는 문제가 걸리면, 여간 확실한 지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형구(미술가협회) :** 그 점이라면 연극, 영화, 음악과는 달리, 미술쪽은 대중용으로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전(鮮展)이 금년으로 20년 계속되고 있으나, 이것은 주로 경성의 예이며, 그 밖에서는, 지금까지 기껏 미술전람회를 열 정도였다. 지금부터 우리는, 본부나 연맹이 군부의 선전용 포스터도 그리고 싶으며, 전쟁터에 화가를 보내서 용감한 싸움의 모습도 그리며, 후방 국민정신을 끌어올리고 싶은 오늘까지에도, 화신이나 미쓰코시의 갤러리에서 중군화가의 전람회를 했지만, 이후에도 더욱 더 왕성하게 하고 싶습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는 협회결성기념일 가까이에 전람회를 엽니다. 소 작품을 모으고 있는데 매각 대금은 협회의 기본금에 충당할 작정입니다. 또 작품의 일부분은 국경지역의 위문용으로 헌납할 작정입니다.

본사 측 : 각 협회마다 모두 각각 '지방문화진흥' 안을 잘 들었으나, 이제부터는 기후도 좋아지고 민심도 일신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올봄부터 왕성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서로 연락을 하면서, 연극과 음악을 짝짓거나 강연과 영화를 짝짓거나 혹은 남선에 영화협회가 순회할 때, 서선에는 음악협회, 북선에는 연극협회와 같이 지역적으로, 협조가 있으면 합니다만, 이러한 일은 아무래도 연맹의 문화부 같은 데서 조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내선문화의 교류에 관하여

본사 측 : 다음으로 '내선문화의 교류'라고 하는 관점에서, 도쿄, 오사카 같은 곳과 어떤 교섭을 가졌으면 합니다.

박영희(문인협회) : 작년에 키쿠치 간(菊地寛), 구메 마사오(久米正雄) 등 여러분이 조선을 방문했을 즈음에도, 이러한 화제가 나왔습니다. 가능한 일이라면 문인협회의 손으로 도쿄, 오사카 등 주요도시에서 조선 문화강연회와 도서 전람회 같은 것을 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항구적인 것으로 근본에 입각하여 국어로 문학잡지를 내고 싶은 것입니다.

안중화(영화협회) : 영화 쪽에서는 참으로 수많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시미즈(清水)감독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아름다운 제목입니다. <여인 전신(轉身)>이라거나, 가깝게는 "수업료"의 주연으로 우스다(薄田) 씨를 초빙했습니다. 향후는 배우와 연출자의 교환도, 초빙도 많게 되겠지요. 무엇보다 조선영화는 밖으로부터 배울 곳을 많이 가졌으므로, 기술 등을 향후 도쿄 방면과 밀접한 연계를 취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서구(연극협회) : 이 문제는, 국어라고 하는 언어 방면에서 해결하면서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영화에서도 자막에 일문어판을 넣을 정도 가지고는 아직도 조선영화가 본연의 모습 그대로 내지인에게 환영 받지 못하지요. 연극은 순전히 대화로 시작하며 끝나기 때문에, 조선말인 채로 도쿄나 오사카 시장에 내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도 빨리 국어극을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이철(연예협회) : 그 점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선 장병의 위문연예 때는, 서투르지만 국어로 일관되게 했습니다. 또 도쿄 대학에 가서도 특별한 것을 빼고, 국어로 노래하고, 국어로 예(藝)를 하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조선인들은 어학적으로 뛰어나며 재능을 갖고 있어서 수련을 거듭하면 잘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일극(日劇)과 제휴하여, 흥행몰이를 양쪽에서 서로 내며, 도쿄 무대에 내기로 하였습니다. 또 연예를 통하여 ‘국어’<sup>8)</sup>보급에 관한 것을 생각할 때, 아무래도 ‘국어극’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 연맹이나 당국에 드리는 말

본사 측 : 경성만의 예를 들면, 하나의 흥행몰이 어느 정도의 관객이 모입니까.

김재훈(음악협회) : 고급 인텔리 층의 음악 팬이 1천명은 있습니다. 부민관 같은 곳에서 음악회를 하면 1천명은 모입니다. 입장료를 1엔 이상을 받고 말입니다.

유치진(현대극장) : <마의태자>극을 이번에 상연했는데, 약 3만 명은 관람했지요. 1엔의 입장료였었는데.

이철(연예협회) : 우리 쪽에서는 악극단이면, 5만 명은 쉽게 모입니다. 입장료는 1엔 5십전 이상을 해서…… 물론 흥행몰이 뛰어난 것이 아니면 안 되지만.

안종화(영화협회) : 93만 명이나 살고 있는 경성이니까, 영화 쪽은 더 많이 있습니다. “민족제전” 같은 때는 수십만을 헤아렸지요. 외화가 아니고 조선영화의 예를 든다면 “수업료”나 “집 없는 천사” “여로” 등에는 5, 6만은 확실하게 되었겠지요.

본사 측 :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각 협회에는 어느 정도의 자금이 있습니까.

함대훈(국민연극연구소) : 현대극장과 저희 연구소와 합쳐서, 3만 엔은 만들어졌습니다.

이서구(연극협회) : 저희 쪽은 1만 정도의 자금은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상당한 자금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안종화(영화협회) : 저희 쪽은 지금은 겨우 천 엔 정도이지만, 곧 상당액을 모을 작정입니다.

본사 측 : 문화운동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당국이나 연맹에게로 무엇인가를 부탁할 일은 없습니까.

함대훈(국민연극연구소) : 많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대도회지에 연극전문의 극장 건립이 욕심입니다. 경성을 보아도, 영화관은 열이 넘지만 연극 전문관은 없습니다. 겨우 부민관을 빌려서 급한 불은 끄고 있으나, 이래서야 기대하고 있는 신극운동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은 민간에서 얼마든지 낼 사람이 있으므로, 극장허가를 내어 주든지, 아니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영화관 중에 하나나 둘을 극 전문 쪽으로 돌려주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긴급한 일이므로 당국에서 꼭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사 측 : 독일에서는 에밀 야닝스(Emil Jannings) 같은 배우를 칙임대우를 하고, 또 군사영화촬영자는 영관급에 임명한다든지, 철저하게 법적으로 대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만, 총독부에 대하여 무엇인가, 지위나 신분보장을 바라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연금이라든지 상금제도의 실시 같은 거.

안종화(영화협회) : 직접 총독부의 관리대우가 아니더라도 좋으니까, 관공리의 여러분이 우리의 일을 충분히 이해하고 협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영희(문인협회) : 문학상 제도를 설정할 것을 바랍니다. 한 사람의 국민시인, 한 사람의 천재적인 소설가가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정신적인 부(富)를 증가시키는 것이 되고, 정부는 그를 위해

---

8) 일본어.

충분한 기회와 보호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사 측 : 그러면, 이정도로……

불임 : 국어숙기에 익숙지 못한 탓으로, 몹시 서툰 필체가 되었습니다. 문책(文責)은 기자에게 있습니다. 관용을 바랍니다.

—어느 일 기자—

〈출전 : 「新らしき文化團體の動き - 八團體幹部は語る」,  
『三千里』 제13권 제4호, 1941년 4월, 64~74쪽〉

## 6) 야나베 에이자부로(矢鍋永三郎), 반도문화의 신체제

문화라는 말이 사용된 지 이미 오래되었고, 또 문화라는 말의 내용도 거의 하나의 범위로 사용되고 있는 듯하므로 새삼 문화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나에 관한 천착은 필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문화라는 말이 문화만두(文化饅頭)나 문화전병(文化煎餅) 따위의 형용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경박한 사용에 대하여 일단은 반성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생활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근대 서양풍의 생활양식을 흉내 내는 것의 의미로 쓰여졌다고 생각된다. 이 역시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화라는 말은 그러한 의미의 말이 아니라고 본다. 문화라는 것은 적어도 인간이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갖고 생활이나 학문이나 예술 등을 탄생시키려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다. 요즘에 과학한다는가 예술한다는 등 이전에는 없었던 말을 사용하곤 하는데, 이러한 말이 사용되는 것은 그 뒤에 문화라는 것의 의미가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과학하고 예술하는 과정 속에 문화라는 것이 나타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문화생활이라는 말의 의미도 그런 의미에서의 문화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점에 문화생활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

어떤 식으로 해나가는지가 문화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 노래를 부르는 것도 그림을 그리는 것도 우리 행위의 하나이지만, 그것이 문화 그 자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그리는가 하는 점에 문화의 큰 의미가 있다. 저속한 유행가를 부르는 것도, 청신하고 순아(醇雅)한 가요를 부르는 것도 모두 노래를 부르는 것이지만, 어느 쪽이 문화적이나고 한다면 후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가 하는 점에서 후자가 더 뛰어나기 때문이다. 무엇을 위해 노래하고 무엇을 부르고 어떻게 부르는가 하는 점에서 후자는 적어도 전자보다 더 뛰어나다. 문화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음악이라고 하면 그것이 곧바로 문화적인 것이 되는가 하는 점은 일단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만두가 되거나 문화비누가 되기도 한다. 아침에 빵과 수프를 먹는 서양식 양식만이 문화가 아니고, 우리 생활에 가장 적합하고 영양가가 뛰어나고 위생적인 식사가 우리에게서 분명 문화적일 것이다. 우리 먼 조상들의 식사는 오늘날의 찰밥이었다. 그래서 『만엽집(萬葉集)』<sup>9)</sup> 시대에는

9) 만요슈. 현존하는 일본 최고(最古)의 시가집. 나라(奈良) 시대 말기에 완성되었다. 전 20권. 400년경에서 759

여행을 떠날 때면 밥을 메밀жат밤나무 잎에 싸서 먹었다. 하긴 그렇게 해도 식사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딱딱한 찰밥에서 부드러운 오늘날의 흰 쌀밥으로 바뀌었다. 그릇에 담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편이 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또 분명 편리하다. 이는 식사의 진보이자 문화적 발전이다.

문화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인데,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문화적인 것이라 부르고 문화의 관련 범위라고 생각한다. 가령 학문, 종교, 도덕, 과학, 예술 등은 문화와 관련된 것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거기에 뜻을 품는 것이 그런 분야에서 뛰어난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며 문화적인 노력인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자체는 우리 생활의 전부 혹은 일부와 관련되어 있는 일이다. 우리는 생활 속에 종교적인 부분을 갖고 있고 도덕적인 부분도 갖고 있으며, 과학적, 예술적인 여러 부분을 갖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뛰어난 생활을 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객실의 벽자도 영터리로 걸 수는 없으므로 역시 거기에 자신의 느낌에 맞는 좋은 것을 걸게 된다. 이처럼 우리는 생활에서 문화적인 생활에 주의하고 있으며 우리 생활에 문화는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련이 있다. 아니, 오히려 생활 그 자체가 문화의 추구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때 우리 생활이 뛰어난지 그렇지 않은지는 곧바로 문화적이냐 문화적이지 아니냐는 셈이 된다. 이를 한 단계 더 높여 국민생활이라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다도 마찬가지다. 국민생활이 뛰어나다는 것은 문화생활이 고도(高度)라는 의미이다. 문화도가 높은 생활을 하는 국민이 뛰어난 국가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셈이 된다. 국가 역시 문화의 소산이고, 국민이 문화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국가도 뛰어난 국가가 되는데, 국가 자체가 그러한 동시에 국민생활의 문화적인 향상이 국가를 높이는 큰 원인이 된다. 국민생활이 문화적으로 향상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을 높여가는 데서 시작되는데, 그 동안 이러한 일은 매우 자유롭게, 이를테면 방임된 형태였다.

대체로 문화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독일의 문화철학이 들어온 이후로 보인다. 문화적인 것은 물론 태고 적부터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런 것을 문화라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또 문화 그 자체의 입장에서 고찰하는 것 등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더군다나 그것은 개 개인이 자유롭게 제멋대로 고찰하여 완전히 방임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자유주의적인 시대에 국가의 전체적인 입장을 떠나 제멋대로 논의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래서 안 되게 되었다. 오늘날의 세계정세는 그러한 자유주의적인 사색으로는 국가의 존립에 기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문화에 대한 사고방식도 국가적인 입장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일찍이 학자는 소위 상아탑에 틀어박혀 세상과 아무런 교섭을 하지 않아도 무방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예술가도, 자기 자신만이 만족하는 소위 예술가형 생활이나 행동이 세상에 통용되지 않게 된 것이다. 모두가 하나의 국민이며 이 중대한 시국을 짊어진 국민으로서 함께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하는 사태에 직면하여 엄숙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행동하게 된 것이다. 문화 자체에 있어서 기존의 세계주의적, 순수주의적인 것은 통용하지 않게 되었으며, 우선 국가적이고 국민적인 사고방식 아래 재고할 필요가 생겼다. 하나의 방향은 분명하게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이해하고 문화가

---

년에 이르는 약 350년간에 걸친, 약 4500수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나아가야 할 길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그 재편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문화의 개개 분야에 대해 말하는 동시에 문화의 종합적인 표현이기도 한 국민의 생활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문화가 기존의 자유주의적이고 서구적인 것에서 국민적이고 일본적인 것으로 방향을 변경했다는 것은 일지사변(日支事變)<sup>10)</sup>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일부에서는 감지되고 있었다. 그런데 일지사변이 장기화하고 국제간의 동향이 점차 그 모습을 드러냄에 따라 선진국이자 문화적으로 높다고 여겨지던 나라들이 실은 우리의 적성국이었던 것이고 자유주의적이고 서구적인 문화의식이 그 나라들에 기대는 바가 컸던 만큼 국민적이고 일본적인 방향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중시되었다. 물론 전체주의국가인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동향에 자극받고 있다는 점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메이지(明治) 이래의 서구적 경향에 대한 깊은 반성이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는 이제야 자신의 세계를 되찾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그 침로는 자연히 국민적인 것, 일본적인 것임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일본적인 문화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 일본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 방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시간적으로, 다른 하나는 장소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일본적인 것은 역사적·전통적인 문화가 그 대상이 될 것이다. 회화에서의 고전적인 수법에 대한 시도, 문학에서의 고전주의 등의 예술적인 것에서부터 교양에서의 유교적, 무사도적인 경향, 고대정신으로의 복귀라는 점에까지 광범위한 세계에 걸쳐 전통의 재인식 존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한 과거의 문화적 소산에 착안해서 회고하는 것은 더 나아가 새로운 다음의 비약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단지 회고에만 머물 경우에는, 물론 그것은 분명 일본문화일 수는 있지만, 과거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어제라는 역사의 온상 위에 새롭게 피는 꽃이야말로 회귀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의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새로운 문화의 창조라는 것이 전통으로의 복귀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완전히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과거로, 다른 하나는 미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일본적이고 국민적인 문화의 존재방식이다.

장소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시간적인 측면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경향이 있다. 즉 국내적인 고유문화에 입각해 생각할 경우와 국제적으로 발전하는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고유문화뿐만 아니라 외국문화를 섭취하고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가령 학문에서의 이론이나 기술에서 현재의 우리나라는 후자의 입장 서는 것 이외에 발전 방법이 적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측면도 요컨대 두 가지 상반되는 방향이 문화 자체에 내포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전통적인 고유문화라는 것과 발전하는 현대 일본의 국제성을 기초로 한 일본문화의 국제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오늘날의 문화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이율배반이 이미 이론적으로는 통합·지양되어 국제성을 지닌다 해도 그 기초가 전통을 벗어나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 전통 안에 국제적 발전성을 내재하고 상호 의존하는 관계에 있음을 우리는 철학자로부터 배웠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이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이다. 구체적인 문제를 예로 들어 생각한다면 동아공

---

10) 중일전쟁.



영권(東亞共榮圈) 건설의 대사업을 앞두고 지도 세력인 일본이 단지 군사상의 지도세력에 그친다는 것은 무의미하며 당연히 문화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는 매우 당연한 말이지만, 그렇다면 어떠한 입장에서 일본문화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언제나 두 가지가 마련되어 있다. 하나는 고유한 일본문화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문화의 국제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어디에 중점을 두는가 하는 차이가 종종 논란을 일으키는 근원이 된다. 어쨌거나 이를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오늘날의 일본문화는 국제적으로 중대한 국가의 지위에 있어서, 국내의 문화와 문명의 고도성은 그리 간단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 고유문화로 추진하는 데서 우리는 참으로 민족적인 바람직함을 느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활적인 방면에서는 일본의 풍토를 조건으로 발생하고 육성된 문화는 일본의 풍토와 다른 조건을 가진 땅에는 적용하기 어렵든가 변형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동아라 할지라도 온대에서 열대로 향해 확산된 지역에서는 협의의 일본 고유문화라는 것은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다. 다음으로 일본문화가 지닌 국제성에 관점을 둘 경우 종종 외래적인 것이 이를 대체할 우려가 있다. 가령 어느 지방의 특수성에 적합하다는 점에만 중점을 둘 경우 본래의 일본문화가 지닌 정신을 왜곡하는 일이 종종 생기는데, 이는 국제적 통용성이 빠지기 쉬운 점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해답은 적당히 상호 참조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의 일본문화는 단순한 고유문화만의 고양이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진출성을 유지한, 상당히 광범위하고 복잡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분수도 모르고 자신을 과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함부로 외국추종을 해서도 안 된다. 여기에 국민문화의 큰 성격을 생각할 수 있고, 국민생활의 문화면의 의의가 명확히 드러난다.

반도의 문화도 이러한 선에 따라 생각해야 한다. 이 선 안에 반도의 특수사정이 반영된다. 반도 문화는 일본의 국민문화 건설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는 움직일 수 없는 숙명이다. 반도에는 일본문화와는 다른 오래되고 고유한 특수한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하게는 일본문화라고는 할 수 없다. 지역적으로는 우리 국내에 있지만 옛 모습 그대로는 일본문화가 아니다. 하지만 한국병합 이후 일본문화로서 재출발하게 된 것이다. 일본문화의 일익으로서 일본문화의 발전에 익찬(翼贊)하게 된 것이다. 이 협력이 이루어지는 곳에 반도 문화의 존재의의가 있다. 이 협력이 없는 곳에는 일본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일찍이 민족주의적인 경향을 갖거나 공산주의적인 경향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잘못이라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고, 만주사변 이후에는 반도 전체에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적극적으로 일본문화 건설에 협력하고 있다. 특수성을 지닌 반도 문화도 일본문화 건설에 대한 협력 아래 비로소 일본의 국민문화가 될 수 있었다. 문학도 음악도 미술도 내선일체의 황국신민 의식 아래에서 비로소 일본문화로서 출발할 수 있었다. 이 출발점의 중대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재래의 반도 문화는 적어도 고유한 일본문화가 아니다. 그러나 이 협력이 이루어질 때 일본문화는 그만큼 내포를 증대시키고 풍부한 내용을 갖게 된다. 이는 일본문화의 진보이다. 동아공영권의 건설에 필요한 문화 내용의 충실을 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동아공영권의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도의 문화는 그런 의미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체제가 반도의 문화면에 시행되어야 하는지 지금 성급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문화 방면으로서 학술, 교화, 종교, 예술, 오락, 도서, 생활문화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각 방면들에는 다양한 낡은 체제와 인습이라는 것이 있다. 이를 파타하고 재편성하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시기가 온 것이다. 학술, 교화, 종교 등의 부문은 국민정신문화의 진흥, 과학 사상의 보급, 국민교양의 향상 등에서 활약해야 한다. 예술 오락 방면에서는 아직 수준이 낮은 상황을 고급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동시에, 대중 보급을 도모하고 후생적인 임무를 맡아야 한다. 도서 등은 '국어'<sup>11)</sup> 문화의 건설에 기여할 필요가 있고 생활도 국어생활로의 필연적인 발전을 해야 한다.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에서는 이런 점에 대하여 그 방안을 묵하 신중하게 검토하는 중이다. 지도 방침은 이미 발표된 바와 같고 고도국방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건전한 국민문화의 건설에 매진할 것이다. 나아가 이 방침에 대하여 실천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조만간 기구의 정비와 더불어 여러 활동을 개시할 것이다.

〈출전 : 矢鍋永三郎, 「半島文化の新體制」, 『朝鮮』 제311호, 1941년 4월 1~9쪽〉

## 7) 반도예술을 말한다(좌담회)

### 출석자

청산철(靑山哲,<sup>12)</sup> 조선연예협회장), 향촌실(香村實,<sup>13)</sup> 조선교향관현악단 지휘자), 가라시마 다케시(辛島驍), 국민총력조선연맹문화부 참사), 함대훈(咸大勳, 국민연극연구소장), 심형구(沈亨求, 조선미술가협회 이사), 복천원(福川元,<sup>14)</sup> 대일본무용연맹 이사), 목산서구(牧山瑞求,<sup>15)</sup> 조선연극협회장), 안전진웅(安田辰雄,<sup>16)</sup> 조선영화인협회장), 사회 쓰다 가타시(津田剛)

### 쓰다

동아공영권 건설의 커다란 움직임과 함께 조선<sup>17)</sup>이 가진 사명에도 새로운 단계로의 큰 비약이 이루어졌고 이에 즉응해 문화 각 방면의 움직임도 신체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의 예술계도

11) 일본어.

12) 이철(李哲)의 창씨명.

13) 박경호의 창씨명.

14) 조택원의 창씨명.

15) 이서구의 창씨명.

16) 안중화의 창씨명.

17) 이 글의 원문에서는 '반도'로 표기되었다. 이 글은 '반도'를 조선으로, '내지'를 일본으로 번역했음을 밝힌다. 단, 원제목, 소제목 등에 나왔을 때, 기타 문맥상 필요한 경우는 원문 그대로 옮겼다.

최근 각 분야에서 발달한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 새로운 전망을 추가하고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어 이 좌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누가 진행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탁 터놓고 진행해 갔으면 합니다. 목산 씨 연달아서 있으니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웃음 소리)

### 새로운 반도예술의 입각점

목산 : 감사합니다…… 조선에서 예술 부흥운동이랄까, 예술이 신단계로 각 부분에서 새로운 전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특히 여러 부문에 일관되어 있는 것은 우리들이 진실로 일본인이 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지금까지 진정한 일본인으로서 귀중한 역사를 계속해온 일본인조차도 이 시국에는 새롭게 국제 관념을 명징하게 하고 신민으로서의 이념을 강조하고 있는 오늘날, 일본인이 되어 30년밖에 되지 않는 -자기 자신이 일본인으로서 확실한 신념을 가지기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은 이 조선에 새로운 예술운동을 일으키는 것은 실로 어려운 것입니다. 예술의 근간은 사랑에서 일어납니다. 그 최고조가 즉 애국심입니다. 여기에 서지 않고서는 새로운 예술은 불가능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일반에서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황국신민이라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술 운동은 예술 그 자체 안에서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당당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자각이 조선 예술계의 새로운 단계의 근본 원동력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쓰다 : 예술가라고 하면 프랑스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목산 : 예를 들어 정오 목도를 할 때 '네가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타파해야 합니다. 목도를 하려는 기분은 있다. 이것은 바르다. 이 기분이 있는 것을 어떻게 바르게 나타낼까가 중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예술 운동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 부여회상곡에 대해서

쓰다 : 오늘은 「부여회상곡」에 관계가 있는 분이 택산(澤山) 씨가 계십니다만, 그것은 조선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시험으로서 그 감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천 : 감상이라기보다 직접 참여한 사람으로서의 실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말하면 그런 연주회가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를 처음에 무척 걱정했습니다. 첫째로 그것만을 무대에 올리는 것만으로는 조선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적어서 무용은 물론입니다만 그 외에 여러 방면에서 조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쓰다 : 청산 씨가 아주 변하셨네요.

목산 : 청산 씨는 총사령관이었으니깐…….

청산 : 이번에는 완전히 이것을 착상한 목산씨와 중심이 되어주신 조택원씨의 덕분입니다. 처음에 내가 일독했을 때 무척 그것의 좋은 점을 느낌과 동시에 그 속에 깃들여 있는 작자의 정신이 불문곡직

하고 가슴을 찢었습니다. 나는 이 귀중한 노작을 정말로 잘 만들어야만 한다고 통감하고, 여기저기로 뛰어다녔고 정리하려고 노력하는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은 스케일이 무척 큰 것이었기 때문에 오케스트라도, 무용도 훨씬 종합적으로 엄밀한 수련을 거친다면 저 부민관에 올린 효과보다 수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충분하게까지 할 수는 없었던 것이 유감입니다만, 조선 자체의 실력 문제입니다만 앞으로 어떤 하나의 힌트, 전망을 할 수 있다는 것에는 작자나 기획자 한 사람으로 가장 유쾌하다고 느끼는 점입니다.

복천 : 「부여회상곡」을 할 때, 왜 우리들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것을 어떻게든 성공시켜야만 하는데 그러한 의도가 중심 스텝 이의를 빼고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그 정신이 무엇보다 철저해 진다면, 더욱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거기에 코러스를 모으려 해도 모두 취직해 있었고, 근무처의 사정으로 어떻게든 시간을 지켜서 참가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연습의 부족, 그래서 겨우 이 정도까지인 것입니다.

청산 : 그것을 하기 위해 백 수 십 명의 예술가의 마음을 하나로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힘들었죠. 그리고 마침내 뚜껑을 열자 출연자도, 일반도 '과연'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워지자 점점 상황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예약자보다도 배가 넘었다는 것은 그 인식이 일반화되었다는 것이겠지요.

쓰다 : 이번의 부여회상곡은 두 가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국과 협작이 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일본쪽에서 이시이 고로(石井五郎) 씨와 그 외 관계자들이 와서 내선의 교류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 관청과 협작이라는 것은 영업 정책이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생각해 관민일체로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목산 : 관민일체. 내선협력의 모습이군요.

복천 : 나는 이 「부여회상곡」의 비평을 듣고 싶습니다. 가라시마 선생, 말씀해 주십시오. 도쿄였다면 그 다음날 신문에 이미 나왔을 테지만, 이쪽은 그것이 없으니까요.

청산 : 도쿄였다면 나쁘게 말했을 테죠. (웃음소리)

목산 : 내가 말하면, 의상에 금을 붙인 듯해요. (웃음 소리) 그래서 청산 씨가 큰 손해를 입었죠. (웃음 소리)

## 감동의 장의 문제

가라시마 : 그에 대해 무척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무대에서도 관객 쪽을 주의해서 봤습니다만, 박수가 많았던 장면은 공교롭게 여러분들이 열의를 쏟아 넣고 있던 곳보다도, 추락한 마을 사람들의 무용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 점을 가장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복천 : 전체의 흐름이 템포가 더뎠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장면을 음악을 빠르게 하고 그곳에서 퇴폐한 장면을 연출하고, 남녀가 어울려서 난무하는 형태가 된 것입니다. 나는 여기저기서 박수칠 때를 보고 관객의 저급함에 놀랐습니다. 실로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싫증을 느낄 정도로 했는데도 거꾸로 박수를 쳤었기 때문이지요.

가라시마 : 퇴폐가 관객의 감정에 가장 어필했다는 것은 조선의 문화가 당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를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쓰다 : 이데올로기를 가진 것을 저렇게 긴 시간 상영하는 것은 지나친 게 아니었을까요?

목산 : 지나치지 않습니다.

복천 : 보통 1시간 20분 정도니까요. 서양에서도 40분에서 50분 정도 하는데, 일본을 주제로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쓰다 : 그것만을 잘 유지하는 것도 커다란 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라시마 : 그렇습니다. 조금 길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일어나는 예술은 향락퇴폐적인 것을 극복하고, 생산 건설적인 정신을 기를 것을 주장하고, 대중을 고무해야만 하는 것인데, 그를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연주자가 철저하게 시대정신을 체득하고, 강한 박력을 가지고 연주해감과 함께, 한편으로는 관객 자체가 급속하게 훈련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예술의 전개도 역시 총력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안전 : 「부여회상곡」을 국민총력연맹이 해 준 것에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금이 너무 비싸지 않았을까요? 조선에서는 생활에 별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2원 이상은 무리여서, 보다 싼 요금으로 대중에게 보여주었으면 하는데요.

복천 : 나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최승희씨 등이 4원에서 5원으로 해도 가득 찹니다. 일반에게 「부여회상곡」에 대해 열의가 없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가라시마 : 조선무용이 세련되게 들어가 있었지만 그것이 가공된 것이어서 그러한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예술의 하나의 새로운 갈 길을 시사했다고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심 : 그 점은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 바른 비판정신을 세운다

쓰다 : 함대훈 씨는 이번 현대극장에서 국민연극연구소를 열어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한 말씀해 주십시오.

함 : 조선의 일반 대중은 진실로 예술을 알 수 있고 비평할 수 있는 사람이 적습니다. 「부여회상곡」에 대해서도 무용 비평가는 한 사람도 없구요. 연극에 대해서도 흥행극 따위의 저속한 것에 박수하는 관객이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좋다. 그 쪽이 나쁘다, 확실히 알 수 있는 비판정신을 일반에게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결 과제죠. 우리들이 이번 현대극장을 만들어 연극 실천을 통해 극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또 일반인의 연극 교육을 실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고, 또 현대극장 내에 국민연극연구소를 만들어 연극인 교육을 세트로 하는 것도 실제로는 그 목적 때문입니다. 이 연구소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장래 연극인의 인격 및 품성의 도야, 둘째, 신체제하 일본정신을 가르치고, 셋째, 연극인이 되고 나서 필요한 연극 이론과 실천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인데, 모두는 무척 열심입니다. 나는 지원병훈련소를 봤습니다. 그곳은 4개월로, 소학교밖에 나오지 않아도 그 사이에 확실하게 단련이 되는데, 우리 쪽은 모두 중등학교를 나왔고, 그 가운데에는 전문

학교를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때문에 짧아도 4개월, 철저히 한다면 반드시 훌륭한 연극인이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도 또 모두 훌륭한 연극을 하려고 하는 열정에 불타고 있기 때문이지요.

쓰다 : 졸업생이 모두 현대극장에서 일하나요?

함 : 학생은 연구생과 청강생으로 나누고, 연구생은 이미 현대극장에 들어왔고, 청강생은 강의를 들을 뿐입니다. 실천방면을 가르치기 위해 이번에 하는 「흑룡강」에는 엑스트라로 그 연구생이 나옵니다.

쓰다 : 안전 씨, 영화 쪽의 최근 움직임은?

안전 : 조선영화제작소는 빈곤하다고 항상 말해져왔던 것이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조금 전 목산씨가 말한 대로 조선 예술가들이 진정으로 일본정신을 체득해야만 하는 때, 그 쪽이 한층 중요합니다. 황도학회에서 일본 정신의 강습회가 열렸을 때 영화인협회에서도 그 연구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영화인이 그러한 곳에 가는 것보다도,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 무엇보다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쓰다 : 그림 쪽은 어떻습니까?

## 지도기관을 원한다

심 : 올해에 조선미술전람회는 20회가 되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쪽 보았었는데, 이 4, 5년 이후 한층 진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소학생의 입선이 신문의 특종이 되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중학생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의 심사원 여러분의 명작도 출품되었고, 일반 출품도 전문가가 중심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발달과 함께 전람회 자체도 개혁되어야 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조선 예술을 위해 지도기관이 없다는 것이 식자 가운데에서도 유감으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3년 전에 총독부에서 2백만 원의 예산으로 공예미술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입안되었었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도 있는 듯해서 아직 실현을 보지 못했습니다. - 결국 지도기관이 급무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정말로 선전(鮮展)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쓰다 : 시국과 화단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심 : 화가가 어려운 것은 모두 자기 혼자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처럼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 것입니다만, 금년 2월 22일 오후 2시, 2자만 붙은 때에 조선미술가협회가 생겨 140~150명이 모여 처음으로 국가총력 하에 결속했습니다. 그 후 미쓰코시(三越)에서 색지의 전람회를 개최하고 회의 자금 및 황군 위문으로 보냈습니다만, 각별히 이렇다 할 만한 사업도 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많이 해가려고 합니다.

향촌 : 음악 쪽은 화단보다 한층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은 있습니다만 우선 첫째로 음악가 자신의 내적 문제, 그것과 악단과 민중에 대한 지도적 문제입니다. 조선에서는 이 내부적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았습니니다. 음악가는 신경이 과민하고 게다가 타인의 생활을 잘 알지 못합니다. 국가를 위한 예술보다도 예술을 위한 예술을 생각합니다. 완전히 개인주의여서 신체제는 바로 거기서부터 고쳐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려운 문

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의 음악회를 하려고 해도 좀처럼 곤란합니다. 개인 개인의 이유로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음악가협회가 생기면서 무척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모두 시국적 정신을 가지고 크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산 : 향촌 선생이 미국으로 가기 전이었지요. 지금부터 20년 전 아직 우리들이 학생 시절 때였는데, 향촌선생이 중앙관현악단을 15~16명으로 시작해 나중에 27명 정도로 YMCA에서 만들었는데, 방송도 하고 조선의 악단으로서는 커다란 공적이라고 말해졌습니다. 향촌 선생이 미국으로 부임한 뒤로 이번 북경에 가 있는 부스 부인을 중심으로 했지만, 우리들이 학교를 나오고 나서 그 후 자연 소멸되었고,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어떻게든 정리해 훌륭한 음악단체다운 것을 조선에서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거기에는 개인주의적인 프라이드 문제 등이 방해가 되고 십인십색의 주의 주장 때문에 좀처럼 정리할 수 없었는데, 마침 미국에서 돌아온 향촌 선생에게 꼭 도와주실 것을 부탁했을 때 '좋아, 도와주지'라고 흔쾌히 승낙해주셔서 시작된 것입니다. 「부여회상곡」은 34, 35명, 코러스가 40명 정도 모였습니다. 이때부터 열심히 해서 신향(新響)과 중향(中響)에 비해 질은 떨어지지만, 잘한다면 조선이 가질 수 있는 맛은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예술의 어둠을 단속하라

청산 : 예술에서는 민중을 향해가는 곳을 포착해 그 관심을 향해 가는 방면과 힘 그 자체를 가지고 지도해 가는 이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아까 가라시마 선생은 예술가가 예술의 힘 그 자체를 가지고 민중에게 호소하고 거기부터 감명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무척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술을 상업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결과가 대부분 '물건 파는 가게'라는 것이 됩니다. 물건 파는 가게라는 것은 예술의 저하를 의미합니다. 어째서 그런가하면 그것은 각 단체의 행동이 자유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각 단체는 먹고 살아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지도 한 가지만을 고집하는 연극이든 영화든 파탄이 됩니다. 이것은 지도하는 입장에서도 진정으로 생각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라시마 :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예술부문의 어둠을 단속하는 외에는 없습니다. 대중에게 아양을 떨어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국에 따라 진정으로 하게 하는 것을 정말로 바르게 펼쳐가야 할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진정으로 시국을 이해한 것을 하는데도 다른 쪽에서는 대중에게 심하게 아양을 떨니다. 결과는 새로운 것 쪽을 하는 것이 나쁩니다. 이래서는 모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도 경제적으로 파탄되고 용기도 없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속과 보호가 필요하죠. 가능하다면 그것을 자율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목산 : 내가 인솔하고 있는 연극 21단체 가운데 8할까지는 상업극입니다. 그것을 개혁하는 제일보는 각 본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경성에 있는 우리는 원작자도 있고, 지도자 밑에 있기 때문에 예술성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지방을 순회하면 지방의 관중에게 잘 받아들여진 것처럼 돌아오고 말아서, 한 사람이 무엇을 하면 다른 사람도 그에 따라서 제멋대로 하게 됩니다. 이미 경성으로 돌아온 때는 엉망진창이 되어 버리죠.

가라시마 : 신시대의 예술은 관중의 문화를 끌어올려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각 조직 모두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그러한 식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목산 : 연극은 이번 조선어 대본으로 교열하기를 원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국어 대본에 말하는 것은 조선어이기 때문에 연극자가 마음대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함 : 관중에게 국책을 알려주는 길은 국책의 이치를 이해시키는 것보다도 예술 그 자체가 국책이어야 합니다. 예술에서 받은 감명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갑니다. 연극 부문에서는 무엇보다도 좋은 무대장치와 좋은 배우, 그리고 좋은 극작가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선 국가에서 건설한 국민연극의 극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하숙하는 사람은 다른 것처럼, 작은 집을 가진다면 모두 정원도 만들고 집도 장식하고 매우 침착하게 연극을 해 갈 겁니다.

### 오락을 통한 내선일체

가라시마 : 나는 오락의 내선일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선일체를 생활 속에서 진정한 일체로 하기 위해서는 오락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도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선인이 섞여 사는 애국반에서는 때때로 함께 권유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은 것을 입고, 웃을 때에는 함께 웃고, 눈물을 흘릴 때에는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자주 반복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극장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조선의 예술가를 일본인의 예술가로 하고, 일본의 예술가를 조선 사람으로, 자신들의 예술가로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본인의 생활과 감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일본의 신극 등을 가지고 가는 것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회화와 문학 등 보다 더욱 생생하게 가정의 생활이 그대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 무척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쓰다 : 만주에는 자주 갔었기 때문에, 만주와 연락해서 여기서도 불러오는 것이 좋을 거예요.

청산 : 만주에서는 통제회사다운 만주연예협회가 있기 때문에 1년에 수회 초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을 통하지 않는 기선으로 대련에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현상이 이것을 불러오기까지 하나로 잘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목산 : 여기서도 각 협회가 연합해서 초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함 : 예산이 없다면 민간에서 내는 것도 가능하겠죠.

복천 : 나는 이시이 선생 밑에서 오랫동안 신세를 지며 숙식을 함께했고, 걸레질 청소를 하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내선일체 등 그러한 기분은 확실히 초월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춘향전을 도쿄에서 공연했을 때 객석에서 여자 아이가 무척 울었는데 조선이라는 다른 토지의 것을 취급한 것만으로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을 조선에 가서도 반드시 성공한다고 믿고 조선에 온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무라야마 도모요시(村山知義) 씨로부터 들었습니다.

청산 : 그것은 이쪽에서 공개했을 때도 감옥 장면에서는 일본인 쪽도 울었죠. 나도 참을 수 없어서 울



고 말았어요.

복천 : 우리들은 서양 영화에 대해서도 또 연극에 대해서도 그쪽 것은 무척 좋은 것이 있다고 해도 무엇인가 간격이 있어서 우는 것까지는 좀처럼 가지 않습니다. 우는 것이라고 해도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감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써 열심히 해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가장 정리되지 않은 곳에서 박수를 칩니다. 이러한 대중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가라시마 : 국민 전체의 생각이 움직여 가는 것과 함께 점차 해결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술부문 관계자가 참아 견디는 노력을 해가는 이외에는 여러 부문에서 같은 노력을 망심하지 않고 계속해야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전진해야지 않겠습니까? 만주의 문단에서는 작가가 감동하는 장면이 이미 점차로 바뀌어 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민적 가동의 장소를 예술가가 우선 스스로 발견해 그것을 거침없이 표현해 가는 속에서 뒤떨어진 대중도 역시 공감하고 일체가 되어 간다고 나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쓰다 : 조선에서는 예술부문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문화의 지도적 부문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새로운 것을 서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함 : 예술가의 세계관을 바꾸는 곳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복천 : 여기서 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것은 아마 열의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개인의식은 상당히 강해졌지만 어느 하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모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쪽 사람은 자신들의 편만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열의가 없는 것이 무엇보다도 안 되는 것입니다.

청산 : 결국은 전쟁입니다.

가라시마 : 동의합니다. 옛날의 자기와의 전쟁이고, 구사회와의 싸움이고, 구세계관과의 전쟁입니다. 예술가는 지금 새로운 건설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복천 : 새로운 조선의 예술을 수립해야 하는 때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크게 하게 해주어서.

가라시마 : 합시다. 모두 신일본 문화를 만들어 가는 동지니까요. 반드시 생각한 것은 서로 이야기하고 내선이 하나가 되기 위해 매진해야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함께하고 성공도 함께입니다. 어쨌든 서로 동지적인 연결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청산 : 불문곡직하고, 숙명적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복천 : 문화부가 생긴 이상, 이 조직으로 서로 현명하게 합시다.

가라시마 : 만사에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곤란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진심으로 타파해가야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 달리는 사람이 달리지 않는 사람의 팔을 끌어 모두 함께 기차를 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비난도 일어나겠지만 진심은 언젠가 알게 되니까요.

쓰다 : 시국 때문이라는 것은 아니고 조선이 지금 크게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는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지금까지 것의 탈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열심히 합시다.

〈출전 : 「半島の藝術を語る(座談會)」, 『綠旗』 1941년 7월호, 62~71쪽〉

## 8) 가라시마 다케시(辛島驍), 문화정책에 희망한다

나 자신은 지금 반도에서 취해야 할 문화정책에 대해서는 굳이 목소리를 높여 이런저런 희망을 외치지 않아도 직접 당국자에게 나의 의견이나 희망을 개진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또 이러한 시기에는 가능한 솔직하게 나의 신념이나 생각을 당국자 앞에 피력하고 그 시책의 참고가 되도록 하여 실현을 기대하는 일이 내가 짊어진 당면 책임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오히려 이 땅의 문화정책의 실천에 관련해서 일반 지식문화층에 대한 희망이라는 특별한 의미에 한정시켜 서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문화정책에 대한 나의 의견을 어떤 이유가 있어서 뛰어난 비판자들 앞에 일부러 감추려고 하는 의도는 결코 아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 독선적인 사고나 은밀한 행동이 매우 유해하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다. 도리어 요즘 나는 매일 같이 반도의 지식인들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또 나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말해서 되도록 오류가 없는 생각에 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만 확신이 섰을 때는 조속히 그것을 실현하도록 나 자신을 움직이고 있다.

어쨌거나 이 땅에 수립되어야 할 문화정책에 관해 지식층에 대한 희망으로서는 그 적극적인 협력을 가장 바람직한 일의 첫 번째로 꼽고 싶다.

말할 것도 없이 반도의 지식층은 이미 협력의 결실을 보이고 있다. 일전에 열린 제1회 문화위원회에서의 유진오(俞鎭午), 동원인섭(東原寅燮)<sup>18)</sup>, 백산청수(白山靑樹)<sup>19)</sup> 씨 등의 경청할 만한 의견 발표와 같은 것이 그 유력한 표현이고, 기타 각 방면의 좌담회에서의 솔직한 말이나 신문과 잡지 등에 보이는 각종 의견 발표 등은 모두 협력정신의 발로라고 확신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언론에서뿐만 아니라 예술 부분에서의 각종 신조직의 결성이나 새로운 행동 등도 진취 협력의 표현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오늘날에 있어서 일반 지식층의 적극적인 참가와 협력이 더 있기를 바란다.

한강의 인도교를 건널 때마다 저 아름다운 다리의 설계가 반도 출신의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혼자서 조용히 감사하곤 하는데, 저 훌륭한 다리를 설계한 사람이 있는 한 문화정책의 설계에서도 그 못지않은 사람이 나타날 만하다고 본다. 고도국방국가 체제의 수립에는 온갖 높은 지능이 남김없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때에 지식인은 각자의 직능에서 최고의 협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연맹에 문화부가 탄생해 임원과 60명의 문화위원들이 결정되자 문화정책에 관한 일은 그들끼리 결정하면 될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큰 잘못이지 않겠는가. 이러한 조직이 과오가 없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책임은 임원이나 위원들이 짊어지고 있는 동시에 일반 지식인층 각자의 어깨에 달려 있다고 본다. 임원이나 위원들도 숫자에 자연히 제한이 있고 당연히 참가했으면 하는 사람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으며, 또 위원이 되지 않은 사람이 위원이 된 사람보다 지능이 낮은

18) 정인섭(鄭寅燮)의 창씨명.

19) 김동환(金東煥)의 창씨명.

사람일 리도 없다.

실로 신문화 건설의 책임은 모든 지능의 인사들에게 평등하게 부과되어 있는 것이다.

지식인은 이럴 때 조금이라도 회피하는 일 없이 용감하게 각자의 의견을 국가가 현재 목표로 삼고 있는 방향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이고 활발히 발표해야 할 것이다. 뛰어난 의견을 갖고 있으면서 일부러 침묵을 지키는 것은 이러한 비상시국 하의 국민으로서 결코 올바른 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이 오로지 언론을 활성화시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국가 목표에 입각한 언론이 활발히 전개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단순히 언론만 성대해져서는 안 된다. 수송열차에 만세를 외치고 일장기를 흔든 뒤 찢어진 종이 일장기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과 정성스럽게 주워서 주머니에 넣어가는 사람 중에 어느 쪽이 참된 일본인으로서의 태도일까? 나는 후자와 같은 마음가짐을 지닌 문화인의 문화정책에 대한 협력과 참가를 청송하고 싶다. 화려하게 깃발을 흔들며 외치는 일은 오히려 쉽다. 서양의 문화사를 말하고 많은 인명과 어려운 어휘로 당당한 논진을 펼치는 것보다 나는 오히려 자신의 직장에서 일편보국(一片報國)의 적성(赤誠) 쪽에 머리를 숙이고 싶다.

반도의 지식층이 이러한 마음가짐을 근거로 삼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다면 이 땅의 문화의 장래는 반드시 빛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노파심 같은 희망을 말한다면, 이 시대에 문화 부문에서 다소 지도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무슨 시대의 영웅적인 존재이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어떤 조직 안에서 지도적인 책임을 갖는다는 것은 이러한 시대에서는 아주 많은 노고와 수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나 자신은 늘 그러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선구자는 역시 자기희생을 통해서 비로소 선구자가 될 수 있는 것이며, 자신을 시대의 영웅으로 착각한 순간부터 그 사람의 지도력은 점차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와 동시에 각각 여러 이유로 지도적인 지위에 오른 사람들에 대해 그 희생적인 측면을 보지 않고 도리어 이를 결눈질하면서 질투하는 태도도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없으며 각자 뭔가 결점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오늘날은 그 결함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시대가 아니라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야 하는 시대이자 총 친화야말로 절대로 필요한 시대이다.

반성과 협력이야말로 오늘날의 진정한 일본신민으로서의 길이다.

반도의 문화는 비야흐로 비약적인 진전 단계에 들어섰다. 우리는 장식적 공문을 주장하기보다 진지한 보국의 정신에 불타는 행동을 통해 진정한 문화의 추진에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출전 : 辛島驍 「文化政策に希望す」, 『春秋』 제2권 제7호, 1941년 8월, 119~123쪽)

## 9) 야나베 에이자부로, 대동아전쟁과 문화생활

12월 8일 영미 양국에 대한 선전(宣戰)의 대조(大詔)가 황송하게도 환발(渙發)되었다. 이로써 이번 성전(聖戰) 수행의 장벽이었던, 내면이 귀신(夜叉) 같은 적성국 영미를 명실 공히 완전한 적국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되었고, 오랫동안 그들의 교만하고 포악한 압박에도 은인자증해은 우리에게는 검게 드리워져 있던 떡구름이 걷힌 것 같이 가슴이 트이는 느낌이었다. 이로써 우리 국민은 그 입장을 매우 솔직하고 명쾌하게 세계에 외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장제스(蔣介石) 정권 타도, 동아공영권(東亞共榮圈) 건설의 국책을 물리서지 않는 결의로 수행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새삼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사태에서 조선의 문화인 및 문화 관련 단체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문화전(文化戰) 의식의 파악이다. 전쟁은 지금 군함과 비행기에 의해 화약으로 수행되고 있다. 영미 양국의 태평양함대의 근간(根幹)부대 대부분은 우리 해공군의 기습작전에 의해 패멸했다. 이 전환에 의해 개시된 이번 전쟁의 의의는 여러 관점에서 규명되고 파악되어야 하겠지만, 그 하나는 인간적·정신적 방면에서의 이해이고 이런 입장에서 문화의 전쟁이라는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신질서 건설의 세계관과 영미의 현상유지의 세계관은 상극이다. 세계는 이 개전으로 바야흐로 완전히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었다.

하나는 국가주의적·국수주의적·전체주의적 입장에서 세계 신질서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독일·이탈리아 등 현상타파의 추축진영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주의적·자유주의적·개인주의적 입장에서 추축국에 대항하는 영미 등의 현상유지 진영이다. 이러한 세계관의 상극은 내일의 세계역사를 근본부터 다시 써야 하는 운명을 갖고 있는 중대한 상극이다.

이 사상전적 성격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작금의 전시문화대책의 근본적 태도이다. 일찍이 어지럽게 꽃피우면서 세계를 풍미한 범세계주의적인 문화관은 오늘날 영미 양국에서 그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영향으로 인해 지금도 여전히 국내에도 그 잔향을 남기고 있고 영미숭배의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반도에서 오래 전부터 미국계 기독교가 뿌린 미국신앙은 매우 뿌리가 깊은 것이어서 영미문화숭배가 얼마나 강대한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저 만주사변 이래 이러한 미몽도 점차 타파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 이런 사고방식이 도도히 흐르고 있다. 이런 영미문화숭배를 먼저 파타하고 동아공영권 건설을 주제로 하는 일본적 사상으로 되돌아가 일본문화의 선양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는 전시생활력의 강화이다. 지금까지 임전체제 아래 우리 국민의 생활은 매우 검소하게 꾸려왔다. 하지만 이 역사적 대전쟁은 필연적으로 장기전이 될 것임을 각오하고 다시금 생활에 대한 대폭적인 절약을 단행하여 전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반도의 생활은 일본 내지에 비교해서 그동안은 물자도 매우 풍부하고 안이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가까운 장래에 여유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야 한다. 부족한 생활을 견디고 전비 지출에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왕성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생활설계에 매진해야 한다. 문화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노력이자 창조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꾸어 말하자면 생활 그 자체이다. 전쟁으로 국민의 생활이 중절되지 않는다면 문화 또한 중절되지 않는다. 아니, 전쟁에 적응하는 새로운 생활은 새로운 문화를 형성한다. 이런 의미에서 전시생활력의 강화는 전시문화의 건설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바야흐로 전쟁은 인간과 자연의 모든 부분을 총동원해서 수행되고 있다. 즉 문화는 전쟁을 위해 동원된다. 더 이상 문화를 위한 문화가 아닌 것이다. 문화는 전쟁의 하나의 수단이다. 이는 대외적으로 그러할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그러하다. 문화는 전쟁에 의해 무기로서 한층 더 강화되는 것이다.

어떤 문화재는 부득이하게 활동을 중지하게 되어 일시적인 타격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 그 자체는 인간의 생활이 있는 한 절대 중절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화 활동은 일견 전쟁과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지만 한시도 그 활동을 중지할 수는 없다. 아니 전쟁의 진전과 더불어 문화는 더욱 발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전시의 문화이다. 생각에 따라서는 전쟁도 인간이 창조하는 것인 이상 문화의 한 형태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점에서 전시문화를 올바르게 건설하기 위해 당면한 문화면의 전시 정책을 생각해 보면 대 그것은 당연히 중점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 일단은 다음 여섯 항목에 대해 그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국민사기의 고양운동이다. 이는 굳이 설명할 것도 없겠지만, 근래 팽배하게 끓어 오른 반도의 애국열을 영미전(戰)에 대한 의식으로까지 이끌어가서 영미가 아무리 대국이라 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를 도멸(倒滅)하려는 왕성한 사기를 고양·지속시키기 위해 문화면에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사상전의 수행이다. 이번 전쟁은 우리 제국의 존립을 건 생존권의 요구인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자원 확보의 전쟁이고 정치적으로는 영미의 착취에서 동아해방을 위한 전쟁이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사상전이기도 하다. 문화면으로서는 이 사상전의 성격을 내세워 대내적·대외적으로 영미사상을 타도하고 일본사상을 세계에 선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것이야말로 이 전쟁에 의해 부여된 사상적 사명이다. 바야흐로 세계의 사상사는 일전(一轉)해야 하는 시기에 도달했다. 이 점을 자각하고 사상전으로서의 만전의 준비를 다하여 적극적 공세를 취해야 한다. 이는 우리 총후(統後) 문화부분이 담당하는 전쟁행위이다.

셋째로 전시생활의 강화운동이다. 전시생활력의 강화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했는데, 이에 생활의 기초를 도모하고 새로운 생활 설계를 수립해야 한다. 절약과 저축을 장려하고 근로에 종사해 미증유의 시국을 극복해야 한다. 모든 물자의 통제화와 기획화가 이루어지겠지만, 그에 따라 새로운 일본 내지와 조선의 공동생활체제를 수립하여 총후를 안정시켜야 한다.

넷째로 전시생활과학의 습득이다. 평상시에도 생활에서의 과학의 도입은 중요한 사항이지만 전시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그것은 생활의 합리화로 이어져 능률적인 생활을 영위하게끔 하는데, 특히 전쟁 관련 과학 지식을 습득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가령 공습이나 방공에 대한 과학적 습득은 그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전쟁 관련 과학을 생활 속에서 습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로 예술 오락의 전시 동원이다. 예술 오락은 보통 전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아마 그동안의 예술이나 오락의 존재 방식으로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술 오락은 그 자체를 위해 혹은 자기만족적이거나 영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어서 국가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적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아닐까. 현재의 전쟁에서는 예술도 오락도 군수품이다. 혹은 무기이자 선무용품(宣撫用品)이다. 이 점을 자각하고 국가적인 선에 따라 활동할 때 비로소 전시에서의 존재 이치를 발견할 수 있다. 선무라는 말은 점령지대에 대해 사용하는 말이지만, 그와 비슷한 현상으로서 국내 사기의 고양에 대한 고무와 격려에도 필요불가결한 것이고 시국이 요구하는 생산 확충에 대한 후생 시설의 일부로서도 불가결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오로지 전시동원에 부응해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로 언론 문학의 전시동원이다. 언론 문장이 자유 비판의 도구였던 것은 이미 낡은 영미의 자유주의 문화에 심취했던 시대의 일이다. 오늘날에는 국가 목적 수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일찍이 문장은 칼 없는 무기라고 불렸는데, 지금이야말로 그 진정한 의의에 따라 대내적, 대외적으로 종횡무진 활약할 때가 온 것이다. 조국의 정의를 중외(中外)에 선양하고 전시국민의 계발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상의 항목은 전시하의 문화운동 수행방책의 일단인데, 처음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전쟁의 성격 가운데 하나는 사상전이자 문화전임을 자각하고 개인주의적, 세계주의적 문화의 극복 형태에 있어서 문화인 및 문화 관련 단체들이 적극적인 봉공을 다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것은 지난 12월 10일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장 담화로서 발표된 것을 여기에 그대로 수록한 것이다. 기자)

〈출전 : 矢鍋永三郎, 「大東亞戰爭と文化生活」, 『國民文學』 제2권 제1호, 人文社, 1941년 12월, 42~45쪽〉

## 10) 다나카 하쓰오(田中初夫), 조선에서의 문화정책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 참사 다나카 하쓰오(田中初夫)

조선에서의 문화정책이라는 과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것이 평상시의 문제라면 오히려 말하기 쉬울지도 모르겠지만 내일이라도 태평양에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인 전시문화의 양상을 주제로 삼아 이를 살펴봐야 한다는 점에 어려움이 있다. 지금은 현실의 사태를 전제로 잠깐 비견(卑見)을 말해보고자 한다.

조선에서의 문화가 어떠한 문화 상태를 목표로 삼고 있는가? 다시 말해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황국민(皇國民)으로서의 문화 건설이다. 일본 국민으로서의 국민문화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책이 조선에서의 문화정책이다.

조선의 문화는 통상 조선이라는 특수 양상에 입각하는 문화라고 생각하기 쉽다. 즉 조선의 전통문화를 주체로 하는 문화가 현재 조선의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일견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선은 더 이상 과거의 조선이 아니다. 새롭게 일본의 국가의식 아래 재출발한 조선이다. 앞으로 건설되어야 할 조선 문화는 이런 지반 위에서 자라야 한다. 물론 이는 조선에서의 일본 문화의 건설을 의미하는데, 대륙의 하나의 반도로서 그 풍토의 특수성이 지닌 영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풍토적 성격 위에 일본 문화의 대륙적 발전의 계기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그것은 풍토를 주체로 한 이국적인(exotic) 문화의 의미도 아니다. 가령 삼한사온의 기후는 온난한 일본 내지의 기후와는 달라서 그만큼의 차이를 문화의 풍격 위에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본 문화상에서의 변형일 뿐이지 문화 그 자체의 차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는 민족의 전통위에 성립한다. 그것은 민족의 정신사를 의미한다. 지금 반도에서는 그 정신사는 대전환을 하려고 한다. 즉 황국신민(皇國臣民)으로서 일본정신사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려는 것이다. 일

본의 국민으로서 새로운 발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역사적 사실과 이념상으로도 그러하고, 동아공영권(東亞共榮圈) 건설의 현실적 사태에서도 요청받고 있으며, 그 이외의 길은 없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반도에서의 문화는 일본의 국민문화이어야 한다. 목표는 이미 분명하다.

이 목표에서 문화정책의 방도는 다음의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국민문화의 지도이다. 두 번째는 국민문화의 육성이다. 이것이 문화정책의 중심을 이룰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의미에서의 조선의 문화문제는 오늘날 비로소 일반대중의 문제가 되어 그 성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뿌려진 씨앗을 받아시켜 얼마나 크게 자라게 할 것인가 하는 점에 중점이 놓이게 된다.

말할 것도 없이 문화는 자연에 대한 언어라고 볼 수 있다. 즉 문화는 자연을 어떻게 가꾸고 좋은 수확을 올리는가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자연에 대한 인간의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사적 문화는 인간의 인간적인 노력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자연과 같이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가 하는 활동에 달려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노력의 방식이 문제이고 이를 지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본의 국민문화는 일본의 전통 위에 성립하는데, 일본 내지에서는 민중의 전반이 그 전통에서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내지에서는 지도라는 것은 문화 그 자체의 방향을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한 가지 점에 있어서 현대 시국의 선에 따라 보다 강고하고 성대한 국민적 자각을 갖게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지만 조선에서는 과거의 전통은 새로운 국민문화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바야흐로 완전히 새로운 전통이 반도의 생활 위에 발족하려하고 있다. 이러한 발족을 맞이하여 스타트라인에서의 목적 제시가 현실 문제이다. 이 전통의 전환은 이론적으로는 쉽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실천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과거 조선의 정신사에 일단 중지부를 찍고 생활양식과 더불어 그 실체를 변경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지도가 필요하다.

문화의 모든 면에 대해 그 부분에 적합한 지도방침이라는 것을 각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세워야 하지만 이 소론에서 일일이 논할 수는 없다.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는 이런 점에 관해 이미 추상적이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지도방침을 밝히고 있다.

고도국방국가체제의 완수를 목표로 청신하고 건전한 국민문화의 종합적 발전을 기한다.

1. 과학 사상의 보급을 기한다.
2. 국민교화의 철저를 기한다.
3. 예술 오락의 정화를 기한다.
4. 출판문화의 쇄신을 기한다.
5. 생활문화의 질실(質實)을 기한다.
6. 실천요강의 구현을 기한다.

이는 조선에서의 문화의 근본적인 지도방침으로, 그 방침을 기초로 하여 문화 각 부분이 발달해야 한다. 이 각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 또한 다른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다.

이처럼 방침은 제시되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해서 발족된 문화의 육성이다. 나온 싹에는 비료를 주고 온갖 손질을 해야 한다. 이런 육성을 게을리 하면 모처럼 나온 문화의 싹도 시들고 만다.

문화가 자체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문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활동에 대한 지도는 물론 제시되어 있다. 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것은 활동을 위해 기관이 필요할 것이다. 또 어떤 것은 조직이 필요할 것이다. 혹은 인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현실 문화의 싹의 상태에 따라 각각 요구되는 것은 달라질 것이다.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에서는 지금 조선 전체의 각종 기관들을 정비하고 있다. 문화의 각 부분에 각각 총력정신을 바탕으로 협회가 결성되었다. 또한 지방문화의 개선진흥을 위해 조만간 도연맹 문화위원회가 각 도에 설립될 예정이고, 이 지방문화조직을 정비함으로써 조선의 문화 활동은 더욱 강고하고 활발해지리라 믿는다. 이의 육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지만, 길어질 것 같으니 여기서 마치기로 한다. 이와 같이 문화의 지도와 육성이란 두 가지를 일단 생각할 수 있는데, 아울러 이것이 일본·미국의 결전이라는 상태가 초래된다면 어느 정도 그 사태에 부응한 긴급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가정 아래 논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지만, 문화의 전시적 동원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12월 5일)

〈출전 : 田中初夫, 「朝鮮に於ける文化政策」, 『朝光』 제8권 제1호, 1942년 1월, 79~81쪽〉

## 11) 귀환용사와 문인(좌담회)

### 참석자

귀환용사 측: 육군 중위, 의학사,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근무, 북중국에 소대장으로 출정, 다리에 부상, 금치(金鷄)훈장 수여. 아라타니(新谷周九郎)

육군 오장(伍長),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학생, 북중국에 출정, 본지에 「회회교의 아이들」 집필 중. 혼다 지카오(本田親男)

육군 오장, 법학사, 녹기연맹 근무, 북중국에 출정. 겐페이 요시로(源平義郎)

문인협회 측 : 경성제국대학 교수, 조선문인협회 간사 가라시마 다케시(辛島驍)

육군 오장, 와세다대학 출신, 산시(山西)에 출정, 이케타니 신사부로(池谷信三郎)문학상 수상자, 『나는 바다의 아이』, 『올림포스의 과실』의 작가 다나카 히데미쓰(田中英光)

조선문인협회 상무간사 목양(牧洋, 마키 히로시)<sup>20)</sup>

소설가 최정희(崔貞熙)

시인 노천명(盧天命)

---

20) 이석훈(李石薰)의 창씨명.



## 전쟁터에 서지 않더라도

가라시마 : 마침내 일본과 미국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능위(御稜威) 하에 황군 장병들의 결사적인 분투에 의해서 벽두 혁혁한 전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통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싸움으로 '성전의 의의'도 전아시아 민중들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때, 이러한 좌담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동생을 전쟁터에서 잃은 저는, 무사히 귀환하신 여러분을 만나니 마치 제 동생이 돌아온 것처럼 기쁘군요.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여러분은 드디어 미·영과의 전쟁이 일어난 것을 듣고 우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아라타니 : 지금 소집이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해 보고 싶다는 의욕이 막 솟아오르는군요.

훈다 : 이번에는 남쪽에서 제대로 일을 해 보고 싶네요.

겐페이 : 그건 중국 현지의 군인들도 그렇습니다. 산속에서 꾸물꾸물 하고 있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거죠. 저도 아라타니 씨와 동감입니다. 시코노 미타테(醜の御楯<sup>21</sup>)로서 군대 깃발 아래로 달려가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목양 : 거리에 나가서 호외를 보면 웬지 혈관이 쿵쿵거리는 느낌이 듭니다.

최 : 남자 분들은 행복하네요. 저희들도 적어도 싸우는 느낌을 경험하고 싶군요.

가라시마 : 그렇게 되면 내선일체라는 말이 무색하게 느껴질 텐데요.

목양 :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최 : 저희들은 실제 전쟁을 체험한 적이 없잖아요.

노 : 그저 뉴스 영화에서나 볼 뿐이죠. 전쟁문학을 하고 싶어도 반도인(半島人)은 전쟁에 가지 않으니 감이 없어요. 점차 지원병제도가 이해되고 지원자도 늘어서 동생이나 형이 지원병이 되면—그렇게 되어야만 진정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전쟁문학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가라시마 : 반도문단에서는 전쟁문학을 쫓아가려는 분위기가 일반적으로 매우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오늘날의 문학이 딱히 소재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나카 : 그렇죠.

훈다 : 하긴, 전쟁에 간 적이 없는 사람이 전쟁 장면을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죠.

가라시마 : 전쟁터를 그리지 않아도 우리 신변에 새로운 감격의 장면이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 : 네,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라시마 : 그것을 노래하고 그것을 써야 합니다. 정직하게, 머뭇거리지 말고—. 그게 전쟁문학이 되는 겁니다.

다나카 : 굳이 전쟁에 가지 않더라도 전쟁문학은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독일의 클라이스트(Heinrich von Kleist)라는 작가는 나폴레옹 전쟁 무렵 “헤르만 전쟁(Die Hermannsschlacht)”이라는 드라마를 썼는데,

21) 천황의 방패가 되어 외적을 막는 사람을 일컫는다. '시코(醜)'는 '나'의 낮춤말.

그는 종군작가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시대의 자극을 그의 예민한 감수성과 열렬한 애국심에서 훌륭히 되살려 당당하고 꽤 수준 높은 애국문학을 썼습니다.

목양 : 뭔가 좀 더 큰 자극이 있었으면 합니다만.

노 : 자극이 주위에 없으면 아무래도 실감이 안 잡혀요.

겐페이 : 자극, 자극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쟁의 실상에서 받는 자극은 없어도 총력전적인 자극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진지한 생활이 있다면…….

가라시마 : 이제부터 서서히 지켜올 정도로 자극이 있을 겁니다(웃음). 새로운 자극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눈앞에 있는 새로운 감각에 자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조선에는 새로운 감동의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만 느끼는 것일지도 모르겠군요. 여러분은 이 조선에 귀환하셔서 어떻게 느꼈습니까?

### 완전히 바뀐 조선

다나카 : 조선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오의 묵념의 진지함, 또 전차가 남대문을 지날 때는 조선신궁에 꼭 예배를 하고, 도쿄 쪽보다는 도리어 이쪽에 진지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겐페이 : 저희들이 돌아올 때, 배 안에서 어느 상관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2년 반, 산시(山西)의 산속에서 지내왔다. 그동안 일본 사회는 크게 발전했다. 너희들이 돌아간 뒤 생각해야 할 것은 제일선에만 군인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리로는 2년 반 전의 구체제라는 점을 감안하면서 일반 사람들과 접촉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돌아왔습니다만, 총후(銃後)는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특히 응소(應召) 전에 알고 있던 조선 사람들의 감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데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다 : 돌아올 때 기차가 반도에 들어서자—벌써 2년 전의 일입니다만, 우리 기차를 향해 반도의 시골 아이들이 반갑게 깃발을 흔들고 있는 것을 보고, 조선이 바뀌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라타니 : 중국에 갔을 때 주민들은 일본병사(군인)를 보면 두려워하면서 피했습니다만, 돌아올 때는 중국의 민중, 특히 아이들은 만세를 부르면서 환송했습니다. 처음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상이(傷痍)군인의 휘장을 달고 있습니다만, 전차를 타도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은 대개 반도의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어떤 부상을 당했는지, 전쟁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릅니다.

노 : 그렇죠.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바뀌었습니다. 병사들과 친형제처럼 친근하게 지내고 자신들은 일본의 병사가 된다는 기뻐하고 있어요. 어른이 거기에 따라간다는 형편이죠.

최 : 어젯밤에도 집에서 어머니께 드디어 일본과 미국·영국 사이에서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했더니, 그런 큰 나라와 전쟁하면 지는 것은 아니냐며 걱정했습니다. 그러자 자고 있던 열 살 아이가 일어나 “할머니는 몰라. 야마토 다마시(大和魂)<sup>22)</sup>를 몰라. 일본은 어떤 나라와 싸워도 지지 않아”라고 하더군요. 저도 마음이 크게 움직였어요.

22) 일본혼, 또는 일본정신을 일컫는다.

겐페이 : 지금 최정희 씨의 말을 듣고 군대에서 시끄럽게 강조하는 필승의 신념을 떠올렸습니다. 순진한 아이들의 마음을 펼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군대의 필승의 신념은 황군의 눈부신 전통과 천마필사(千磨必死)의 맹훈련을 한 결과입니다.

가라시마 : 저는 지원병의 모친이 자식에 대한 애정을 은연중에 일본군인 전체로 확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원병제도의 숨은 공적이라 생각합니다. 방금 최정희 씨의 자녀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부모나 노인을 진정한 국민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쁜 일이죠.

최 : 일전에도 아이가 “어머니, 저도 전쟁에 가고 싶은데, 가도 돼요?”라고 해서 “응, 가도 돼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에 가서 죽으면 어떡해요?”라고 물으니 “일본을 위해 몸 바쳐 죽는다면 기꺼이 죽겠어요”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안아 주었습니다.

겐페이 : 다음 시대를 짚어지는 아이들 마음에 폐하의 대어심(大御心)이 통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존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녀분과 같은 감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짐은 그대들 군인의 대원수이다”라는 말씀에 감격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황도(皇道) 선포의 제일선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라타니 : 최정희 씨의 경우 전쟁에 갈 수 없다는 것일 뿐이지, 우리 마음가짐과 전혀 다르지 않네요.

가라시마 : 여러분 부대에 지원병 출신은 없었습니까?

아라타니 : 제 부하 중에 한 명 있었습니다.

노 : 어땠습니까?

아라타니 : 특별히 지원병 출신이라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지만, 그땐 고향인 조선에 관한 이야기만 서로 주고받아서 반도 출신이라는 느낌은 있었지만.

최 : 반도 어디였습니까?

아라타니 : 경성 황금정(黃金町)이었습니다. 그 지원병은 참으로 훌륭한 황국군인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죠. 그래서 지금도 자주 생각합니다. 그 지원병 출신 병사는 언제나 가장 먼저 저를 따라왔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대장은 오래 전부터 전쟁터에 있었으니 대장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 결코 틀리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웃음).

혼다 : 대장 곁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니까요.

아라타니 : 다만 지원병 중에는 ‘국어’<sup>23)</sup>가 충분치 않은 사람이 간혹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때문에 보고에 문제가 있었던 모양인데, 군대에 익숙하지 않은 탓도 있을 겁니다.

## 인텔리는 강하다

목양 : 인텔리는 연약하다든지 또는 강하다는 말이 있는데, 어땠습니까?

아라타니 : 처음에는 인텔리는 연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인텔리는 강하더군요. 인텔리는 학문 덕분에 마지막에 가서야 결심이 서는 모양입니다. 제가 다리에 부상을 입었을 때, 1개 소대로 산을

---

23) 일본어.

점령한 엄청난 싸움이 있었는데, 그때 어둠 속에서 제 뒤를 따라온 것은 모두 학문이 있는 병사들이었습니다.

다나카 : ‘인텔리’라는 말은 유럽에서 온 것입니다. ‘지식계급’이라 하는데, 그런 계급은 메이지유신의 일본에는 없던 것입니다. 이른바 유럽의 학문을 한 사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회의심이 강하죠. 아(我)가 강하고 자의식이 강합니다. 평소에는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면서 본인이 본인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아를 발휘하지만, 싸움이라는, 아를 어찌할 수 없는 무아(無我)의 경지에까지 가면 비로소 행동하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사이고 난슈(西郷南州)가 말하는 이른바 ‘하늘(天)’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 점도 있지 않을까요. 오타(太田) 오장의 수기도 읽어봤는데, 그는 일고(一高)와 도쿄대학 출신의 수재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깨에 별 하나 달고도 정신적으로는 미동도 하지 않아요. 수기를 읽어 보면, 현지에 도착하기까지 다소 심리적으로는 과거의 악령에 이끌려 동요하기도 하지만, 현지에 도착한 이후에는 당당한 육군보병 상등병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얼굴을 합니다. 물론 그 자신이 뛰어나다는 점도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는 일본의 지식인에게 공통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라타니 : 강하고 약한 것은 결국 정신교육의 정도에 달려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란 환경도 크게 작용합니다. 역사적으로 감화가 있는, 좋은 토지의 병사들은 매우 강하고, 향토가 타락한 곳의 병사는 비교적 약하다는 것을, 각지의 병사를 부하로 데리고 있으면서 어렵듯이 느꼈습니다. 부모님이 고생하시면서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기 때문에 늘 바로 뒤에 국가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전쟁에 갔을 때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세를 진 천황폐하를 위해 정녕 생명을 바치는 것은 지금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텔리가 강해지는 것은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목양 : 그리고 보니 여기 계시는 귀환용사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한 인텔리인데, 여러분의 활약은 거기서 나온 것이군요. 혼다 씨는 과거 사상의 파고를 극복하신 분인데, 전쟁터에 서 실감은 어땠습니까?

## 역사에 대한 반성

혼다 : 간 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쟁에 간 지 반년 정도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만 했을 뿐이지만, 나머지 2년 동안에는 전쟁에도 익숙해져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서 ‘민족’에 대하여, 또 민족의 사명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나카 : 저는 되돌아보면 소학교 때까지의 교육이 가장 그립고 또 가장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판을 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그 위의 학교교육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억지로 주입된 것 같습니다. 전쟁터에 가 있을 무렵 쏟아지는 빗속에서 필사적으로 총탄을 뚫고 돌격하고 있는 순간에 문득문득 소학교에서 배운 니주바시(二重橋)나 다이난코(大楠公)<sup>24)</sup>의 모습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요컨대 일본의 역사에 좀 더 애정을 갖고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상급 학교에 올라가면 갈수록 암기하는 것이 역사학이 되고 고고학이 되어, 역사는 메말라버리게 됩니다.

24) 가마쿠라시대 말기에서 남북조시대에 걸쳐 활약한 가와치(河内)의 무장이었던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의 별명이다.

아니, 가르치는 방식이 메말라버립니다.

목양 :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도 일본 역사를 진지하게 공부하면 바보 취급당했습니다.

겐페이 : 그것은 지금까지의 역사가 사건 배후에 있는 사물의 본질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확고한 황국적 역사관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사교육의 결함이 여기에 있죠. 복잡 미묘하게 전개되는 현상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국사를 보는 바른 시각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그동안 평면 나열적인 역사의 폐해를 통감하게 됩니다.

목양 : 이번에 저는 문인협회에서 파견되어 일본 내지의 성지순례를 하고 왔습니다만, 짧은 기간에 신궁만 둘러보는 것은 좋은 일이더군요. 잡념이 생길 여유도 없어요. 저는 와세다대학의 고등학교에 있었는데, 그때는 좌익사상이 융성하던 시기로, 그런 것에 머리를 진심으로 숙인 적도 없었고, 시대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일본의 아름다운 점을 볼 여유도 없었고, 또 볼 눈도 없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에 가서 보고 처음으로 3, 4년 일본 내지에 있는 것보다 얻은 것이 많았습니다.

겐페이 : 저도 2년간 일본을 떠나 있어서, 상륙해서 가정 먼저 느낀 점은 일본이라는 나라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산시의 산속에서 나오니 일본은 마치 공원 같다”라며 어느 전우가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일본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라시마 : 저는 목양 씨의 가정을 알고 있습니다만, 목양 씨의 아버님은 정말 일본을 사랑하고 신뢰한 선각자였어요. 어린 목양 씨에게 유카타(浴衣)를 입히거나 심지어 게타(일본의 나막신)를 신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버님이 뿌린 마음이 오늘날의 목양 씨에게서 싹을 틔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양 씨와 함께 한 번 목양 씨 아버님의 묘소에 가서 현재의 보고를 해서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훈다 : 저는 2개월 정도 회회교(回回教)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7~8세 아이들이 종교의식에 불타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기도 했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릴 적부터 매우 종교적으로 ‘일본’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그동안 젊은이들이 전쟁에 소집되어 갈 것을 예상하고 교육했는가 하면 반드시 그렇지 않았죠. 장래에 큰 전쟁이 있다는 점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면 인텔리가 어떻게 하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가라시마 : 어젯밤—일·미 개전의 밤이었는데, 종로를 지나가도 매우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노점상도 나와 있었고 사람들은 유쾌한 듯 걸어가고 있었죠. 실제로 혜택 받은 조선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최 : 정말…… 그래요.

## 전쟁터의 고통과 즐거움

가라시마 : 현지의 노고를 생각하면서, 국내의 이런 평화로운 상황을 길게 지속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겐페이 : 전투를 거듭할 때마다 소금을 핏고 물을 마신다 해도 전쟁에는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라타니 : 그래요, 일본은 어쨌든 ‘기미가요’(일본의 국가)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감정이 저절로 생깁니다.

최 : 저는 사재기 같은 것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먹을 게 없을 때는 함께 먹지 못해도 좋고, 입을 게 없을 때는 함께 입지 못해도 된다는 감정. 우리도 그렇습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훈다 : 육체적으로는 역시 행군이겠죠.

겐페이 : 하루 15킬로 정도 계속 걸어요. 중원(中原)작전에서는 그 지독한 2백 수십 리 길을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훈다 : 정말 힘든 길이었죠.

아라타니 : 정신적으로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있던 병사가 죽었을 때죠. 어제까지 즐겁게 얘기하던 그 부하가 죽는 것을 보고 있으면, 진짜 죽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유쾌했던 것은 제 부하들을 이끌고 1939년 6월에 산을 공격했을 때입니다. 저녁이 되어도 공격을 도저히 성공시킬 수 없었어요. 비는 맹렬히 쏟아지고, 1개 소대로 겨우겨우 마지막에는 성공했는데, 그때 누가 불렀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미가요'를 큰 소리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큰 소리로 부르는데도 탄환이 한 발도 날라 오지 않았죠. 이대로 죽고 싶다, 이대로 십상(十像)이 되어 죽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양 : 아름다운 시로군요.

겐페이 : 대미·영 전쟁이 시작되면 모두 그쪽으로 눈이 돌아가지만, 동시에 중국대륙에서도 꾸준히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나카 : 신문기사에 따르면 위문보따리가 가는데, 정말 고생하고 있는 제일선에는 적으니 말입니다.

가라시마 : 잘 알고 있습니다. 전승 뉴스에 들뜨지 말고 꾸준히 그리고 진지한 눈을 모든 전쟁터와 총 후에 돌리도록 합시다. 조선과 가까운 북중국이나 만주에 위문보따리나 위문편지를 보냅니다.

## 대륙에서 자라는 진심

겐페이 : 이번에 출정해서 “중국 사람들에게도 일본인의 진심은 통한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준위님이 젊은 분이었는데, 정열적으로 일본의 이상을 부락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눈여겨 본 청년들을 서서히 끌어들이었어요. 본인이 직접 일요일마다 나가서 선무(宣撫)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그 청년들은 큰 작전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작전에 꼭 데려가 달라며 부탁까지 합니다. 청룡도(靑龍刀)가 집에 한 자루 있을 뿐인데, 그 칼로 중국인을 베어버리겠다고 합니다. 본인이 중국인인데도 말이죠. 무슨 생각으로 따라오는지 우리로서는 의문이었지만, 그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까지 따라왔습니다. 진심은 통한다고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라타니 : 제가 다리를 다쳤을 때, 강현(絳縣) 부근 마을의 홍창회장(紅槍會長)을 하고 있던 사람 - 이 사람은 현지사(縣知事)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고, 친일파라서 적에게 붙잡히면 살해당할 사람인데 - 이 강현이라는 곳에서 횡수진(橫水鎭)까지의 5, 6리를 계란 한 바구니와 칼피스 한 병을 들고 제 병문안을 왔어요. 그때 수염을 기르고 안경을 쓰고 있어서, 순간 누군지 잘 몰랐어요. 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니 도중에 발각되면 살해당하기 때문에 변장을 했고, 길도 돌아서 만나러 왔는

데,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 없으니 품조심하라는 말을 하면서 저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람이죠. 또 거기에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촌장이 “전쟁이 끝나면 이곳으로 오세요. 함께 지냅시다”라며 친근하게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그곳을 떠나 평정(平定)이라는 곳까지 돌아와도, 석탄 채굴을 해서 돈을 벌었으니 전쟁이 끝나면 꼭 다시 와서 함께 사업을 하자고 했습니다.

훈다 : 제 부대에도 소필(小畢)이라는 쿨리(苦力)<sup>25</sup>가 있었는데, 1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아서 일본에 데려갈 사람이 있으면 가겠느냐고 하니 가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일부러 데려갈 수는 없었지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울었습니다.

아라타니 : 분성(紛城)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전에 팔로군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매우 환영하고 모든 편의를 제공해준 중국인이 있었습니다. 만주국에 있었던 모양인데, 일본군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는 자식이나 부인이 있는데, 꼭 부대에서 써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저희들 이후에 다른 부대가 들어갔는데, 그때도 그 남자는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훈다 : 제가 원청(運城)에서 일본어를 가르친 아이들이 사진을 보내오는데, 이제 많이 자랐어요. 벌써 16, 17세가 되어 얼굴도 어른스러워졌고 건장한 청년이 되었던군요. 결혼사진도 보내옵니다.

다나카 : 벌써 결혼했군요. 빠르네요. (웃음)

가라시마 : 이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서 지낸 용사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중국인들이 배우고 거기서 정말 일본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로군요. 그렇다면 병사들은 모두 일본정신을 보여주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이며, 모두 선무반(宣撫班) 일을 하는 셈입니다. 대륙에서 죽은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정신이 결국 중국인 속에 살아 숨 쉴 때가 반드시 올 것을 생각한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겁니다.

## 전쟁과 문학

목양 : 다나카 씨, 대륙에서 싸우면서 문학과 전쟁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다나카 : 문학에 공리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차적인 문제이고, 저희들이 중국문학을 읽고—가령 루쉰(魯迅)이나 위다푸(郁達夫), 쑤만수(蘇曼殊) 등의 작품을 읽어보고 중국대륙에 가보면, 좀 과장해서 말해서 거기에도 그리운 얼굴들만 있었다는 느낌입니다. 여기에 늙은 아(阿)Q가 있고 저기에 수척해진 흑선풍(黑旋風)도 있어서, 적만 아니라면 어깨를 두드리고 반갑게 부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적지에 들어가서조차 친근감을 느끼는 것은 분명히 문학의 하나의 덕이라 생각했죠. 또 하나, 작가는 인간에 대해 매우 호기심이 강합니다.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보다 피로나 고통을 덜 느끼고, 공포를 느끼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자신을 되돌아보거나 승부욕이 강하고 글을 쓰려는 욕심이 큼니다. 이 또한 문학의 하나의 덕이라 생각했습니다.

가라시마 : 동양에는 동양인만의 역사적으로 연결되는 마음이 있죠.

다나카 : 중국의 역사도 인상 깊게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사마온공(司馬溫公)이 태어난 푸저우(蒲州)에

---

25) 중국의 하층 인부.

도 갔고, 앵앵전(鶯鶯傳), 서상기(西廂記)로 유명한 보급사(普及寺)에도 갔습니다. 지저분한 절이었어요. 로망스 따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웃음), 웬지 정겨운 느낌만은 있었습니다.

목양 : 조선의 작가들도 전선에 갈 수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가라시마 : 소집이 있을지도 모르죠. 마치 군인이 봉공(奉公)보따리를 들고 언제라도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펜과 마음을 잘 연마해서 준비를 하도록 합시다.

목양 : 이번에 아쿠타가와 상(芥川賞)을 받은 다다 유케이(多田裕計)의 소설 『장강 델타(長江デルタ)』는 중화민국의 청년과 일본의 청년이 손을 잡고 새로운 건설을 하려다가 장제스(蔣介石)가 보낸 자에게 총을 맞아 죽는데, 용감하고 참으로 기백이 있어요.

다나카 : 『국민문학』에 목양 씨가 쓴 「조용한 폭풍」은 지나칠 정도로 진지해요. 지금 문학에 결여된 것은 그런 진지한 태도입니다. 기교를 부리고 착상을 중요하게 여기고, 표면적으로는 천편일률적인 시국사상, 그것이 이른바 신체제문학이 되려고 하고 있을 때, 그러한 정면 돌파를 하는 진지한 태도는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목양 : 그건 본인의 생활 자체를 쓴 것입니다만—

다나카 : 사소설은 낡은 문학이고, 본격소설이 새로운 문학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보리와 병사(麥と兵隊)』에서도 『흙과 병사(土と兵隊)』에서도 자신의 체험을 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능가하는 본격적인 전쟁소설이 지금까지 나왔습니까? 요컨대 꼬리표는 다른 사람이 나중에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어떤 형식이든 깊은 강동을 독자들에게 주는 뛰어난 작품을 쓰는 일입니다.

### 시대를 살아남는 작가의 기백

가라시마 : 이 시대를 건디며 살아가려는 기백이 그 작가 마음속에 있다면 그 작품에 저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는 작가 자신에게 있어요. 작가 자신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정한 작품은 나오지 않아요.

최 : 소설이라는 것은 관찰을 위해 관찰해서는 소설이 되지 않죠.

다나카 : 그동안 일본 내지에서도 반도에서도 다수의 작가가 일선에 파견되었는데, 아직 이렇다 할 작품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쪽인가 하면 모두 인사치레 같은 작품이 되고 말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첫 번째 원인은 ‘행상인의 철학’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비단 전쟁터의 생활을 그리는 것만이 전쟁문학은 아닐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목양 씨의 『조용한 폭풍』은 본인이 총후의 폭풍 속에 서서 쓰고 있다는 느낌이어서, 저로서는 매우 호감이 갔습니다.

가라시마 : 전쟁터의 폭이 넓어져서 우리도 역시 전선에 있다는 기분으로, 생활 속에서 싸우는 반도는 파악하는 것이군요.

목양 :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조선의 인텔리는 자각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크게 변한 느낌은 있습니다만.



가라시마 : 저는 너무 낙관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사람들과 접할 때마다 일어서고 있는 반도를 절실히 느낍니다. 인텔리 병사들이 최후에 용감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그대로 조선의 인텔리의 사상 문제에도 해당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방금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양 : 어떤 시기에 비약적으로 좋아지리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가라시마 : 요컨대 문학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지식층 역시, 이제 가야 할 길은 명확하게 정해졌고, 어떻게 할 것인지 망설이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을 지적으로는 알았으니 빨리 그것을 감정적으로 높여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게다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하나가 되어 시국의 어려움을 돌파하도록 합시다. 이전의 망설임을 계속 가슴속에 품고 가려는 센터멘탈한 마음이 있다면, 이번에 그것을 완전히 씻어버리고 크게 가슴을 펴고 진정한 대동아의 문학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문학을 이 반도의 문단에서 탄생시킬 기백을 기르도록 합시다. 지하의 전몰 영령(英靈)들이 읽어서 부끄럽지 않은 문학을 탄생시키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각오일 것입니다.

〈출전 : 「歸還勇士と文人(座談會)」, 『綠旗』 제7권 제1호, 1942년 1월, 10쪽〉

## 12) 가라시마 다케시, 웅대한 구상 - 대동아전쟁과 반도 문화인의 사명

홍콩이 함락된 지 며칠이 지났는데, 내가 궁금해 하는 소식은 아직 신문에 전혀 보도되지 않고 있다. 무엇이 궁금한가 하면 홍콩에 있는 중국 측 영화제작소가 어떻게 되었냐는 것이다.

영화회사 한두 개가 왜 그리 궁금하냐고 생각하는 사람은 홍콩이 갖고 있던 문화적 적성(敵性)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홍콩의 적성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은 노출된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은미(隱微)한 사이에 그 마수를 뻗치고 있었고, 중국인이 경영하는 영화회사도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일찍이 이곳에는 '남양(南洋)', '남월(南粵)', '대관(大觀)' 등의 중국 영화제작회사가 있고 '항성연합공사(港星聯合公司)' 등도 있었다. 그 가운데 '남양공사(南洋公司)'는 홍콩 제일의 생산고를 보이고 있고 남양 방면에 30여 개의 직영관을 갖고 있었다. '남양공사'는 주력을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에 기울이고 있었는데, 베트남어 토키 제작에도 선구적이었다. '항성연합공사'는 글자 그대로 홍콩에서 제작한 영화를 싱가포르 등에 배포할 목적으로 만든 회사였다. 장제스(蔣介石) 정권이 중칭(重慶)으로 도피하고 광둥(廣東)이 함락된 뒤 유니언 잭 깃발 아래에서 어떤 영화를 만들어 대동아 신질서 건설을 방해하고 있었는가. 교묘하게 항일선전을 끼워 넣은 영화는 남양 각지에 배급되어 화교나 베트남, 말레이인들 앞에 당당히 어제까지 상영되었다. 그 중에는 중칭이나 쿤밍(昆明)에서 촬영되어 홍콩에서 편집된 장제스 정부 선전부가 직접 제작한 항전 영화까지도 섞여 있었다.

내가 홍콩 함락 소식과 함께 영화회사의 소식이 궁금했던 것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러한 영화제작소는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가. 물론 그 방향은 이미 확실하게 결정나 있다. 그러나 실제 문제로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지도하고 재건해서 재출발하도록 해야 할까.

미·영과 전쟁을 벌이기 2개월 전쯤으로 기억한다. 우리 국제문화협회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타이 방면에 수편의 문화영화와 극영화 <중국의 밤(支那の夜)>을 보내 두 지역 주민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고자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필리핀, 말레이를 포함한 남양 각지에 30여 개의 직영관을 갖고 있던 중칭의 미·영 합작의 영화진영이 붕괴된 이후 이를 대신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일본의 노력이 미치게 된 이후 영화가 재미없어졌다고 한다면, 이는 동아시아의 지도자로서의 일본의 문화적 면목이 달린 문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홍콩의 적성 영화회사가 제작하고 있던 수량 이상의 영화를 제작해서 전쟁으로 지친 주민들을 위무하고 게다가 대동아전쟁의 의의와 일본의 참된 정신, 진정한 모습을 하루라도 빨리 알려야 할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해서 들고 가는 영화는 단지 양적으로 풍부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옛 적성 영화보다 더욱 우수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홍콩의 영화사업의 재건 문제와 더불어 우리나라 영화계 전반의 앞으로의 임무는 실로 중대한 것이다. 그리고 이 중대한 임무의 일단은 바로 우리 반도 영화계가 당연히 짊어져야 한다. 이에 대해 반도 영화계의 준비는 어떤가. 대동아적 규모의 기획을 수립하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을까. 지금은 이미 조선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영화를 만드는 시대는 지났다. 우리 영화의 관객은 전체 동아시아인이 되어야 한다.

나는 영화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그러나 나는 단지 영화에 대해서만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조선의 모든 예술, 모든 문화가 이 영화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아 새로운 출발을 요청받고 있음을 먼저 영화에 관해 지적한 것이다.

일찍이 경성의 혁신적 목사들의 집회에 갔을 때,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중국대륙에는 다수의 영국인·미국인 선교사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설파하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이는 종교가의 가면을 쓰고 적성행위를 한 탓에 추방을 당했다. 남아 있는 중국의 선민(善民)인 '길 잃은 양'들은 이제 새로운 목사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영혼의 구원자를 찾고 있다. 이런 때에 우리 반도의 목사는 과거와 같이 단지 반도 민족만을 대상으로 그 직책을 다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대륙의 길 잃은 자들에게도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을까. 반도 기독교의 재출발은 새로운 시야와 구상 아래 준비되어야 한다. 나는 지금 미·영과 전쟁을 하고 있는 오늘날 더욱 그 필요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나는 어느 음악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계 음악이 구축(驅逐)된 이후에 진정한 대동아의 음악이 창작되어야 하는데, 구축은 쉽다 해도 건설을 누가 할 것인가. 게다가 그 건설은 내다버린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독선적인 신대동아 음악으로는 도리어 웃음거리가 된다. 중국인도 말레이인도 필리핀인도 인도인도 분기할 수 있는 음악을 탄생시켜야 한다. 반도의 악단인의 임무 또한 막중할 것이라고 했다.

문학에 대해서도 외쳤다. 작게 반도의 마음을 끌어안고 회고와 애착의 고루한 감정으로 소요(逍遙)하고 있을 시대는 지났다. 중국인, 베트남인, 말레이인, 필리핀인에게 읽히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대동

아의 문학이라며 경탄하도록 함으로써 일본의 진정한 정신을 진심으로 이해시키는 문학을 생산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 독자를 삼천리 안에서 찾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 6천 킬로미터, 1만 킬로미터 저편에서 찾아야 할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러나 이 웅대한 신 문화권의 구상도 그저 공상의 눈을 멀리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바다 위의 한 가닥 신기루와 같이 결국에는 공허하게 너무나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다. 이 구상으로 하여금 진실한 광영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도 안광(眼光)을 멀리 구름 끝까지 내다봄으로써 미래의 문화 성격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자신의 발밑을 돌이켜 보면서 함부로 공상에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 없이 새로운 대시대의 영도자 일본인으로서의 각오를 더욱 굳게 하고 심성의 연마에 예의 노력하는 동시에, 자신의 직책인 문화에 대한 열렬한 책임감을 견지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지만 집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집을 세울 수 없는 것처럼, 6천 킬로미터 밖의 독자를 상상하는 것만으로 작품집이 세상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 반도 문화인의 진실한 각오와 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을까.

나는 다만 문학에 대해서만 말한다. 오늘날의 문학의 목표는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 안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누구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신동아의 건설에 매진하는 용기와 신뢰를 갖게끔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러한 문학은 한 마디로 말해서 단순히 지명에 아시아 각지를 들먹이거나 이습토속(異習土俗)을 묘사하거나 건설적 개념인에게 슬로건을 외치게 하는, 그러한 안이한 태도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역시 정직하게 문학의 본도(本道)를 여정각고(勵精刻苦)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바꾸어 말하자면, 하와이 기슭이나 관탄 앞바다에서 벌어진 해전 뉴스에 가슴이 뛰면서도 동시에 만주, 북중국 산야에서 달빛 아래 혹독한 추위 속에서 늪름하게 서 있는 보초의 노고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의 마음가짐에서 출발해야 한다. 싱가포르나 마닐라를 무대로 공상 소설을 쓰는 것보다 이러한 전시하의 생활을 어떻게 한 국민, 한 가정이 견뎌내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국가와 함께 얼마나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강인하고 하며 존귀한 모습을 그리는 것이 훨씬 더 오늘날의 문학자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 될 것이다. 신동아의 문학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꾸준한 노력을 하는 길에서 탄생하는 것이고, 그래야 비로소 커다란 영향을 전 동아에 미칠 수 있다. 이것은 반도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는 영화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앞서 한 말과 일견 모순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신문화 건설의 구상은 마땅히 웅대해야 한다. 그리고 그 건설의 첫걸음은 진지한 자기재건에서 출발한다. 자신에 대한 검토와 반성을 하지 않는 전진은 모래위에 누각을 쌓는 것과 같다. 진정으로 이 시대의 일본인으로서의 자각에 눈뜨고 대동아 문화 건설의 전사로서의 각오를 굳게 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반도 문화인이 취해야 할 유일무이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

〈출전 : 辛島驍 「雄大なる構想-大東亞戰爭と半島文化人の使命」, 『京城日報』, 1942년 1월 1일〉

### 13) 야나베 에이자부로, 대동아와 문화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장 야나베 에이자부로

물질에 편중되어 있는 현대 문화가 막다른 길에 봉착했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의 문제로 유럽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전체주의, 그리고 유럽대륙이 이 두 나라의 손에 의해 리드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미·영에 대한 전쟁을 보더라도 그들이 세계에 자랑하고 있던 전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 및 리펠스는 지중해를 통과해 기세등등하게 들어왔지만 마닐라 해안에서 우리 비행기에 격침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하와이 진주만에서 미국 군함과 비행기가 하루아침에 일본의 비행기에 당한 사정을 보면 미·영과 같이 사물의 숫자나 기계의 정교함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레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의 문화라는 것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영 문화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극단적인 개인주의·자유주의가 구미에서 발달한 것인데 이 문화의 특징은 곧 과학의 발달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나타난 유럽의 문화가 다른 지방을 정복한 것입니다. 물론 이 문화에 의해 다양한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화의 발달에 따라 다른 지역의 일반 인류는 결코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안에 대하여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영국은 항해술이 이른 시기에 발달한 선진국입니다.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 대해 먼저 해적 행위로 이들 선진국을 괴롭혔고 점차 자신의 힘이 생기자 서서히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를 격파하고 마침내 7개의 바다를 지배하게 되면서 해가 지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방대한 식민지를 획득했습니다. 이 식민지라는 것은 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결국 본국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다른 토지를 착취 목적으로 삼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식민지를 대하는 방식은 대개 그 토지의 원주민들을 결코 굶주려 죽게는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이를 향상시켜 행복하게 하는 일도 없습니다. 죽지 않게 그리고 너무 건강하게 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자신의 목적에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이 그들의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방식은 비도덕적인 것으로, 예컨대 노예 매매는 아프리카의 주민들을 붙잡아 미국 등지에 매매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나 말 같은 것을 붙잡아 매매하는 것처럼 이들을 인간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탓에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배로 가는 도중에 상당수 죽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자기 나라의 이익이 되고 자기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수단으로서 이처럼 인간을 노예로 매매하는 짓도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비도덕적인 짓을 했습니다. 영국의 이익을 도모한 것입니다. 특히 클레이브와 헤스팅의 악랄한 방식은 영국 본국에서도 상당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영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결국 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실로 언어도단의 행위들을 저질러 왔습니다. 또 아편전쟁에 관한 일도 잘 아시겠지만, 이에 대해 영국 본국의 글래드스톤 선생이 자세하게 아편은 전쟁의 발생 전의 일을 생각해 보면 이만큼 부정한 전쟁은 거의 없고, 그 전쟁의 결과를 보더라도 참으로 자기 나라의 불명예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취해온 것인데, 이미 오늘날 인도는 일어설 수 없고 남양의 주민

들도 참으로 구태의연하다기보다 2,3백년 간 어찌면 더 열악해진 것은 아닐까요. 현재와 같은 문화의 방식에 의해 이러한 식민지정책이 취해지거나 자본주의와 향락주의가 유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 결과 세계의 인류가 큰 불행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현재 그들의 문화라는 것은 자신들이 만든 문화로 자기 나라의 이익증진을 위해 타국을 희생하는 방면에서만 사용되고 있었으며, 다른 인류를 행복하게 하고 이를 지도한다는 점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익이라는 것은 미·영 양국이 독점하고 다른 나라가 이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한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신은 자유무역을 외치고 항해의 자유를 외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국민이 있을 경우에는 곧바로 이를 억압해서 그 발달을 저해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이 주장해온 자유무역과 항해의 자유를 유린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미·영의 문화라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면으로 사용되어 다른 한편으로 다른 인류는 큰 불행에 빠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유색인종입니다. 이들이 문화를 받아들여 그들에게 대항할 만큼의 힘을 기르지 못한 것입니다. 인도나 남양이나 아프리카를 보더라도, 특히 중국은 서양의 문화를 스스로 받아들여 이를 소화하고 그들과 대항할 만큼 자신을 발전시키지 못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 일본은 아시는 바와 같이 유일하게 유럽의 압박 속에 있으면서도 이 문화를 흡수해 오늘날에는 거의 세계의 수준에 달할 정도의 물질적 문화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일본이 이처럼 서양문화를 소화하고 자신을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면, 아마 벌써 중국이나 제2의 인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sup>26)</sup>에 점차 힘이 생기면서 유럽이라기보다 미·영 양국이 일본의 발달을 저해하기 위해 어떠한 수단을 취했는가에 대해서는 일일이 말씀드릴 것까지도 없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만주국 문제나 ‘지나사변<sup>27)</sup>, 또 이번 대동아전쟁도 모두 일본을 압박하고 일본의 발달을 저해하려 했기 때문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의 나라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그야말로 신의 나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천황—님을 신으로 받들고 우리 일억은 천황님을 부모로 받드는 군민일치(君民一致)의 나라입니다. 면면히 이어져온 황통으로서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님 아래 귀일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천황님은 신대(神代)로부터 내려오는 오미카미(大神)의 계시에 따라 행하시고 또 민초들은 그 계시에 따라 신도(臣道)를 실천해온 것입니다. 이 신도(神道)라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매우 위대한 힘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소지하고 있습니다. 3천년 역사를 보더라도 유교를 진정으로 소화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문물은 그것에 의해 진전하였고 또 인류를 바르게 하고 빛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가령 인도의 불교가 도래했을 때도 마찬가지로여서 인도의 불교가 중국, 조선을 거쳐 일본에 들어오자 이를 충분히 소화해서 국민의 일상생활에까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일본의 불교, 일본 특수 불교로서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날 중국에서 불교는 거의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또 인도에서도 거의 형체를 볼 수 없지만, 일본에서만 그 유교의 정신과 불교의 정신이 모

26) 일본을 뜻함.

27) 중일전쟁.

두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문화를 소화하는 힘을 갖고 있는 일본 문화라는 것은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부터는 유럽의 문화를 전력을 기울여 소화하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서양문화 심취자라고 불리는 등 여러 비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힘을 기울인 자신의 정신을 거의 망각한 것은 아닐까 할 정도로 열심히 서양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점차 세계의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받아들여 바야흐로 점차 서양문화를 소화해서 새롭게 여기에 일본의 문화를 진전시키려는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의 문화를 점차 소화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럽, 특히 미·영에서는 이미 지금은 자신의 문화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그들의 문화가 더 이상 진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반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과거의 역사에서 모든 외국 문화를 흡수하고 소화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라는 것은 현재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여 세계의 모든 문화를 흡수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문화 내용으로 삼을 만큼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곧 유럽의 식민지 정책과 비교해서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정신은 만민들로 하여금 각자의 직분을 갖게 하여 그 업에 안주하게끔 한다는, 타국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훌륭한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전 세계의 모든 문화를 받아들일 만큼의 힘이 자연 이외의 것에 대해서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다른 것을 동화시킬 만큼의 큰 힘을 갖게 되었음을 아닐까요.

오늘날에는 세계의 대세가 바뀌고 있어서 이번 미·영에 대한 전쟁의 결과는 정치적·경제적 대세를 완전히 전환시킬 것인데, 이와 동시에 이른바 문화라는 것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물질 본위의 문화가 물러나고 일본에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고도의 문화가 이를 대신해 세계를 지도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동아공영권 건설에 군사적·정치적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정치적·군사적으로 만들어진 공영권 내의 각 민족을 지도해 나가려면 문화라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고도의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완성시킨다면 공영권에서의 지도적 입장에서 충분한 힘을 지닐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날 공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지방을 보면, 불교국도 있고 매우 낮은 수준의 문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여기에 상응한 문화 지도 방법을 세워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노력해야 할 일은 다시 말해 이러한 각지의 사정에 따른 지도 방법을 생각하고 그들의 습관이나 그들의 문화를 조장하는 동시에 일본의 위대한 지도정신으로 이를 통일하여 공영권 확립의 기초를 세우는 일이 우리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싱가포르 함락이라는 것이 하나의 세계 전환의 기점이 되었고, 따라서 문화라는 것도 싱가포르의 함락을 기점으로 큰 전환을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오늘날의 임무는 군사적·정치적으로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문화에 관련 있는 방면에 있는 자도 헌신적 노력으로 이러한 지도의 임무를 완성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의미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출전 : 矢鍋永三郎, 「大東亞と文化」, 『大東亞』 제14권 제3호, 1942년 5월, 24~28쪽〉

## 14) 쓰다 가타시,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구상

녹기연맹 주사 쓰다 가타시

요 며칠 동안 라디오와 신문 등 완전히 우리 피가 끓고 몸이 춤추는 것을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글을 헤치고 때로는 뜨거운 태양 아래 달리며 스콜(squall)을 뚫고 돌격 또 돌격하는 병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전쟁터에 보낸 친구나 친척들 얼굴을 생생하게 떠올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결사적인 노력으로 싱가포르의 마침내 함락되려고 합니다. 실로 우리 감격은 이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이는 실로 세계의 경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계의 다양한 신문이나 뉴스는 황군(皇軍)의 신비적인 강인함에 대해 갖가지 데마(Demagogic)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마는 제법 긍정적인 데마인데, 가령 스톡홀름 전보는 매우 유쾌한 뉴스를 보냈습니다. 즉 최근의 예를 들자면 지금으로부터 2, 3일 전, 싱가포르 해협을 건넌 때 너무 간단히 건넌 것 때문에 서양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스톡홀름 전보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특수 훈련을 받은 부대에 관한 것은 올림픽에서 일본이 도강에 강하다는 데서 생각해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수 도강부대가 강을 건너려고 할 때 영국군이 싱가포르 해협 일대에 중유를 흘려보내 여기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싱가포르 해협은 중유가 불타면서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뜨거운 화염을 뚫고 일본의 도강부대는 특기인 잠수기술로 물에 들어가 해협을 건넌다고 했습니다. 해협인데다가 신이라면 몰라도 해수면 아래로 들어가 건넌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스톡홀름 전보는 최근 그러한 매우 유쾌한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실로 세계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우리 황군의 신비한 강인함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맹한 이 장병들을 이끄는 우리 야마시타(山下) 장군은 그야말로 우리 육군의 거목이라 불리며 이름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거인입니다. 예컨대 과거 오야마(大山) 원수와 고다마(兒玉) 참모총장의 호용(豪勇)을 겸비한 사람이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야마시타 각하는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분입니다. 다음은 야마시타 각하의 이야기입니다만, 야마시타 각하는 내가 처음 만난 훌륭한 분입니다.

만주사변 이후 육군무장으로서 전 육군을 이끌고 있을 때였습니다. 만나 뵈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고개를 들어 보니 야마시타 각하는 아직 인사를 하며 나보다 머리를 낮게 숙이고 있어서 나는 다시 한 번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 하는 것은 이상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더니 고개를 드셨습니다. 매우 공손하고 정중하면서 치밀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야마시타 각하에 대한 인상은 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그런 맹장의 지휘를 받는 우리 충용한 황군은 바야흐로 세계의 4대 요새라고 불리는 싱가포르에 상륙 3일 만에 적의 아성의 중심을 함락했습니다. 이 감격은 일억 국민의 방방곡곡에서 터졌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그러한 들끓어 오르는 감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싱가포르 함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자각하고 또 그 의의를 앞으로 제대로 살려나가는 것이야말로 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보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싱가포르의 함락은 실로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203고지<sup>28)</sup> 탈취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난공불락이라고 일컬어지던 저 뤼순항도 마침내 203고지를 탈취함으로써 손에 넣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동아공영권도 싱가포르를 탈취함으로써 적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203고지인 싱가포르의 배경을 이루는 대동아공영권이란

28) 중국 북동부의 요동반도 남단에 위치하는 뤼순(旅順)에 있는 구릉.

무엇인지, 대동아공영권이야말로 어떤 것인지를 국민은 깊이 자각하는 것이 장병들에게 보답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금 두 가지 점에서 대동아공영권의 구상에 대하여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세계정책의 의의인 기본이념에 대한 것입니다. 대동아공영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앞서 선생님들이 자세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인류는 부의 힘과 모략에 의해 지배되어 왔습니다. 이번 싱가포르 함락으로 대동아공영권은 저 앵글로색슨 세계를 지배해온 앵글로색슨의 힘을 깨부수고 파괴하는 위대한 신질서 건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앵글로색슨이 수백 년에 걸쳐 세계에 구질서를 만들고 있었다는 점은 새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에 대항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 세계의 세 가지 흐름입니다. 그 흐름은 구체적으로는 이 지구상에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부터 착수되고 건설이 시작된 것, 즉 우리와 어울릴 수 없는 소비에트 건설입니다. 공산주의에 따른 소비에트의 건설입니다. 또 하나는 나치스 독일의 건설이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 황군에 의한 대동아공영권 건설입니다. 모두 수백 년에 걸친 앵글로색슨의 구체제를 모종의 형태로 수정하고 이를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지상에 나타난 것은 10년 전부터이고, 빨랐던 것이 러시아의 건설입니다. 대체로 러시아의 건설이 지상에 나타난 것은 15개년 계획인데, 러시아가 유명한 15개년 계획에 착수한 것은 1929년입니다. 나치스 독일을 히틀러가 이끌고 제1차 4개년 계획에 착수한 것은 1933년입니다. 우리 황도(皇道)에 의한 3천년 전통에 빛나는 정신으로 대동아 건설을 착수한 것은 1931년입니다. 러시아가 1929년, 일본은 1931년, 나치스가 1933년으로, 모두 약 10년 정도 전부터 이 지상에 건설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빨리 시작한 소비에트 러시아의 건설이라는 것은 정쟁으로 인해 내용에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지금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 예컨대 사회가 하나의 탈피작용을 하기 위해 2천만 명이라는 인간을 죽여야 한다는 것은 사명 그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혁명 2년 이상이 지난 수년 전, 시베리아 헌병사령관 군무국장이라는 사람이 모스크바로 전임 명령을 받고는 간신히 조선으로 도망쳤습니다. 비스코프 장군 휘하의 육군 중장이라는 중책에 있는 장군이 전임 명령을 받고 곧바로 도망쳤다는 것은 얼마나 그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많은 노력을 들여 성공했다고 하는 15개년 계획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나치스 독일에 지금 일격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재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날 앵글로색슨의 체제에 수정을 가하는 세계 신질서의 코스는 우리 황도를 기초로 한 대동아공영권 건설 코스, 또 하나는 나치스 독일이 이끄는 유럽 공영권 코스로 신질서 건설의 위대한 여 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함락의 의의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수백 년을 이어갈 세계 신체제가 새로이 시작된 것이어서, 마치 허기진 배에 떡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단지 싱가포르를 빨리 함락시켰다고 해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심으로 정신적으로 이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의미를 깨닫고 또 싱가포르 섬 함락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고 봅니다. 실로 우리 동아공영권 건설은 10년의 역사를 경과한 것입니다.

그 시작은 만주사변입니다. 일본과 만주가 함께 실시한 6년간의 만주국 건설이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제1차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37년에 시작된 지나사변은 대동아건설의 제2차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작년 12월 8일에 시작된 남방권 진출을 노린 우리 대동아전쟁은 바로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제3차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동아 건설운동은 지난 몇 년간 만주사변을 거쳐 15년



혹은 20년이라는 웅대한 하나의 역사의 흐름에 따라 인류의 행복을 위해 어떤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건설해서 앵글로색슨이 구질서를 건설했을 때 인류에 대해 자신들이야말로 세계최고의 문화를 건설했다고 주장한 그들에 대해 이제 우리 일본은 세계와 인류에게 앵글로색슨이 도달하지 못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보여줄 중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대동아공영권의 의의라는 것은 그야말로 막바지에 이른 앵글로색슨 문화의 혼란을 구원할 하늘이 내려준 유일한 대책으로서 나타난 필요 조치이고, 또 그 건설이야말로 인류 장래의 번영을 위한 것입니다.

대동아 건설은 이러한 구상과 각도와 관점에서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대동아공영권이 탄생한 기초, 근본적 이념, 기본적 사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이론적인 어려운 논리를 늘어놓아도 소용없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른바 앵글로색슨 질서와 다른 어떤 것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앵글로색슨 체제란 요컨대 힘과 부의 체제입니다. 가령 미국 영화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지금으로부터 수년 전 미국 영화가 번성했을 무렵 비행기 몇 백대라든가 군함 몇 척이라는 식으로 종종 영화로 비추었습니다. 정성에도 온 미국 군함의 뛰어난을 선전했습니다. 미국 군함을 말하자면, 저 하와이에서 격침된 군함은 그 당시와는 상당히 구조가 바뀌었음을 여러분도 알고 계신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영화에 나온 군함은 우리나라가 특수한 노식(槽式)이라는 것을 만들자 미국도 질 수 없다며 망농식(網籠式)이라는 것을 만들어 자랑했습니다. 미국의 군함 영화는 그물 같은 삼태기를 짠 돛대를 만들어 마치 최신식 군함이라는 식으로 자랑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돛대 위에서 멀리 바라보며 대포를 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농식(籠式)의 돛대 위에 올라가면 가는 철근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전속력으로 군함이 달리면 덜거덕 덜거덕거리고 그렇게 자랑하던 망 위에서 관측해도 흔들림 때문에 조준이 맞지 않습니다. 대포의 명중률은 매우 나쁩니다. 영화나 사진으로 전 세계를 위압하고 있던 미국의 농식 군함은 실제로 해 보니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함을 하나씩 도크에 넣어 그것을 고쳐서 하와이에서 파괴된 일본의 노식을 흉내낸 군함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예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의 군함은 세계 제일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그 농식 함대를 전부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물질력을 갖고 있어도 건설 설계자나 거기에 종사하는 직공들의 정신력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지 않고 형태만 좋으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저 크기만 하면 되고 위협할 수 있는 형태이 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군함의 예를 보더라도 그들의 심리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영국이 말레이를 공격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황군이 당당히 진출하자 말레이 주민들은 곧바로 우리 군의 사기가 엄정함을 이해하고 우리 군의 진출 직후 수많은 신문기자들이나 후방 연락원들이 아무런 불안도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녀도 아무런 위험도 없는, 이른바 게릴라전술이라는 것은 없었음을 보더라도 말레이에 대한 앵글로색슨의 행동이 나아가서는 전 동양에 대한 영국인의 진출이라는 것이 얼마나 원주민의 행복을 바라지 않고 원주민들의 존경을 받지 않았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갖가지 앵글로색슨의 불법행위를 나열한다면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은 여러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되어 있으니 거듭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힘과 부에 의해 세계를 억압하려고 한 앵글로색슨 정치와 달리 우리 동아공영권은 황도를 기초로 하여 덕과 화의 힘으로 인류가 일찍이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으로 여기에 대동아공영권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앵글로색슨의

문화는 결국 이기적 혹은 다툼의 힘에 귀착하는 것입니다. 가령 호화로우며 자랑하는 그리스 문화나 철학을 보면 모두 자기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칸트 등 유명한 철학자도 이런 영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너무 많은 말을 하면 복잡해지는데, 요컨대 서양인의 문화라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그들은 끊임없이 투쟁을 계속하며 그 결과 이상은 언제나 환영으로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 그리스에서도 이집트에서도 그 문명은 자연히 다툼에 의해 쇠퇴했습니다. 세계의 역사라는 것은 모두 그런 식입니다. 오늘날 유럽이라 해도 나치 독일이 열심히 노력해서 유럽을 하나로 뭉치려고 합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과거의 유럽은 모든 것이 다툼인 중국 본토와 필적하는 토지를 20개 이상으로 나누어 싸우고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이 유럽을 하나로 뭉치려고 했을 때 우리 일본의 방식을 보고 배우려고 한 점은 크게 주목할 만합니다. 나치 독일에서는 일본어가 상당히 발달해 있습니다. 일본어를 크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의 일본 연구자는 단순한 일본 연구만으로는 안 됩니다. 나치스의 일본 연구자의 결론은 일본을 연구한다면 반드시 일본의 국체를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을 연구한다면 일본의 국체를 연구하라' 이것이 최근 독일에서의 일본 연구에 대한 실체입니다. 또한 독일이 유럽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는 우리 건국 정신의 기초가 되는 내선일체(內鮮一體)의 대이상과 거의 비슷한 방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치 독일은 일본에 대해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령 낙하산 부대도 일본의 정신을 모방해 만든 것으로, 독일의 일본에 대한 연구의 뿌리가 깊다는 주목할 만한 사실을 오늘날 국민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황도 정신이라는 것은 바로 화(和)의 정신에 의해 성립한 것으로, 동아공영권의 근본이념이라는 것은 힘으로 이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또 부로 이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화의 정신에 의해 인류를 리드하는 일본은 지도국으로서의 대동아공영권을 조직합니다. 우리는 이를 황도생활권(皇道生活圈)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이 생각하고 있는 생활권보다 훨씬 훌륭한 것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들의 3천년 동안 이어져온 이 정신이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발전하는 일본의 국체를 쌓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른바 조직을 전 동아에 미치고 전 동아가 다시 분열하거나 후퇴하지 않으며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고 서로 함께 하늘이 준 새로운 낙원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도조(東條) 수상은 대동아건설의 선언에 있어서 동아건설에 필요한 지역은 제국 스스로 이를 파악하고 그 이후에는 모두 각자 맡은 바 소임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화의 조직을 만드는 데 귀착합니다. 그야말로 세계의 화평이라는 것은 신뢰와 동시에 자신의 이익을 떠나야 비로소 진정 영원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황도는 모든 것을 국가가 명하는 바에 의해 폐하를 받드는 일에 귀일합니다. 우리 신민은 신도(神道)에 의해 나아가 화평의 이상을 이 지상에 건설하려고 하고, 3천년 동안 이어져온 인류의 일찍이 없었던 무너지지 않는 사회 곧 세계 인류의 모든 종극(終極)의 이상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회, 무너지지 않는 대동아, 그것은 인류가 생겨난 이래 일찍이 전혀 없었던, 게다가 인류가 갈망해마지 않은…… (하략)

〈출전 : 津田剛, 「大東亞共榮圈建設の構想」, 『大東亞』 제14권 제3호, 1942년 5월, 29~35쪽〉

## 15) 문화와 선전(대답)

총력연맹 선전부장 쓰다 가타시(津田剛)

본지 주간 최재서(崔載瑞)

### 새로운 구상

최 : 많이 바쁘시죠? 쓰다 씨가 이번에 총력연맹 선전부장이 되어서 우리 동료라고 하면 좀 어색하지만 어쨌거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연맹의 그런 지위에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국민운동도 드디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쁩니다.

쓰다 :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되어서 실은 저도 좀 당혹스럽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지만, 한편으로 각 분야의 문화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으니 그야말로 총력연맹에서 그런 사람들이 총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이를테면 연락원이라는 의미로 열심히 하면 다소 도움을 주는 일도 있으리라 보고…….

최 : 무슨 말씀을, 그것만은 아니겠죠.

쓰다 : 각오가 전혀 없다고 해서 안 되겠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실현될지 좀 더 시간이 지나야만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은, 현재로서는 그런 느낌입니다.

최 : 이번 연맹 개편의 동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쓰다 : 결국 대동아전쟁이 시작되고 동시에 국내체제 전부가 어쨌거나 새로운 구상을 해야 하는 객관적인 정세가 되었죠. 조선에서는 예를 들어 총독이 바뀐 것이 올해 6월이었고 일본 내지에서도 여러 인적 구성이나 행정기구가 개혁되었기 때문에 조선의 국민조직에도 어떤 새로운 구상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조선에서는 다소 늦어진 것입니다. 낡은 구상의 어디에 결함이 있었다기보다.

최 : 새로운 정세에 부응하는 신선한 공기를 넣는다는…….

쓰다 : 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구상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죠.

최 : 결국 청년의 혁신적 의기를 활용하자는 것이겠지요.

쓰다 : 자세한 것은 들은 적이 없어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모릅니다만.

### 선전부의 기구

최 : 그렇다면 이번 선전부는 대체로 어떤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쓰다 : 이번 선전부는 종래의 '선전'과 '출판'과 '문화'라는 세 가지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선전이라는 것과 문화라는 것이 별도의 부서였기 때문에 같은 연맹의 기구 내에 있다고는 하지만 연락 등이 반드시 원활했다고는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로 통일된 기구 아래 운영되어야 한다는, 그런 점에 대해 생각할 여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가 되었죠. 그것은 선전이라 해도 그냥 그때그때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되고, 선전은 한 나라의 높은 사상력,

문화력의 집약적 표현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대중을 상대하는 일인 만큼 너무 고상한 것만 해서도 안 되겠고, 어쨌거나 그런 높은 사상력과 문화력이 대중들에게 어떻게 파고들어 가는지, 높은 국가의 목적이 어떻게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지, 그런 점에 선전의 진정한 중점이 있다고 봅니다. 높은 사상성을 지닌 국책이 진정 국민의 심금을 울릴 수 있을지, 거기에 선전의 중요한 목적이 있으므로 문화 관련의 대중계몽이라는 것과 선전이라는 것이 합일된 것은 운영상에 있어서 매우 좋은 일이라 봅니다.

최 : 선전이라 하면 그동안 대개 선전가를 연상하기 쉬워서……, 앞으로의 선전은 오히려 국민대중의 계몽에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한편으로 문화력을 배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책을 침윤시킨다는 식으로…….

쓰다 : 어떤 의미로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지만, 이번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할 생각입니다.

최 : 출판 관련은 편집과가 생겨서 종래의 『국민총력(國民總力)』 발행을 계속하겠지만 민간의 출판은 어떻게 됩니까?

쓰다 : 총력연맹의 편집과는 연맹의 출판만 다루고 일반 출판사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민간의 출판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총력체제를 갖추는 일은 문화과 쪽에서 생각하겠죠.

최 : 다시 말해 문화과 쪽에서 지도한다는…….

쓰다 : 물론 선전과 관련 쪽에서 총력운동의 정신을 일반에게 침윤시키는 데 각 민간 출판물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을지, 이는 선전 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최 : 지금까지도 정례적으로 혹은 뭔가 큰 사건이 있는 경우에 연맹에서 출판 관련 편집자를 모아 간담회를 열고 지시사항 등을 전하거나 하는 일은 있었지만 그것을 좀 더 종합적이고 기획적으로 통일……이라고 하면 다소 표현이 강하겠지만, 그런 일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쓰다 : 그 점은 지금까지도 정보과 관련, 도서과 관련, 군 관련 등에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었고, 민간 단체로서 발족한 연맹이 어떤 형태로 그것을 할지는 각 방면의 의향을 듣고 난 뒤 할 생각입니다.

## 선전의 중점

최 : 기구에 관한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하고, 구체적으로 말해서 선전에 있어서 중점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이는 좀 새삼스럽긴 하지만…….

쓰다 : 어렵군요.

최 : 다시 말해 외부에서 볼 경우의 관측입니다만…….

쓰다 : 네, 그런 주문을 하나…….

최 : 그동안에는 표어에 나타난 것으로서 내선일체(內鮮一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총독이 오셔서 도의조선(道義朝鮮), 그리고 황도정신(皇道精神)의 철저, 즉 국체의 본의(本義)에 투철하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매우 고원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민중들에게 철저하게 주지시키는 일은 상당히 큰일이 될 것입니다. 선전부도 당연히 그런 점에 목표를 두고 있

겠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일을 하면서 전개할지…….

쓰다 : 선전부 일의 가장 큰 중점은 결국 도의조선의 확립, 국제 본의의 투철한 주지에 있는데, 사상적으로 이를 투철하게 주지시키는 일은 연성부(練成部)가 있고 거기에 사상과가 있어서 대개 거기가 주체가 되어 특별히 고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원래 선전과나 사상과 뿐만 아니라 연맹 전체가 생각할 문제이고, 국민이 모두 생각할 문제입니다만…….

최 : 훨씬 수준이 낮은 민중들에게도 내선일체라고 하면 잘은 모르면서도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점에서 민중 지도도 다소 쉬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형식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표면적으로는 형식에서 시작해 정신을 체득한다는……. 그런데 도의조선의 확립, 국제 본의의 투철한 주지에 관해 보자면 지식계급은 그렇다 치더라도 훨씬 수준이 낮은 계층에 대해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실은 우리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쓰다 : 고이소(小磯) 총독이 오셔서 한 담화에도 형식에서 실천으로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대체로 내선일체라는 큰 슬로건에 의해 형식적으로는 여러 가지 일을 계속 단행한 셈이었고, 이번에는 점차 내용을 정비해 가는 단계가 되었다고 봅니다. 내선일체라고 하면 가령 교육의 보급이라든가 지원병을 비롯한 징병문제 등 당면 정책문제도 있었는데, 그것으로 완전히 형식이 만들어졌고 또 표면화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국책으로서 명료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천4백만 반도 민중들이 모두 그 명료해진 국책을 실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광범위한 문제에 나서서 국제 본의의 투철한 주지에 노력하지 않으면 영혼이 없는, 그런 의미에서 도리어 질적으로 깊고 높아지는 필연적인 발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최 : 그것은 당연히 발전한 단계의 형태이겠지만, 다만 아무래도 요점은 어떻게 그것을 투철하게 주지시킬 것인지에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의 본의를 느닷없이 설명해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생생한 이야기로, 따라서 역사상에 나타난 일본정신을 가장 잘 활용해 실제 인물의 전기를 재미있게 써서 읽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 대동아전쟁의 영향

쓰다 : 다소 구체적인 문제인데, 출판계와 문화계에는 근본적으로 고쳐 생각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국제 본의의 투철한 주지라는 점에서 가장 그것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역시 대동아전쟁이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현재 일역의 국민들이 국제를 기초로 하여 싸우고 있고, 매일 그것은 신문이나 라디오를 통해 논리를 따지지 않고 들어갈 것입니다.

최 : 그에 대해서는 일전에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반도 문단의 움직임을 되돌아 봤는데, 만주사변, 지나사변 그리고 이번 대동아전쟁이라는 식으로 보면, 대동아전쟁 이후 1년이 만주사변 이후 10년보다 문단의 움직임—전환이 빨랐습니다. 다시 말해 그러한 속도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를 읽거나 조사해 보면 그에 대해 대략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동아전쟁 이후 확실하게 미·영을 격멸해야 한다는 것이 신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8일 이전에도 미·영을 반드

시 처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알고는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그러한 신념이 되었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징병제 실시, 이는 문단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반도인’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으로서 ‘국어’<sup>29)</sup>에 의한 국민문학의 건설이라는, 이 세 가지를 명료하게 읽어낼 수 있으므로 이는 대동아전쟁 덕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쓰다 : 시대적으로 보더라도 쇼와(昭和) 시대의 이런 커다란 국가적 전환이라는 것이 대동아전쟁으로 하나의 고개에 올라섰다는 느낌입니다. 제가 항상 말하고 있는 지론인데, 여기서는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만주사변 이래 10년의 준비기를 거쳐 드디어 대동아전쟁으로 세계의 신질서에 일본이 어떤 형태로 추진력이 될 것인지 하는 점이 분명하게 결정된 셈이고, 더 이상 어디로 갈 것인지 선택할 여유가 없는 중대한 시기에 직면했고 오직 매진할 뿐인 형태가 되었습니다.

최 : 그래서 혁신 방향으로 한층 더 빠른 스피드로 달려온 것이군요.

쓰다 : 페리<sup>30)</sup>가 온 이후부터 대정봉환(大政奉還)<sup>31)</sup> 때까지의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생각하면 쇼와 시대의 커다란 전환이 만주사변으로부터 10년이 지나 여기까지 온 것은 그야말로 올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습니다. 역사의 톱니바퀴가 도는 방식이 흐트러짐도 없이 돈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 : 그래서 우리로서는 출판이나 잡지의 편집에 관한 일이 항상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문제인 출판도 그래서 지식계급만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지, 다시 말해 지금 정세를 고려하면 그런 식으로 편중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요. 좀 더 민중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중점은 국체의 본의의 투철한 주지에 두어야 할 텐데,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침투시킬지, 그 문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전부 쪽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을 테니 어떤 좋은 지혜가 없을까요?

## 출판계에 대하여

쓰다 : 조선의 출판물이라는 것은 역시 운송선박이 부족한 이 시기에 여기까지 종이를 수송하고 있으므로 그것은 탄환과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합니다. 조선의 출판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분명하게 가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준이 높은 지식계급에 대해서도 대중에 대해서도 종이를 탄환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생각으로 종합적 기획이라는 구상을 짜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중복된 기사나 출판을 많이 늘어놓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구체적인 결론은 나오지 않지만.

---

29) 일본어.

30) 1853년 군함 4척을 이끌고 우라가(浦賀)에 입항해 일본에 개국을 요구한 미국의 동인도함대 사령관 페리(Matthew Calbraith Perry, 1794~1858).

31) 정권을 천황에게 되돌려 주는 것으로, 1867년 10월 14일 에도(江戸) 막부의 제15대 장군 도쿠가와 요시노부(徳川慶喜)가 정권을 조정에 반환하겠다는 의견을 전하고 조정이 15일 이를 받아들인 것을 가리킨다. 이로써 가마쿠라 막부(鎌倉幕府) 이래 약 700년 이어져온 무가정치는 막을 내렸다.

최 : 각자 나름대로 생각한다고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종합적 기획이라는 것도 필요하겠죠.

쓰다 : 그리고 새로운 경향으로서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신문사에서 농민과 아이들을 위한 편집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인데, 『경성일보』에서는 『황민일보(皇民日報)』를 간행하고 있고, 『매일신보』에서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일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최 : 이것은 매우 텔리케이트한 문제인데, ‘국어’보급이라는 것과 언문에 의한 선전계몽을 자칫 함께 섞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어’보급은 최고의 국책으로서 앞으로 더욱 추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인데, 그런 식으로 여러 사상을 민중들에게 철저히 주지시킬 경우 언문에 의한 것도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쓰다 : 그 점은 라디오 방송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데, 조선어 방송과 ‘국어’ 방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필요합니다. 이는 출판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와 같이 그 역할에 대한 분명한 자각 없이 이루어질 경우 유감스러운 경우도 있다면 그것을 중지할 필요가 있을 텐데…….

최 : 잡지에 대한 희망이나 주문은 없습니까?

쓰다 : 글썄요, 잡지도 재작년부터 상당히 바뀌어 상당히 국책적인 것이 되어서 바람직합니다만, 지금 말한 것처럼 대동아전쟁 이후가 되면 상황은 더 달라질 테니 종이를 운반하는 배를 더욱 절실하게 생각하고, 다시 말해 중요한 선택을 할애해 조선에 종이를 운반하는 일에 대해 좀 더 깊이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한 페이지의 내용에도, 1호의 잡지에도 더 양심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총후(銃後) 전선의 제일선에서 민중을 사상적으로 이끄는 역할로서의 출판, 편집에 더 큰 힘과 새로운 기획, 그런 것이 생생하게 넘칠 것입니다. 그런 점은 아무래도 아직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 문학과 국책의 결부

최 : 어쨌거나 서너 가지 잡지가 같은 일을 해서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새삼스럽지만, 문단에 대해 특별히 느끼고 있는 점은 없습니까? 녹기연맹 주간 시절에는 아무래도 간접적이었지만 이번에 새로운 위치에서 볼 경우…….

쓰다 : 지금도 녹기연맹의 주간이지 않습니까. 하하하…….

최 : 어쨌거나 새로운 문단의 새로운 목표는 역시 징병제 실시에 따른 준비, 그리고 또 하나는 생산확충 문제, 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 징병제에 관해서는 이전부터 하고 있던 일이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더 강화하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인 생산확충과 문학의 결부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도 이는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쓰다 : 일전에 유아사(湯淺) 군이 왔었는데, 그는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산확충 문제와 직접 관련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국책과 문학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조선과 만주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최 : 그렇겠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을 테니 말입니다.

쓰다 : 아무튼 그의 생활의 중점은 만주와 조선의 움직임에 파악하는 데 있고, 그 속에 소설로 삼을 만한 것은 소설로 만들고 수필로 삼을 만한 것은 수필로 만들어 일본 내지 인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풍담 건설공사를 주제로 큰 소설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대한 건설은 반드시 조선의 문인들이 채택해야 할 주제라고 보는데, 도쿄에 살고 있는 작가가 먼저 한 것입니다. 물론 이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는 일이고, 또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주제로 삼아도 좋을 만한 큰 건설 사업이지만…….

최 : 우리 쪽에서도 실은 여러 가지 계획은 있습니다. 즉 징병제 실시에 대한 준비, 언문의 출판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은 야마토문고(大和文庫)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1기는 먼저 30권 정도로 해서 옛날 일본의 위인—그 중에는 문인도 있지만 대부분 무장이 될 텐데, 옛날이야기 책 정도로 30명의 작가들이 집필할 계획이고, 지금부터 연구해서 써도 시간이 부족할 테니 일본 내지에서 쓴 것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을 골라 번역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출판사 하나의 힘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고 도서과장에게는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하긴 했지만 시작하게 된다면 우선 종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해결해서 실현될 가망이 있으면 정보과의 감수를 받아 도서과와 선전부도 도움을 요청하고 문인협회의 소설부 알선으로 집필자를 인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일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비근한 이야기를 통해 알리는 일이고, 그와 동시에 문인의 연성에도 보탬이 된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그만큼 종합적인 것은 아니라 해도 그 밖에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신사(神社) 혹은 신도(神道)에 관한 쉬운 해설이나 고전의 해설이라는 식으로 계속해 나갈 생각으로…….

쓰다 : 좋은 일입니다.

최 : 그러한 것과 또 하나 앞서 나온 문제—생산확충과 문학을 어떤 식으로 결부시킬 것인지, 여기서 실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쓰다 : 다시 말해 지금의 지식계급—지식계급이라 해도 이과나 공학 쪽도 지식계급임에는 분명하지만 지금은 주로 문화 방면을 말하는 것인데, 그동안 이러한 지식계급은 이상한 외국 지식은 갖고 있지만 자국의 경제지식이나 정치지식은 별로 없었죠. 특히 조선에서 그러합니다. 생산력 확충이라고 해도 그것이 전시하의 국가경제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실언 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막연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확충이라고 하면 경제 분야에 관한 일이고 전쟁에 관련이 있는 것을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일단은 모두 알고 있지만 그것이 진정 어떤 것인지, 총후의 국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은 저도 잘 모르지만, 다만 간단히 생산확충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전투력의 충실과 총후 생활의 버팀목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산력 확충 없이는 전투력의 충실, 총후 생활의 버팀목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쌀이 부족하고 배급과 관련해서 충분히 배급되지 않는다면 이런저런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대체 쌀이 그렇게 된 까닭이 무언지를 먼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문화인은 쌀이 부족하면 배가 고프다는



것만 머리에 있어서 넓은 전시경제에서의 본질적인 관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력 확충운동에 대한 자신의 생활 감정 이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생산력 확충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생활 감정은 다른 데 있어서 커다란 요청과의 절실한 감정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죠…….

최 : 결국 문학에서는 모든 것이 작품이 되고 논의되는 대상은 작품이 되어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생산력 확충의 문제도 오늘날의 문학에 올바르게 반영되면 좋을 텐데, 그런 작품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작가와 생산이 결부되지 않아서, 그래서 광산 등에 견학하러 가는 것을 생각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만…….

쓰다 : 다시 말해 오늘날까지의 작가는 소비 부분만을 담당하고 묘사하고 있었죠……. 요컨대 소비자였던 거죠.

## 문단의 동원

최 : 그래서 선전부에 대한 가장 큰 희망은, 물론 연성부가 있어서 거기서 일반 청년들의 연성을 담당하고는 있지만 지금 말한 것 같은 의미에서의 작가의 연성—생산력 확충의 문제를 문학의 큰 테마로 다루려고 할 경우 아무래도 문단을 거기로 이끌고 가는 것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론, 평론의 힘도 필요하고 모든 힘이 그곳으로 향해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이처럼 지도할 경우 어떤 포인트 같은 것을…….

쓰다 : 이것은 저만의 생각입니다만, 시국의 인식, 물론 지금 시국인식이 없는 사람은 없을 테고 시국인식이라는 것이 새삼스럽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작가라면 작가의 인식, 즉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국책의 중대함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보자면 아무래도 그 인식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생산과 문학의 결부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지도에도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넓게, 가령 우리나라의 선박이 얼마나 침몰했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철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동과 철을 회수하는 운동이 일치가 되어 감지되어야 하겠지만, 작가로서도 배가 침몰했다는 신문기사와 애국반에서 하는 동이나 철을 회수하는 것이 완전히 일치할 정도의 감각을 지닌 사람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 : 이를테면 그것이 공식이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갖가지 고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문학과 작가는 그런 일에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쓰다 : 그런 것을 쓰면 선전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일본의 건설적 고뇌가 거기에 있고 그 건설적 고통 자체는 또 역사적인 것이기도 하고, 따라서 문학의 커다란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자칫 간판쟁이 같은 일을 하고 마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은 새삼 말할 것도 없지만…….

최 : 결국 문학이 국책에 협력하는 길은 그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쪽에서는 『국민문학』과 출판 일체를 동원해 실행할 각오인데, 다소 실례일지도 모르겠지만 문학의 그러한 지도 연성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연맹에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문학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가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없었던 것도 물론 아니지만, 쓰다 씨는 문학이라

는 것을 존경하고 그런 의미의 일을 해주기를 바라고, 다른 여러 가지 일도 있겠지만 꼭 그런 점을 우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쓰다 : 유아사 씨와는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만주의 개척사업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권위 있는 것으로 만든 것은 이른바 개척문학이었다고 했습니다. 국책을 민중들에게 이해시키고 아울러 그것을 권위 있게 만든, 그런 점에서 근래 수년 간 이른바 개척국책에서의 문학의 관계는 큰 시사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최 : 반도에서도 그런 의미의 농민문학이 반드시 나와야 하는데…….

쓰다 : 그런 의미에서 반도의 문단이 큰 국책이라는 데 진정으로 나서고 공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전시하의 문학, 폭넓게 문학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전 : 「文化と宣傳(對談)」, 『國民文學』 제3권 제1호, 1943년 1월, 76~85쪽〉

## 16) 지식인 총진군의 시기(사설)

### 1

전쟁이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는 동시에 국내에서의 필승체제는 점차 정비되기에 이르렀는데, 아직도 여전히 완전한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즉 일억 모두 출정자의 기백으로 직역(職域)에 정진해야 하는 때에 여전히 망설이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국내일치를 방해하는 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바꾸어 말하자면 만세 소리를 들으면서 출정하는 용사, 먼지를 뒤집어쓰고 직장에서 정신(挺身)하는 산업전사들은 하나같이 위대한 성전(聖戰)의 제일선을 짊어지는 자임은 물론이지만, 이들만으로는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광고(曠古)의 대전쟁을 싸워낼 수는 없다.

### 2

이제는 전선도 없고 총후(銃後)도 없으며, 국민이 있는 곳 전체가 전쟁터라는 것은 최근 특히 강조되고 있는 바이다. 노인도 젊은이도, 남자도 여자도 모두 각자 힘을 합쳐서 총력전에 출정하는 용사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용사가 될 수 있는 정신(挺身)을 하고 있을까? 더 솔직하게 말해서 세상의 이른바 지식인은 과연 그 진퇴에 유감스러운 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일본 내지에는 이미 일본문학보국회(日本文學報國會)가 있고, 일본언론보국회도 생겼으며 조만간 일본미술보국회(日本美術報國會)도 결성되려고 한다. 어쨌거나 그 시국에 대한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는 그 활동에 수많은 눈이 주시하고 있다.

### 3

반도에서도 최근 군립하고 있던 문학 분야의 5단체를 통합해 조선문인보국회(朝鮮文人報國會)라는 것이 생겼다. 조선미술가협회도 그 기구를 결전체제에 적응하는 동시에, 이미 생산 각 부문에 작가를

파견해 현지보고전을 여는 등 일단 국책의 선에 부합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백척간두 한 걸음을 더 전진시키고, 내가 지식인에게 요망하는 바는 신문 등에 의해 시국의 한 장면 한 장면을 인식할 뿐인 일반 국민들에게 격렬한 투지와 불타는 적개심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사명이다. 가장 시대의 첨단을 걷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은 가장 구체적인 틀에 갇혀 있던 지식인이 발걸음을 맞추어 쫓기해서 지금이야말로 대중의 진두에 서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

그러나 이는 단지 재야에 있는 지식인에만 한정되는 일이 아니고, 업계에서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앙에는 기술원이라는 것이 설치되어 과학자를 위해 참전의 문이 열렸지만 그 문이 좁다면 모처럼의 의의도 줄어들 것이고, 관변에서도 그저 지엽말절 같은 일에 갇혀 진정 전쟁에 대한 협력을 희망하는 자가 스스로 그 협력을 머뭇거리게 하는 유후상태에 있음을 우려하고, 정부도 민간도 지식인인 한에서는 모두 총진군하는 길을 열어서 좌면우고를 경계하고 솔선해서 시간(時艱)에 대한 적극성을 발휘해야 할 시기이다.

〈출전 : 「知識人總進軍の秋(社説)」, 『京城日報』, 1943년 5월 10일〉

17) 국민문화의 방향(좌담)

**출석자**  
 가토 다케오(加藤武雄)  
 후쿠다 기요토(福田清人)  
 다테노 노부유키(立野信之)  
 후루야 쓰나타케(古谷綱武)  
 유진오(俞鎭午)  
 이무영(李無影)  
 데라모토 기이치(寺本喜一)  
 최재서(崔載瑞)  
 김종한(金鐘漢)

**새로운 일본문학**

최 : 여러분 피곤하시죠. 바쁘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도 별로 없으니 따로 화제(話題)를 설정하지는 않겠지만 여기로 오신 뒤의 감상 등을…….

가토 : 아무래도 화제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군요.

최 : 화제는 일단 일본문학의 장래라는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만, 그러면 아무래도…….

가토 : 무슨 말 하셨죠? 후쿠다 군.

후쿠다 : 아뇨.

최 : 일본문학보국회가 생기고 나서 일본 내지의 문단도 상당히 긴장감을 갖게 되었다고 봅니다만.

가토 : 일전에 있었던 모임에 히비노 시로(日比野士朗) 군이 말했다고 하는데, 그 친구는 좋은 병사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고 소설은 별로였지만 병졸로서는 훌륭하게 죽었다는 말을 듣는 것이 소망이었다는 말을 했다더군요. 나는 일전에 가지 않았지만 기쿠치 간(菊池寛) 군도 군이 이런 시대에 좋은 소설을 쓰는 것보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 소설에는 좀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런 소망이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후쿠다 : 그렇지 않아요. 그건 역설 같은 것이고, 이런 시대에 좋은 예술을 낳고 동시에 문학자는 이를 테면 가능한 잡일이든 뭐든 훌륭하게 처리한다는 것을 너무 강하게 결부시켜서…….

가토 : 뭐 어쨌든 일본 내지의 문학자는 그런 지점에 와 있어요. 이른바 문학지상주의라는 것에서는 크게 벗어나고 있죠. 상황이 매우 절박한 시기에 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소설이 더욱 좋은 문학이 된다는 점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후쿠다 : 그렇습니다.

가토 : 그런 소설 없이는 일본의 문학의 장래도 생각할 수 없죠.

다테노 :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실 문제로서 나는 처음 중국에 종군했을 때 중국이 갖고 있는 대륙의 풍물의 거대함, 그리고 그런 커다란 곳에서 성장하는 중국민족이라는 것을 보고 일본은 앞으로 그런 것을 짊어져야 하고, 그런 것도 우리 생활감정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 일본문단 안에 자라고 있는 문학의식, 그 표현력—그런 것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죠. 형용사가 매우 부족해요. 그런 점에서도 일본문학이 하나의 전기를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조선에 와서 나는, 그동안 조선에 관해서는 별로 알지 못하지만 조선의 작가들이 쓴 것을 통해 느낀 점인데, 매우 어두운 인상을 받고 있었습시다. 그것은 역시 역사적인 것에서 오는 것으로 상상됩니다. 이런 정세가 되면서 반드시 다시 일어서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를 맞이해 그 어둠이 날아갔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일본문학이 대륙이나 남양의 커다란 생활면에 부딪혔기 때문에 큰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작가들도 큰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최 : 조선의 문학은 매우 어둡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모양인데, 히노(火野) 씨의 『보리와 병사(麥と兵隊)』를 읽어봐도, 거기에도 며칠 동안 행군해도 보리뿐이어서 병사들이 다소 허무한 면을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다테노 : 다시 말해 자신의 감정과 맞지 않아요. 기존의 문학 감정으로는 맞지 않는 거죠.

## 본원으로 돌아가라

가토 : 어쨌거나 조선의 문단이든 일본 내지의 문단이든 그 문학의 정신—세계관,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원시로 돌아가 재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고민은 우리 고민이기

도 합니다. 메이지(明治) 이후의 영미적인 세계관, 그것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전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후쿠다 : 원래로 되돌아간다는 그 점인데요, 나는 일본문학에도 어두운 측면이 있었고, 특히 자연주의 이후 그랬다고 보는데, 이번에 부여에 가서 부여의 석탑이나 불상—거기에 무슨 샷갓 같은 것을 덮어 두었더군요. 유머러스한 것을 느꼈는데, 정말 온화한 것을 갖고 있더군요. 조선의 옛날, 아주 옛날의 정신은 역시 일본의 아주 옛날의 『고사기(古事記)』, 『만엽집(萬葉集)』에서 볼 수 있는 온화함과 똑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여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인상 깊은 곳입니다. 어둡다는 것은 아마 그 이후겠지요.

최 : 네, 최근의 산물이죠.

다테노 : 부여의 옛날의 소박한 온화함은 분명 일본의 옛 문화와 통합니다. 그것이 그 뒤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가 부가되어, 가령 중국의 유교가 침투했기 때문에 생활의 다양한 부분이 중국적 영향으로 왜곡되어 왔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죠. 현재 조선 사람들의 생활을 보고 있으면 곳곳에 유교의 영향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도 반성하고 극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하는 국면에 봉착했습니다.

유 : 그 점은 동감입니다. 조선의 옛 서적—『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에 있는 전설을 살펴보면 뭐라 할까요, 매우 풍순(豊醇)한, 내용이 풍부하고 온화한 점이 있어요. 그것이 대륙으로부터의 침략 이후 완전히 사라졌죠. 거의 7, 8백년 간…….

다테노 : 거의 천년간.

유 : 그 이전으로 가면 매우 풍순한…… 『만엽집』에나 나올 법한 그런 것이 있었어요. 경주에 가 보면 한층 더 그런 점을 느끼죠.

최 : 예술의 성쇠 경로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조 때부터 그 기술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예술적 천분에 대한 자신감마저 잃었죠. 신라와 백제의 예술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으면 거의 이국인 같은 느낌을 줍니다. 방금 말씀하신 유교문화의 영향이죠.

후쿠다 : 내가 놀란 것은 불국사 위에 있는 석굴암입니다. 거기에 있는 석불이죠. 매우 혼연된, 이상한 말로 들리겠지만 걸작 단편소설을 읽는 느낌입니다. 참 많은 궁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광선의 상태라든가 일본해에 접한 위치라든가 하는 점…….

김 : 후루야 씨는 하실 말씀이…….

## ‘국어’ 와 조선

후루야 : 제가 여기에 와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문제는 무엇보다 ‘국어’ 문제입니다. ‘국어’라는 것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그것을 정말 반도에 침투시키는 일이 문학자가 해야 할 첫째 임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 내지를 떠나기 전에 반도 작가의 작품을 조금 살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어’를 받아들이는 방식, 사용 방식이 매우 소극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있는 기성의 말을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것

은 역시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국어’를 자신의 것으로서 사용하는 태도, 그것이 그대로 정신의 태도일 텐데, 무릇 언어라는 것은, 이는 제 생각이 아니라 학자가 말하고 있는 것인데, 고정된 것이 아니고 언어라는 것은 생활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죠. 즉 언어를 바꾸어가는 것은 생활입니다. 따라서 저는 반도라면 반도라고 하는 일본의 한 지방이 아니라면 탄생하지 않는 생활감정, 감수성이라는 것이 ‘국어’<sup>32)</sup>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나는 이전에 홋카이도(北海道)의 원시림을 개척한 노인으로부터 개척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키 큰 불을 피워 일을 했다.” 이 “키 큰 불을 피워”라는 표현이 내게는 매우 재미있게 들렸어요. 짝짝한 원시림의 저녁의 어둠이라는 느낌과, 또 높이 치솟은 불길이 개척민의 감정의 하나의 보루였으리라는 감정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용사라는 것은 그때까지 없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새로운 생활과 감정 속에서 탄생한 언어로서 그런 생활을 묘사하는 문학의 하나의 뿌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뿌리가 없으면 문학은 진정으로 대중들에게 침투해 들어갈 힘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지방이 아니고서는 탄생할 수 없는 언어여야 합니다. 가령 규슈(九州)의 봄과 홋카이도의 봄은 봄이 찾아오는 방식도 다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느낌도 다를 것입니다. 홋카이도라면 무거운 지붕 위의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봄이 찾아온다고 해도 아직 먼 산에는 하얀 눈이 보이죠. 들판에도 산에도 봄이 왔다는 느낌과는 다릅니다. 이는 규슈의 생활이 아니면 탄생할 수 없는 언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 조선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어’를 정말 기르는 힘이고 그것이 없으면 ‘국어’는 진정한 힘이 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의 협력이 작가들에게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저 도쿄(東京)에 있는 말을 받아들여 그것을 사용한다고 해서 살아있는 ‘국어’가 생기지는 않아요. 진정한 문학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도쿄에 있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김 : 그러나 조선에서의 ‘국어’문제, 언어문제는 정치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장혁주(張赫宙) 씨가 언젠가 조선에 ‘국어’를 보급시키는 데 있어서 결코 조선냄새가 나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실은 좀 당황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황민화라는 것을 조선에 살고 있으면서 생각한다면 국민적인 신념이 깊어질수록 조선의 옷을 입고 조선의 온돌에서 자더라도 훌륭한 황민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방금 나온 언어의 문제도 후루야 씨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한편으로 또 하나의 생각으로는 굳이 말하자면 황민의 표본으로서 지금의 내지인—추상적인 일본인이 아니라—지금의 내지인 같이 모든 것을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느 쪽이 좋은지 모두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후루야 : 가령 반도에서 어릴 적부터 자라온 사람의 그림과 계속 일본 내지에서 자란 사람의 그림은 감각이 서로 다르다는 말을 들었고, 또 그게 사실일 겁니다. 예를 들어 황토 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곳의 흙과 도쿄의 흙은 다르고 그것이 역시 그 사람의 감각을 키우는 뿌리가 됩니다. 황토 흙을 아름답다고 보았을 때 일본 내지 사람에게 황토 흙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홋카이도의 경우도 그런 것이죠.

---

32) 일본어.

유 : 그러나 조선 문단의 현 상황은 그런 근본적인 이론보다 아직 ‘국어’의 사용법이 아직 어색해요. 일단 표준어를 익히는 일에도 힘에 부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다음 단계…….

다테노 : 이곳으로 오기 전에 이무영(李無影) 군에게 잠깐 들었는데, 자기네들은 지금의 국민학교 학생 들한테도 적수가 안된다(웃음)고 하더군요. 국민학교 학생들은 내지인과 똑같은 표현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는군요.

후루야 : 그렇다면 방금 제 말은 취소해야겠군요.

유 : 아뇨. 방금 제가 한 말은 단지 실상을 말했을 뿐입니다.

다테노 : 장혁주 군조차 아주 난처한 모양입니다.

최 : 이는 또 일본 내지 쪽 분들의 평가에 따라서도 사정은 달라집니다. 매우 참신하고 독창적인 표현을 해도 비일본적이라며 배척한다면…….

다테노 : 그러나 그것은 일본의 문단에서는 역시 후루야 군이 말한 것 같은 표현을 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일본문학 전체에 있기 때문에…….

후루야 :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국어’가 반도에 의해 풍부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테노 : 거기까지 자네 이야기는 가야겠지.

김 : 그런 식으로 이질적인 것이 첨가되는 것을 반겨준다면 고마운 일입니다. 일본문화가 풍부해지는 하나의 방법이겠죠.

최 : 여기서 방금 깨달은 점인데, 조선에서는 방랑성이 있는 생활을 “잣나무 잎 같은 생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조선에서도 표준어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조선의 황량한 가을에 잣나무 잎이 뒹구는 모습을 떠올리면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비근한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을 이쪽 작가들이 계속해서 표현으로 옮기면 일본문학에 플러스 의미를 지닐 것으로 봅니다.

다테노 : 하지만 꽤 어려운 문제라서…… 거기까지 가는 것이 말이죠. 홋카이도에서 온 작가가 일본 내지의 눈을 보지 못했고 홋카이도의 눈바람밖에 모른다고 하고, 그런 사람이 내지의 함박눈을 보고 “아아, 주신구라(忠臣藏)의 눈이 내리고 있구나…….” (웃음)

최 : 재미있군요.

다테노 : 그 표현이 재밌어요.

## 황도조선연구위원회라는 것

김 : 가토 선생님, 황도조선연구위원회(皇道朝鮮研究委員會)의 취지는 일본 내지인에게 조선을 알리는 일입니까? 아니면 조선인을 계몽하는…….

후쿠다 : 둘 다 있습니다. 문학보국회에 여덟 개 부회가 있고 각 부회를 통해 네 개의 연구위원회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만들어진 순서를 말하면 농민문학위원회, 대륙개척위원회, 황도조선연구위원회, 그리고 이번에 남방에서 돌아온 사람들로 구성된 남방문화위원회.

김 : 일본 내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그 점은 내지에 있을 때는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즐거운 기분으로 내지 친구들과 사귀고는 있지만, 이곳으로 돌아온 뒤 그 거리감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일본 내지에서는 조선에 관해 전혀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그런 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달리 주문할 게 없지만, 조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에서는…….

후쿠다 : 반도 자체에 말입니까? 그것은 영향을 줄 만한 점이 있겠죠.

가토 : 소설이나 시—문학이라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 문학보다 더 큰 사명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문학 연구회가 아니라 문화연구회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루야 : 저도 이곳에 와서 생각한 점, 느낀 점을 서너 가지 일본 내지를 향해 쓰고 싶습니다.

가토 : 위원회는 다시 말해 중앙협화회(中央協和會)—일본 내지에 있는 조선 사람들을 돕는 모임이죠. 그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진행할 생각도 있고, 물론 일본 내지인이 조선 사람들에 대해 갖고 있는 왜곡을 정정하는 것도 하나의 큰 과제입니다.

후쿠다 : 신태양사(新太陽社)의 조선예술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문학보국회에서 상을 주는 것처럼 조선에서 자란 문학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가토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내지에 온 조선 사람들에 대한 계몽, 또 내지인에 대한 계몽운동이라는 세 가지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루야 : 방금 일본 내지를 향해 문장을 쓰고 싶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동시에 조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테노 : 아무튼 자세한 일의 목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결국 한편으로는 조선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일본 내지인들을 계몽하는 역할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일어서려고 하고 있는 조선문학을 끌어올려야 합니다—그런 대강의 목표 아래 일을 진행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조선을 자세히 알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일이어서, 나는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관찰을 하러 온 것입니다.

김 : 어쨌거나 그 모임에 관해 발표된 이후 조선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이런 시대를 맞이해 매우 든든하다. 희망을 느낀다. 과거에도 그런 것은 있었지만 어설픈 휴머니즘이 대부분 이었고, 결코 조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일도 구체적인 데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토 : 그렇죠. 이번에는 제대로 하고 싶군요.

최 : 일본 내지인이 가능한 이곳을 보고 돌아갈 필요도 있겠지만, 동시에 일본 내지의 신문이나 잡지에서 이곳 사람들을 동원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특히 규슈 등에는 이쪽 사람들이 탄광 등지에 많이 있으니 그런 지방의 신문이 더 적극적으로 조선의 작가에게 글을 의뢰하는 일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는 신문이나 잡지의 편집자들에 대한 희망입니다만.

가토 : 일본 내지의 저널리즘이 반도의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신문이나 잡지 기자들에게 그런 생각을 전했습니다.



## 징병과 문학

김 :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선인의 황민화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일본은 반드시 이긴다, 나는 일본인이다’ 하는 정도로 좋으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재서 씨, 유진오 씨, 이무영 씨가 계시지만 저처럼 젊은 사람은 일본정신이라 해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나이가 훨씬 많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선배님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다. 지금 조선 작가들의 연성에는 참으로 눈물겨운 점이 있어요. 조선에서는 현지에 갈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칫 관념적인 고전에서 출발하려는 생각을 갖기 쉬운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만, 일본 내지에 돌아가신다면 현지에 갈 수 있는 기회라도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토 : 이번에 징병제가 실시되어 반도 청년들도 정규병으로서 총을 들 수 있게 되었으니 당연히 작가들도 현지에 갈 수 있게 되리라 봅니다.

다테노 : 나는 그런 점에 관해서는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일본 내지 문학의 전환도 우리 동료들 20, 30명의 경험만으로는 문학적 기초가 박약합니다. 수백만 명의 병사들이 새로운 일본과 동아 건설을 위해 전장에서 여러 가지를 느끼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를 느낀 점이 근거를 형성하지 못하면 새로운 문학은 결코 탄생할 수 없을 겁니다. 내년부터 징병제가 실시되니 수많은 반도 청년들이 실제 전쟁 장면에 부딪히고 돌아온다면……. 물론 몇몇 작가들이 종군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많은 일을 할 수 없을 겁니다.

후쿠다 : 그렇죠.

다테노 : 양쪽이 서로 맞물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작가가 먼저 갈 필요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경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최 : 후루야 씨, 도쿄의 평론가의 특별히 새로운 경향 등을…….

후루야 : 글쎄요, 실은 요즘 잡지를 별로 보지 않아서.

가토 :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새로운 국학의 부흥입니다. 다시 말해 고전, 신전(神典)의 연구. 용의(戎意)—거짓된 마음이 아닌 순수 일본적인 것—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나 가모 마부치(賀茂眞淵) 등을 읽는 데에 대한 관심이랄까 열의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의—거짓된 마음을 배척하는, 단지 영미적인 것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일본인의 사고방식을 순화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도 정말 근원으로 되돌아가면 우리와 똑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의식 없이 조선에 황민화는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조선에 진정한 국민문학은 성립하지 않을 겁니다. 이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김 : 데라모토 문화과장님도 한 마디…….

데라모토 : 가능한 연락을 취하면서 황도조선연구위원회의 일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가토 : 마지막으로 실은 저는 편지를 한 통 받았어요. 이 편지에는, 즉 자신은 이런저런 사상적 파란을 거쳐 왔지만 이 전쟁 와중에 일본인으로서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는 느낌이 들고 본인은 조선인인데 어째서 이런 이상한 감격이 생기는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이는 이무영 군에게도 제가 강하게 말한 것인데, 나는 조선인과 내지인은 완전히 같은 민족이라고 봅니다. 동종동혈(同種)

同血)의 민족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 편지를 쓴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다시 말해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연스레 고개를 숙이게 되는, 이는 역시 민족에 같은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자각했다는 말입니다. 근래 지정학적으로 조선은 일본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현대 국가는 일억 이상의 인구가 없으면 존립 불가능한 그런 정세에 있기 때문에 조선은 어차피 생존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합체해야 한다는 지정학적 해석을 나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서 온 의견으로, 사양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였던 것이 도중에 여러 사정이 있었고 지금 다시 원래로 되돌아가려 한다는 그런 생각을 나는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으면 나는 기쁘지 않다는 말을 했죠. 이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이라고 하더군요.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참으로 기쁩니다.

김 : 그것은 최근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운명의 공동 감정이죠. 지정학적인 해석도 개전 직후의 조선의 현실에서는 무리도 아니었지만, 최근 조선의 모든 사람들의 감정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

〈출전 : 「國民文化の方向」, 『國民文學』 제3권 제8호, 1943년 8월, 16~24쪽〉

## 18) 데라모토 기이치(寺本喜一), 전쟁과 문화 - 전쟁을 지도하는 어능위(御稜威)의 문화

법문계 학도는 학업을 중단하고 총출진했다. 전 학도의 통년 근로동원체제는 확립되어 생산전선으로 끌기했다. 고급 예능에 대한 결전 비상조치는 내렸다. 문화 능력 또한 그 모든 것을 동원해 전쟁목적에 반환되고 헌납되어야 한다. 문화 또한 무장을 요청받고 있다. 문화력을 갖고 있는 자 또한 일단 문화력을 반환 혹은 정지하고 무기를 들고 쫓겨야 하는 시기에 다다랐다. 이리하여 문화의 공백시대가 오자 서양문화 이념은 두려움에 떠난다. 경솔부박(輕率浮薄)한 문화인은 이를 한탄하면 문화의 위기를 외치고 있다. 귀축미영(鬼畜米英) 문화이념의 소지자는 전쟁의 참혹함에 전쟁은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며 문화의 자기분열, 자기붕괴를 시도하고 자포자기 상태로 로마나 뮌헨의 박물관, 미술관, 식당, 학교 등을 폭격하는 짓도 마다하지 않는 야만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는 외국의 사례를 들 필요도 없다. 시국은 문화라는 말조차 적성적(敵性的)인 것으로서 혐오한다.

문화인은 과연 싸우고 있는가 하는 맹렬한 비난을 받게 되었다. 지금 우리가 머리 위에 수백 대의 적기의 공습을 받고 있다고 하자. 우리는 정직하게 생각한다. 이 순간 우리는 사상을 문학을 음악을 연극을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자연스레 문화 활동을 중지하고 오로지 방공 무기를 들고 폭탄·소이탄과 생명을 건 싸움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도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서 문화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방공 활동의 다음 순간에 이미 사상전·문화전에 나서야 한다. 음악인은 곧바로 취주악을 연주하며 가두행진을 하거나 혹은 야외음악으로 소침해진 시민들을 고무하고, 연극인은 야외연극을 통해 공습으로 혼란에 빠진 인심을 수습하고 전쟁 자체 속에서 시민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

종이연극, 이동전(移動展)을 동원하고 문인들은 시, 소설, 수필을 거리에 내걸어서 격려의 강연회를 열고, 화가는 화필을 통해 선전미술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독일의 KDF에서 볼 수 있는 선전 중대, 문화인 중대 같은 문화인의 군단조직을 통해 군이나 경무(警務) 관련 지도 아래 총횡무진 활동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방공 무기를 문화 무기로 바꾸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직접 공습 하에 노출되지 않는 때에도 끊임없이 문화전쟁은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적국의 사상을 격파 하는 사상전투원이 될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민심의 전의를 고양시키고 민심의 적개심을 불태우기 위해 늘 문화 무기를 갈고 닦아야 한다. 또한 전쟁의 성패는 총후(銃後)의 생산전쟁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무관리 문제가 눈앞에 크게 펼쳐져 있다. 노무관리는 결국 근로문화의 문제이다. 문화 관계자는 이 관리 방면에서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총후의 건전한 오락의 제공, 전시생활의 지도, '국어'<sup>33)</sup>보급 강습 담당 등은 문화인이 할 수 있는 봉사 세계이다.

이처럼 오른손에 방공 무기를 들고 왼손에 문화 무기를 들어 문무일체(文武一體)가 실현되는데, 그렇지만 문화는 본질적으로는 무기가 아니다. 문(文)의 본질은 무(武)가 아니다. 그것은 당연히 서로 나아가는 방식이 다른 것이다. 문화 관계자는 전쟁의 현실이 절대적인 비율로 시종일관 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현혹됨으로써 본질인 문(文)을 망각하고 일시적으로 생병법(生兵法)을 통해 무에서도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무를 자만하고 자신의 발밑에 구멍을 파서 문화가 지닌 진정한 힘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문(文)을 통해 전쟁에 진정 이기기 위한 문화의 올바른 모습을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이전에 청산해야 할 문화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

이른바 창백한 문화인은 일단 전쟁에 짓눌려 침묵하고 전쟁에 압도되어 불임, 무기력, 느린 발걸음을 보이고 있다. 아니면 될 대로 되라는 식의 태도로 안이하게 전쟁에 이용되거나 혹은 교활하게 전쟁에 편승하려는 장사꾼 근성의 문화인도 있다. 전쟁에 이용당하는 것은 싫다며 몰래 불평을 늘어놓고 지금은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되는 시기라며 침묵하는 잠재적 적성 문화인도 있다. 자신은 편승을 용납할 수는 없다며 국가존망의 시기에 한층 더 묘한 명인지질을 드러내는 사람도 없지는 않다. 이러한 문화관념은 모두 미·영적 개인주의적인 것으로서 철저하게 타도되어야 한다. 미·영에 대한 선전은 미·영에 대한 문화전쟁의 선언임은 당연하다. 안타깝게도 이를 새삼스럽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 전환을 맞이한 문화계의 느린 발걸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문(文)은 무(武)와 다른 본질을 갖고 무(武)와 맞물려 이 전쟁을 수행해 나아가야 한다. 전시생활은 이를테면 생활을 향유하는 문화생활을 도시에서 점차 빼앗아 찻집, 요리점, 극장 등과 같은 분위기 있는 문화생활도 지금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내다버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 되었다. 문화는 지금 사람들 마음 속에 조용히 들어앉아 있다. 문화는 본질적으로 따뜻하고 안정된 것이다. 그것은 가정에서 먹는 푸짐한 음식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글자 그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깊이 궁리한 정성이 들어간 것이다. 문화는 친절하다. 문화는 생활의 저변에 파고드는 것, 문화는 생활을 자연에서 질서로 바꾸는 것, 인간생활을 올바르고 아름답고 강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전시 하에서도 당연히 인간으로서 존재해야 하는 방식이다. 그야말로 전쟁이기에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전쟁이기에 거리는 청결해야 한다. 전쟁이

33) 일본어.

에 불건강해서는 안 된다. 전쟁이기에 친절하고 깊이 있는 따뜻한 것이 있어야 한다.

문화가 전쟁을 약화시키고 문화는 문약하다고 비난받는 것은 올바른 문화의 모습이 아니고 올바른 생활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이다. 그것은 생활의 찌꺼기나 침전물에서 나온 더럽고 부패한, 짓밟혀도 되는 문화일 뿐, 결코 문화의 위기는 아니다. 문화의 침전은 서양에서는 더 이상 어찌 할 수도 없는 지점에까지 이르렀다. 조선에서도 과거 문화의 인간의 메마른 뿔가루가 쌓이고 쌓여 솔직하고 소박하고 간단하고 깨끗한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 어쩐지 더럽혀지고 말았다. 왜곡되어 있다. 이러한 과거 문화의 찌꺼기를 씻어낼 시기가 오고 있다. 지금은 도리어 올바른 문화의 고양을 맞이해 신이 내려주신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시기이다.

문화의 본질은 결코 나약하지 않다. 나약한 것도 있지만 강한 문화가 있다. 문화는 본질적으로 전쟁과는 다른 것을 갖고 있지만, 전쟁을 수행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건강하고 남성적인 것이다. 문화는 창조이다. 그것은 늠름한 생명의 발현이다. 탄생이다. 대동아전쟁의 진행은 일본인으로서의, 신민으로서의 커다란 새로운 감정의 구니우미<sup>34)</sup>를 매일 행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 전환하지 못하는 문화능력은 불필요하다. 어정쩡한 문화력이라면 이를 미련 없이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아니, 보다 적극적으로 과거 일본의 전통을 만들어온 문화력은 이를 국가에 바치고 봉사해야 하는 유일한 시기에 다다른 것이다. 과거 일본문화의 뿌리에 있는 것도 모두 현상하고 싸워야 한다. 청산도 햇빛은 산이 되었고 온 산천을 대군(大君)<sup>35)</sup>에게 비쳐야 하는 때가 된 것이다.

우리는 종래의 문화 관념에 달라붙어 있던 영미적인 것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전환을 단행하고 모든 허식을 벗어던져 일단 문화적인 것과 무관하게 보이는 야성의 모습을 취해야 한다. 먼저 마음의 알몸이 되어 마음의 국민복을 입으라. 벌거숭이가 되어 세례를 받아라. 봉공하기를 원하라. 봉공하는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심경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인은 우선 보도작가, 보도화가로서 열심히 전쟁을 뒤쫓아 다니는 체제를 취했다. 아무리 괴로워도 전쟁을 뒤쫓아 다녔다. 이는 결코 편승이 아니다. 지각한 자는 아무리 그것이 수치여도 전쟁을 따라잡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는 전쟁이 발이 더 빠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지금은 한시라도 안이하게 있으면 지각하게 된다. 우리는 온몸으로 돌진하도록 하자. 막연한 국가봉사의 관념을 뛰어넘어(즉 국민연극이라든가 국민문학이라는 세계를 뛰어넘어) 일신을 천황에게 모아 필사적으로 전신을 던지자. 일거에 지각의 계곡을 뛰어넘자. 긴장감을 갖고 일본신민으로서의 문화의 싸움을 위해 목숨을 내던지자.

그러나 새삼 말할 것도 없이 전쟁의 표피를 스치는 안이한 문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전사는 일시적인 선전적 언사를 낭비하고 혼자 잘난 체 하면서 석기(蓆旗)<sup>36)</sup>를 흔들고 있는 것처럼 공허하게 끝나고 인심에서 떠난 곳에서 꺾기해서는 안 된다. 전첩(戰捷)을 얻기 위해서는 유무형의 전력을 한 곳에 집중해야 한다. 문화가 지닌 강인함은 무형의 전력으로서 비로소 강하다. 삭막하고 찢어진 깃발, 찢어진 포스터 같이 민심의 심리에 반하는 문화전쟁(반작용을 동반하는)을 하는 것은 깊이 반성해야

34) 国生み. 일본의 국토창세담으로 전해지는 신화. 이자나기와 이자나미 두 신이 혼돈 속에서 섬을 만든다. 구니우미(나라낳기) 신화 뒤에는 가미우미(神生み, 신낳기)가 이어진다.

35) 천황.

36) 일본발음으로는 '무시로바타'라 하고, 민중봉기 등에 사용된 깃발이다.

한다.

문화는 단순히 이기기 위한 수단이다.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문은 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문화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안정이다. 인심을 흔들림 없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필사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때이다. 이 필사적인 각오 속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힘이 바로 문화이다. 동중정(動中靜)이다. 문화는 정(靜)이자 부동의 힘으로 시대의 대조류와 더불어 당당히 움직여가는 것이다. 우리는 필사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 시기에 있다. 일신을 바치는 심경은 참으로 깨끗하고 강한 것이다. 그 심경이란 다카무라 고타로(高村光太郎)의 시와 같이 마음이 넓고 가득 찬 풍요로운 것이다. 그것은 일발필중(一發必中), 문화의 목표를 놓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일심을 담으면 반드시 목표에 명중한다.

전쟁은 인심을 불안하게 만든다. 전쟁을 안정시켜야 한다. 격렬한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면서 그 밑바닥에서 가만히 견디며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문화의 큰 힘이다. 이것이 진정한 전력의 증강이다. 문화는 국민의 저력이다. 문화는 축적된 동력이다. 인심의 저수지, 인심의 댐이다. 문화는 차분한 것, 문화는 따뜻한 것, 마음 밑바닥에 뿌리는 내린 것, 차분한 것, 온화한 것, 민심 저변에 축적된 따뜻한 것,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것, 문화는 연애적인 것에도 올바르게 넘쳐나는 것, 인심에 윤기를 주고 인심을 차분하게 하고 인심을 고양시켜 국민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우리가 지닌 일본의 문화는 마치 꿈과 같이 우리 일신을 대군에게 바치고 대군에게 이끌려 가는 것처럼 대군을 사모하게 한다.

사람들은 전쟁에 양분하고 혹은 전쟁에 지칠 때도 있을 것이다. 전쟁의 밑바닥에 가만히 잠겨서 평정을 유지해야 한다. 전쟁을 일상생활로서 담담히 받아들여야 한다. 전쟁에서 도피하지 말고 전쟁을 이해하고 전쟁에 돌입해야 비로소 생명이 있다. 전쟁의 격렬한 흐름 속의 흔들림 없는 폭풍과 같은 것이야말로 문화의 힘이다.

전쟁 속에 피는 꽃은 평소의 꽃보다 더욱 아름답다. 방공호의 한쪽 구석에 일심으로 핀 제비꽃에는 절실한 청순함이 있다. 방공이나 배급을 위해 얼굴이 불그스레해진 아가씨의 얼굴만큼 사랑스러운 아름다움은 없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김이 나는 따뜻한 밥처럼 따스한 것이다. 방공연습의 저녁에 차폐망 아래의 분재의 짙은 녹색, 비행기 공장의 청정, 전기로의 아름다움, 화약 공장에서 화약을 담은 여공의 긴장, 증산에 지쳐 나오는 갱구의 신선한 다이아몬드를 녹인 것 같은 맑은 공기, 새빨갳게 달아오른 철봉, 울부짖는 용광로, 사람 마음을 온화하게 하는 톱니바퀴의 회전, 선풍(選鑛)할 때의 신비로운 거품의 작용 등은 전시 하에서만 가슴에 파고드는 아름다움이다. 전쟁은 무참한 것만은 아니다. 전쟁이기에 영구히 피고 남는 총령의 꽃의 가슴에 파고드는 것이 있다.

문화는 단지 전쟁목적에 협력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전쟁은 문화의 본질을 파손하지 않는다. 문화의 왜곡을 수정하는 것이다. 전쟁은 문화를 새롭게 세정하는 것이다. 문화는 더 나아가 전쟁을 지도하는 진정한 민족의 저력이다.

머뭇거리지 않고 흔들림 없이 깨끗하고 강하게 대동아전쟁을 힘차게 이끌고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대어능위(大御稜威)의 문화이다. 팔괘(八紘)<sup>37)</sup>에 빛을 비추는 황도(皇道)의 문화이다. 대동아를 통틀어

---

37) 세계.

산천도 함께 받드는 신도(臣道)의 문화이다. 복종하지 않는 것을 봉족하게 만드는 신무(神武)의 문화이다. 황도문화야말로 대동아전쟁을 지도하고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일본이라는 오래된 나라를 끊임없이 영원히 새롭게 탄생시키는 것이다. 반도도 동아도 세계도 과거의 찌꺼기를 버려라. 별거 벗은 문화를 낳아 세례를 받은 뒤 저 아침햇살을 눈부시게 받는 온화한 것, 단 하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결한 육체의 상쾌한 아름다움, 미간에서 사라져가는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 어능위를 짊어지고 가는 신도문화야말로 새로운 양식, 소박한, 어린아이 같은 순진하고 맑고 강하고 올바르게 깨끗한 아름다움이다.

나는 이제 일본 신민의 마음속에 점차 확실하고 크게 자라고 있는 황도문화, 신도문화를 구체적으로 그리려고 한다. 그것은 천황을 경외하며 받들고 그곳으로 되돌아가려는 봉사정신을 강조하는 봉사문화운동이다. 그것은 모든 문화 활동에 승조필근(承認必謹)<sup>38)</sup>의 마음가짐을 갖게 하고 신전(神典)을 완전히 이해하고 근왕(勤王)의 길을 설파하는 문학과 미술이 되어야 한다. 애국백인일수(愛國百人一首)<sup>39)</sup> 또한 그 중에 하나이다. 우리 시키시마(敷島)<sup>40)</sup>의 길은 항상 칙선(勅選)의 길을 걸어왔음을 깊이 생각하자. 다음으로 농촌의 소박함을 중심으로 신들을 제사(奉祀) 지내는 국민신앙의 대도(大道) 하에 수립된 신사문화운동의 전개이다. 그것은 모든 예능을 신사(神社)의 제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제례에 따른 연중행사를 설정해 천지의 은혜를 모두 신에게 바치는 것이어야 한다. 이 농촌이라는 말은 도시에도 광산에도 공장에도 파고들어야 하는 것이다. 농촌이 도시를 소개(疏開)시켜 나가는 것이다. 신사를 중심으로 하는 농공일치(農工一致)의 새로운 도읍일치(都邑一致)의 부락 건설이다. 셋째로 일본적 생활문화운동이다. 그것은 반도에서는 특히 '국어'생활문화운동으로서 전개된다. 의식주 전반에 걸쳐 국민복을 걸치고 신책(神柵)을 봉재(奉齋)하는 국민주택에 살고 소박한 재정(齋庭)<sup>41)</sup>의 비이삭과 신주(神酒)를 먹으며 내선도외(內鮮道義)를 하나로 하여 생활을 아름답고 정결하게, 과학적으로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이는 내선일체 문화운동이 된다. 언령(言靈)의 정신으로 '국어'라는 말을 하나로 하여 말을 올바르게 하고, 말 뒤에는 반드시 진심을 담아 마음을 하나로 통하고 생활을 하나로 하는 것이다.

이 어능위를 짊어지고 팔굉에 빛을 비추는 신도문화를 진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황민연성(皇民鍊成), 일본적 예절교육이 있어야 한다. 그 방법은 국민개병(國民皆兵)으로 일본인 모두 엄격한 황군의 연성을 받는 것이다. 이른 아침 몸을 정결하게 하고 절을 올림으로써 신인합일(神人合一)의 세계에 아욕(我慾)을 버리고 오로지 인종무욕(忍從無慾)하는 순종하는 모습을 취하는 것이다.

〈출전 : 寺本喜一, 「戰爭と文化—戰爭を指導する御稜威の文化」, 『國民文學』 제4권 제6호, 1944년 6월, 20~26쪽〉

38) 천황의 결단을 받들고 이를 실행한다는 것.

39) 백인일수(百人一首)란 100명의 가인(歌人)들의 노래를 하나씩(一首) 골라 모은 것으로, '가루타'라 불리는 일종의 카드놀이를 가리킨다. 여기서는 애국과 관련한 노래만 고른 것을 말한다.

40) 일본의 또 다른 명칭.

41) 신을 모시기 위해 만들어진 신성한 장소.

## 2. 문학

### 1) 문인의 입장에서 기쿠치 간(菊池寛) 씨 등을 중심으로 반도문예를 말하는 좌담회

〈출석자〉

기쿠치 간(菊池寛) 씨(문예가협회)  
고바야시 히데오(小林秀雄) 씨(동)  
나카노 미노루(中野 實) 씨(동)

시오바라 도키사부로(鹽原時三郎) 씨(국민정신총동원 이사장)  
마스다 미치요시(増田道義) 씨(동 이사)  
오쿠야마 센자(奥山仙三) 씨(동 기획과장)

이광수(李光洙) 씨(문인협회)  
김동환(金東煥) 씨(동)  
유진오(俞鎭午) 씨(동)  
정인섭(鄭寅燮) 씨(동)  
박영희(朴英熙) 씨(동)  
가라시마 다케시(辛島驍) 씨(동)  
스기모토 나가오(杉本長夫) 씨(동)  
데라다 아키라(寺田瑛) 씨(동)  
도쿠나가 스스무(德永進) 씨(동)

8월 6일 반도호텔

#### 1. 문인협회의 성립

시오바라 : 오늘은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합니다. 조선문인협회는 작년 가을에 겨우 생겼습니다만, 그동안 조선의 문인은 비교적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근래 마침내 국가적 목표를 향해 통일되었는데, 앞으로는 ‘반도인’(半島人)<sup>42)</sup> 즉의 문인은 이광수 씨를 비롯해 그러한 태도로 나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이광수 : 문인협회를 만든 것은 저희들입니다만,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조선 민중이 일본인이 되고자 결심한 것은 ‘지나사변’<sup>43)</sup>이 일어난 뒤였습니다. 그동안은 법률적으로는 일본 국민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무래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미나미(南) 총독이 오시고 지나사변이 일어나자 시국을 인식하면서 조선인도 일본 국민으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42) 조선인.

43) 중일전쟁.

런데 문인이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에도 민족주의라는 것, 그것은 ○○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민족적 감정을 가지려는 경향, 그리고 좌익 공산주의 일파라는 것이 있어서 좀처럼 시국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에 저희들도 일본의 조선 민중으로서 큰 운동에 참가해야 한다는 자각을 하게 되면서 두 명, 세 명이 모여 마침내 이백 수십 명의 문인들이 모여서 조선문인협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당시 저희들은 오늘 여기에 오신 시오바라 각하께 꼭 총재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승낙을 얻었습니다. 협회가 만들어진 이후 특별한 활동은 없었습니다만, 도쿄(東京)에 한 번 가서 문단 선배 분들을 만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협력을 부탁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미뤄지다가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이 오셔서 약간 기선을 제압당한 형태가 되고 말았습니다만, …… 가까운 시일 내에 10~12명 정도가 가서 도쿄의 여러분으로부터 지도를 받고자 생각하고 있으니 잘 부탁드립니다. 조선의 소설이라는 것은 유치하기도 하고 출판물도 적습니다만, 그러나 조선의 민중에게는 언문 문학이 유일한 읽을거리입니다. 특히 청년층 및 그 밖의 민중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문학입니다. 문학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면 조선 민중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일본 내지<sup>44)</sup>보다 조선쪽이 문학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선의 문인들이 황국신민(皇國臣民)으로서 일본제국을 위해 온몸을 바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조선뿐만 아니라 제국 전체로서 상당한 영향이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 일본 내지인과 조선인을 합쳐 240~250명은 모였습니다. 또 하나 조선문인협회가 하고 있는 일은 일본 내지, 조선이 하나가 되어 내선일체(內鮮一體)가 되려는 것입니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겠지만, 문화에 의한 개인적 접촉, 문화인의 접촉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본 내지의 문학을 언문으로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읽게 하고 조선인이 쓴 언문 문학을 일본 내지 분들이 읽도록 해서 일본 내지와 조선의 문인들이 접촉해서 서로 마음을 아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기쿠치 간 : 이광수 씨의 작품은 언문으로 쓴 것입니까?

이광수 : 그렇습니다.

시오바라 : 번역은 누가 했습니까?

이광수 : 누군지는 모릅니다만 발행소 측에서 번역한 것을 제가 조금 손을 본 것입니다.

## 2. 일본 · 조선의 혈연관계

기쿠치 간 : 작년 무렵부터 조선문학이 일본 내지에 소개되면서 일본 내지에서도 모두 읽고 있고 레벨에서 보더라도 거의 내지와 비슷한 수준까지 도달한 것을 보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광수 씨의 작품을 읽고 처음으로 조선 분들의 생활, 인정을 이해하는 단서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광수 : 조선의 문인이라 해도 대부분은 도쿄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기쿠치 간 : 당신은 도쿄에 오신 적은 없습니까?

이광수 : 저는 중학교부터 계속 도쿄에 있었기 때문에 민족 감정을 떼어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44) 일본.



기쿠치 간 : 민족이라는 것을 생각했지만 조선의 민족과 일본 내지의 민족은 2, 3천 년 전에 나뉜 것으로 보이는데, 단지 일본 내지의 민족에게 남양계 피가 들어와 20%정도는 다르지만 70%정도는 같은 혈액이 흐르고 있다고 봅니다. 일본의 역사를 보더라도 역시 옛날에는 규슈(九州), 시코쿠(四國), 주고쿠(中國), 반도는 같은 권내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 무렵 도호쿠(東北), 간토(關東) 주변은 문화권 내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규슈를 중심으로 이쪽이 같은 문화, 같은 민족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시오바라 : 조선 측에서 보면 정말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방면의 연구가 활발합니다.

기쿠치 간 : 조선에 와서 느꼈습니다만, 얼굴이 똑같지는 않지만 이쪽 분들이 도리어 품위 있어 보입니다. 일본 내지인의 코가 낮은 것은 남양계 피가 섞여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제가 언젠가 만주를 여행하고 조선에 들렀을 때 백성 노인의 얼굴을 보고 놀랐는데, 참 좋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바야시 히데오 : 제 얼굴은 조선의 얼굴이죠(웃음).

시오바라 : 굳이 말하자면 삼각형 얼굴이 '반도인' 얼굴이죠.

기쿠치 간 : 일본 내지인의 얼굴에는 아무래도 네그리토 인도네시아의 피가 섞여 있어요.

고바야시 히데오 : 제가 있는 곳은 이즈모(出雲)<sup>45)</sup>이기 때문에 다분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시오바라 : 그곳은 조선과 가장 관련이 있던 곳이죠. 이쪽은 고대 신도적(神道的)인 것이 있어서 신사참배 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경성제국대학의 이마무라(今村)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몽고, 만주, 조선, 일본의 각각의 민족적 골격을 연구했는데 거의 같다고 합니다.

기쿠치 간 : 반도에 와서 일본 내지인을 보면 모두 조선인처럼 보입니다. 얼굴까지 영향을 받고 있더군요.

시오바라 : 얼굴색도 점점 닮아가죠.

이광수 : 시데하라(幣原) 각하도 그렇지 않습니까?(웃음)

시오바라 : 닮았다고 조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곤 하지(웃음). 그런 점에서 내선일체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광수 : '반도인'의 가장 큰 고민은(단 저는 중학교 때부터 쪽 도쿄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늘 언문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국문으로는 좀처럼 자유롭게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망설이게 됩니다.

고바야시 히데오 : 아키타 우자쿠(秋田雨雀) 씨가 편집한 게 있는데, 기차 안에서 읽어보고 번역이 서툰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좀 더 번역을 잘 할 수 있을 텐데.

기쿠치 간 : 그러나 작년부터 일본 내지에 조선문학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오바라 : 그것은 문인협회 결성 전후로 하기 시작한 겁니다.

### 3. 문인과 쓰는 기관

데라다 아키라 : 우리 신문인 입장으로서 특히 오늘날과 같은 경우 지면에 특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가정면이나 학예면에서 시작하는 것이 정도라 봅니다. 다만 생각해야 할 점은 중앙의 유명한 사람의 원고를 실기만 하면 되는가 하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성일보가 아무

45) 일본의 옛 나라 이름 가운데 하나로, 현재의 시마네현(島根縣) 동부.

리 노력해도 중앙의 대신문에 비하면 기구에 있어서도 또 상대에 있어서도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조선적인 로컬적인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일본 내지 쪽 사람으로서는 어쨌거나 대학 선생님이라든가 □□ 선생님들에게 한정되고 문단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작년 봄 무렵부터 조선 측의 문인들의 협력을 얻어 그런 사람들에게 글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없지만 한 달에 25일 나온다고 보고 그 중에서 약 절반은 조선 측에 글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조선 측에 '국어' 신문<sup>46)</sup>의 지면을 개방하고 그들이 노력하게 되었다는 점은, 제 입으로 말하는 것은 좀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반도 문화의 일익을 짊어진 우리 신문으로서 조금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광수 : 저도 데라다 씨의 의뢰를 받고 쓰고 있습니다. 조선의 문인들이 '국어'로 직접 쓰기에는 경성 일보가 가장 좋죠.

기쿠치 간 : 미나미 총독을 만났을 때 총독에게 조선의 예술 문화의 장려금으로 돈을 좀 지원받으면 어떨까 하는 말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예술가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는 것이 중요한 조건이라 봅니다만.

시오바라 : 좋은 말씀입니다.

기쿠치 간 : 조선 문인들에게는 오늘날 쓰는 기관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쓰는 기관을 충분히 제공하고, 그래서 왕성하게 창작을 하게끔 하고 그러면 우수한 문인들이 나옵니다. 민중들도 자연히 그 잡지를 읽게 되죠. 그런 점에서 문인들도 발전하고 읽는 쪽도 진보하지 않을까요.

시오바라 : 국민정신 조선연맹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조직이 되었는데, 그런 방면으로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합니다.

정인섭 : 이사장님께 부탁하고 싶은데, 문인회관 같은 것을 만들면 어떨까요?

기쿠치 간 : 도쿄에 작은 것이 만들어졌지만, 그건 좀…….

정인섭 : 일본 내지인에게는 서재가 있지만 조선에는 전혀 없어서…….

시오바라 : 그걸 서재로 이용하겠다는 말인가(웃음).

정인섭 : 문예상 이야기가 나왔는데, 출판, 번역 사업을 조선인에게 시키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시오바라 : 그건 좋겠지. 그리고 회관은 조만간 생길 거요. 언제쯤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1주일 내로 입찰에 부칠 생각입니다. 하지만 전부 자네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만, 작지만 깨끗한 곳입니다.

정인섭 : 일전에 무슨 일로 모여야 할 일이 있었지만 모임 장소가 없어서.

기쿠치 간 : 아무래도 원고료를 받을 수 있는 설비가 없으면 진보하지 않아요. 신문의 학예란은 가장 간단하니 비용을 많이 받고 하면 어때요?

정인섭 : 조선에서 가장 비싼 원고료를 주는 기관이 있다면.

이광수 : 문인협회에서 잡지를 내더라도 도쿄의 선생님들께 원고료를 드리고 글을 부탁할 수는 없어요.

기쿠치 간 : 여러분이 잡지를 내고 좋은 작품을 게재하게 되면 일본 내지에서도 제법 팔릴 거라 봅니다. 그런 점에서 처음 1, 2년은 어느 정도 손실이 있더라도 좋은 잡지가 되면 내지에서 많이 팔리게 되

---

46) 일본어 신문

면서 어느 정도 수지가 맞는 장사가 될 거라 보는데.  
시오바라 : 그렇게 된다면 좋겠네요.

#### 4. '국어' 보급의 기간

이광수 : 문인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대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쓸 곳이 없어요.

도쿠나가 스스무 : 하나는 번역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도 종종 조선판에 조선 작가들을 글을 받았습  
니다만, 저희 쪽에 이번에 창씨(創氏)한 고토(後藤)라는 기자가 아기가 곧 태어나려고 할 때 신음소  
리, 그것을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지 몰라요. 다행히 고토 씨의 부인이 일본 내지인이어서 어떻게 태  
어나는지 물어봤지만, 공교롭게도 아기를 낳은 적이 없어서(웃음). 그래서 상당히 곤란해 했었는데,  
그런 때에 형용할 말이 쉽게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가라시마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데, 절대로 어  
려운 일일까요?

가라시마 다케시 : 번역은 어려워요.

시오바라 : 조선의 교육령이 바뀔 때 추밀원(樞密院)의 고문관에게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조선  
에서 언문을 교육에 넣고, 그래서 읽은 만한 것이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중학교에 들어가면 국  
문으로는 『도연초(徒然草)』<sup>47)</sup>라든가, 그런 고문을 읽도록 할 것인지, 언문으로 그런 것이 있냐고 했  
습니다. 저는 오히려 없다고 했습니다만, 한국시대의 고문으로 이곳에 와 있던 이노우에 가쿠고로  
(井上角五郎) 씨는 대단해요. 기존에는 한문으로만 적혀 있던 것을 언문이 섞인 한문으로 만들었는  
데, 그것이 엄청난 기세로 확산되어서…….

기쿠치 간 : 조선의 고전문학은 역시 언문으로 씌어진 것입니까?

이광수 : 『만엽집(萬葉集)』이라든가 『고금집(古今集)』과 비슷한 것으로 노래는 수백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용비어천가」, 「월인천강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임금이 쓴 것으로, 하나는 부처님의  
생애를 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조의 대종(太宗)을 쓴 것인데, 그것이 □□에서 보더라도 가장 큼  
니다. 『춘향전』, 『심청전』 등 옛날 것을 쓴 가극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언문의 군기(軍記) 같은 것  
이 수십 권 있습니다만 시경이나 역경, 대학을 번역해서 읽히게 합니다. 한문을 배운 사람은 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교육이 의무가 되고 '국어'가 보급되어 조선인 전체가 '국어'를 읽을 수 있  
게 되는 것은 빨라야 30년, 혹은 50년 뒤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문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이라도 모두 '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조선인이 나올 때까지는 언문  
문학을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오바라 : 물론 그렇습니다. 찬성이지만 이는 아주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일단은 병행해서 나  
가겠지만 어딘가에서 하나로 만들고자 할 때 어떤 수단을 취하면 좋을까 하는 것이 문제죠.

이광수 : 그건 자연스럽게 결정되지 않을까요?

시오바라 :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무리를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생각할 수 없지.

이광수 : 의무교육이 설정된 이후 적어도 50년은 안 됩니다.

---

47) 가마쿠라 시대의 수필.

시오바라 : 의무교육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의 아이들 전부가 정년에 달하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시대는 1950, 1960년경이 될 것으로 봅니다. 7, 8살에 들어가서 가령 50년이라고 보면 매우 겁니다.

이광수 : 그 때부터 계산해서 4, 50년 정도는 언문이죠.

시오바라 : 7, 8살에 들어가서 1930년, 1940년 지나면 마치 그 형태는 피라미드 형태가 되죠. 지금이 45% 정도니깐.

정인섭 : 기쿠치 선생님. 내선일체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조선의 인물을 주제로 해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일본 내지인과의 관계를 그린 작품을 선생님이나 주변 분들이 내주시면 좋을 텐데요.

기쿠치 간 : 정말 감정적으로 융화하기 위해서는 역시 문학이나 영화라는 것에 의해 일치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어요. 나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조선인들이 도쿄에 와서 점 더 각 방면에서 활약해 주길 바랍니다. 현재 도쿄에서는 조선 분들 중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요. 역시 도쿄에서도 학술, 예술, 정치 각 방면에 적어도 백 명 정도가 활약하는 시대가 빨리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어딘가에 쓴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혼연일체가 되리라 보는데.

## 5. 일본 · 조선 힘을 합쳐

정인섭 : 협회에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문인들은 일본 내지의 생활을 주제로 한 작품을 쓰지 않습니다. 협회에서 파견해서 여유롭게 일본 내지의 시골을 여행하도록 하고 거기서 조용히 여행기를 쓰게끔 하는 거죠. 그런 것을 만들도록 장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매년 출판하는 거죠. 다시 말해 일본 내지의 문인들에게 조선의 생활이라는 것을 작품에 넣도록 하고, 조선 문인들이 일본 내지에 가서 본 내지의 생활을 언급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어느 동조 계획하고 노력해야 하고, 지금까지와 같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쿠치 간 : 그런 일을 하려면 일본 내지인들은 한두 달 정도로는 알 수 없고, 적어도 반년이나 1년간 여기에 와서 반도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모를 거요.

정인섭 : 구메 마사오(久米正雄) 씨의 <백란의 노래(白蘭の歌)>는 평판이 좋아요. 그것은 만주의 생활입니다만, 그것은 작가의 상상으로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오바라 : 그것은 실제 그 지역을 둘러보고 쓴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정인섭 : 계속 만원사례로 수차례 상영되고 있어요. 그래도 평판이 좋습니다.

가라시마 다케시 :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선 사람들과 여기에 살고 있는 일본 내지인이 협력해서 함께 새로운 조선을 만들어가는, 사소한 점에서는 생활의 차이, 습관을 알지 못하는 점 등 여러 감정적인 마찰도 있겠지만 그래도 극복해서 가령 문인협회도 그 표현의 하나입니다만 그런 것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 그것을 단지 조선 그 자체를 쓸 때 조선에만 주목하지 말고 내선일체가 되어 커져가고 있는 힘, 그런 것에 특히 주목하셨으면 합니다. <백란의 노래> 속에 만주인과 일본인이 협력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조선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모두 고생하면서 하고 있어요.

기쿠치 간 : 이번에 싱코(新興)에서 오족협화(五族協和)라는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일본인과 조선인, 만주인, 중국인, 몽고인, 이 오족에 대하여 하나씩 한 사람이 다섯 가지 각자 쓰는 것인데,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쓸 수 있을지 어떨지 의심스럽지만, 그 영화에서는 일본 내지인, 조선인, 중국인, 만주인, 몽고인이라는 다섯 개의 세계를 섞은 영화를 만들 계획으로, 그 총 편집을 부탁받았는데, 그 경우에 조선에 관한 부분은 여러분께 부탁할지도 모릅니다만…….

가라시마 다케시 : 우수한 분이 여기에 오셨으니 꼭 부탁드립니다.

기쿠치 간 : 그런 큰 구도의 영화가 제대로 정리될지 어떨지 의심스럽지만, 그러나 잘만 되면 정말 좋겠죠.

데라다 아키라 : 싱코의 제작부장인 이마무라 군이 와서 저도 만났습니다만, 결국 거기에는 〈백란의 노래〉가 흥행에 성공했기 때문에, 또 리코란(李香蘭)이라는 여배우가 나와서 흥행에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동기도 약간 있으리라 봅니다. 현재 오오후나(大船)에서도 최근 이곳의 문예봉(文藝峰)이라는 여배우를 사용해 〈아리랑 노래〉라는 것을 만든다고 해서 지금 그쪽으로 건너간 상태입니다만, 〈백란의 노래〉가 흥행에 성공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그런 일을 했으면 합니다. 영화사 측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소설 등의 작품 위에서는 좀 더 장삿속을 벗어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여기에 오신 김에 그런 점을 보고 듣고 한 것을 무엇이든 다루어 주시면 좋겠다고 봅니다.

## 6. '문예상'의 문제

이광수 : 조선의 문단을 보자면 기존의 언문 문학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30년 정도입니다. 언문 문학으로서의 대체적인 전망이 나온 셈이죠. 그러던 것이 작년 문인협회가 생기고 난 이후 언급하면서 일본 국민문학의 일부로서의 조선문학을 세우려는 계획이 나와서 기존의 창작 태도를 버리고 국민문학의 하나로서 조선문학을 쓰자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조선 문인들 중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있어서 힘이 약해요. 그래서 강력한 파트롱이 필요한데, 시오바라 각하는 매우 강력한 파트롱이 되어 주시고 있지만, 또 하나는 중앙 문단의 선배님들이 “죽은 말의 뼈를 5백 금으로 산다”는 생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문학을 격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쿠치 간 : 여러분 협회에서 좋은 작품을 추천해 주시면 제 잡지에 언제든 게재해도 좋습니다. 작품이 너무 길면 잡지로서 곤란하지만, 50매 전후라면 여러분이 좋은 작품을 소개하면 언제든 게재하겠습니다. 조선문학은 매우 평판이 좋아요. 일본 내지의 문학에 비교해서 레벨에서 보더라도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시오바라 : 이광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문학으로서의 자각이 매우 큰 변화입니다. 최근까지는 어떻게 일본과 분리할까 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던 것이 어쨌거나 일본과 함께 성장하려는 경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만, 이 일파의 경향에는 상당한 충격이 있어서 이를 뒤로 되돌리려는 경향도 매우 농후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 내지인 측의 지도자가 그것을 아주 이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들이 의외로 모르는 문제도 있는데, 내외수난의 시대에 있습니다. 이를 고치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있으리라 봅니다.

기쿠치 간 : 총독부 측에서 문학상, 예술상, 영화상을 증액해 주면 좋겠는데요.

시오바라 : 가령 공공기관에서 문인협회를 보호하고 지원할 경우 어떤 수단을 취하면 좋을까요?

기쿠치 간 : 보호라는 것은 결국 원고료를 준다는 말이죠. 좋은 작품을 쓴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죠.

시오바라 : 결국 아주 좋은 잡지를 만들고 거기에 게재하고 원고료를 준다는 말이군요. 총독부에서 잡지를 낼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뒤에서 원조하는 게 좋겠죠.

기쿠치 간 : 경성일보의 연재소설을 꼭 조선 분에게 부탁했으면 좋겠네요.

시오바라 : 이것은 상당히 지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쿠치 간 : 원고료도 장편이니 제법 나오면 좋겠군요.

데라다 아키라 : 조선 사람들에게 경성일보에 소설을 쓰게 하는 것은 최근 기회에 계획해서 착수했습니다만, 그것은 잠깐 멈추기로 했습니다. 실은 현재 게재되고 있는 다케다 도시히코(竹田敏彦) 씨의 「목단 지지 않고(牧丹崩れず)」가 다케다 씨가 중국 중부에 가서 행방불명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서 잠정적이긴 하지만 짧은 단편으로 그 틈을 메우기 위해 이광수 씨께 부탁해서 우선 1회만 완성되어서 오늘부터 게재하려는 때에 다케다 씨의 원고가 오는 바람에 결국 게재하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기쿠치 간 : 석간에 1개월 정도의 단편소설을 게재하는 건 어떨까요?

데라다 아키라 : 연구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저도 다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인섭 : 그런 일은 대담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기쿠치 간 : 그런 일은 총독부에서도 충분히 종이를 제공받아야 할 텐데.

시오바라 : 잡지의 경우 편집을 누구에게 시키면 좋을지 선택하는 게…….

정인섭 : 협회에 맡겨주면 좋겠는데요.

기쿠치 간 : 협회에 맡기고 협회에는 일본 내지인도 들어가 있습니까? 혹 괜찮다면 제가 협회에 들어갈 수도 좋아요.

스기모토 나가오 : 지금까지는 협회와 일본 내지 문단과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고바야시 히데오 : 협회를 통해 하시다면 저는 언제든 소설 발표나 통신 정도는…….

스기모토 나가오 : 앞으로 진행할 생각이니 통신을 부탁드립니다.

고바야시 히데오 : 만주 쪽과는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쪽도 연락이 되니 매달 통신을 보내 주시면 게재할 수 있습니다.

## 7. 중앙 문단과 교류

시오바라 : 사무소 문제입니다만, 거기서 여러 가지 일을 해줄 사람은 문인이라도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면 곤란한데.

정인섭 : 스기모토 씨께 부탁하면……. 도쿄에서 동아문인대회(東亞文人大會)라도 열어 만주, 중국, 조선, 일본에서 온 면면들이 하룻밤 정도 강연회를 해서 여러 가지 협의나 연락을 취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데라다 아키라 : 작년 12월 2일 문인협회 회합에서 여러 가지 계획은 약속했습니다만, 올해 벚꽃이 필 무렵 조선 문인들과 일본 내지의 문인들이 도쿄에서 교류회를 갖고 히비야(日比谷) 공회당 같은 데서 강연회를 개최하고 조선 문화라는 것을 인식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사실 돈이 너무 없어서 아직까지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장래에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컨대 문예춘추사(文藝春秋社)라든가 문예가협회 등의 협력을 얻을 방법은 없을까요?

기쿠치 간 : 돈을 마련할 길은 있습니다. 제 쪽에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오바라 : 도쿄에서 어떤 행사가 있어서 참가 의뢰가 오면 이쪽에서 두세 명 대표적인 자를 보내겠습니다. 그것이 당면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정인섭 : 이전에 개조사(改造社)와 얘기가 있어서 비용은 모르겠지만 이름은 빌려주겠다고 해서 유명무실해졌습니다만, 실제로 이름을 빌려주는 정도라면 모든 것을 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마침 야마모토 사장이 부재중이어서……. 좀 다른 얘깁니다만, 『모던 일본』의 조선판을 매달 낼 수는 없을까요?

기쿠치 간 : 원고를 준다면야…….

시오바라 : 그것을 총독이 보고 싶다고 해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두 권 찾았습니다.

기쿠치 간 : 문예상을 총독부에서 만들어 적극적으로 장려하길 바랍니다.

스기모토 나가오 : 문인협회 쪽에서 잡지를 내면 제법 잘 되리라 봅니다만.

기쿠치 간 : 그러나 잡지는 아무리 보조비가 있어도 보조비로 운영하는 것은 오래 가지 않아요. 보조비 외에도 일정한 판매수입이 필요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 1, 2년 보조를 받으면서도 일정한 판매수입도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공서에서 내는 잡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썩어져요(웃음). 진심으로 팔려는 마음가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시오바라 : 비용 문제는 일본 내지에 큰 걱정을 끼치지 않더라도 조선에서도 어느 정도의 돈은 낼 수 있어요.

기쿠치 간 : 조선문학의 새로운 결실을 맺습니다. 조선문학에 일본 내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나오면 내지에서도 팔리지 않겠습니까.

도쿠나가 스스무 : 영화는 어떻습니까?

시오바라 : 영화법이 생겨서 우리 쪽에서 조사합니다만.

도쿠나가 스스무 : 조선에 있는 현재의 영화사 경영은…….

시오바라 :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좋은 게 오면 추천하고 나쁜 것은 추천하지 않아요. 독일의 선택방식을 보면 일본 것은 매우 미약하고 얘기가 안 됩니다.

도쿠나가 스스무 : 문예와 병행적으로 해나가면 좋겠군요.

시오바라 : 일본의 관료는 그런 방면으로는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스기모토 나가오 : 일본 내지의 문예가협회와 국민정신총동원 운동과는 어떤 식으로 관련을 맺고 있습니까?

기쿠치 간 : 관련은 없습니다. 저는 국민정신총동원 운동의 위원이었지만, 저는 위원이 될 만한 자격이 없으니 그 대신 문예 총후(銃後) 운동이라는 것을 일으켜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하고 사양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시오바라 : 이쪽에서는 적절히 연동되어 있습니다.

기쿠치 간 : 이광수 씨, 꼭 오시도록 하세요. 우리 쪽에서 비용은 전부 마련할 테니 두세 명 오세요.

시오바라 :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출전 : 「文人の立場から菊池寛氏等を中心に半島の文藝を語る座談會」,  
『京城日報』, 1940년 8월 13~18일〉

## 2) 가라시마 다케시, 결전문학의 확립 - 싸우고 있는 의식

싸우고 있어야 할 자가 싸우지 않는 자의 재능으로, 진두 지휘자가 되는 예는 실로 없다. 그늘에서 무엇인가 수군수군 이야기하고 있다. 용감하게 첨병(尖兵)이 되고자 출발하려고 하는 자를 희극배우를 보는 것과 같은 눈으로 내보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조선문학 진영에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긴장해서 총을 잡는 것과 같이 자기 붓을 쥐며 눈을 똑바로 적의 진영에 향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일선에 있는 장병들의 결심을 이 조선의 서재 안에서 그에 못지않게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장래에 조선에서 태어나야 할 문학은 그 형태가 어떠하든, 또한 제목이 어떤 방향의 것이든 작가의 생활근본은 이와 같이 “싸우고 있는 의식”을 명확하게 자각하고 있어야 하며, 그것을 절대조건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쟁수행에 대한 책임이 포화(砲火)를 갖고 나가는 일선에만 있고, 여기 반도의 우리에게 그 만큼 책임이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어떠한 문학을 창작하지 않으면 안 될까, 또 어떠한 문학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인가, 그 회답은 답을 해야 할 사람이 스스로 또한 진지하게 이 성전에 대해 “싸우고 있는 의식”을 확실히 자각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저절로 명백해질 것이다. 입으로는 자신도 또한 “싸우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이 아닌가 반박해도, 그 작품에서나 다른 언행에서 싸울 수 있는 진지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반전(反戰)적 존재로 취급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새로 결성된 “조선문인보국회”는 활동의 초점을, “싸우는 문학”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게 된 첫째 이유도, 싸울 수 있는 힘의 집결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분산적인 전력(戰力)을 하나의 종합적인 전투병단으로 통합하여, 각개 전력을 유대(紐帶)함으로써 한층 강화해나가는 것이 조직의 목표이다. 그러나 싸우는 힘은, 단순히 조직의 완성만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일선의 전투력과 마찬가지로 각 장병의 충용한 정신에 크게 좌우된다. 회원 각자가 문학을 통하여 “천황의 방패”가 될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우선 첫째로 필요한 것이다. 군국(君國)에 보답하는 열성이 빠진 문장의 기교(技巧)는 오늘날의 세상에 필요가 없다. 작가는 일상생활에 항상 자신이 싸우고 있다는 의식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마음이 느슨해지거나 흐려진다면, 혹은 그것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문화기술보다도 먼저 마음의 거울을 끊임없이 갈고 닦는 일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거울이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그 기술에의 정열도 올바르게 타 오를 것으로 생각한다. 함부로 노후(老朽)를 뽐내며, 옛날부터의 문학주장에 구애(拘碍) 받아서, 국민으로 첫 번째 갖추



어야 할 의식에 경박한 것이 있어서는 야스쿠니(靖國)의 영령들에게 죄송할 것이다.

장래에 조선문학이 국어로 발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반도 출신의 각각의 작가 여러분이 일본정신의 파악, 연성에 불과 같은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것도, 또 하이쿠(俳句)나 단가 등의 부문 관계자가 자신의 문학수업에 한층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반도 사람들 사이에 하이쿠나 단가를 넓혀 가는 일에 특히 열성을 기우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등등, 모두 싸우고 있는 의식을 자신 속에 양양해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갈 것이다.

이후 조선문단의 진전은 참으로 “싸워나가고 있는 의식”을 각자가 각각의 분야에서 강하고 높게, 불과 같이 타 오르게 함으로써 커다란 기대를 걸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주위에 있는 문인 중 한 사람이라도 반전적인 존재 같은 인물을 내어서는 안 된다. 설명해 보고 알아주지 않는 경우에는 잘라버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길로 매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결전기(決戰期)의 문학자가 문학자다운 자세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출전 : 辛島驍 「決戰文學の確立－戦ひつゝある意識」, 『國民文學』 제3권 제6호, 1943년 6월, 40~41쪽〉

### 3) 전쟁과 문학(좌담)

|  |
|--|
| [출석자]<br>우에다 히로시(上田廣)<br>이노우에 고분(井上康文)<br><br>가라시마 다케시(辛島驍)<br>유진오(俞鎮午)<br>목양(牧洋, 마키 히로시) <sup>48)</sup><br>스기모토 나가오(杉本長夫)<br>미야자키 세이타로(宮崎清太郎)<br><br>최재서(崔載瑞)<br>김종한(金鐘漢) |
|--|

#### 문학을 보는 척도

최 :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전쟁과 문학’이라는 것입니다만, 그건 그렇다치고 일전에 우에다(上田) 씨와 이노우에(井上) 씨는 군 보도반원으로서 남방에 가서서, 약간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문학자로서 매우 복받은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곳 전쟁터에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라든가 문학자로서의 감정, 그런 것을 우에다 씨부터 한 마디…….

48) 이석훈(李石薰)의 창씨명.

우에다 :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문학자라는 감정은 별로 없고 따라서 우리 전쟁에 참가해서 전쟁을 통해 몸에 익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저 종래에 공부해온 문장 위에서 표현하겠다는 마음 가짐—그것이 강하고 문학자라는 감정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쓴 것에 대한 비판 등이 신문이나 잡지에 나와 있는데, 그 난점은 즉 전기(戰記)이긴 하지만 문학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이른바 문학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오늘날 무기를 들거나 혹은 그 밖의 임무로 싸우고 있다는 과정에서의 전쟁의 모습을 기록한 것일 뿐, 종래의 관념에서 보는 문학이 아니라도 된다는 감정이 매우 강합니다. 이노우에 씨는 어떻습니까?

이노우에 : 저도 우에다 씨의 말씀을, 현재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문학이라는 것을 만약 찾는다고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해 매우 적절한 말이라고 봅니다. 즉 그동안 우리 문학에 대해 갖고 있던 사고방식이나 척도에서 그런 전기를 봄으로써 문학이라는 것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전기 속에 있는 것에 오히려 새로운 문학의 형태나 정신을 모색하는, 다시 말해 문학을 보는 척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것을 시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육군을 따라다니다가 최근 귀환한 어느 시인은 전쟁 1년 동안 시가 매우 산문적이 되어서 시로서의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하면서 리얼리즘도 없고 울격도 갖고 있지 않다는 식으로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요구되고 있는 시는 그런 하나의 외형적인 시 형태를 지니고 쓰는 것보다도 오히려 내용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많으리라 봅니다. 그것이 가령 시라는 형태에서 완전한 것이 아니더라도 훌륭하게 시의 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시로 인정하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이금과 같은 격렬한 전쟁 속에서 탄생하는 문학이라는 것은 매우 큰 비약적인 형태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우에다 씨의 작품을 읽어보고 거기서 충분히 훌륭한 예술로서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종종 신문기자가 쓴 기록 속에서 도리어 문학적인 것이 있다는 말을 듣는데, 그것과는 전혀 취향이 다른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는 저나 우에다 씨가 전쟁터에 가서, 또 다른 작가가 전쟁터에 가서 모두 느끼는 점이 아닐까요. 이런 저희들 생각에 대해서는 이곳에 계시면서 그것을 읽은 측의 의견을 저희 쪽에서도 여쭙고 싶습니다만…….

최 : 유진오 씨 어떻습니까? 일전에 『문예』에 시평을 쓰셨더군요. 니와 후미오(丹羽文雄)의 『해전(海戰)』 등에 대해서…….

유 : 네. 하지만 그것은 지금 문제와는 좀 별개라고 봅니다만……. 저는 오늘은 질문하는 쪽으로. 지금 문학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고, 또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만…….

### 시가 나오야(志賀直哉)에 대하여

우에다 : 시가 선생님의 『이른 봄의 여행(早春の旅)』—은 시가 선생님의 최근 심경이 나타나 있는 훌륭한 작품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것 속에 뭐라 할까요, 문학의 교향 같은 것을 느끼고 기뻐합니다. 동시에 그것을 우리가 느끼는 전쟁의 현실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볼 때, 어떨지—역시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 수는 없게 됩니다. 문제는 역시 그런 점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유진오 씨에게) 그것을 읽으셨습니까?

유 : 아뇨.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최 : 그렇다면 문제는 전쟁터에 갔다 온 작가와 그렇지 않은 작가 사이의 차이가 나오는 셈이네요.

이노우에 : 물론 체험에 있어서 그것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선에 참가하지 않은 작가가 전쟁하는 국민적 현실을 쓸 수 없다고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자연스레 몸에 익은 것의 차이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전쟁이라는 사실과 정면으로 부딪친 작품만이 전쟁문학이 아니라 전쟁 속에 있지는 않지만 넓은 국민생활 속에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 국민의 기대가 있고, 그것을 써도 그것이 새로운 문학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의 격렬한 싸움의 요소만이 전쟁문학의 스타일도 아니고, 내용도 아니죠. 다만 거기에 자연스레 전쟁 하에 있는 문학의 형태나 사물을 보는 방식이 지금과는 다른 것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리라 봅니다.

스기모토 : 다시 말해 그동안의 문학 관념으로 쓴 것은 뭔가 부족하다—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우에다 씨.

유 : 이른바 순수문학, 그것만으로는 척도와 맞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겠죠.

우에다 :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작품에 나타나는 현실과 지금의 우리 주위에 있는 현실이 다르다는 느낌입니다. 대개 문학은 그 시대의 현실의 강력한 표현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점을 생각하면 한층 더 그런 깊게 느낌이 듭니다. 따라서 시가 선생님의 작품을 우리가 읽을 경우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고 소양, 감정 등은 일단 옆으로 제쳐 두고, 그런 시가 선생님의 감정 속 깊이 들어가 공명하고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을 덮어두고 생각하면 자신의 감정에 큰 간극이 있다는 느낌입니다.

최 : 아무래도 저희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점은 전쟁터에 가신 분들이 귀환해서 무언가 이제부터 하고자 그런 것을 쓰려고 한다는, 무언가 거기에 아주 격렬한 의욕이 있다고 봅니다만, 그런 감정에 대해서 한마디 …… 그렇게 구체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이노우에 씨의 시집은 언제쯤.

이노우에 : 제 시집은 시집으로서 정리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종군기 같은 것 뒤에, 거기서 쓴 시를 십여 편 수록한 것입니다. 제가 시에서 느낀 점은 이 격렬한 싸움을 어쩔거나 단적인 말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 그것도 단지 간단한 말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의 형태로써 박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다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시에 대한 음률이나 격률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더라도 시의 정신만 그 속에 살아 있다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감정이 매우 강했습니다. 어쩔거나 그것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서 내놓는 시인으로서의 기쁨보다도 그 한편에 의해 국민들의 감정을 고양시켜야 하고 국민들의 눈을 전쟁에 향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중요하죠. 당연한 것이지만, 그런 감정이 실감으로서 매우 격렬하게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어느 시인의 비난—지금 발표되거나 방송되고 있는 애국시나 전쟁시에 시로서의 음률도 없고 단지 산문을 행을 나누어 써내려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감정은 적어도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사고방식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런 것이 나와야 하고 요구되어야 하는가 하면, 무엇보다 지금 우리 생활상의 욕구가 그동안의 사고방식과는 큰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듯합니다.

## 기백과 주눅

유 : 그 마음 잘 알겠습니다만, 다만 지금까지 전선에 나간 적도 없는 작가들입니다. 앞서 전선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름답다는 의미의 말이 나왔는데, 즉 국내에 있는 사람은 제일선의 격렬함을 생생하게 느낄 수 없어요. 시국에 대한 인식과는 별개로……. 그래서 일전에 다카미 준(高見順)이 말한 것 같은 주눅—즉 전쟁이나 국민의 생활에 대해서 기백을 갖고 말하지 못한다는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전선에 나가신 분들은 적어도 전쟁의 현실에서 취재를 하는 이상 자신감과 기백을 갖고 쓸 수 있겠죠. 일단 귀환하신 분들이 앞으로 또 어떤 현실을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인지, 실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특히 조선에 있으면 일본 내지와 달리 전선과는 더 떨어져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결국 확신이 없고 주눅이 들게 됩니다. 전쟁터에서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노고를 겪고 있는데도 우리는 국내에서 이를테면 특등석에 앉아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다는 주눅이 듭니다. 때문에 귀환하신 분들의 앞으로의 작업이 우리는 크게 계발하는 바가 많으리라 보는 것입니다.

우에다 : 주눅이라면 우리도 느낍니다. 거기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돌아온 뒤 우리는 병사들에 대해 주눅이 든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전선에 가지 않을 때보다 더 느낍니다. 가령 전차 안에서 병사를 만나면 바로 전선에 있는 병사들을 떠올리게 되고, 웬지 근처에 다가갈 수 없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하겠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런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우리나라에 돌아와 잡지를 본다고 하면 가장 진지한 것으로 여겨진 문학—예술적인 소설 위에 오히려 전쟁을 다루고 있지 않은, 도리어 다른 측면—가령 『킹』이나 『일출(日出)』의 소설이 더 전쟁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문학자로서 진지한 것에 전쟁의 현실이 나타나 있지 않고 대중문학—그것이 진지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도리어 그런 곳에 어쨌거나 그것이 나와 있어요. 물론 거기에 있는 전쟁의 현실이라는 것은 불충분하거나 왜곡되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어느 정도는 반영되어 있죠. 그렇다면 왜 그런 상황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현재의 유력한 문학자들이 전쟁을 느끼고 있기는 하지만 문학이라는 순수한 측면에서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속적인 측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직 문학자들이 깊이 전쟁을 파악하는데까지는 거의 가지 않았고, 전쟁을 통속화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런 점을 문단에, 혹은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느끼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의식적으로 저는 오늘날의 전쟁 현실을 묘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 시의 산문화

미야자키 : 잠깐. 지금 이노우에 씨가 말에 대한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노우에 씨가 말씀하시는 새로운 시각이라는 것, 그것이야말로 시의 본래의 성질이라 봅니다. 다시 말해 정말 좋은 시는 언제나 그러해야 하고, 또 그러했다고 봅니다.

이노우에 : 그렇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 지금 산문화된 시가 범람하고 있다는 비난이 대부분 낡은 시의 척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현재의 시를 논한다는 것은 비난 논점이 벗어나 있다는

생각에서…….

미야자키 : 그런 척도로 비난하는 것은 전쟁시뿐만 아니라 그 어떤 시에 대해서도 잘못이라 봅니다. 내적으로 강한 진정한 것이 있다면 되고,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내재율이랄까, 어쨌거나 거기에 우리는 어떤 음률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외형적인 음률만으로 시를 논하는 일은 그 어떤 시대의 시에 대한 비평으로서도 잘못…….

이노우에 : 그래서 말이죠, 제가 유독 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최근 일본의 시단에서 그런 문제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 시가 요구받고 있는 것은 더 깊고 내용적인 것을 포함하는 동시에 전쟁에 대한 인식, 국민에 대한 인식을 노래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미야자키 :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전쟁시에 대해 그런 비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시는 역시 그런 비난을 받을 만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말 그것이 전쟁의 격렬함, 깊은 감동으로 만들어졌다면 역시 그에 준하는 음률을 갖고 있을 테니 말이죠. 산문적이라는 말을 듣는 시는, 그래서 시를 짓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만.

이노우에 : 그건 그렇습니다만, 저는 주로 외형적인 점에서만, 오늘날의 시를 얘기하는 위험을 좀 더 강하게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지금 시에 요구되고 있는 하나의 사명을 완수하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은가 하는…….

미야자키 : 그런 목적을 위해 쓰고 게다가 시로서 훌륭한 것이어야 한다는, 시를 짓는 경우에도 읽는 경우에도 그런 목표는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는…….

최 : 뭐, 여러 가지 논의는 있겠지만, 실제로 지나사면 이래 전쟁을 취재한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이른바 전쟁문학으로서 남은 작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에다 : 남으리라 보이는 것은 있습니다만 …… 남지 않으면 곤란하겠죠(웃음).

## 비전문가 문학

김 : 일전에 우에다 씨의 현지보고 강연을 들었는데 우에다 씨는 종종 말끝을 흐리더군요. 단정하지 않고 종종 무리 없이 나오는 말을 찾고 계셨어요. 어쨌거나 무엇을 쓰든 우에다 히로시라는 작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읽을 수 있다고 저는 통감했습니다만, 지금 시가 나오야 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선문학의 경우에는 전통이라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에다 씨가 크게 자신을 해방해서 전쟁터에 가서 얻은 현지의 체험을 쓰면 된다는 말은 알겠고 또 일본 내지의 경우 시가 씨에게 불만을 느끼는 우에다 씨의 기분도 수궁이 가지만, 조선의 경우에는 비전문가 문학으로 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통이라는 것이 없으니 우에다 씨가 한 말의 실제적인 의미를 잘못 받아들여 문학 정책의 기준으로 삼는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건 정말 문학박멸론이 됩니다(웃음).

우에다 : 아뇨, 제가 앞서 말한 것은 비전문가 문학으로 충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로 한 명의 작가로서의 기댈 곳을 말한 것입니다. 재래의 문학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 비전문가 문학으로 된다

는 것은 아닙니다.

최 : 조선 문단 이야기는 자제하기로 합시다.

우에다 : 그리고 조선문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기도 하고.

미야자키 : 현재의 전쟁문학이라는 것은 전쟁터의 기록이고 대부분 전쟁문학이 아니라는 비평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전혀 전쟁터를 모르지만 실제 보도반원으로서 전쟁터를 보고 오거나 병사로서 전쟁을 한 분들은 그런 논의에 대해 어떻게.

### 전쟁기록과 전쟁문학

우에다 : 즉 우리가 쓴 전쟁기록물은 전쟁문학이 아니라는 의견에 대한 겁니까? 그건 그것으로 좋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것이 우리가 요망하고 있는 전쟁문학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지 않을까요. 다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른바 전쟁기록물 속에 나타나 있는 것, 그것이 새로운 국민문학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국민문학의 출발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는지. 우리가 지금 일본의 고전문학을 읽는다는 것도 그것과 일맥상통할 것으로 봅니다. 전쟁문학은 무엇인가 하고 물어도 예컨대 『전쟁과 평화』라고도 말할 수 없을 테니 말이죠.

미야자키 : 지금 잡지 등에 나와 있는 비평이나 독자들의 감정이 어쨌거나 막연히 그러한 것들에서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 부족이란 대체 어떤 것인지, 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서 나온 시가 선생님의 작품과 관련해서 말하면 그것이 이룰테면 예술작품으로서 훌륭하지만 전쟁의 현실을 모르는…….

우에다 :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미야자키 : ……잘못이고 동떨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거기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데, 한편으로 전쟁터에 관해 쓴 것은 어떤가 하면, 물론 일본은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일본 전체의 현실이 그것을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국민생활은 더 폭넓어서 다른 측면도 있죠. 암거래나 현란한 카페놀이마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과는 별도로, 현재는 이렇다는 일본 전체의 현실에서 본다면 그것이 국부적인 것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닌지…….

우에다 :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쟁터만 써도, 아니 전쟁터를 씬으로써 그런 전체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적어도 기존의 것은 그러했다는 점을 반성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전쟁문학을 함부로 낮게 본다는 의미가 되지는 않습니다.

미야자키 : 가령 우에다 씨나 그 밖의 작가들이 전쟁터에서 경험한 일을 쓰고, 아무리 사소한 것을 적어도 매우 생생하고 선명한 것을 느끼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전쟁터에 가지 않는 독자들에게 낯설다는, 이룰테면 병사들의 신변소설이라고 할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의미에서 전쟁터에 관해 썼다 해도 그것이 국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곧바로 자신의 생활로서 느끼게 되는 데까지 온다면…….

## 총후(銃後)와 전선

우에다 : 바로 그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전쟁문학이란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것은 일본 전체의 작가들이 할 일이라 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기대하고 질문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가라시마 : 그렇죠. 총후의 우리가 전쟁터에 있는 분들과 똑같은 영혼을 갖고 구축해야 할 일이라 봅니다. 이 두 가지 힘으로 새로운 문학은 건설될 것입니다.

우에다 : 전기문학(戰記文學), 그리고 사소설이라는 것처럼, 불만을 양쪽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 전쟁터와 총후의 차이를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미야자키 : 총후의 사소한 신변소설을 써서 일본의 큰 생활을 느끼게 하고, 전쟁터에 관한 일을 쓰고 그것이 국내의 사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기에 작가의 책임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에다 : 네. 제가 총후와 전선이라고 말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지만, 즉 전선에 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노우에 : 오자키 기하치(尾崎喜八) 군이 『이 양식(この糧)』이라는 시를 발표했는데, 이 시들은 모두 전쟁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론 전쟁의 격렬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자신이 포연과 탄우 속에 나가서 얻은 체험을 노래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오자키 군이 도쿄에서 일인조(一隣組)<sup>49)</sup>의 조장으로서 방공연습에 참가한다든가 또는 일상품을 배급한다는, 일상적 생활의 작업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는 엄연한 전쟁시의 형태입니다. 다만 지금 말이 나온 것처럼 어떤 소설가가 쓴 전쟁 기록을 읽고 거기서 전쟁의 커다란 모습을 아무것도 끄집어낼 수 없다는 것은 작가의 책임이라기보다 독자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최 : 평론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독자는 전쟁이라고 하면 곧장, 그리고 이는 마지막까지 센세이셔널 한 것을 찾는 데, 그것이 현재의 전기문학에는 여러 제약도 있을 것이고 보도 반원으로서도 발표할 수 없다는 점도 있어서 그것이 없다는 점. 또 하나는 기존의 전쟁문학은—제1차 유럽대전 이래 발표된 전쟁문학이 거의 모두 이른바 패전문학이었기 때문에 『서부전선 이상 없다』를 비롯해 전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그것과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서, 한결음씩 건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마 진지하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부족하다든가 묘사력이 부족하다기보다 대중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런 패전문학에 수반되는 센세이셔널 한 것이 없이 때문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마키 씨.

마키 : 저는 딱히 뭐라고……. 저는 오히려 우에다 씨께 여쭙고 싶은데, 우리 문학에 대해 지닌 생각과 돌아온 뒤 새롭게 생각하고 계시는 사고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전쟁을 본 적이 없고 총후에서 자신의 상상과 전기문학을 통해 일단 큰 전쟁을 생각하고 있을 뿐 확실하게 인식할 수는 없는데, 두 분은 거기에 어떤 간극이 있습니까?

49) 일본어로 도나리구미(隣組)라 불리는 이 조직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국민통제를 위해 만든 지역조직이다. 이 옷돌끼리 10~20가구를 하나의 단위(一隣組)로 묶어 배급과 경비 등을 맡았다.

우에다 : 글썩요…….

김 : 가령 이런 것을 어떻게요. 조선인은 30년 전부터 비로소 일본인이 되었고, 현지에 갈 수 있는 방도도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마음 기댈 곳을 고전에서 찾곤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그러한 일본 고전을 일단 이해하는 것도 적어도 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본정신을 몸에 익히는 것을 일생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어요. 과거에 좌익이었거나 극단적인 자유주의자였던 사람이 2, 3년이면 당당한 일본주의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일본정신의 파악이 손쉬운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현지에 다녀오면 비약적으로 가능해질까요?

우에다 : 저는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론으로는 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김 : 그런 점이 부러워요.

가라시마 : 생활 속에서 몸에 붙은 것이군요. 그러한, 무엇을 읽고 거기서 어떻게 한다는 일종의 사무적인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좋은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정신을 생활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서적만으로 그런 것을 몸이 익히려 해도 안 됩니다. 직접 고뇌하면서 생활 위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점에 최근의 연성(鍊成)이라는 거의 의의도 있는 것이죠.

마키 : 후카다 규야(深田久彌)는 『문예수첩(文藝手帖)』에서, 세상 아가씨들이 일본정신을 체득하기 위해서 고전 따위를 읽고 있지만 그런 것보다 평소 부엌일을 돕는다든가 가정 일을 열심히 하는 데 있다는 말을 했는데, 역시 단지 책을 아무리 읽어도 안 되겠지요. 생활을 통해 자신의 마음가짐이 어느 경지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것을 체득할 수는 없어요.

김 : 그렇다면 고전도 읽지 않고 현지에도 갈 수 없는 사람이 1년에 2, 3회 구호를 외치는 기회를 얻는 것만으로 일본정신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피범벅이 되어서 파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말이죠.

가라시마 : 그런 점은 저도 인정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른바 연성이라는 것도 생각하고 싶어요.

최 : 이노우에 씨는 어떻게습니까? 소박한 표현입니다만, 대체 문학이 어떤 점에서 전쟁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그리 어렵게 말하지 않더라도. 가령 시라면 어떻게요? 우리는 열심히 국책에 협력한다든가 고도국방국가와 문학이라든가, 논리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 문학의 효용

이노우에 : 그것은 가령 소설을 쓰는 분의 전기(戰記)라면 전기를 읽으면 전쟁에 직접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엄청난 힘을 느낄 터이고, 예를 들어 한 편의 시를 읽어도 그런 것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와 동시에 국민들의 눈이 전쟁터와 연결됩니다. 익찬회(翼贊會)나 정보국 등에서 나오는 문보(文報)를 통해서 혹은 개인으로서 여러 가지, 예컨대 군인원호라든가 생산증강 등의 정신을 담은 시를 써달라는 주문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국민의 전의를 고양시키는 점에 있어요. 문학은 충분히 그런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금 전부터 엄격한 의미에서 예술적 형태를 논



의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은 전쟁이 한창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별개의 것을 요구받고 있으니 그것이 용납되는 것은 아닐까. 역시 시의 정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전선에 가기 전에도 역시 그런 정신으로 시를 짓고 싶다는 생각에 변함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장병들의 힘으로 자신들이 오늘 태양을 볼 수 있다는 고마움을 느끼고 그런 시를 짓고 있으며, 나아가 이번에 전쟁터에 간다면 어떤 특별한 것을 얻을 수 있고 특별한 시를 짓는다는 점을 실은 강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보니, 즉 자신이 가기 전에 쓴 정신과 갔을 때의 정신에 큰 간극은 없었어요. 다만 듣고 보는 것에는 매우 큰 것이 다가왔지만 그것을 시로 노래하는 정신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고,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논의된, 전선에 간 작가가 매우 특이한 것을 몸에 익히고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웬지 주눅이 든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일종의 곡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총후에 있어도 전쟁문학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일전에 귀환작가환영회 때 히노 씨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쟁터에 간 작가가 특별히 거들먹거릴 것은 없고 또 자랑할 것도 못되고, 마찬가지로 전쟁터에 가지 않은 작가가 전혀 주눅이 들 필요도 없다는 말이었는데, 자신들은 단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러 갔을 뿐이라는 점을 좀 더 다른 뛰어난 표현으로 말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미의 말을 다카미 준도 말했죠.

가라시마 : 마지막으로 이런 것을 느낍니다. 전쟁 수행에 대한 책임의 자각—그것을 갔다 온 분들은 전선 생활 속에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왔다는 점을 느낍니다.

이노우에 : 그런 점은 있죠.

가라시마 : 총후에 있는 작가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활 속에서 그 책임을 느끼는—생활 전체를 통해 그것을 파악하고 있으면 훌륭한 전쟁문학이 탄생하리라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전선의 문제도 없고 총후의 문제도 없으면, 문제는 그 책임감을 어떻게 자신의 문학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데 있죠.

이노우에 : 그런 데서 새로운 문학에 대한 사고방식이 출발하겠죠.

우에다 : 전쟁은 어쨌거나 이겨야 하고, 그것을 위한 국민의 모든 영위는 모두 그것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학이든 무엇이든 간에 말입니다.

## 향토에 대한 애정

스기모토 : 국민의식이라고 할까, 민족이 갖고 있는 가장 순진한 의식이 나타나는 것은 전쟁터라고 생각하는데, 때문에 일본인이라면 거기서 가장 일본정신을 발휘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동아전쟁에서 그렇게 큰 전과를 올린 것은 아마 세계의 전 인류가 깜짝 놀란 것이 사실이겠지만, 그런 일본인의 뛰어난 특징을 낳은 일본의 국토, 향토에 대한, 혹은 일본의 문학이나 그 밖의 예술 속에 있는 전통적인 미의식이랄까, 그런 것에 대해 이번에 돌아오셔서 무언가 다른 눈으로 비친다는 것은 없을까요?

우에다 : 그것은 현지에 있을 때부터 그런 감정은 있었습니다. 이는 전쟁터뿐만 아니라 단지 외국을 여행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알게 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전쟁이라는 절대적인 경지에 놓이게 되면 그것을 매우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해 향토를 지키고 향토와 운명

을 함께 한다는 감동이 매우 강하죠.

이노우에 : 바로 거기에 격렬하게 싸우는 황군(皇軍) 장병들의 큰 힘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전에 어느 육군 중좌가 과달카날 전선의 보고 담화에서, 지금 국내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병사들이 매우 걱정하면서 물어서 국내는 매우 씩씩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대답을 하자 병사들이 모두 안심한 것처럼 밝은 기분을 갖게 되었다는 말을 했다. 나 역시 거기에 가서—나는 개전 3개월 뒤에 전선에 나갔는데, 가자마자 가장 먼저 병사들도 사관들도 모두 일본 내지는 어떤지, 국민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 등을 만날 때마다 질문을 하더군요. 그러면 나는 일본 내지는 매우 밝게 지내고 있고 다소 생활의 부자유는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아주 씩씩하게,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주면 참으로 다행이라며 크게 기뻐합니다. 이 일은 이번에 돌아와서 최초 보고강연에 넣었는데, 우리 부모형제가 살고 있는 일본, 아름다운 일본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은 몸 바쳐 싸우고 있는데도 일본 안이 어두우면 왠지 안타까운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 시의 형태 파괴와 창조

김 : 이노우에 씨에게 잠깐 여쭙겠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의 고민 중에 하나인데, 즉 일본의 현대시는 형태적으로 말해 이를테면 영미의 데모크라시가 들어오는 동시에 일어난 민중시에 의해 형태상으로 하나의 파괴운동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 이후 마르크스주의가 들어와 이번에는 좌익시에 의해 시 형태의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의 파괴운동은 그것이 조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용납이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현대시가 그걸로 좋은지…… 본질적인 면에서 말이죠. 일본에는 언령(言靈)이라는 말이 있죠. 좋은 말이라 생각합니다. 즉 일본의 전통 속에 흐르고 있는 언어의 영혼—말 속에 일본적인 혼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시인의 경우에는 일본정신을 파악하는 셈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의 정신이라는 것을 새로운 시 형태와 떼어내서 생각할 수는 없죠.…… 현저하게 가지 않았지만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 씨—그런 작가도 훌륭한 일본주의자이자 동양주의자라고 보는데, 그는 일본인이 더 고독하지 않으면 사상은 태어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다소 이상하게 들리면서도, 그러나 아무래도 문학에서의 사상의 발효라는 것은 그런 좀 더 침잠한 고귀한 것, 깊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노우에 :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민중시가 당시 일본의 상징시를 파괴하고 새로운 시를 수립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 연대에 시를 쓰기 시작했고 거기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대답하자면, 당시 프랑스파의 시인들의 지극히 난해 회삽(晦澁)한 시에 대한 반동으로서 더 쉬운 말로 시를 써야 하고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시로는 안 되고 누가 읽어도 곧장 영혼에 호소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일단 민중시 운동이 일어난 동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메리카의 데모크라시 정신만을 그대로 가져와 시작(詩作)의 정신으로 삼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 : 아뇨, 저는 시의 형태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민중시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 현지에서의 생활

최 : 보도반원의 현지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에다 : 육군 보도반원은 대개 작전지역에서 적대선전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종사하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단락되고 이를테면 건설기에 들어서면 보도부에 흡수되어 군이 행하는 문화공작을 하는데, 해군의 경우와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국내 보도가 주가 아니라 현지주민에 대한 문화공작이 주라는 점입니다.

스기모토 : 전쟁터에서는 어떤 것을 읽고 있습니까?

유 : 그건 저도 묻고 싶은 점입니다.

우에나 : 가장 많은 것을 대중문학, 가벼운 것이 일반적인 모양입니다.

스기모토 : 그렇다면 도리어 병사들의 주위에서 직접 체험하는 것을 다룬 전기문학(戰記文學)은 별로 읽히지 않는다는 말이군요.

우에다 : 아뇨, 거기에도 상당한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읽으려는 동기가 다르죠. 대중잡지를 읽는 것은 단순히 심심풀이에 지나지 않아서 읽고 감동하거나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전쟁기록물을 읽는 것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전쟁이 나와 있어서 이를테면 과거의 옛 전쟁터를 사랑하는 감정 때문이죠. 그런 감정으로 읽는 것이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거기서 쓴 『필리핀의 전기(戰記)』, 이것은 1권 2엔으로 판매예약을 모집했더니 4만 명이 신청했습니다. 상시 파견군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대단한 신청입니다.

스기모토 : 옛 전쟁터를 사랑하는 감정과 함께 어떻게 적혀 있는지, 그것이…….

우에다 : 처음 간 사람은 향토에 대해 매우 애착을 느끼고 그런 감정에서 자신의 향토의 역사를 읽죠. 가라시마 : 읽을거리에 굶주려 있어서 무엇이든 있으면 닥치는 대로 읽는데…….

우에다 : 그럴 수도 있죠. 활자라면 뭐든 좋다는…….

최 : 진중신문(陳中新聞)은 등사판입니까?

우에다 : 네, 그렇습니다.

유 : 고전을 읽는 것은 극소수……?

우에다 : 훨씬 적어요.

## 초장(草葬)의 시가

우에다 : 가령 병사들 중에는 서정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유행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우리가 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합니다. 다만 어떤 작전에 참가해서 사기왕성한 때 어떤 것을 찾고 있는가 하면 아무래도 군가입니다. 상황에 따라 엄청난 감동을 받죠. 나는 거기에 가서 처음 「새벽에 기도하다(曉に祈る)」라는 군가를 익혔는데, 작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에 나오는 “아아, 당당한 수송선”이라는 구절을 수송선 위에서 노래하고 있으면 정말 용감해져

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시다. 더 크게 보면 문학의 힘, 시의 큰 힘을 느낀 것인데, 마지막 구절 “그렇다면 조국이여 번영하라” 구절에서는 눈물을 흘렸어요.

스기모토 : 곡도 좋죠.

이노우에 : 곡도 좋은데, 어쨌거나 그런 느낌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스기모토 : 같은 시라도 장소에 따라 그렇게 되는군요.

이노우에 :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감상은 아니지만 때때로 나도 모르게 그 노래를 눈물을 흘리며 부르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실은 어제 함흥에서 오는 기차 안에서 두세 곡 부르고 있는 사이에 갑판 위에서 본 병사들 얼굴을 떠올리고 웬지 마음속으로 긴장감이 생기는 듯했어요. 그것은 갑판 위에서 노래한 감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기도 할 테고, 적어도 그런 힘을 가진 시를 짓고 싶다는 감정…….

김 : 그리고 보니 니와 후미오 씨의 『해전』을 읽어보면, 적함이 활활 불타오르는 장면이라든가 마지막 전사자의 장면 등에서 「바다에 가면(海行ゆけば, 우미유키바)」을 인용하면서 매우 인상적으로 썼는데, 그것은 시와는 전혀 인연이 없는 작가가 시를 쓰고 있다는 느낌이죠. 그것이 그 나름대로 새로운 릴리시즘으로 고양되어 있어요.

이노우에 : 그런 점에 우리는 시를 느낄 수 있죠. 전쟁 중에는 정말 아주 시적인 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가라시마 : 말씀을 듣고 있자니, 이노우에 씨가 기차 안에서 수송선 노래를 부르면서 병사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동시에 새로운 긴장감을 느꼈다는 말을 듣고, 그 점은 역시 조금 전부터 문제가 된 종군작가들에 대한 일종의 선망(웃음)을 느낍니다. 우리도 그런 정신으로 각 장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자칫 평화로운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희박해지려고 하죠. 이런 때 그러한 기억을 떠올린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최 : 그렇죠.

가라시마 : 일상생활 속에 국민이 모든 것을 자주 전쟁과 결부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도 종군작가에 대해 지금의 선망을 느낍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자극이 되어 각자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말일 테니, 조선의 작가 중에서도 종군작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실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노우에 : 이번에 병사들의 생활을 보고 강하게 느낀 점은 임무를 완수한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특히 그것을 강하게 느낍니다. 따라서 국민이 모두 자신의 임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에다 : 이것은 제가 또 필리핀에서 돌아와서 느낀 감정입니다만, 웬지 총후에 채찍질을 받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거리에 나가 밥을 먹으려 해도 그렇고 담배를 살려고 해도 부자유를 느낄 때가 있어요. 이 상태로 참 용케도 지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시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남방에서 돌아온 밤—우리 집은 치바인데, 친척과 친구들이 환영잔치를 열어주었죠. 그런데 그 잔칫상이라는 것이 생두부, 나물, 단무지였어요. 이것이 필리핀에서 돌아온 최초의 저녁으로, 그 때 나는 역시 이것밖에 없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아무 말 없이 먹으면서 친구들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물자 통제가 강화되어 …… 물자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 통제가 강화되어 최저 수

준으로 견디고 있다는 말에 울컥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전쟁터에 있으면 총후에서 보내 주기 때  
문에 …… 작전시기의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 전혀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급되죠. 어쨌거나 그날 저녁은 매우 감동했습니다.

가라시마 : 좋은 일이군요. 양쪽에서 그런 느낌으로 서로 지지 않으려는 감정을 갖고 있으면….

유 : 귀환 작가의 입을 통해 그것을 들으면 역시 기쁩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일이고 또 말할 만한  
성질의 것도 아니죠. 그 점에서 주눅이 듭니다만.

최 : 시간도 다 됐으니 이쯤 해서. 감사합니다.

〈출전 : 『戰爭と文學(座談)』, 『國民文學』 제3권 제6호, 1943년 6월, 136~147쪽〉

#### 4) 나가야 쇼사쿠(長屋尙作), 시사유감 - 징병제 · 전국(戰局) · 문학자 등

군 보도부장 나가야 쇼사쿠

징병제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종종 쓰거나 말하고 있는데, 역시 그 진정한 의의를 체득하기 위  
한 노력은 반복 또 반복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단지 반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대개 반도에 징병제  
가 실시되었다고 하면 반도 사람에게만 갖가지 요망을 바라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그것은 당연한 일이  
지만, 동시에 반도에 징병제가 실시된 진정한 정신이라는 것은 이를 일본 내지 사람도 충분히 체득해야  
하는 일이다. 징병제도라는 것은 그 이름 아래 법률로서 성문화되어 있지만 일본이라는 나라에 관한  
한 이른바 국민개병(國民皆兵)으로 나라는 지킨다는 것—비상시에는 전쟁터에서 싸우고, 돌아오면 농  
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신대(神代)의 시대 때부터 변함이 없다.

그래서 반도 사람도 일본의 신대 시대와 똑같이 되는 것이 특히 이 8월 1일을 기해 허용된 것이다.  
그러면 반도 사람들은 신대의 그 옛날, 반도와 일본 내지가 어땠는지,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나는 내선일체(內鮮一體)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믿고 있다. 그것은 아주 먼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먼 옛날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라도 있는가 하면, 그것은 일본 최고(最古)의 전적(典籍)—일본 국체의 진면목을 전하고 있는  
『고사기(古事記)』 속에 이미 반도와 일본 내지의 관계는 구별 없이 기록되어 있다. 수많은 신들의 활동  
을 보더라도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sup>50)</sup>의 동생뻘에 해당하시는 스사노오노미코토(素戔鳴尊)가  
반도에 가셨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상, 이 한 가지 사실만 깊고 넓게 볼 수 있었다면  
당시 일본과 조선의 구별이 없었음을 나는 믿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신대의 그 옛날로 되돌아가는  
것을 내선일체라고 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징병제가 실시된 것도 신대로 되돌아가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믿는다.

그 이후의 역사에서 일본해와 쓰시마(對馬)해협에 가로막혀 일본 내지와 조선에는 각종 변화가 있었

50) 일본신화에 나오는 다카마노하라(高天原)의 주신으로, 태양신이자 황실의 조상신으로 간주되고 있다.

다. 언어나 생활, 또 그에 따라 자연히 사상이나 지향에도 변화가 초래되었는데, 여기에 메이지천황(明治天皇)의 성려(聖慮)에 의한 병합이 이루어진 이래로 그 오랜 역사로 인해 생긴 차이가 오늘날의 반도 사람, 그 아버지와 조부의 노력에 의해 오늘날에 이르러 일본 내지와 마찬가지로 반도에 징병제가 실시되었다고 이해해야 한다. 즉 한편으로 확고한 태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현대 일본 내지인과 조선인, 특히 반도 사람의 충성스러운 연성(鍊成) 노력으로 이렇게 기쁜 8월 1일을 맞이한 것이다. 사람은 노력이라는 말을 하지만, 그렇게 노력할 수 있었다는 것도 실은 신대로부터의 연결 고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일본과 조선이 함께 오늘날 우리나라가 직면하는 중대 난국을 극복하는 데 매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야 한다.

다음으로 전황의 현 단계와 그에 대처하며 취해야 하는 국내 문화진영의 태도에 대해 언급하도록 하겠다.

물론 이는 문학 방면뿐만 아니라 각 계급의 지도자들에게도 말하고 싶다. 현 단계에서는 제일선의 전투라는 것은 참으로 격렬하다. 그리고 그 격렬함이라는 것은 예컨대 격검(擊劍)을 들어 말하자면, 팔뚝을 맞고 얼굴을 친다든가 어깨를 맞고 몸통을 치는 것처럼, 서로 그야말로 격렬한 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이러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제일선은 단순한 기하학적인 선이 아니다. 폭도 있고 깊이도 있다. 우리가 전선이라 할 때 항상 이 폭과 깊이를 생각해야 한다. 전방으로 돌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후방으로 물러서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오늘은 전선의 후단에 있던 것이 내일은 최전선에 나서는 경우도 있으며, 또 그 다음 날에는 후단으로 물러서는 장면이 나오게 된다.

그런데 국민이 이러한 격렬한 전투의 진정한 모습을 알지 못하고, 격렬함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할 경우에는 앞으로 더 격렬한 전투에 부딪쳐 그때그때의 전투 양상에 일희일비하며 사상적 동요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그것은 첫째로 전선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애투 섬<sup>51)</sup>의 옥쇄(玉碎)를 보고 단지 그것만으로, 또 과달카날의 철퇴(撤退)를 보고 단지 그 일만으로 패배적인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이는 정말 예삿일이 아니다. 거듭 말하지만, 전투의 격렬함을 정말 제대로 알아야 한다. 앞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으면 뒤로 물러나는 경우도 있다. 전선은 늘 탄력성을 갖고 있어서 전진하기 전에는 먼저 무릎을 굽히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재 태평양의 모든 전선에서는 우리가 절대 전략적 우위에 서 있고 언제 어떠한 때에도 자주적 공세를 취할 수 있다. 우리는 국지적인 전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심각한 현재 전황의 실상을 주시해야 한다.

이렇게 국민은 전투의 그때그때의 양상을 가만히 인내하며 받아들일 만큼의 강인함을 지녀야 한다. 문학자는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이라고 들었다. 물론 국민이 일반적으로 예민한 상태이지만, 이처럼 우리는 전투의 참 모습을 알고 한편으로 성전의 목적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다른 한편으로 사상전적으로 자신을 단련하는 동시에 국내 생산전을 강인하게 전개해야 한다. 특히 문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한층 냉정하고 강인하게 국민생활을 지도하고 고무하는 일을 하도록 전황의 현 단계에서 더욱 강하게 국가적으로 요청받고 있다. 문학자를 포함한 이른바 보도진영의 정비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

51) Attu, 알류산 열도 서쪽의 화산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일간의 격전지.

으며, 지난 제1회 조선군보도연습을 실시해서 큰 효과가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음 계획을 짜고 있다. 대본영(大本營) 쪽에서도 조선인 작가의 보도반원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를 강구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제일선에 파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쨌거나 문화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문필을 통해 국가의 요청에 응답하는 시대이다. 따라서 열심히 연성함으로써 쫓기하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출전 : 長屋尙作, 「時事有感—徵兵制·戰局·文學者など」, 『國民文學』 제3권 제9호, 1943년 9월, 2~4쪽〉

## 5) 쓰다 가타시,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출석하여

국민총력조선연맹 선전부장 쓰다 가타시

이번 8월 25일부터 3일간 도쿄(東京)에서 제2회 대동아문학자대회가 개최되어 나는 조선대의원 자격으로 일행 5명과 함께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특히 결전문학자대회라고 해서 글자 그대로 대동아의 싸우는 문학을 건설하기 위한 대회였다.

일행은 19일 경성을 떠나 시모노세키(下關)에서 북중국, 내몽고, 만주국 대표와 합류해 중국 중부 대표도 함께 22일 모두 도쿄에 도착했다. 각국 대표는 작년 경성에 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인이 상당수 있어서 안면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문학자 특유의 솔직한 감정으로 얼굴은 몰라도 곧 친해져 시모노세키에서부터 도쿄까지의 열차 안에서 이미 이야기꽃이 피었다.

22일 도쿄에 도착해 곧바로 궁성 앞에 가서 황거(皇居)에 절하고 숙사에 들어갔다. 23일과 24일 양일은 신궁참배와 인사를 하러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고, 25일 드디어 발회식이 제국극장에서 거행되었다. 오전 9시, 모인 사람은 120명, 대동아 각지의 대의원을 비롯한 수백 명의 일반 문학자들이 모여 넓은 제국극장이 가득 찼다. 조야의 명사들도 다수 참석해서 엄숙한 개회식이 있었다. 아모우(天羽) 정보국 총재를 비롯해 명사들은 하나같이 세계가 시작된 이래 이렇게 격렬한 결전 중에 교전 각국의 문학자들이 한 곳에 모여 문화의 건설을 도모하는 일은 일찍이 없었던 일이고 적국 미·영은 물론 독일 등에서도 아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대동아전쟁이 얼마나 세계사에 빛나는 건설전이고 문화 충실의 싸움인지 회의에 참석한 이들에게 감명을 주었고, 또 지역 관계로 인해 남방 각지에서 참가하지 못한 인도, 자바, 필리핀, 말레이시아, 타이 등에서 열렬한 축사와 축전이 있었으며 모두 황도 문화 건설을 외치는 참으로 장대한 기운이 넘치는 빛나는 개회식이었다.

둘째 날에는 각국대표의 발언이 있었고 셋째 날 오전에는 분과회가 3개로 나뉘어 각각 문제를 토의하고 오후에는 다시 본회의가 열려 회의는 종료되었다.

둘째 날 오전 열두 명, 오후 열두세 명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조선대표는 오전 여섯 번째로 유진오(俞鎭午) 씨, 오후에 네 번째로 최재서(崔載瑞) 씨, 여덟아홉 번째에 내가 발언했다. 그날 오전에는 대동아문학 건설을 위한 일반 이념 문제에 대해, 오후에는 그 실천 문제에 대해 각국 대표의 가장 중요한 중점적인 발언이 있었는데, 우리 조선대표는 가장 많은 발언 기회를 얻었다. 둘째 날에는

조선 3명, 만주국 3명, 내몽고 1명, 중국 중부 3명, 대만 1명이라는 식으로 발언했는데, 조선이 이처럼 많은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징병제 실시를 중심으로 한 반도의 획기적인 발전이 각 방면의 주목을 끌어 발언 순서에 큰 중점을 둔 결과였다. 그런 만큼 발언자도 책임을 갖고 긴장해서 열렬한 의견을 개진했는데, 다행히 그 진지한 발언은 모두 만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 중 종종 박수로 소찬동의 뜻을 받았다.

유진오 씨는 「결전문화이념의 확립」에 대해 발표했다. 즉 작금의 이 치열한 결전적 단계에서 승리하는 것이 전부이고 문학 또한 싸우기 위한 문학이어야 한다. 싸움에 진다면 문학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세계의 문화의 운명을 지배하는 이 싸움에 모든 것을 걸고 승리해야 하고 문학에서의 이념을 여기에 확립해야 한다. 우리 반도는 드디어 징병제도 실행되어 젊은이들이 전선에 서려고 한다. 반도 문학도 그것을 목표로 나아가고자 한다는 등의 내용의 열변을 토했다. 이 발언은 만장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그렇게 외쳤을 때 일제히 큰 박수가 나왔다. 신문 등도 몹시 애절한 발언이었다며 크게 이를 다루었다.

유진오 씨의 이념적인 발언에 대해 최재서 씨는 오후의 실천적인 문제를 토의할 때 일어나, 이런 이념을 조선에서 어떻게 실행으로 옮기고 있는가 하는 점을 징병제 실시를 둘러싼 반도 문단의 실제 움직임에 입각해 말했다. 반도의 문화계가 징병제 시행과 더불어 조선어 문학에서 ‘국어’<sup>52)</sup> 문학으로 일대 전환을 이루었고 더 나아가 결전 문학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반도에서의 문화인의 결의와 그 의의를 언급한 뒤 널리 전 동아에 그 결의를 표명했다.

징병제 시행이라는 것은 반도에서도 획기적인 사업일 뿐만 아니라 동아 전체의 매우 거대한 건설인 만큼, 이전부터 각 방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문화인의 강한 결의 표명과 큰 전환의 보고는 만장에 깊은 감명을 주었다.

나는 이러한 이념 및 실천을 통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안을 제안했다. 그것은 출발 전 문인보국회(文人報國會)나 총독부, 기타 각 관련 방면의 의향도 묻고 차 안에서 대표 일행이 모여 상담한 하나의 구체안이었다. 인류사 전환의 성스러운 날인 12월 8일을 기해 대동아의 전 문학자들이 총 쫓기를 하는 제안이다. 12월 8일에 각 지역에서 각각 작가대회를 열어 지역 상호간에 작가를 서로 작가를 파견하고 전우의식을 고양하고, 나아가 작가는 일제히 대동아 건설에 부합하는 작품을 만들고 각 지역의 잡지는 일제히 이를 발표해 문학적으로도 행동적으로도 일대 운동을 전개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 안은 일견 방대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실질적인 제안으로, 각 지역 모두 12월 8일에 모종의 문화적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잡지도 이날을 기념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통제와 방향을 제시해 들끓어 오르는 힘을 조직적으로 표현하는 매우 소박하고 실현 가능한 안이다. 다행히 이 제안은 기쿠치 간(菊池寛) 의장을 비롯해 만장의 찬성을 얻을 수 있었다. 신문은 매일 4단 짜리로 이 제안을 게재해 주었고 생각보다 반향이 있어서 기뻐다. 이리하여 첫째 날은 조선대표의 진지한 발언이 대화를 더욱 긴장시켰는데, 둘째 날의 분과회 및 본회의에서도 조선대표의 활약은 계속되었다.

제1분과회에서 유치진(柳致眞) 씨는, 종래 일본 신극운동의 싹이 자유주의적 미·영적인 것에 두고

---

52) 일본어.



있었기 때문에 끝내 국민들의 진정한 지지를 받을 수 없었고, 앞으로 나와야 할 동양의 신극은 일본 및 전 동양에 오래 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풍부한 연극의 전통 속에서 진정으로 앞으로의 세계를 지도 하기에 충분한 형식과 내용을 끄집어내어 새로운 대동아의 연극을 종합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히 일본을 중심으로 동양의 연극 전통 속에서 무엇을 끄집어낼지를 구체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연극의 구체적 문제에 대한 제안을 했다. 이는 제1분과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제2분과회에서는 조선과 관계 깊은 장혁주(張赫宙) 씨가 중국대표에게 충칭(重慶) 작가를 어떻게 이 쪽으로 끌어올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캐물어 만장에 긴장감을 주었다. 나도 전날의 제안이 정말 실천되기를 바라면서 분과회에서의 채택을 기대했고 다행히 채택되었다.

제3분과회에서는 금촌용제(金村龍濟)<sup>53)</sup> 씨와 최재서 씨가 발언할 예정이었지만 시간 관계상 발언하지 못했다. 오후의 본회의에서 금촌용제 씨가 각 지역의 1년간 문학의 동향에 대한 보고연설이 있었을 때 조선을 대표해 조선에서의 작가의 작품 활동을 중심으로 상세한 보고를 했다.

이처럼 조선대표는 매우 열심히 활동했는데, 다행히 그 노력이 각 방면에서 인정을 받은 것은 유쾌한 일이었다. 특히 각 대표들이 일치해서 징병제 시행을 둘러싼 반도 문화계의 결의를 거론한 것은 전 동아 각 지역에 반향이 있었으리라 본다.

이상 조선대표의 활동에 대해 언급했는데, 각국 대표도 매우 진지한 발언을 했다. 만주국은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심원인 건국정신의 철저에 대해 매우 진지한 의견을 피력했고, 중국 작가는 중국 문단이 얼마나 진정으로 참전할지에 대해 말했다. 일본 내지 문단에서는 전 동아의 문화자들이 어떻게 결집해야 하는가 하는 지도적 의견이 속출했다. 이렇게 해서 회의는 3일간 매우 건설적인 건의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큰 성과를 올렸다. 이어서 28일부터 일행은 견학이나 각 방면의 교류를 했고 9월 1일 도쿄를 떠나 9월 5일 교토에서 해산해서 각자 고국으로 돌아갔다. 나는 공무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간사이(關西) 여행에는 참가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쿄에 남아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 정보국 등 각 문화단체와 접촉해서 여러 가지 얻은 점이 많았다. 대정익찬회 직원에게 최근 조선의 실정에 대해 소견을 말할 기회를 얻었는데, 익찬회 사람들이 조선에 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든든했다.

이번 대동아문학자대회를 통해 우선 느낀 점은 대동아전쟁이 인류사상 일찍이 없었던 문화적 건설 전이라는 점, 다음으로 그것은 현재 건설의 큰 걸음을 착실히 내딛고 있다는 점이었다. 특히 일본 내지 사람들의 긴장되고 들끓어 오르는, 싸우겠다는 의욕에서 느끼는 바가 많았다. 모두 황도(皇道)를 중심으로 새로운 인류문화를 쌓아가려는 기운은 대동아 전역에 확산되고 있다. 새로운 인류의 문예부흥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음을 절실히 느꼈다. 우리 조선에서도 이런 중대한 건설기에 있어서 전 문화인의 사명이 예사롭지 않은 것을 느끼고 귀성한 것이다.

〈출전 : 津田剛, 「大東亞文學者大會に出席して」, 『國民總力』 제5권 제19호  
國民總力朝鮮聯盟, 1943년 10월, 10~11쪽)

53) 김용제(金龍濟)의 창씨명.

## 6) 다나카 스테히코(田中捨彦), 국어문학의 전진

(1) 이전에 일본 내지에 있을 무렵 내지 잡지에 때때로 소개되는 반도 작가들의 작품을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본 기억을 갖고 있는 나로서는 지금 반도에 와서 반도의 ‘국어’<sup>54)</sup>문단이라는 것의 내막을 조금 엿보고는 다소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내 심정이다.

어지럽게 돌아가는 전환기에서 국가가 문학자들에게 기대하는 과제에 부응하는 일만으로도 수많은 기성 작가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수업의 길이고, 대다수 유력한 작가들이 망각의 저편으로 떠밀려 내려갔고 적응성이 뛰어나고 심장이 강한 사람들과 정말 힘 있는 소수 사람들만 간신히 남아서 빛나는 내일의 문학의 초석, 또 싹을 틔우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현재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초석 위에 훌륭한 건축물이 들어서고 조그만 싹이 커다란 나무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주문을 약간 하고자 한다.

(2) 이를 위해 나는 첫째로 문학용어의 문제에 대해 거론하고자 한다. 그저 난해한 어휘를 자랑하고 이른바 “도깨비 탈을 쓰고 사람을 겁주다”라는 것과 같은 일이 없도록 하고, 가급적 쉽고 단순한 언어로 표현할 것을 권하고 싶다.

나는 일찍이 반도 작가들의 작품에서 받은 좋은 감명이 도리어 치졸한 표현 깊은 곳이 묘하게 가슴속에 파고드는 데서 받는 느낌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저 어휘의 많음을 자랑하는 일은 도리어 세기말적 현상이고 의식과잉의 산물이다. 의식과잉이란 병리적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각 방면에서 단순 솔직한 것이 활달한 신흥시대의 특징이라는 점은 문학세계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나는 일본 내지의 작가들 중에서 구니키다 돗포(國木田獨步), 시가 나오야(志賀直哉)의 작품에 항상 감동을 받곤 하는데, 그 작품이 지닌 장점은 돗포는 물론이고 일종의 기교파라고 여겨지고 있는 시가 나오야도 사실은 소학생의 작문에서 볼 수 있는 순수성과 단순성에 그 깊은 가치의 비결이 있다고 믿고 있다.

다행히 반도 작가는 ‘국어’를 사용하는 데 미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의식과잉과 요설(饒舌)에서 단순화될 수 있는 계기를 발견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때문에 쓸데없는 말의 공화(空華)를 갖고 노는 일본 내지 문단인에 앞서 간소한 미가 가득 찬 신시대의 작품을 낳는 데 성공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기대를 받는다. ‘국어’운동자 측에서도 함부로 많은 어휘를 보급하려고 하는 쓸데없는 짓을 생략하고 가능한 정선(精選)하여 적은 수의 상용국어의 틀을 제공하기 위한 국어의 단순화, 정리화를 더욱 고려해야 한다.

(3) 근래 반도의 ‘국어’ 작품을 일별해 보면 일본 내지의 이른바 중앙문단의 추수, 모방, 복제품이 매우 많은 것은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든다. 특히 시국색이 있는 것이 그러하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그 문학작품의 근원이 되는 마음가짐에서는 자신을 깊이 파고들어서 진정한 황도의 위대한 흐름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일본 문학의 직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본

---

54) 일본어.

디 필요불가결한 일이겠지만, 그 깊은 진체(眞體)의 체득 없이 그저 형해의 말절을 추수, 모방한다는 것은 문장 직인의 일이지 문학작품이라는 이름에는 걸맞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날 같은 전환기에서는 중앙이 딱히 신흥문단의 모범이 될 만한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도리어 이러한 시대에서는 소비적 중앙도시에서보다 활발한 생산지나 혹은 과감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벽지에서 다음 시대 문학의 영혼이 탄생하고 있음을 생각하고 농촌에, 공장에, 광산에, 전쟁터에 취해야 할 문학의 소재와 배워야 할 문학의 영혼이 있음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4) 나는 반도의 현 ‘국어’ 문단이 갖가지 좁은 틀을 던져버리고 확실하게 반도의, 아니 동아의 넓은 대지에 발을 내딛기를 바라는 바이다. 건실적이고 지도적인 진정한 비평정신이 활발히 움직여 안이한 편의주의로 작가들을 안주케 하지 않고 질타 독려하기를 바란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기성 작가는 단지 문단이라는 작은 세상에서 몸을 사리지 말고 현실의 싸움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축 늘어진 작가혼을 부활·갱생시킬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만년필을 들고 종이에 창작하는 시대가 아니라 삽과 칼을 들고 대지 위에 흥아(興亞)의 성업(聖業)을 창작해야 할 시대임을 진실로 인정하는 자야말로 비로소 오늘날 국가가 요청하는 예술작품을 탄생시킬 힘을 갖고 있는 자임을 생각하기를 바란다.

(5) 일억일심(一億一心)이란 언어를 하나로 함으로써 비로소 완전하게 성립하는 것이다. 위대한 황도는 야마토(大和)<sup>55)</sup> 말을 통해 서적 위에 그 소식의 일단을 전하고 있다. 나는 다가올 반도를 구원하는 길은 이 황도 외에는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문학자 제군들이 한층 ‘국어’에 숙달하여 이 미묘한 길을 체득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본 문학 연구를 하는 동시에 이상한 자중이나 주눅을 배제하고 왕성히 ‘국어’ 작품을 씀으로써 자신을 황도인(皇道人)으로서 연성(鍊成)하는 동시에, 그 ‘국어’ 작품을 통해 수많은 민중들을 진정한 황도인으로 만드는 행복을 진흥시키기 위해 아름답고 훌륭하고 쉬운 ‘국어’ 작품을 탄생시키기 위해 절차탁마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총력연맹 문화부장)

〈출전 : 田中捨彦, 『國語文學の前進』, 『國民文學』 제4권 제5호, 1944년 5월, 24~26쪽〉

## 7) 결전태세즉응 재조선문학자 총궐기대회록

전 조선의 문학자들이 일어서는 열의와 힘을 결집해 구적 미·영 타도의 기세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조선문인보국회에서는 도쿄 구단(九段) 군인회관에서 개최한 결전 즉응 문학자 총궐기대회에 호응하여 지난 6월 18일 오후 1시 30분부터 경성부민관 강당에서 재조선 문학자 총궐기대회의 장엄한 막을 올렸다!

55) 일본.

## 대회 순서

### 〈제1부〉

1. 수불(修祓)<sup>56)</sup>
2. 개회사
3. 국민의례
4. 대조봉찬(大詔奉讚)
5. 황국신민의 선서 제창
6. 회장 야나베 에이자부로(矢鍋永三郎) 각하의 인사
7. 내빈 축사

(결전태세 즉흥 재선 문학자 총궐기대회에 바란다)

- ① 정무총감의 축사
- ② 조선군 보도부장 나가야(長屋) 소장의 축사
- ③ 해군 무관부 마쓰모토(松本) 대좌의 축사
- ④ 국민총력조선연맹 사무국 차장 간규 다다오(簡牛凡夫) 씨의 축사
- ⑤ 만주문예가협회 대표 고정(古丁) 씨의 축사
- ⑥ 일본문학보국회 대표 유아사 가쓰에(湯淺克衛) 씨의 축사
- ⑦ 재조선문화단체 대표 하야시 시게키(林茂樹) 씨의 축사

### 〈제2부〉

1. 의장 추대
2. 의장 향산광랑(香山光郎, 가야마 미쓰로)<sup>57)</sup> 씨의 인사
3. 정보과장 자문
4. 의사 및 회원 결의 피력
5. 자문답안 채택
6. 황군 감사 결의문 발표
7. 선언문 낭독
8. 바다에 가면(海ゆかば(우미유키바)) 제창
9. 성수(聖壽)만세 봉창
10. 폐회사

---

56) 신도(神道)에서 불제(祓除)를 하는 것.

57) 이광수(李光洙)의 창씨명.

## 문학과 도의조선 확립

정무총감 다나카 다케오(田中武雄)

치열한 전황 속에서 조선의 문학자들이 일어서는 열의와 힘을 스스로 결집해서 미·영 격멸의 기세를 더욱 고양시켜 조선문인보국회에서는 제1회 총회를 겸해 반도 거주 문학자는 물론이고 일본 내지, 만주국으로부터도 각각 대표자들이 참가해 결전 즉흥 문학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오늘, 여기에 소감의 일단을 피력하여 격려사를 하게 된 것은 저로서도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각건대 오늘날과 같이 국민 활동의 일체를 전력화하고 오로지 성전 완수에 매진해야 하는 때에는 모든 문학 활동도 당연히 모든 것을 미·영 격멸이라는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문학자들 중에 일부가 종래의 환경상 미·영적인 잔재를 일소하지 못한 것은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바야흐로 미·영 격멸 싸움은 그야말로 격렬하고 일억 국민들은 자신의 직분을 불문하고 모두 용맹한 투혼으로 정신(挺身) 봉공을 해야 하는 때, 문학자도 이런 혼으로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이리하여 승리했을 때 비로소 진정 빛나는 반도 문학의 정화(精華)를 크게 꽃피울 수 있으리라 굳게 믿는 바입니다.

그런데 반도의 상황을 보면 문학계 사람들이 문학보국의 적성(赤誠)으로 성업(聖業) 달성에 매진하고 있는 늠름한 태도를 든든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작년 4월 본 문인보국회 발회식 석상에서 앞으로는 문학자의 애국적 단결을 더욱 강화하여 심원하고 웅대한 황도문학을 '반도인'들의 가슴 깊이 심어 도의조선(道義朝鮮) 확립의 근저에 기여하기 위해 제군들의 궐기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 제군들은 각종 연성(鍊成)의 행사들에는 솔선수범 참가하여 자신의 수양에 힘쓰며 항상 국민들의 전의를 고양시키는 데 노력하고, 징병제 실시에서는 그 취지 철저를 위해 진력했습니다. 또 '국어'생활운동의 진두에서 활약하는 등 반도 문단의 결전태세는 나날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고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전황의 앞날은 여전히 낙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일억 동포들이 철과 돌 같은 단결을 하여 어떠한 고난과 결핍도 감내하고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짐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학자 제군들은 어디까지나 오늘날 이 의의 있는 대회의 정신에 철저히 입각해 오직 적을 물리치겠다는 길로 돌진해 본 대회의 목적 관철에 유감스러움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로써 격려사를 마치겠습니다.

## 전시문학과 그 사명

조선군 보도부장 육군소장 나가야 쇼사쿠(長屋尙作)

오늘 결전체제의 즉흥 대회를 개최한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것으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결전 단계에서 무엇보다 이 싸움에 이기는 것을 첫째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이 대회도 그 목적을 위해 개최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여러분의 진심어린 분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전부터 이런 식의 일은 다른 방면에서도 종종 개최되지만, 어떤 일을 실행했는가를 보면 그 그림자는 거의 희미한 것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대결전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모두 이 싸우는 힘이어야 합니다.

군대라는 것은 육군이든 해군이든 전쟁을 하는 데 적합한 편성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싸움은 단지 제일선의 육해군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총후(銃後) 모두 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후 각 단체의 조직이라는 것도 싸우는 군대와 같은 통솔, 지휘를 확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대장이 있고 …… 큰 부대장, 중간 부대장, 말단 부대장이 있어서 어쨌거나 일관된 통솔체계 아래에서 각각의 단체가 그 성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상태의 조직이 되었습니다. 총후의 각 단체들은 표면적으로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어도 파생적으로 머리를 이쪽저쪽으로 들고 있는 상태도 없지는 않습니다. 평화 상태에서 서로 경쟁하며 연구하고 있을 때라면 몰라도 지금 이러한 결전 단계에서는 그런 일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부디 이 모임도 회장 통솔 아래 각 간부, 동료들이 당파적으로 갈라지는 일이 없이 진정 협력일치해서 각각 성능을 싸움에 이기기 위해 확실하게 발휘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동료들끼리 다툼을 하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도리어 이런 일은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 진정 눈을 감고 생각해 보건대, 국민이 모두 힘을 합쳐 싸우지 않으면 아무리 국가백년의 대계가 수립되어 있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부대입니다. 부대장 통솔 아래 각각 또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가 진정 제일선에서 싸우는 장병들의 마음이 되어 이 싸움에 이길 수 있도록 공헌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저는 전쟁터에 가서 여러 위문의 글도 많이 받았는데, 이는 역시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가령 글이 서툴고 글자가 치졸하더라도 마음으로 쓴 것은 저희들 마음에 다가와 진정 눈물이 흐르게 하고 감격하게 합니다. 아무리 미사여구를 늘어놓아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문장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사하고 있는 데서도 여러 위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감격을 주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는 역시 그 사람 마음에 따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진정한 충성심으로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해 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장병들은 물론이고 총후에서 싸우고 있는 모두가 진정으로 싸움에 이기는 정신을 고취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거듭 하면서 격려사를 마치겠습니다.

### 선언문

이사장 가라시마 다케시(辛島驍) 씨 낭독

대동아전쟁은 바야흐로 결전의 단계에 돌입하였다. 적 미·영은 오로지 물량에 의존해 오만하고 치열한 반공을 계속하고 있다. 엇그제(6월 16일) 동이 틀 무렵에는 대담하게도 우리 본토를 침략하였다. 우리는 이를 곧바로 격쇄하기는 했지만 비상시라는 느낌이 드디어 깊어짐을 깨닫는다. 이 황국의 중대 시국에 있어서 우리 반도 문인은 여기에 총력을 결집해 신주(神州)<sup>58)</sup> 불발(不拔)의 신념으로 결전 하의 황도문학(皇道文學)을 확립하고 펜을 검으로 삼아 적의 모략을 물리쳐 국민의 적개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여기에 굳은 결의를 표명함으로써 황은(皇恩)에 보답할 것을 다짐한다.

## 전쟁과 문학자의 목표

조선해군 무관부 해군대좌 마쓰모토 이치로(松本一郎)

작금 전황의 양상이 얼마나 치열한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도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적 미국이 기도하는 바, 많은 물질력에 유일한 희망을 걸고 중부 태평양 저 멀리 남방에서 점차 섬들을 탈환하면서 북상해 마침내 우리 내양에 다가왔고, 또 뉴기니 부대에 그 목표를 서쪽으로 나아가게 하면서 현재 마리아나 군도, 비아크 섬 부근의 바다와 육지를 무대로 주야로 치열하고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미군은 건방지게도 일전에는 중국대륙에 주둔하던 공군으로 우리 기타큐슈(北九州) 및 이곳 조선 남방에 대해 게릴라전적 공습을 시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피아의 결전장은 점차 우리 세력 영역에 접근해 항공기를 통한 진공 속도에 따라 전황이 급진전하고 있음이 실상입니다.

즉 대동아전쟁 개시 이래 총후(銃後) 국민, 특히 우리 조선과 같이 전선에서 가장 먼 복단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상 자칫 엄정하고 장중한 실전의 모습을 간과하기 쉽고, 절실한 인식이 결여된 느낌도 있지만, 작금 전쟁의 불꽃이 우리 지붕에 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국가, 또 우리 해군도 전쟁 발발 당초부터 이러한 적국의 물질력, 강대한 공업력을 절대 가볍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새삼 이에 당황하거나 놀랄 일은 결코 아닙니다. 저 전쟁 개시 이후 불과 반년 정도에 전격적 속도로 일찍이 예상한 대로 착착 남방 경제영역이 순식간에 우리 수중에 떨어진 것은 이후에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기적적인 일이자 신(神)이 이루신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작전상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도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초부터 본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차지하기까지의 과정에서는 물론 살을 내어주더라도 뼈를 취할 각오로 임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를 일반 국민들이 당초의 전과에 취해 자칫 전선의 용투에 반해 어쨌거나 긴장을 늦추고 각자의 발밑에서부터 끌어 올라야 할 중요한 전력 증강에 힘을 넣는 일에 부족한 면이 없지는 않았을까요. 이에 반해 적은 처음부터 우리 국력을 깔보고 오인하여 적은 개전 6개월 만에 우리 본토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저 진주만도 하룻밤의 폭풍으로 콧대를 꺾여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미국의 총후 국민들이 일제히 마력(馬力)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단 이 마력을 내기 시작하자 그 전력은 어쨌거나 많은 물동력을 동원해서 물건으로 사람 머리를 치는 마구잡이식으로 달려든 것입니다. 밤알 같은 하나의 작은 섬을 차지하더라도 태평양 해상의 적이 갖고 있는 해군력의 과반수를 기울여 항공모함, 전함을 기간으로 한 백 척 이상을 움직여서 상륙용 선박을 보유한 무려 수천 척에 이르는, 다소 상식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큰 병력을 움직이고 폭탄 수천 톤을 퍼부어 겨우 하나의 섬을 점령하는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우리 일본의 수비진지의 저력에 적은 더욱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힘과 방대한 희생을 치러도 미국이 당초 말한 것처럼 진전되지 않고 전선의 움직임은 어쨌거나 도중에 멈추기 십상이어서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58) 신국(神國)이라는 의미로, 일본에서 자국을 자랑할 때 사용한다.

다. 적은 최근 서서히 성급한 미국인 특유의 초조감을 다분히 발휘해서 모험적이고 오만 불손한, 게다가 큰 무리를 하면서 무턱대고 달려드는 모습을 또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들어서 드디어 유럽 제2전선 결성을 결행한 적은 여기서도 우리 우군 독일의 분투 앞에 주야로 대가 없는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두 방면에서 새롭게 발생한 이러한 전황의 객관적 정세는 한편으로 우리 제국해군으로서 어찌면 기회를 잡고 공격에 나설 방도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본 해군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아마 적국 입장에서, 또 이 석상에 계신 각위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군들, 이 일본 해군의 냉정하고 침착함, 음산한 조용함이야말로 적 미·영 해군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큰 원인인 모양입니다. 씨름 기술로 말하자면, 거구의 남자가 씨름판에 올라가자마자 처음부터 무턱대고 돌진하자 상대의 작은 남자는 꼭 붙잡아 이를 악물고 끝까지 견디면서 상대의 수를 꿰뚫어 보며 상대가 밀고 들어오는 순간 몸을 돌려 쓰러뜨리는, 이런 움직임은 동양의 전황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먼 곳이 아니라 바로 동양의 코앞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군들, 이를 전제로 해군은 지금 총후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제군들, 지금 여기에 발밑에 굴러온 호기를 붙잡아 팡하고 한 방 먹이는, 그래서 이를 때려 부수는, 이 ㅁ라는 한 글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국민은 모든 생명이 끝날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 더욱 해군의 저력을 발현시키는 데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각위는 문인입니다. 전력 증강이라고 해도 자신은 직접 생산에 관련된 사람이 아니고 전력 고양에 어떻게 관련하면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은 없겠지만, 어쨌거나 일본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상, 분명한 목표를 세워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지 않습니다. 그 시각에도 전황은 진전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흥폐를 결정할 우리 해군이 일거에 적을 격멸할 시기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삼스레 논리도 이론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또 이와 같은 모임을 열게 된 계기로서 그저 일시적인 불꽃놀이에 그쳐서 활짝 피고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내일 이후의 목표를 세워서 오직 그것을 향해 돌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격려사를 대신하는 바입니다.

#### 감사문

조선에서의 문학자 일동은 결전태세에 대처하여 국민 사기 고양의 일대 문학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오늘 경성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전선 황군장병들 각위의 위훈(偉勳)과 신고(辛苦)를 생각해 이에 심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삼가 무운장구를 기원한다.

1944년 6월 18일  
조선문인보국회 주최  
조선문학자총궐기대회 출석자 일동



## 대동아문학의 수립

만주국문예작가협회 대표 소설가 고정(古丁)

대동아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때, 여기에 결전태세 즉흥 재 조선문학자총궐기대회가 개최된 것은 싸우는 문학의 본의를 발휘하는 것으로서 참으로 경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삼 말할 것도 없이 문학은 국민정신 문화의 기반을 이루는 것으로서 그 힘찬 전개로 전력 증강에 보탬이 되는 바가 매우 크고, 또 싸우는 국민의 전력의 원천으로서 문학이 지닌 사명은 중대합니다. 힘차게 싸워 승리하는 국민 총궐기를 위해 문학은 지금이야말로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간의 빛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국민이 나아갈 길을 비추는 동시에 불타는 국민감정을 위해 문학은 강인한 철의 의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 만주국에서도 정부의 문예지도요강에 의해 예·문 모든 것을 동원해 전력의 증강에 동원하는 중입니다만, 반도 문학자들의 예지와 용기에 배우는 바가 많고, 감탄의 마음을 오래 전부터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절호의 기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미 도쿄에서 개최된 대동아회의에 의해 발표된 대동아공동선언은 우리에게 대동아 □□□□도 요청받고 있으며, 우리는 구상을 새로이 하여 매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동아문학 수립을 위해 만주는 선만일여(鮮滿一如), 제군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선전 분투해야 함을 통감합니다. 부디 더욱 분려하고 황도정신에 연원을 둔 반도 문학의 융흥과 일본 문학의 발전을 위해 절차탁마를 게을리 하지 않고 □□□□ 결전 필승의 문학을 결성해 미·영 격멸의 대동아정신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 조선 여행 중인 작가 니와 후미오(丹羽文雄) 씨의 축문

조선에는 잇따라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가 더해지고 있다. 우연히 나는 조선에 와서 세기의 페이지를 눈앞에서 목격했다. 일전의 일본 내지 문학자 총궐기에 호응하여 조선문인보국회가 주최가 되어 조선 문학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더욱 역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더하는 것이다. 바야흐로 문학자란 문학 전부를 걸고 전쟁 수행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여기에 큰 기대를 걸며 조선문학자 총궐기대회를 바라본다.

1944년 6월 18일

일본문학보국회 소설부회 위원

니와 후미오(丹羽文雄)

## 전력증강과 내지 문학자의 동원

일본문학보국회 대표 소설가 유아사 가쓰에(湯淺克衛)

오늘은 도쿄에서도 구단(九段) 군인회관에서 결전태세 즉흥 문학자 총궐기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조선의 문인들이 경성에 모여 결전태세 즉흥 문학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우리

일본문학보국회 입장에서도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도쿄에서 열리는 대회는 국내의 문학자들만 참석했고, 출석을 부탁하지 않은 만주국 대표자들이 여기 경성에 출석하셨는데, 그런 점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봅니다.

시국은 더욱 중대해지고 있으며, 문학자는 그 태세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에서는 매우 많은 작가들이 지방의 도시와 농촌으로 소개(疏開)한 탓에 한편으로는 지방문화의 고양, 또 세세한 감정에 이르기까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또 도쿄에 남은 문학자들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생산 방면의 직장으로 옮겨왔습니다. 그 직장은 조선이나 탄광 등 기타 직접 군수생산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밖에도 근로보국대를 조직해서 노동의 시련을 몸에 익힘으로써 군수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증산에 힘쓸 수 있도록 한다는 배려에서 수십 명의 회원들이 가와사키시(川崎市)에 가서 이틀에 걸쳐 열악한 도로를 고치거나 또 이틀 밤에 걸쳐 군수공장 기숙사에 기거하면서 젊은이들과 무릎을 맞대고 교류하고 어떻게 하면 진심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로 얘기를 나누는 형태를 통해 얼마간 도움을 주는 동시에 문학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더욱 연마하려는 마음도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보국대의 운동은 더욱 활발해지리라 봅니다만, 아울러 최근 문학자의 동원에 대해 문인보국회에 동원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적소적재, 모든 장면에 문학자가 스스로 들어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아마 오늘 도쿄 대회에서 다양한 안이 나와서 진행되리라 봅니다.

오늘 도쿄 대회에는 약 일곱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 ① 적개심의 고양 방책
- ② 생산의 비약적 증강에 관한 제안
- ③ 명랑하고 활발한 전시정책의 확립에 관한 제안
- ④ 대동아 5대 선언에 기초한 제안
- ⑤ 해외 대동아공영권 및 추축국 문화 교류 및 정책에 관한 제안
- ⑥ 문학자의 직장 정신(挺身)에 관한 제안
- ⑦ 결전 비상조치 하의 문학의 활동에 관한 제안

결전하의 문학자는 계속해서 숭고한 정신으로 작품 제작에 노력하는 동시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걸음씩 추진해 간다는 방책을 조선에서도 당연히 채택할 터이니 오늘 이 대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1. 국민총력조선연맹 사무국 차장 간규 다다오(簡牛凡夫) 씨의 축사(생략)
2. 재조선문화단체 대표 하야시 시게키(林茂樹) 씨의 축사(생략)

## 조선총독부 정보과 자문안

아베(阿部) 정보과장

오늘 조선문인보국회에서 제1회 총회를 겸해 재 조선 문학자들의 총결기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은 일본 내지 혹은 만주국에서도 각각 유력한 문학자들이 참석하셨고, 아울러 정무총감 각하를 비롯해 많은 분들로부터 따뜻한 격려사를 받았고 각위가 이 자리에서 문학보국의 적성(赤誠)을 피력하는 것은 치열한 대동아전쟁 하에서 참으로 뜻 깊은 일이라 믿습니다. 특히 오늘은 일본 내지에서도 도쿄 구단에 있는 군인회관에서 전국 각지로부터 문학자들이 모여 총결기 결의를 중외(中外)에 표명하여 전의를 크게 고양시킬 것입니다. 이 대회에는 우리 반도에서도 사토 기요시(佐藤清), 이무영(李無鼎), 유진오(俞鎭午) 세 분이 참석했습니다. 싸우는 문학자의 적성을 그 대회에서 피력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일본 내지와 반도가 서로 호응해서 적을 격멸하겠다는 다짐을 새로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평소 품고 있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번 결전 비상조치 요강이 발표되었을 때 저는 조선문인보국회에 대해서도 조선에서의 금후 모임의 발전에 있어서 이 비상조치 요강의 진의를 살려 받아들이고, 아울러 모임의 기구를 결전 형태로 더욱 강화함으로써 일을 운영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하고, 또 일본적 단련을 통해 문학자 자신의 수양에 큰 노력을 기울여 그 실질 향상을 도모한 결과 문학을 통해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국책에 협력하여 항상 전황의 치열한 전개에 대응하고, 열렬하고 강건한 필진을 발휘하여 유감없이 국민 전의 고양에 정신(挺身)하기를 바란다는 점, 또 존엄하고 수발(秀拔)한 우리나라 고전의 존중과 보급에, 또 '국어'생활 촉진 운동에 더욱 힘을 기울이기를 바란다는 점 등의 희망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러한 사안을 적절한 시기에 실행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태세를 완비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모임에서도 신중한 계획 아래 순조롭게 실행에 옮기고 있어서 그 성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오늘 이 중대한 시기를 맞이해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그 어떤 일이라도 조금이나마 전력 증강에 기여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초려하더라도 그 개개인이 행동이나 기타에서 제각각 따로 행동한다면 힘의 낭비와 그저 중복하는 힘을 반복하는 꼴이 되어서 도저히 충분한 봉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종래의 문학자 일부에서는 그 일의 성질상 자신의 예술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그저 자기 한 사람의 이룰테면 작은 세계에 틀어박혀 단체적이고 엄정한 규율, 훈련, 통제 등의 통제 아래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전 즉응태세의 첫 걸음은 결국 문학자들이 자신의 예술력을 강력한 통제 아래 언제 어디서든 곧바로 정연히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정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통제란 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즉 각인의 능력의 최대한을 반도에서의 문화 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속에서 가장 유효하고 적절하게, 최근 유행하는 말로 표현한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발휘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예는, 일전에 군 보도부의 가와사키 대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군대의 조직에서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무엇보다 먼저 문학자 각위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서로 협력하여 활동의 원천이자 모체인 문인보국회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흔들림 없는 애국단체로 키워서 이 단체가 더할 나위 없는 성전 완수의 길로 돌진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 반도의 문화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의 하나는 문화 관계의 종합적 과련 문제입니다. 모든 문화는 각각의 구조상 구조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있다고 봅니다. 이 구조적인 관련이 생생하게 서로 맞물려 움직임으로써, 특히 예술 방면에서 정신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히 뜻이 통하는 점이 다분히 있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각 부분의 문화 관련에서는 서로를 강하게 하고 격려하고 발달을 도와야 합니다. 가령 미술 부분이나 음악 부분을 비롯한 기타 문화 부분과의 진정한 연계를 충분히 꾀하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문학 자체의 건전한 발달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다른 미술이나 음악 방면에 대해서 보다 나은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종종 소위 문화인이 빠지기 쉬운 독선적 경향을 배제할 수도 있고 또 상호 이해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문화 부분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국가의 요청에 부응해 각 문화부분이 제대로 연락을 유지하고 각각 독특한 힘을 최고도로 발휘함으로써 국책에 유감없이 협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문학에 관해서는 방법의 문제, 형태의 문제 혹은 표현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오늘날의 이러한 전황과 함께 고려해볼 만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에 관해서도 모든 것을 앞으로 각위의 진지한 공부를 바라는 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민의 적개심을 더욱 고양시켜 미·영 격멸의 기세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여기에 결전 시국에 즉응하는 문학자 총궐기 태세의 완비의 구체적인 방책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궐기대회에서 각위의 찬동을 얻었으므로 우리 반도에서 특히 문학 관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다 훌륭한 지위로 발전하기를 바라며 이상과 같은 자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충분히 연구하셔서 진정 일반 국민에 대해 각위가 지닌 유력한 영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기를 염원하는 바입니다. 말하자면 아마추어가 전문가들에게 마치 부처에게 설법을 하는 것과 같은 감이 있어서 각위에 대해 큰 실례되는 말도 있었겠지만, 이 점은 각위에 대한 제 작은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를 바라는 바입니다.

## 자문 답신

1. 문학자 자신의 황민적(皇民的) 교양을 더욱 순화(醇化)시키기 위해 수학 연성의 기회를 늘리는 동시에 문학자 스스로 깊이 반성하여 행주좌와(行住坐臥)에 결전 생활을 실천궁행(實踐躬行)함으로써 민중의 규범이 되는 기풍을 순치할 것.

2. 국민의 사기를 고무하고 적개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전 작가층이 민중계발운동에 헌신하도록 하고, 그 방법으로서 문학자는 공장, 광산, 농촌 및 전선에 파견 위문하도록 하여 현지에 취재하는 종이연극, 각본, 시가, 단문 등을 제작·제공함으로써 학교, 직장 및 애국반에서의 문학 낭독운동을 전개하는 등의 활동들을 조성할 것.

3. 반도 민중에 대해 대동아 성전의 목적을 현양하여 필승의 신념을 강화하기 위해 대동아적 문학 교류 기회를 늘리고 특히 조선과 도쿄(東京), 신징(新京), 난징(南京) 및 대만 각지와 인적 및 작품적 교류를 촉진할 것.

4. 징병제 구현화의 획기적 계기를 맞이한 조선의 총후에서 일반 민중은 물론이고 특히 문학자를 포함한 일반 문화인의 순국적 정신을 더욱 고양시키기 위해 내선일체의 숭고한 이상의 구체적 표현에 비약적인 일보 전진을 촉진할 것.

5. 전시하 사상전의 중대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여 문학적 행동에 있어서 더욱 깊이 국가적 조장을 돕는 동시에 홍보·지도 방침의 확립 및 문학자들에 대한 철저한 침투를 도모하기 위해 군, 관, 문학자로 구성된 강력한 협의 체제를 정비할 것.

(위원 대표 최재서 낭독)

## 의사 및 회원 결의 피력

1. 의장(향산광랑 씨)의 인사(생략)

2. 하이쿠부(俳句部) 회장 야마다 주지(山田忠次) 각하의 발언

한 권의 훌륭한 소설 발행은 다수의 인심을 편달하고 다수의 인심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힘은 아마 대포 수천 문에 필적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학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다만 정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학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크게 경의를 표하고 있다는 것은 문학의 힘이 얼마나 성전 수행에 있어서 중대한 힘을 갖고 있는가를 인식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이 전생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책무를 지니고 있음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제안에 관해 저는 간단히 결론으로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당한 예산을 총독부가 문인보국회에 보조예산으로서 배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점입니다. 각 부회에서는 각각 구체적 사항을 갖고 있어서 작년부터 중앙에 여러 계획을 건의하고 있지만, 이에 관해 예산의 배부가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부디 상당한 예산액의 배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총독부에 우리 총의를 전달했을 것입니다.

둘째, 앞서 언급된 것인데, 기구의 개혁도 다소 안정을 찾았습시다만 아직 활동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구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인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하이쿠부(俳句部) 회장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만 본업이 아닙니다. 본업으로 매우 바쁜 와중에도 여가를 내서 하이쿠부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장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고 싶지만 출장도 있고 해서 전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말 활동을 기대하신다면 전문적으로 거기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 그 사람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회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중앙 사무국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부회를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종합적으로 하나가 되어 문인을 움직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실질적으

로 여러 가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각 부회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전문 지식, 포부가 있는 각 부회가 중심이 되어 일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중앙 사무국에서 이를 가장 활동에 편리하도록 집단 방법을 강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리라 봅니다. 간단하게나마 제 답신의 견은 이상의 두 가지입니다.(박수)

3. 시부(詩部) 회장 스기모토 나가오(杉本長夫) 씨의 발언(생략)
4. 단가부(短歌部) 회장 모모세 지히로(百瀬千尋) 씨의 발언(생략)
5. 극문학부(劇文學部) 회장 유치진(柳致眞) 씨의 발언(생략)
6. 셴류부(川柳部) 회장 데라다 나쓰노스케(寺田夏之助) 씨의 발언(생략)
7. 이사 사이토 기요에(齋藤清衛) 씨의 발언(생략)
8. 시부(詩部) 간사장 송촌굉일(松村紘一)<sup>59)</sup> 씨의 발언

#### 송촌굉일 씨

간단히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新京(新京)에서 열린 만주국의 예문대회(藝文大會)에 조선을 대표해서 참가했습니다. 그 석상에서 만주국의 일본계 혹은 만주계 작가들이 얼마나 열렬한 결의를 갖고 이 시국에 임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고 매우 감격했습니다. 그 보고는 간략하게 『신시대』 신년호에 게재되었고 지금 여기서 반복할 시간은 없지만, 당시 관동군 보도부장 하세가와(長谷川) 대좌의 강연을 듣고 매우 감격했습니다. 그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문화를 빼고는 오늘날 전쟁은 있을 수 없다. 문화가 곧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이를 들었을 때는 너무 좁은 생각이 아닐까, 또 너무 개괄적인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이러한 시국 하에서 우리가 문화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전쟁 이외에 없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과거 예문(藝文) 혹은 문예인은 국민들에게 오락을 제공하는 오락 제공자였고, 연극이나 음악 등은 물론이고 문학까지도 국민에게 오락을 제공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문가는 사회의 목탁이라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종래에는 언론이나 신문사를 무관의 제왕, 사회의 목탁이라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문학자도 음악가도 극작가도 모두 사회의 목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시기에 우리는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생활태도를 반성했을 때, 과연 사회의 목탁으로서의 진정한 생활을 실천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할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러한 쫓겨대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고 오늘날 문화인과 일반 민중과 비교해서 과연 어느 쪽이 결전에 적응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 민중은 지도받은 대로 생활하고 문화인은 거기에 일종의 비판을 가하는 것이라는 점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오늘날 일반 민중과 우리 문학자가 그 생활태도에 있어서 어느 쪽이 결전적(決戰的)인가 하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이 기회에 우리는 일반 민중의 모범으로서 먼저 나서서 결전 생활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관동주시화회(關東州詩話會)라는 것이 있는데, 마침 만주에 갔을 때 그곳의 주간과 만날 기회를 얻어 다이

59) 주요한(朱耀翰)의 창씨명.

련(大連)에서 발행되는 잡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잡지에 있던 시인데, 그 대의(大意)를 말씀드리면 시인의 부인이여, 제발 몸뻘을 입도록 하라. 시인은 세상의 지도자이다. 그 지도자의 부인이 몸뻘을 입지 않는다면 어찌 지도받는 자들이 몸뻘을 입겠는가. 그러니 제발 몸뻘을 입도록 하라며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해학을 내포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 의미를 살려 시인 자신이 오늘날 모두 권각반(卷脚絆)을 두르고 있는데, 이 권각반을 우리 마음에 두르고 마음에 두른 각반을 풀지 말고 이 전쟁을 끝내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박수)

9. 하이쿠부 회원 가메야마(龜山來刀) 씨(평양)의 발언(생략)
10. 시부 회원 노천명(盧天命) 씨의 발언(생략)
11. 시부 회원 나카오 기요시(中尾清) 씨의 발언(생략)
12. 셴류부 간사 모리타 묘진(森田茗人) 씨의 발언(생략)
13. 소설부 회원 청목홍(靑木洪)<sup>60</sup> 씨의 발언(생략)
14. 이사장 가라시마 다케시 씨의 발언(생략)
15. 셴류부 회원 엔도 고이쓰(遠藤悟逸) 씨의 발언(생략)
16. 극문학부 회원 조천석(朝天石) 씨의 발언(생략)
17. 단가부 회원 쓰무라 헤이지로(津村兵次郎) 씨의 발언(생략)
18. 만주국 대표 금촌영치(今村榮治, 이마무라 에이지)<sup>61</sup> 씨(‘반도인’)의 감상(생략)  
(동일 오후 6시 폐회)

〈출전 : 『決戰態勢即應在朝鮮文學者總聯起大會錄』, 『新時代』 제4권 제7호, 1944년 7월, 10~21쪽〉

### 3. 연극·영화

#### 1) 다카시마 긴지(高島金次), 『조선영화통제사』(1943)

서

일본 영화의 이른바 임전체제 조치는 1941년 초에 시작되어 1942년 봄 드디어 열매를 맺었으니, 근 1년이 소요되어 우선 통제 형태를 정비한 것이 된다. 조선에서도 일본의 방침을 참작하여 제작 배급 흥행에 이르는 영화계 전반의 시국 대응 태세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에는 1942년 1월 제령 제1호로 조선영화령의 제정을 본 것이기 때문에, 이 법령을 토대로 조선 독자의 영화정책을 결정하여 실행에 옮긴 것이다. 다행히 일본 관계자 측의 협력과 재조선 영화업자의 선처로 오늘날 제작 배급 흥행 모두 유감없는 비상시체제를 정비하기에 이른 것은 실로 흔쾌한 일이다. 이 때 다카시마(高島) 씨가 조선 영

60) 홍종우(洪鍾羽)의 창씨명.

61) 조선인이나 본명은 알려져 있지 않다.

화계의 이번의 변혁을 기록하는 ‘조선영화통제사’의 출판을 발의했을 때, 나는 실로 시의적절한 기획이라고 전폭적인 찬동을 보낸 한 사람이다. 다카시마 씨는 제작회사, 배급회사 양사의 창립에 관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서의 저자로서는 그야말로 적격이고, 이 저서가 조선영화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1943년 가을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관 영화검열실 시미즈 쇼우조우(清水正蔵)

서

이번에 다카시마 씨가 조선영화 통제 전후(前後)의 기록을 집필하여 출판하는 것은 실로 기쁘기 한량없다. 당국의 이야기를 들은 나는 제작과 배급 양 사를 주재하고 있으나 경험이 부족하여 현재 계속 공부 중이다. 인간은 어떤 일에 종사하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의 고민을 회상하면서 장래의 희망과 광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다카시마 씨의 저서를 늘상 옆에 두고 틈날 때마다 펼쳐 보려 한다. 다카시마 씨는 제작회사의 창립에 분투한 후 회사에 들어와서는 좋은 조연자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다. 또 영화인의 신망을 얻은 사람이므로 이 저서의 발간은 여러 의미에서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한다. 영화계는 일단 안정을 찾았으나, 또 시국의 변화에 따라서는 장래 어떻게 진전될지 알 수 없다. 이러한 때에 조선영화통제의 역사가 완전히 집약되어 기록되는 것은 영화계를 위해 실로 시의적절한 일로서 다카시마 씨의 열의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1943년 10월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 사장, 사단법인조선영화배급회사 사장 다나카 사부로(田中三朗)

머리말

본서의 출판을 계획한 것이 9월10일 경이고 총독부에서 정식으로 결정난 것은 15일이었다. 그 때는 아직 구상도 채 되지 않았고 물론 한 줄도 쓰지 않은 상태였다. 원고용지의 인쇄부터 시작하면서 집필한 것이 20일부터였다. 재료도 모아가며 매일 30매씩 써서 평균 145일 걸려 10월9일 드디어 탈고하였다. 중순 경부터 여행 일정이 잡혀 있어 특히 서둘러 쓴 것이다. 따라서 문장이나 표현이 부족한 것이 많을 터라, 이 점 독자들께 사과드리는 바이다. 제작 부분은 대체로 머리에 들어 있어 순서대로 썼고, 배급에 관한 항목에서는 당국으로부터 자료를 빌려 썼다. 흥행 부분은 조선흥행연합회에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 많은 도움을 받았다. 제작 배급 흥행 모두 통제가 일단락되기까지는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평범하게 다루어서는 통제사의 진가가 없어진다고 해서 아무거나 배려 없이 다 써버린다면, 피해를 입는 부분이 나오거나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 상당히 고심하여 가능한 한 피해자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며 쓰긴 했으나, 이 책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입을까 내심 걱정이다. 모쪼록 이 기획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그런 점의 질책은 말아주시기 바란다.

나는 영화인이었던 한 사람으로서 통제의 기록은 꼭 남기고 싶었고, 누군가는 써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던 차에 완성한 것이다. 문필을 업으로 하는 작가도 아닌 학문이 얇은 자의 출판물로 넓은 아량



으로 보아주시기 바라는 바이다.

또 이 책에 광채를 더해줄 마음에서 경성 영화계 문화계의 관계자 열 분 정도의 원고를 부탁하였다. 시간의 여유도 없이 간청한 무례에도 승낙해 주신 분들의 원고만을 삼가 게재하였다. 이들 선배 제현에 대해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고, 여행을 앞두고 있어 탈고 후의 교정 등의 일체를 조영(朝映)의 니시가메 겐테이(西龜元貞), 서광제(徐光霽) 두 분께 부탁드렸다. 또 장정은 최영수(崔永秀)군이 해 주었다. 이들 조력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1943년 10월 9일 밤  
경성 봉래정(蓬萊町) 초막에서 저자 씀

## 조선영화통제사

### 목차

#### 〈제1편 영화제작 통제 편〉

##### 제작계의 암중모색 시대

1. 머리말
2. 조선영화제작자협회의 결성
3. 필름배급 중지에 대한 대책
4. 영화자재의 배급권, 정보국으로
5. 제작자협회의 진용(陣容)정비
6. 당국의 알선으로 필름 획득
7. 제작자협회의 현물평가 협의
8. 각사의 암중모색시대 (1)
9. 각사의 암중모색시대 (2)
10. 각사의 암중모색시대 (3)
11. 사장으로 물망에 오른 사람들
12. 백지 일원화를 공표
13. 일본인 측 업자만의 합동책

##### 신회사 창립 연구시대

14. 제작자협회 창립사무소를 설치
15. 신 회사 창립안 작성을 서두름
16. 주식회사 조선영화협회 설립취의서
17. 불입자금의 사명과 수지 전망
18. 제작기획과 제작비, 경영비

19. 각종 영화의 수입예산
20. 생필품 제1회 요구량
21. 조선 할당 필름 결정의 기초
22. 도서관 관계관의 도쿄행
23. 노부하라(信原)문서과장에게 상경 진정
24. 업자측 회사 창립 최종안 제출
25. 총독부 촬영반 이양에 관한 진정
26. 관민영화 관계자의 도쿄행

제작통제 실행기로 들어감

27. 총독부도서관장의 경질
28. 대동아전쟁 발발에 대처
29. 다나카 사부로 씨의 출현과 그의 도쿄행
30. 제작자협회의 유지비
31. 제작자 대표를 선정
32. 다나카 사부로 씨의 첫 발언
33. 각 사 기계류의 사정(査定) 개시
34. 전 업자들과 다나카 사부로 씨의 정식 회견
35. 매수가격 결정에 의견서 제출
36. 각 사 매수가격 결정되다.
37. 매수의 난문제 드디어 종결
38. 다이에이(大映)감독 다구치 데쓰(田口哲) 씨의 입성(入城)
39. 영화인 야구대의 탄생
40. 나루세이 다케마쓰(成清竹松) 씨 포부를 밝힘

신회사 창립 착수 이후

41. 황금정에 현 사옥을 세우다.
42. 신회사의 제작허가신청서 제출
43. 허가신청서에 나타나 주요사항
44. 제1회 불입금 징수 시작하다.
45. 신회사에 제작 허가하다.
46. 구업자의 제작허가 취소되다.
47. 발기인총회에서 임원 선출
48. 신회사의 등기수속 완료
49. 각 사 기계접수와 대금 지불

50. 조선영화인협회 해산하다.
51. 신회사의 첫 임원회 개최
52. 사장의 전 사원 초대회
53. 제1회 사원 채용의 전후
54. 영화기획심의회 전후
55. 신회사 창립 피로연의 개최
56. 제작자협회 해산식
57. 제1회기획심의회 해산식
58. 영화제작회사의 현재의 진용

#### 〈제2편 영화배급 통제 편〉

##### 배급 통제 초기의 제 정세

1. 머리말
2. 배급조합, 통제문제를 연구
3. 배급통제에 나타난 최초의 현상
4. 도쿄의 조선 배급 잡론
5. 니치에이(日映), 조선에서 일원(一元) 배급을 계획
6. 배급, 제작 양자의 합류문제
7. 배급통제에 관한 당국의 방침 결정
8. 정보국의 배급 통제안 결정
9. 조합의 배급기관 창립안
10. 일본배급기구 설립협의회
11. 배급조합, 통제의 궤도에 오름

##### 조선 독자안의 난항

12. 조선의 독자적인 배급기구를 필요로 하는 이유
13. 정보국, 조선 독자안에 반대
14. 정보국, 지사안을 고집하다.
15. 조선 독자안, 최후의 난관
16. 총독부, 부동의 방침 천명
17. 도서과 관계관 도쿄 가다.
18. 당국 창립위원을 촉탁하다.
19. 제1회 창립위원회 개최
20. 일본 영배(映配)에서 정식으로 배급요강 도착
21. 모리(森)도서과장의 도쿄행으로 마지막 교섭 개시

계약성립에서 창업 이후

22. 모리(森) 우에무라(植村)양 씨 가계약 조인
23. 영배와 계약 성립, 모리 과장의 담화
24. 가설 사무소 설치와 업무 개시
25. 제2회 창립위원회 개최
26. 마지막 창립위원회 개최
27. 다나카 사부로 씨 사장에 취임하다.
28. 배급업 정식으로 허가되다.
29. 관계(官界)의 오카다 중이치(岡田順一) 씨 상무 취임
30. 영화의 창립 피로 행사
31. 확립한 기구와 진용
32. 구배급진영과의 인적 변화
33. 이동영사반의 결성
34. 영배와 연극의 관계
35. 배급통제 이후
36. 조선영화배급사 현재의 진용

#### 〈제3편 영화 흥행 통제 편〉

1. 머리말
2. 조선흥행연합회의 결성
3. 바로 배급통제문제 연구
4. 이시바시(石橋)위원 등의 일본 정세 조사
5. 배급문제 제1회 이사회
6. 배급문제 제2회 이사회
7. 이어서 제3회이사회 개최
8. 흥행 배급 양 자의 간담회
9. 5일간의 이사회 종막
10. 흥행연합회 총회의 분규
11. 영배에 대한 요청서
12. 영배 개업 이후의 동정
13. 연합회 간부 영배와 간담
14. 실경비 문제로 이사회 소집
15. 부민관 상영문제로 갈등하다.
16. 연합회의 요망안 해결

17. 1942년 정리 전선(全鮮)이사회
18. 제2차 간담회를 열다
19. 조선흥행연합회의 진용

#### 〈제4편 반도영화 부감록(俯瞰錄)〉

1. 조선의 영화통제에 대하여 시미즈 마사조(清水正藏)
2. 회상 나카다 세이고(中田晴康)
3. 영화배급사의 사명 오카다 중이치(岡田順一)
4. 영화와 정열 서광제(徐光霽)
5. 조선영화 기사(記事) 각서 니시가메 겐테이(西龜元貞)

#### 〈제5편 영화통제의 흔적〉

1. 거짓 없는 기록
2. 임전영화 이야기
3. 조선영화의 신 발족
4. 대동아문학자 대회 일행을 맞이하여

## 제1편 영화제작 통제 권(卷)

### 제작 암증모색 시대

#### 1. 서론

영화계를 개혁해야 한다. 영화계의 임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소리가 군부 및 내각 정보국 방면에서 대두한 것은 1941년 6월 경부터였다. 즉 대동아전쟁 발발의 약 반년 전 중국에서 황군의 역전분투가 최고조에 달하는 한편 양국의 외교교섭이 점차 악화하고, 양국 모두 허허실실의 북마전이 펼쳐져 장차 활화산 위에서 춤추는 듯 위기가 고조되던 시기였다.

국가가 총력을 결집하여 비상시 체제를 수립하려는 때 영화만이 구태의연한 존재로 있을 수는 없다. 영화계의 일부에 다년간 등지를 틀고 있는 암을 배제하는 것 외에 영화가 갖는 특수성 즉 영화의 지도성, 선전성을 최고조로 발휘시켜 국책 수행을 위한 하나의 기관으로 만드는 것은 새삼 외국의 예를 들지 않아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좋은 일은 서둘러야 하는 것으로 먼저 정보국을 중심으로 심의회를 만들게 되었다. 주요 관

계자 모씨는 “영화회사 전부를 일단 두드려 가루로 만들어 두 개나 세 개의 경단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구체제 영화경영자를 불안의 늪에 빠뜨리고 왜소화시켜 영화회사의 생명줄인 생필름에 대한 배급 실권을 장악하여, 한 때는 생필름 배급 정지까지도 단행하였다. 이에 영화회사는 모두 손을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눈을 가리고 우두머리 자리에 앉은 꼴이다. 그 후 일본의 극영화제작회사가 도호(東寶), 쇼치쿠(松竹), 다이에이(大映)의 삼사(三社)로 통합되었고, 니치에이(日映)는 그대로 존속했지만 뒤늦게 무수한 문화영화 제작업자가 결국 삼사로 통일된 것은 다 아는 바이다.

그런데 조선에서의 영화제작도 이러한 우리 영화계 미증유의 대변혁을 강 건너 볼보듯 할 수 없었고, 아니 제작업자가 뭐라 해도 일본 관계의 공기는 이심전심 조선총독부 당사자를 자극하고 있었다. 또한 제작 자재를 일본에 의존하는 관계로 “더 이상 조선에서 영화를 만들지 않아도 괜찮다”는 정보국, 내무성의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도 사실이었다. 물론 오늘까지 일본에서 조선영화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고 불과 두세 편의 영화가 서자 취급을 받으며 상영된 정도이므로 문제가 되지 못한 건 당연하였으며, 대동아 전역에 미치는 영화정책을 수립하려는 정보국, 군부가 그 존재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 조선 측에서 보면 조선영화는 어제 오늘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1920년부터 제작되어, 이후 2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리고 작품 수에서는 극영화 약 140편을 비롯하여 단편, 문화영화 등 다수를 세상에 선보였다. 면적 221,000 평방(일본은 46만 평방미터), 인구 2,400만의 반도는 최근 국어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문자와 언어가 다른 동포에 대해 모든 고난을 극복하며 영화의 사명을 수행하여 오늘에 이른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존재의 이유가 결코 없지 않다. 게다가 지금의 초비상시에 일본의 문화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조선의 민중을 지도하고 계발하는 데 영화를 빼놓을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조선영화인 모두가 영화보국에 매진해야 한다는 신념이 제작업자의 총의가 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보국에서는 일본 영화계의 예를 들어 조선에 대해서도 생필름의 배급제도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영화의 제작, 배급 양 부문을 감독하는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과가 그 일체의 권한을 장악하고, 한정된 생필름을 각 사의 제작기획 실태를 보아가며 적당량을 배급하게 되었다. 물론 이 방법은 과도기의 한 수단으로 영속할 수 없고 영속해서도 안 되는 방책이었다.

조선의 영화제작자가 공통의 목적을 위해 그 모체인 조선영화제작자협회를 창립한 것이 1942년 12월 이고, 그때부터 이미 현상을 타파하여 대동단결을 결행하려는 각오는 분명히 보여, 현재 조선영화주식회사 창립의 원천이 영화제작자협회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조선 영화인이 대망하던 신 회사가 만들어지기까지 회고하면 어언 3년, 만 2년의 세월이 소요되었고 당시 관계자의 고심은 상상 이상의 것이었다. 이하 순서대로 상술하겠다.

## 2. 조선영화제작자협회의 결성(1942년 12월 10일)

조선의 영화제작업자로 조직한 조선영화제작자협회는 1942년 겨울 즉 12월 10일에 결성되었다.

직접 감독당국인 총독부 도서과 영화 관계관의 지도로 결성된 것은 당연하지만, 협회 결성의 주요목적은 조선에 시행된 영화령에 기초하여 영화제작기구의 정비에 대한 선후책을 협의하고 당국의 영화령 시행의 정신에 따르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었다. 영화령은 일본의 영화법 제19조를 제외하고 모두 동

법에 준거한 것으로 1940년 8월부터 실시되었는데, 1년간의 예상 기간이 부여되어 1941년 7월까지 제작 기구를 영화령에 맞춰 만들 필요가 있었다. 각 사 모두 현상유지로는 제작업자가 정식인가를 받을지 의문스러운 정세였기 때문에 업자로서는 이 때 과거와 같은 군용할거의 제작기구를 망라하여 강력한 조직을 만들게 되었고, 먼저 그 모체로 제작자협회를 만들게 된 것이다. 또 이것이 금방 실현되지 않는다 해도 현실문제로 생필품의 배급이 당국을 통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제작업자의 발언기관도 당연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결성된 것이나 처음엔 조선영화주식회사(최남주(崔南周)), 고려영화협회(히로가와 소요(廣川創用)), 명보영화합자회사(이병일(李炳逸)), 한양영화사(김갑기(金甲起)), 경성영화제작소(야나무라 기치조(梁村奇智城)), 조선구귀(九貴)영화사(오리하타 세이조(降旗清三)), 나중에 황국영화사로 됨, 조선예흥사(朝鮮藝興社), 서항석(徐恒錫), 조선문화영화협회(쓰무라 이사무(津村勇)), 경성발성영화제작소(다카시마 긴지(高島金次))의 9사로 결성되고 나중에 조선예흥사가 없어지고 평양의 토기영화촬영소(구니모토 다케오(國本武夫)) 및 16mm 영화 전문의 [선만기록영화제작소(鮮滿記錄映画製作所), 구보 요시오(久保義雄))의 2사가 참가하여 10사가 되었다.

또 협회에는 관계 방면에서 상담역의 취임을 요청하여 총독부의 도서과장, 동 사무관, 김열실 통역관, 문서과장, 동 사무관, 조선군보도부장, 동 보도부장, 조선헌병사령부 관계 장교 등의 취임 승낙을 얻었다. 그리고 매월 월례회를 열어 돌아가는 정세에 대해 참고하였고, 협회 회계간사에는 조선구귀영화사의 오리하타 세이조 씨가 취임하였다.

### 3. 필름 배급 중지의 대책(1941년 1월 10일)

제작자협회는 연말의 다망한 때에 결성되었기 때문에 새해 즉 1941년 1월8일 신년연회를 겸하여 연초 첫 회합을 가졌다. 이보다 앞서 조선에 대한 생필품은 일시 배급을 중지한다는 전보가 당국에 들어와 업자들에게 그 내용이 통달되어 있었다. 업자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이기 때문에 당일의 회합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중심문제로 시급히 당국의 선처를 요망하게 되었다. 1월 10일 당시의 협회원 8사 대표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탄원서를 경보국장 앞으로 제출하였다.

(탄원서) 삼가 인사 올립니다. 신체제 하의 조선에서 우리 영화제작업자들은 각 사의 독특한 입장에서 영화보국에 매진하고 국민총력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는 귀 부처의 절대적인 지도와 지원으로 생필품의 배급을 원활히 해주셔서 제1회 분 일부의 배급을 마친 덕분에 업자 일동은 다년간의 염원을 달성하고 각종 촬영 및 인화에 착수하여 직역봉공의 열매를 맺기 위해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갑자기 배급중지의 통달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작업을 정지한 상태이고, 이대로 간다면 모든 회사가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매우 다망하신 줄 아오나 내각 정보국을 비롯하여 중앙의 관계 주무성과 직접 절충을 하시어 다음에 열거하는 최소한의 생필품을 월별로 나누어 시급히 지급해 주도록 알선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          |         |             |
|----------|---------|-------------|
| 1. 35밀리, | 네가 필름   | 47만 2천 피트   |
| 2. 동     | 사운드 필름  | 35만 7,600피트 |
| 3. 동     | 포지 필름   | 98만 7,500피트 |
| 4. 16밀리, | 유에스뱅크로, | 1만 피트       |

이상 1년분 최소한도 사용량  
 1941년 1월 10일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전(殿)

#### 4. 영화자재의 배급권이 정보국으로

도쿄의 정보에 의하면 1월 9일 있었던 정부의 차관회의에서 '생필품통제회'가 정보국 안에 설립되었다. 각 성 영화 관계관으로 조직된 '영화연락협의회'를 강화한 것이지만, 지나사변 이후의 여러 사정으로 공급이 감소된 생필품의 공급제한을 계획하고 있는 상공성과 문화정책 및 계발선전 정책의 본원인 정보국이 중심이 되어 통제안의 실권을 장악한 것은 당연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차관회의에서는 앞으로 여러 종류의 영화정책은 계발선전정책과 조화를 긴밀히 하기 위해 정보국이 이에 관한 서무를 담당하게 하고, 정부 각 방면의 의견을 종합 조정하여 영화용 생필품의 통제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었다. 생필품 통제협의회의 관계관은 24명의 협의회원으로 구성되어 이 사람들에 의해 일본영화계로의 자재문제가 협의되는 것이었다. 그 진용은 먼저 정보국에서 후쿠모토(福本)제4부장, 센멘(川面) 제5부장, 시게키(重成) 제4부장 제1과 후하(不破), 제5부 제2과장 우에다(上田), 이나(伊那) 정보관, 기획원에서 우치야마(内山)조사관, 이나나미(伊那波)기사, 홍아원 무라타(村田)사무관, 대만(對滿)사무국 오다하라(小田原)사무관, 내무성 정보국 나카노(中野)사무관, 이토(伊藤)사무관, 대장성 가와사키(川崎)사무관, 대본영 육군보도부 구로다(黒田)중위, 해군성 군무국 가라키(唐木)소좌, 고메야마(米山)축탁, 문부성에서는 사회교육국의 오다(小田)영화과장, 나카무라(中村)사무관, 미쓰하시(三橋), 마쓰우라(松浦) 양 사회교육관, 그리고 상공성에서 대신관방의 시라이(白井) 보도과장, 화학국의 이나미(稲見) 합성과장, 이리에(入江), 사토(佐藤) 양 기사가 참가하여 관계관청의 수뇌부를 망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멤버에 조선영화에 관해 발언하는 척무성 관계관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지. 실로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동시에 장래의 조선에 대한 자재문제에는 만전의 준비와 공작을 펼쳐야 할 것을 통감하였다.

(추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초는 척무성에서 위원회에 대해 직접 발언할 수 없었으나, 7월에 이르러 동 성에서도 위원회로의 출석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회합 때마다 조선 측을 위해 강경한 의견의 발언이 있었다.

#### 5. 제작자협회의 진용 정비(2월 10일)

조선영화제작자협회는 정례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하기로 했는데, 생필품 문제가 암초에 걸려 혼란한 가운데 앞으로의 전망은 물론 코앞에 닥친 제작도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여서 협회의 기능을 고



도로 발휘할 필요에 직면했다. 한편 당국에서는 영화제작 일원화의 근본방침이 수립되기에 이르렀으므로, 2월의 월례회를 총독부 영화 검열실에서 개최하여 전원이 모여 협의를 가졌다. 그 결과 종래의 간사제를 폐지하고 회계간사에는 황국영화사의 오리하타 세이조 씨가 종래 대로 지명되었고, 그 외에 상임창립위원 5명을 선임하게 되었는데, 방법은 선거로 하기로 했다.

그 결과 쓰무라 이사무(조선문화영화협회), 최남주(조선영화주식회사), 히로가와 소요(고려영화협회), 야나무라 기치조(경성영화제작소) 다카시마 가네쓰구(경성발성영화제작소) 등 다섯 명이 선임되었다. 또 이어서 신설 회사 문제의 진전에 따라 새 회사가 만들어진 후 인계될 각 사의 기계 및 기구의 평가위원 임명, 신회사안을 작성하는 전문위원 등을 모두 앞의 상임창립위원 가운데서 선임하여 진용의 준비를 꾀하였다.

## 6. 당국의 알선으로 필름 획득(2월 23일)

필름 배급 중지란 제작업자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나, 그 정보에 대해 총독부 당국도 믿어지지 않아 척무성을 통해 정보국의 진의를 타진함과 동시에 운동을 맹렬히 전개한 보람이 있어 배급 중지설은 정보국 관계자에 의해 부정되었다. 그러나 우선 편법으로 2개월 혹은 3개월의 기간을 정해 놓고, 매월의 필요량을 신청하게 하고 모두 척무성을 경유하려 정보국에 요구,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조선에서는 제작자협회를 정식으로 경유한 것 즉 각 사 별로 매월 제작기획의 내용과 필요량의 청구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에서 일괄하여 총독부도서과장에게 신청한다. 당국에서는 각사 기획의 실제와 제작진행의 현황 등을 조사하여 공평한 배급을 하도록 하였다.

즉 당시 정보국의 승인을 얻은 생필품의 조선배급량은 한 달에 네가필름 32,000피트, 사운드필름 22,000피트, 포지필름 87,000피트였다. 그 중 20% 전후는 총독부의 제작기구인 문서과 영화반으로 배급되고, 나머지는 제작업자에게 배급된 것이다. 현물은 후지필름정성출장소로 입하하고 동 출장소는 앞의 순서대로 결정된 각 사의 수량을 당국에서 통지 받아 업자에게 넘겨주었다.

이 방법은 일시적 조치이고 도서과 당사자로서는 실로 번거로운 일이었으나, 그 제1회 현물배급이 1월분부터 시작되어 2월 23일부터는 업자의 손에 필름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 후 6월까지 6개월 간 시행되었다. 그리고 배급량이 마지막까지 처음과 같은 양으로 업자에게 확실하게 전달된 것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관계 당국의 노력은 높이 살 만한 것으로, 과도기의 조선영화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7. 제작자협회의 현물평가 협의(3월 13일)

이 무렵 업자 측의 자주적 합동이 문제가 되었으나 여하튼 10사가 모여 한 회사를 창립하고, 영화령에 의한 제작허가에 가능한 설비와 기구를 구비하려는 자신 있는 업자도 있고 출자자라면 얼마든지 모을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10사 모두 각 내용과 경우는 다르더라도 현상타개의 급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우선 상임창립위원이나 자산평가위원이 거론할 수 없는 문제는 각 사가 희망하는 자사평가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문제였다.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말을 빌리자면 “정(情)에 따라 노를 저으

면 배가 밀린다”처럼 누구라도 자기 회사에 유리한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3월의 월례회에 이어 조선문화영화협회장 쓰무라 씨의 자택에서 상임창립위원이 집합한 것은 각 사의 평가액을 가져와 협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날 밤은 쓰무라 씨 본인 외에 조선영화사에서 사장 최남주, 제작부장 이재명(李載明), 고려영화 히로가와 소요, 경성영화 야나무라 기치조, 회계간사 오리하타 세이조 등 여러 명에 저자까지 모두 7명이 모였다.

그날 밤 각 사에서 제시한 기계류의 평가액은 저자가 당초 예상한 수치와 매우 차이가 났다. 가져온 숫자를 다 더하니 실로 75만 수천 엔이고, 그 외 두 세 개의 소규모 조직의 업자 것까지 보태니 대개 80만 엔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여러 번의 회의 결과 이 같은 거액으로는 비록 업자가 합동하여 한 회사를 만들더라도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다. 각 사 모두 좀 더 고려하여 서로 수궁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로 하자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75만 엔이라는 총액은 문화영화협회의 37만 엔, 경성영화의 14만 엔, 조선영화는 개산하여 불입자금인 12만 엔, 이것으로도 이미 63만 엔이고 그 외에도 고려영화와 기타가 있었다.

조선영화 사장 최남주 씨는 자기 소유의 광산을 매각하면 50만 엔 정도의 여유자금이 생기므로 이를 출자하겠다고 발언했으나 아무도 믿지 않았다. 다음 편 “암중모색시대”에서도 상술했듯이 당시는 아직 제작업자가 모두 암중모색의 시기여서 제각기 자기 또는 자사 중심으로 장래를 계획하고 표면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나 내면은 각 사 모두 타개책에 골몰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었다. 물론 모든 사업의 통제 완성까지는 반드시 걸어야 할 형극의 길을 우리 업자들도 걷기 시작한 것이다.

## 8. 각 사의 암중모색시대(1)

영화제작자협회는 1940년 말 결성되어, 1941년에 들어 당국의 임전조치에 협력한 것은 기록으로 분명하나 1941년 초 무렵부터 6, 7월경까지 약 반년은 이를 총칭하여 암중모색기라고 할 수 있다.

조선영화령에 의한 제작업 허가신청이라는 것과 내외지(内外地)<sup>62)</sup>를 일관한 영화신체제 강화라는 폭풍에 날려 전혀 발이 땅에 닿지 않은 상태였다. 게다가 과거에는 표면은 어찌되었든 서로 반목하던 업자들이 어제까지의 감정을 일체 청산하고 대오 각성하여 성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요청한다고 될 성질의 것도 아니고 시간이 걸릴 것은 당연했다. 또 업자 중에는 자사 경영에 상당한 자신을 갖고 재산적으로도 후원자를 얻어 독립으로 제작기구의 완비를 계획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협회로서 동일한 행동을 취하고 대 합동을 결의한다 해도 따로 신 자본에 의한 자사의 발전을 계획하는 업자도 나타나는 것이 과도기의 정세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각 사 모두 내면적인 사정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었다.

원래 조선에서 영화제작사업의 과거는 실로 참담한 것이었으나, 근래 조선영화의 제작은 기업으로 연구할 만하다는 정도로 실제 일반 사회에서 흥미를 끌게 되었다. 그 예로 이번 영화회사 사장에 취임

62) 일본제국주의의 지역구분을 나타내는 용어로 일본 본토는 내지, 일본 제국의 세력권 즉 식민지나 세력권 지역을 통틀어 외지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외지에는 조선 만주 남양 등이 포함되며 시기에 따라 지역 분포가 달라지므로 이 책에서는 내지를 일본, 외지는 외지로 그냥 쓰거나 그 중 조선을 가리키는 반도는 조선으로 고쳐 쓴다.

한 다나카 사부로(田中三朗) 씨가 두 세 명의 유력자와 함께 조선영화통제주식회사라는 것을 창립하려고 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또 신의주의 유력자 다다 에이키치(多田栄吉) 씨를 중심으로 대 영화회사를 창립하려는 계획 등이 있었다. 이 두 회사는 모두 제작 배급을 함께 하려는 것으로 규모도 상당히 큰 것이었다.

이 두 회사의 설립계획 외에 제작업자 가운데에는 조선문화영화협회의 쓰무라 이사무 씨가 계획한 조선영화진흥주식회사가 있다. 이는 경성 재계의 유력자 다가와 쓰네지로(田川常治郎)를 창립위원장으로 하여 자본금 200만 엔, 불입금 50만 엔을 제일 먼저 징수하고 현존 설비를 신회사가 떠맡게 하여 문화영화 제작 부문을 중심으로 담당하려는 계획이었다. 이 안은 정식으로 서류가 재무국에 제출되어 당국에서는 심의를 끝내고 경무국으로 돌린 정도에 있었다. 또 히로카와 소요 씨가 주재하는 고려영화협회도 거의 비슷한 자본금으로 창립계획이 진전되어 한상룡(韓相龍), 박흥식(朴興植) 씨 등 조선 측 재계 또는 실업계의 유력자를 발기인으로 서류는 당국에 제출되었다. 그 외 야나무라 기치조 씨도 개인 경영의 자사를 아라이 쇼타로(荒井初太郎) 씨 계통의 유력자에 의해 법인조직으로 하려는 안도 있었고, 또 업자 중 유일한 주식 조직인 조선영화주식회사도 대표이사에 장선영(張善永) 씨가 참가하여 제2회 불입금 12만 5천 엔을 징수하려는 안도 있었다. 조선영화사는 사장 최남주 씨가 동사의 경영에 애를 먹어 완전히 숨이 끊어지는 상태였으나 7월 초 무렵 앞의 장선영 씨의 출자와 입사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업자 이외의 계통이나 업자들의 회사 창립책이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당국으로서는 그 어떤 쪽도 탐탁지 않아 일절 보류하기로 하였다. 이는 일본의 영화신체제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지를 보아 가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었는데 역시 업자 측의 비상시국 하의 영화개혁의 이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당국을 움직일 정도의 열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 문화영화협회의 쓰무라 씨 등은 조선에서의 필름 제조사업까지 착안하여 당시 교토에서 생필름의 제조를 계획하고 있던 슈도(首藤) 모씨(某氏) 등과 연락하여 자본금 천만 엔으로 영화제작 배급 생필름의 제조의 세 부문을 경영하려고 기안하고 교토에서 전문가의 경성 방문이 이루어진 정도였다.

그 후 당국의 방침이 조선의 제작 기구는 문화영화, 뉴스영화, 극영화 일체를 포함한 제작 기구 1사 설립이라는 근본방침이 결정되었고, 그 무렵부터 업자들 사이에는 자사중심주의의 책동이 심해져 전체 합동이 아닌 업자 1, 2사의 합동도 계획되었다. 그 2, 3사를 들어 보면 조선영화사 최남주 씨의 문화영화협회와의 합동책이다. 쓰무라, 최남주 양 씨의 회견이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가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었는지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최씨가 현금을 1만원 다발로 들고 쓰무라 씨를 방문하여 계약금으로 내놓았으나 쓰무라 씨가 결국 이를 받지 않아 무산된 적도 있었다. 일본인 업자만의 합동책도 있었으나 이 또한 실패로 끝났다. 이는 다른 편에 썼다.

## 9. 각 사의 암중 모색 시기(2)

암중모색이라는 말에 맞지 않을지 모르나 조선영화주식회사의 최남주씨가 제1선에서 물러나고 전무이사(대표이사)에 취임한 장선영 씨가 합동문제에 관여한 이래 드디어 마지막 럭키세븐으로서의 언동은 실로 독특한 것이었다.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잘잘못을 넘어 자사 및 자기중심으로 일관하다

미련 없이 영화계를 떠났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도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미련도 없을 것이다. 자기가 갖고 있는 수백만의 부를 배경으로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나 장씨는 마지막까지 자사 중심의 신 회사에 희망을 걸고 있었다. 또 장씨의 부하였던 영화인들도 다같이 자사 중심설을 유포하고 다녀 물의를 일으켰다. 무엇이 장선영씨로 하여금 것처럼 자신 있게 만들었을까. 그건 역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까지 쓰게 되면 깨끗해야 할 영화통제의 역사에 좋지 않은 점을 남기게 되고 또 생각지 못할 의혹을 살 수도 있어 생략하나 이도 어쩔든 암중모색시대의 여러 추억이긴 하다.

또 4월경부터 제작자협회의 필름 거래 문제라는 부산물까지 부상하였다. 도화선은 조선영화주식회사의 한 사원이 생필품을 빼내어 매각한 것으로 서대문경찰서의 경제경찰과원이 적발함으로써 드디어 전 업자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쳤다. 협회원의 대부분이 소환 조사를 받아 유치되기도 했다. 업자 사이에 필름을 서로 융통해 준 것도 사실이고 이를 물건으로 돌려주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할 때 운임 등을 덧붙인 정도가 커서 내용은 너무나 소소한 문제이나 해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또 그 후의 일이지는 하지만 제작자협회가 보존하던 생필품을 간사인 황국영화사가 보관하다 분실한 사건도 일어났다. 이 회사에 출입하던 자가 이 필름을 갖고 나가 조선영화에 매각한 것이 들통 났다. 게다가 그 남자는 만주로 도망가려던 차에 체포되었다. 양친이 울며불며 돈을 갖고 시골에서 달려 와 해결되었다. 각 사 모두 영화계 변동의 파도에 휩쓸리면서 실로 다사다난한 시절이었다.

### 10. 각 사의 암중모색시대(3)

이러는 사이 5월 갑자기 고려영화협회는 해체되고 자본금 18만 엔의 고려영화주식회사가 창립되어 등기수속을 완료하였다. 고려영화는 원래 히로가와 소요 씨가 주재하였는데 영화배급에서 출발하여 제작도 시작한 것으로 다수의 조선영화를 세상에 선보이고 마지막에는 문제가 된 <집없는 천사(家なき天使)>를 제작하였다. 그런데 이 회사가 경영상의 문제로 출자자 측과 히로가와씨 사이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고 결국 히로가와 씨는 일선에서 물러나 이사가 되고는 멤버를 일신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영화령에 의한 제작 허가는 고려영화협회를 대표하는 히로가와 씨에게 허락된 일로 신 회사의 대표자는 그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등기를 완료해도 총독부의 영화당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 또 당연히 그러한 변혁을 이루려면 사전에 당국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했다. 히로가와 씨는 재빨리 고려영화에 이별을 고하고 하세가와초(長谷川町)에 '조선영화문화연구소'라는 간판을 내걸고 일을 시작하였으며 또 조선군(朝鮮軍)이 제작한 '당신과 나(君と僕)'의 배급을 시작하였다.

원래 도서관의 사무관으로 있던 구사부카 쓰네지(草深常治) 씨도 출자자와의 연고로 조선에 와 제작업자 일동을 초대하여 회사 창립까지의 경과보고를 하였으나 결국 회사의 법인조직은 등기만 해놓은 일방적인 것으로 영화령에 의한 제작허가는 신 회사의 대표에게는 내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할 수 없이 그 후도 히로가와씨의 이름으로 각종 수속이 이루어져 결국 이 회사는 영화제작회사로서의 완전한 기능은 발휘하지 못하고 곧 해산될 운명이었다.

## 11. 사장으로 물망에 오른 사람들

통합문제 논의 때 매번 문제의 초점이 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누구를 중심인물로 앉힐까 또는 당국이 과연 누구를 도와줄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조사과장이 혼다 다케오(本田武夫) 씨에서 현재의 모리 히로시(森浩) 씨로 2대에 걸쳐 있으므로 그 때 그 때마다 사정이 달라진다.

제작업자 측에서 처음 내세운 인물은 신의주의 다다 에이키치 씨였다. 이유는 별기(別記)한 대로 영화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간파되었고 또한 씨는 강쾌(強快)한 기질과 재계에 선이 잘 닿는 존재로 기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업자 전체의 분위기라 해도 좋을 정도였다. 그래서 아라이 구미(荒井組)의 중역이고, 거래스 관계를 통해 실업계에도 유력한 오히라 기즈로(大平喜重郎) 씨가 다다 에이키치 씨에게 문서로 타진하기 시작하였다. 오히라 씨는 사리사욕을 넘어서 훌륭한 인격자이며 세련되고 원만한 인재로 업자의 입장에서 깊은 이해를 갖고 행동해 주었다. 다다 씨에게서는 곧 회답이 왔다. 바로 경성에 와 상세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그러나 다다씨는 배급과 제작을 같이 하는 회사라면 함께 하겠으나 제작만 하는 데에는 난색을 표시하였다. 다다 씨와 미쓰하시(三橋) 경무국장의 회견이 있었던 것도 그 무렵이었다.

또 방송협회장 간쇼 요시구니(甘蕉義邦) 씨도 영화사업에는 흥미를 갖고 있다 하여 업자로서는 한때 유력한 후보자로 생각되었다. 그 외 일본인 측에서는 다가와 쓰네히로(田川常治郎) 씨, 야나베 에이자부로(矢鍋永三郎) 씨, 경성일보 사장의 미테아라이 다쓰오(御手洗辰雄) 씨, 전 학무국장 하야시 시게키(林茂樹) 씨, 도미나가 봉이치(富永文一) 씨 등이 있고 조선인 측에서는 박흥식 씨의 출마를 기대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중 야나베 에이자부로 씨와 하야시 시게키 씨는 상당히 유력했다. 이는 혼다 도서과장 시대의 일이지만, 야나베 씨는 당시 총력연맹의 문화부장과 나카가와(中川)광업 부사장의 요직에 있어 곤란한 상황이었다. 또 하야시 씨는 전 학무국장이라는 경력으로 보아 문화부문의 지도자로는 적임이었으나 그래도 사장과 같은 지위는 아니고 명예회장 정도여서 취임을 간청하기는 좀 어려운 분위기를 당국도 갖고 있었다고 한다. 동맹통신(同盟通信)기자 구마야(熊谷)군이 신 회사 사장으로 하야시 시게키 씨로 결정된 듯이 보도하여 문제를 일으킨 것도 그 당시였다.

다나가 사부로 씨의 설은 일부이기는 했으나 이는 소극적인 의견이었다. 모리 과장의 부임으로 야나베 에이자부로 씨 안은 과장과 야나베씨의 개인 관계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되고, 하야시 씨 설도 어느 새연가 없어져 한 때 인물난에 봉착하였다. 이리하여 드디어 다나가 사부로 씨의 출마로 이어졌는데 돌이켜 보면 긴 시간의 난산이었다. 그 사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풍문으로 피해를 입은 재계 인사도 있었을 것이다.

## 12. 백지 일원화를 공표(7월 20일)

영화통제에 관한 경과를 보면 업자와 감독관청인 총독부 도서과의 움직임만이 오늘까지 정세의 추이를 알 뿐, 사회적으로는 아직 어떤 자극도 주지 않은 상태였다.

민중과 함께 살고 대중과 함께 숨 쉬는 영화계의 이러한 통제문제는 사회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나

경과, 장래에 대한 희망을 담아 널리 알려야 한다는 의견이 업자 사이에 커지고 있었다. 현 시국 조선의 영화경영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보고하기 위해, 7월 20일 기쿠이차료(喜久井茶寮)에서 경성 부내 유력 언론기관의 영화관계자를 초대하여 조선영화의 임전태세에 대한 태도를 공표하였다. 내빈자는 경성일보, 매일신보, 조선신문, 조선일일신문, 대조(大朝), 대해(大海) 등의 관계 기자로 당일 제작자 협회의 창립에서 당시까지의 경과 및 시국에 응하는 견지에서 당국에 대해 일절 백지로 일원화를 받아 들일 것과 당국의 요구에 의해 조선의 독자적인 하나의 합동회사를 창립하는 안 등을 인쇄한 서류를 제시하여 이해와 협력을 구하였다.

다음 21, 22일 양일에 걸쳐 상임창립위원은 조를 나누어 각 신문사 기타 기관을 차례로 방문하여 영화제작업자의 태도를 명시하고 여론의 환기와 각 방면의 협력을 구하였다.

### 13. 일본인 측 업자만의 합동책(8월 26일)

제작자협회원 10사가 일원적으로 합동하여 한 회사를 창립하는 것은 협회의 방침으로 결정한 것이나 앞의 '암중모색시대'에 상술한 것과 같이 다년의 역사를 가진 조선영화인 측의 독특한 행동도 있어 10사 합동의 실현이 아직 요원한 감이 없지 않은 상태였다. 이 무렵 쓰무라 이사무가 주재하는 조선문화영화 협회의 설비를 모체로 하여 일본인 업자만의 합동을 실현하고, 다음으로 점차 조선 측 업자의 참가를 구하여 전 업자의 합동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결국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와 일본인 업자가 모여 협의한 결과, 대합동의 방법이 현재의 실상에 비추어 좋다는 의견에 일치하였고 구체적 협의를 위해 8월 26일 회합하였다. 일본인 조선인 관계에서 오해를 받는 일은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당국에 대해 먼저 의견을 듣기로 하고 일본측 업자의 연명으로 서류를 만들어 일동의 의견을 구신하고 또 구두로 상세히 설명하였다. 같은 달 28일 제출한 것은 다음과 같다.

(의견서) 일본영화계의 임전체제는 최근 급속도로 실현되고 있는 현재 조선의 우리 영화제작업자들도 시국에 순응하면서 신속히 영화제작기구의 개혁을 단행하여 총독정치와 표리를 이루는 기관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합동 축진의 한 단계로 우선 다음의 현존 일본인 제작업 5사가 단일조직 하에 합동을 결행하기로 협의 결정하였다. 합동으로 창립하는 영화제작회사에 대해 당국으로서 미리 영화제작의 인가를 내려주시고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해 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1941년 8월 28일 일본인 측 제작업 5사 대표 기명 조인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미쓰하시 고이치로(三橋孝一郎) 전

따로 각서를 첨부했으나 위 각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생략한다.

그러나 이 일본인만의 합동책은 그것이 비록 전 업자 합동으로의 전단계라고 해도 당시의 현상에서는 실현이 매우 어려운 이유가 있었다. 다만 이것도 당시 드러난 하나의 사실로 기록한 것이다. 당국으로서 여전히 10사 합동 1제작기관에 한해 허가하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었다.

## 신 회사 창립 연구시대

### 14. 제작자협회 창립사무소를 설치(9월 1일)

제작자협회에서는 당국으로부터 업자의 총의를 모은 신 회사 안의 제출을 희망했으므로 상임창립위원 일동은 9월 1일 총독부의 혼다 도서과장을 방문하여 영화 관계관 입회 아래 협의를 하였다.

그 자리에서 혼다 과장은 “당국으로서는 아직 자재획득의 전망도 서 있지 않으므로 확고한 기초적 방침은 결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업자가 대국적 견지에서 시국 순응의 정신으로 합동하여 신 회사를 창립하는 것에는 찬성한다. 당국도 또 가능한 한 원조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수뇌부인 사장은 업자 측에서 결정되어도 당국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쌍방이 잘 연구해 보자. 여하튼 업자가 중심이 되어 회사안의 작성과 기타 사무를 처리해 주기 바란다”는 의미의 발언이 있었다. 업자 측에서는 혼다과장의 뜻을 이해하여 가칭의 창립사무소를 열기로 하고 과장의 찬성을 얻어 하세가와초의 히로가와 소요 씨가 경영하는 조선영화문화연구소의 한 방을 빌려 간판을 달았다.

이 달부터 종래 협회의 회계간사 후루하타 세이사부로(降旗清三朗) 씨의 업무도 창립사무소의 상임간사인 저자가 이어 받게 되었다.

### 15. 신 회사 창립안 작성을 서두르다(9월 10일)

조선에 하나의 독자적인 영화제작회사를 창립은 당국의 양해를 얻은 것으로 구체안은 협회의 창립위원이 계속 협의에 협의를 거듭하였고 자재를 일본에 구하는 관계 상 속히 회사 창립안을 작성하여 당국이 정보국에 제출 하여 승인을 얻어야 했다. 6월까지의 생필품은 앞에서 말한 대로 당국의 알선으로 순조롭게 배급되었으나 그 이후의 분은 미결정인 채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정보국의 관계관이 흘린 바에 의하면 7월 이후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며, 대개 7할 정도로 네가필름 3만 피트, 사운드 필름 1만5천 피트, 포지필름 7만 피트 정도였다. 그러나 아직 정보국에는 조선의 통제회사안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숫자적인 안의 작성을 끝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8월 말부터 9월 상순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하고 9월 10일 마지막 회합에서 정식으로 제작자협회의 신 회사 창립안이 결정되었다. 이를 바로 인쇄하여 9월 12일 당국에 제출하고 심사를 기다려 정보국에 회부하고 승인을 구하는 것과 동시에 생필품의 배급에 관해서도 필요량의 획득을 기하기 위해 절충을 시작하였다.

### 16. 주식회사 조선영화협회 설립 취의서

임전체제 아래 영화의 사명은 막대하다. 영화를 통한 민중 지도의 중책을 자부하는 영화인은 현하 미증유의 비상시에 직면하여 국책에 순응하는 영화신체제의 확립에 매진하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의무이다. 조선의 우리 영화제작업자는 전부터 경영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대 합동을 기획하였다. 그 방법에 관해 협의해 온 바 최근에 내각 정보국을 비롯하여 관계 관청에서 영화의 임전체제에 관해 활발한 움

직임을 보였다. 그 목적은 자재의 제한을 이유로 하는 것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영화가 갖는 진정한 힘은 국책 수행을 영화를 통해 실현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곧 국민정신의 양양이나 국민의 단결, 비상시의 자각을 갖도록 하려는 적극적 국책의 표현으로 일본영화사상 처음 있는 대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에서 강력한 영화신체제의 발족은 우리 조선 영화계에 대해 심대한 자극을 주었고 조선영화는 장차 위급존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우리 영화제작자들은 애국의 정신과 영화보국의 일념에 불타 결코 일본 업자에 뒤지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과거 일체의 정실을 넘어 조선영화의 임전적 대동단결을 이루려는 데 전원 일치하였고 당국도 일본영화계의 정세에 맞춰 조선영화의 장래에 관해 지시를 내렸다. 이에 우리들은 서로 협의하여 전 업자가 하나의 제작회사를 창립하고 당국의 지도로 전시 하 영화에 의한 국책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 한다. 우리는 처음부터 조선의 총독정치의 최고 방침을 구현하고 조선의 독자적 입장에 의한 국책영화의 제작에 전념할 각오가 되어 있으니 당국에서 이에 대한 지도 및 회사 경영에 관한 적극적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새롭게 발족하는 조선 유일의 영화제작회사는 현재 각 사가 소유하는 모든 설비기계 및 기능을 통합하고 새 설비를 더 충실히 하여 합리적 과학경영을 이룰 것이 틀림없으며 문화의 진전에 따라 순조로운 발전을 이룰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에 신 회사 설립의 취지의 일단을 피력하고 창조를 구하는 바이다.

1941년 9월 12일

## 17. 불입자금의 사용처와 수지 계산

이번에 제 1차로 제출한 회사 창립안의 내용을 기술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불입자금은 제1회 불입만으로 1백만 엔을 징수하기로 하고 그 사용처는 크게 각 제작자의 기존 설비 전부의 매수비로 대략 45만 엔으로 한다. 다음으로 스튜디오는 제1 스테이지 평수 200평 1동, 제2 스테이지 백 평 1동, 이들을 한 평 당 500엔으로 건설하고 별도로 150평의 기숙사를 1평 당 단가 250엔으로 건설한다. 위는 모두 벽돌 건물로 하고 반향방지설비나 배전공사, 기숙사의 난방설비를 포함하여 경비 총액 187,500엔, 그 외에 약 10만 엔의 추가 기계 및 설비비가 있고 주로 벨형 자동현상기 26,000엔, 300킬로와트의 변전설비 17,000엔, 라이트 각 종류의 25,000엔, 그밖에도 크레인, 무비올라 등이 있고 사무소 설비비, 창립비, 등기로 등도 있어 우선 순 영화 제작의 운전자금으로 234,500엔을 계상하고 있다.

또 사업수지 견적서에서 수입총액은 618,400엔, 지출총액은 519,192엔으로 차액 99,208엔의 이익금을 계상하고 그 처분안으로는 1만 엔의 법정적립금, 동 1만 엔의 별도 적립금, 6,000엔의 임원 상여금, 2,000엔의 창립비 상각금, 5,000엔 사원퇴직 수당기금, 그리고 배당을 연 6분의 6만 엔으로 6,208엔을 후기이월금 감정으로 한다. 물론 이는 모두 연간 계산이다.

## 18. 제작기획과 제작비 경영비

신회사안 1개년 간의 총지출은 별 항 대로 519,190엔을 계상하고 있으나 이 지출에 기초하여 제작기획 및 제작비 또는 간접지인 회사경영의 총 금액은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제작 건수는 영화관 1년에 6종류로 신회사의 힘으로 제작한 것을 특 작품, 보통 작품 두 종류



로 분류하고 특작품급의 것을 두 종류로 제작하여 각각 예산을 직접비 1건당 36,000엔으로 계 72,000엔, 보통작품 한 건당 18,000엔 합 36,000엔으로 하고 별도로 매년 두 건씩 타사와의 타이업 작품을 기획한다. 이에 대해서도 한 건에 36,000엔씩 즉 72,000엔을 계상하고 이 범위에서 제작을 완성토록 한다. 또 문화영화는 1년간 1롤씩 10종류의 범위 내에서 제작하고 이 제작비는 직접비 41,400엔으로 하고 조선뉴스를 매월 두 번 1년에 24개를 제작하고 그 경비로는 52,990엔을 계상한다. 이상은 각 영화제작의 직접비이지만 그밖에 스튜디오 감정으로 12,000엔의 기계기구수리비 예산, 5,000엔의 스튜디오 차지료(借地料), 12,000엔의 전력비, 5,000엔의 상각비를 계상하고 인건비는 스튜디오 관계 46,800엔, 연기자 관계 44,400엔, 본사 관계 42,600엔으로 합계 133,800엔으로 하고 그 외에 사무소비 8,400엔, 세금 12,000엔, 보험료 5,000엔, 출장비 12,000엔, 선전비 조사비 15,600엔, 영업비 및 잡비 24,000엔을 예산으로 계상하였다.

## 19. 각종 영화의 수입예산

수입금 618,400엔의 내역을 보면 그 70%를 극영화의 수입으로 충당한 것은 당연하고 그 중에서도 타이업 작품의 수입을 1건 105,000엔씩 두 건 해서 210,000엔으로 한 것은 꽤 주의를 기울인 숫자이다. 조선의 자주적인 특 작품은 수입 한 건 75,000엔씩 150,000엔이다. 이 두 작품의 시장은 일본 만주 중국을 고려한 것이고 남은 보통작품 두 건의 수입을 1건 당 28,000엔씩 56,000엔으로 보는 것도 확실한 숫자이다. 문화영화 10편에 대해 조선 내 배급 수입 20,000엔, 일본 만주 중국 배급권 양도 30,000엔, 계 50,000엔과 별도로 50,400엔의 프린트 70편 매입대금 (총독부 기타로)을 계상하고 조선뉴스 계산에는 12,000엔의 일본 배급수입 54,000엔의 조선 내 배급수입과 관청매입대금을 계상하고 별도로 16밀리 촬영 인수, 작품 축사(縮寫) 수입 30,000엔과 만영뉴스의 조선 내 촬영수수료 6,000엔도 계상되어 있다. 각종 영화를 통해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프린트 제작 수 즉 포지필름의 입수 여하에 달려 있어 이 수입 숫자의 실현 여부가 영화 제작의 관건임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 20. 생필품 제1회 요구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 회사의 내용과 제작 기획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생필품이다. 본 안이 제작자협회에서 심의 결정한 최초의 창립안이고 이 때에는 아직 정보국으로부터 조선에 대한 생필품의 할당은 결정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업자로서는 당국의 할당을 감안하지 않고 당연히 조선총독부 당국에 필요량을 신청한 것이었다. 즉 이 회사가 필요로 하는 생필품은 최소한도 네가필름 1년 간 21만 피트, 사운드 필름 동 21만 5천 피트, 포지필름 동 83만 피트였다.

먼저 극영화에서는 특작품과 타이업 작품 모두 같이 동량의 필름을 사용하기로 하고 1편에 대해 네가필름 2만 피트, 사운드 필름 25,000피트, 포지필름 63,000피트 씩이 필요하고 보통작품은 네가필름 14,000피트, 사운드 필름 21,000피트, 포지필름은 같은 63,000피트를 요한다. 이는 프린트 각각 5편씩을 제작한다는 계산이었다.

또 문화영화는 10종류로, 1종류에 대해 네가필름 3천 피트, 사운드필름 2,600피트, 포지필름은 프린트 9편 당 제작소요량 21,000피트로 1년 간 이것의 10배의 양을 필요로 하는 계산이 되어 조선뉴스의 계획

은 매월 2회 발행하고 프린트는 그 때 마다 8편씩 만들어 1년을 통산하면 최소한 네가필름 72,000피트, 사운드필름 48,000피트, 포지필름 24만 피트는 필요하다.

이 숫자는 평시에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일본의 자재 관계에 대한 정보국의 수법으로 보아 이같은 전 수량의 획득에는 큰 노력이 필요한 동시에 조선의 끊어오르는 열의를 상당히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로지 당국의 알선의 영향력에 달려 있어 업자로서는 이 숫자를 최소한도로라도 실현하기 위해 강도 높은 운동을 벌인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 외 상세한 경영상 금전관계의 수지를 매우 자세하게 각 작품별 제작비 명세표, 또 인건비로는 연기자와 기타 채용예정 인원수, 대우 등에 이르기까지, 별도로 마련한 '사규' '신회사 기구' 등도 첨부하여 당국에 제출하였던 것이다.

## 21. 조선 할당 필름 결정의 기초(9월 15일)

조선으로 할당되는 생필름은 1월에서 6월까지, 7월에서 8월까지로 구분하여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온 것은 별기한 바이다. 그런데 제작자협회의 신설회사안의 필요량은 무척 많다. 즉 네가필름 21만 피트, 사운드필름 약 22만 피트, 포지필름 83만 피트로 되어 있다. 총독부 관계관은 하루라도 빨리 척무성(拓務省)에 대해 신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절대량이 얼마인가를 산출하여 통지하고 그것의 확보에 힘써야 했다. 그래서 제작업자에 관계없이 총독부 당국이 독자적 견해에 의한 생필름 소요량의 숫자를 연구하게 되었다. 그것에 의하면 제작건수는 1년 극영화 8두루마리(券物) 6종류 프린트 9개, 뉴스는 월 2회 발행으로 프린트 8개가 되고 이에 필요한 생필름의 1년 총량으로 네가필름 약 12만 피트, 사운드필름도 대략 동량으로, 포지필름은 517,500피트의 할당량을 절대숫자로 정보국에 청구하였다.

정보국으로서는 조선의 제작업자가 마음대로 만든 청구수량보다도 총독부가 사정한 수량을 기초로 하는 것이 당연하였으며 생필름배급통제협의회에서 조선에 내린 결정이 총독부안을 기준으로 할당수를 결정한 것도 당연한 결과이었다.

즉 1개월의 네가필름과 사운드필름 모두 8천 피트, 포지필름 3만 피트로 결정한 숫자와 총독부의 요구 숫자를 비교하면 포지필름은 상당히 감소했으나 다른 것은 크게 깎이지 않은 셈이다.

때문에 조선영화로서는 앞으로 필름의 배급 증가를 정보국에 요구할 경우에는 총독부 영화 감독 당국이 적정하고 공평한 증배 이유를 발견하지 않는 한 꽤 어려운 실상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2. 도서과 관계관의 상경(9월 20일)

업자 전원의 총의로 나온 신 회사 창립안은 당국에 이미 제출되었으나 이 계획안 심의의 기초가 되는 것은 생필름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6월까지 네가필름 32,000피트를 배급 받았으나 7, 8월의 두 달 분은 네가필름 27,000피트, 사운드필름 15,000피트, 포지필름 67,000피트로 감소되었고 9월 분 이후는 더욱 감소할 전망이라는 것이었다.

도서과 무라카미(村上)사무관이 선후책(善後策)을 위해 상경하여 정보국 관계관과 간담하게 되었다. 또 9월 26일 개최되는 생필름 통제협의회에 대한 사전 방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제작자협회에서는 긴급히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쓰무라, 양촌, 장선영, 히로가와, 후루하타, 저자까지 6명이 모여 협의한 결과 히로가와 씨를 상경시키기로 하여 히로가와 씨가 쓰무라 사무관과 연락을 취해 측면운동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나 정보국의 통제협회의 결과는 실로 의외였다. 즉 앞으로의 조선 할당 수는 네가필름, 사운드 필름 모두 매월 8천 피트씩, 포지필름은 매월 3만 피트씩으로 결정되었다. 쓰무라 사무관은 귀임 후 저자에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통제협회의에는 척무성의 이이지마(飯島)사무관과 함께 나도 출석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요구는 가감 없는 최저한의 필요량을 적극적으로 역설하였다. 그러나 만주 등에서는 힘이 있는 관동군 장교가 만주영화사의 필름 획득을 강력히 주장하고 중국 측도 역시 그런 수단을 사용하였다. 그렇게 나가면 조선은 완전히 불리한 상태로 실로 유감스런 결과밖에 안 된다. 대체로 이 숫자가 장래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11월 이후에는 절충의 여지가 없지도 않을 것이다.

또 상경 중의 히로가와 씨는 저자의 자택으로 매일 밤 도쿄에서 전화를 걸어 정보를 알려 주었는데 결정된 숫자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이 숫자를 기초로 신회사안을 작성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문제로서 업자측이 제출한 신회사안의 소요 필름은 네가필름, 사운드필름 모두 약 2배, 포지필름은 약 3배 정도를 필요로 하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에 서게 된 셈이다.

### 23. 노부하라(信原) 문서과장에게 상경 진정(9월 24일)

정보국과 군부를 중심으로 한꺼번에 정리하려 했던 영화계의 임전체제는 복잡기괴하여 당사자들도 매우 곤란해진 처지가 되었다. 그러나 후지필름은 완전히 정보국의 지배 하에 있으며 영화제작의 혈관을 잡은 이상 흘러가는 대로 둘 뿐 뾰족한 수가 없었다. 조선에서는 속속 들어오는 일본의 정보에 일희일비의 상태로 별 방책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국의 명령에 따라 제작자협회에서는 통합에 의한 신회사 설립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여기에는 상당량의 생필름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 이 때 총독부로부터 어울릴 만한 사람을 보내 상경시켜 정보국의 조선에 대한 방침을 파악하고 조선의 사정도 개선하는 것이 급무였다. 그 결과 업자와 같이 촬영설비를 갖고 자재 관계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노부하라(信原) 문서과장의 상경을 진정하게 되어 9월 24일 제작자협회 전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서면으로 진정하였다.

조선총동부 문서과장 노부하라 히지리(信原聖) 전(殿)

배계(拜啓). 반도 영화의 임전체제에 관해서는 이미 서면으로 계획안을 구신하였으니 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영화제작 자재인 생필름의 확보에 관해서는 아직 정보국 기타 관계 방면의 반도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지 않아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반드시 낙관만도 할 수 없는 정세입니다. 그러하니 생필름의 배급에 대해 문서과에 알선을 부탁한 관계 상 지금의 껍박한 영화계의 현상

을 보아 시급히 조선에 대한 배급방침을 결정할 것을 당국에 구신하는 것이 초미의 과제로 생각 합니다. 이에 조선의 실상을 당국에 충분히 인식시켜 선후책을 바라는 동시에 총독부 당국의 영 화정책을 완전히 일본 측에 알려 자재확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공무가 다망한 가운데 매우 송구 스러우나 귀하께서 상경하여 알선해 주시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을 양지하시어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1년 9월 24일 조선영화제작자협회원 일동

#### 24. 업자 측 회사 창립 최종안 제출(10월 1일)

내각정보국의 조선에 대한 생필품 배급수량의 결정과 이에 따른 조선영화의 제작건수의 범위가 정 해져 배급되는 자재를 기준으로 한 신회사의 설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1941년 9월 12일 제작 자협회에서 총독부 당국에 제출한 회사창립안은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할 운명이 되었다. 당국이 이번 에 결정한 생필품 배급량, 즉 한달에 네가필름 8천 피트, 사운드 필름 8천 피트, 포지필름 3만 피트로 제작 운영 가능한 신회사안을 시급히 세워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협회 측 창립상임위원은 다시 회합한 뒤 업자로서의 새로운 창립안에 대해 연구한 끝에 성안을 만들어 '제작자 측 최종안'으로서 당국에 제출하였다. 내용에서 제1안과 다른 중요한 점은 자본금을 4분 의 1, 즉 75만 엔으로 한 것이었다. 또 불입자금의 용도도 기존 설비매수비의 개산(概算) 45만 엔은 그 대로이지만 스튜디오를 가건축으로 75,000엔으로 하고 추가기계 및 설비비도 전 안의 약 반액인 51,000 엔으로 하고 자동현상설비 등을 제2기 계획에 돌려 넣어 결국 운전자금으로는 156,650엔을 계상했으나 부족한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안이었다. 또 수치총예산도 필연적으로 감소하고 수입 479,300 엔, 지출 401,860엔으로 하여 이를 뺀 이익금도 77,440엔이라는 숫자를 나타내기에 이르렀다.

수입에서는 극영화 부문 1년 6종류는 전 회의 예상과 동일하기 때문에 수입에서는 동일 숫자인 특작 품 2종류 15만 엔, 보통작품 2종류 56,000엔, 타이업 작품 2종류 21만 엔을 계상했으나 프린트 수가 많아 야 할 뉴스, 문화영화는 자재감소 때문에 수입도 감액을 면치 못해 조선뉴스에서는 33,000엔을 1년 12편 의 총수입으로 하고 또 문화영화는 정보국의 지정대로 연 5편 제작으로 하여 16,500엔을 예상하는 데 그쳤다. 따로 16밀리 관계의 7,800엔, 만영 뉴스 촬영수입 6천 엔을 더해 총수입 예산으로 잡은 것이다.

또 지출 401,860엔은 극영화의 제작예산은 이전 것과 같으나 조선뉴스 10편의 제작 실비는 8,820엔으 로 했다. 그 외 스튜디오 견적도 각 항목 마다 모두 예산액을 줄이고 인건비도 대개 1할 전후의 절약을 단행한 안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생필품의 사용량은 각 종류 모두 NG율을 내려 극영화에서는 7종류의 평균 사용량은 완성 권(편)수 8권으로 6,400피트, 거기에 NG를 7할로 보고 네가필름 10,880피트씩 65,280피트, 사운드 필름 1롤 10,880피트로 같은 수량으로 한정하고 포지필름은 프린트 수 5롤에 러쉬필름<sup>63)</sup>을 합쳐 42,880피트를 사용한다. 또 조선 뉴스는 완성 800피트로 10%의 NG를 허용하여 네가필름, 사운드 필름 모두 한 종류 1,600피트로 하고 프린트 수 5롤로 5,600피트씩 매월 사용한다. 또 문화영화 1년에 1두루

63) 영화에서 촬영 결과를 보기 위해 인화한 미편집의 포지 필름.

마리 5종류 평균사용량도 앞의 조선뉴스와 같은 비율로 사용하게 했다. 이렇게 되면 1년 통산하여 생필품 사용량은 네가필름 할당량 1년에 96,000피트 중 93,500피트, 사운드 필름도 동량, 포지필름은 할당량 36만 피트 중 356,000피트가 필요하여 우선 배급수량 안에 겨우 제작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업자 측의 최종안은 최대한 줄인 숫자로 이에 따른 회사의 경영은 매우 무리가 있었고 종업원의 대우, 기계설비에서도 유감스러운 점이 많았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생필품을 매달 네가 8천, 사운드 8천, 포지 3만으로 한정한 이상 어쩔 수 없이 일체의 희생을 초월한 대국적 입장에서의 계획안이었다.

업자 측이 제출한 최종안은 앞으로 많이 수정된다 해도 신 회사 경영안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당국은 본 안을 접수하면서 본격적으로 회사창립안을 심의하게 되고 생필품 할당 수량의 결정과 함께 회사창립의 구체적 방안도 궤도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다.

## 25. 총독부 촬영반 이양에 관한 진정(10월 7일)

영화통제의 결실인 조선에서 하나의 영화제작기관의 실현에 매진하는 제작업자로서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조선총독부 문서과(현재의 정보과)의 한 기관인 영화제작기구에 대한 생각이었다. 물론 이 기구는 당국에서 이전부터 세워진 것이고 작품은 단편물의 촬영을 주로 한 것으로 아무래도 총독정치의 선전작품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기계설비에서는 녹음기의 신설을 비롯하여 상당히 충실하고 직원도 10여 명이 전속되어 있다. 현재 총독부가 지도적 입장에 서서 영화의 통제를 구체적으로 단행한 영화회사가 총독부의 시정방침을 준수한 반관적 존재라고 한다면 일부러 관청 안에 독립된 촬영제작기관을 둘 필요는 없다. 모두 신설영화제작회사에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

게다가 내각차관회의에서 내지 관청의 제작기구를 전폐하는 것을 결정한 것은 여론에 더 한층 박차를 가하게 하였다. 또 생필품의 배급실상에서 보아도 총독부의 설비는 모두 유희설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영화제작자협회의 상임창립위원은 이 문제를 심의하여 수차에 걸쳐 문서과장 노부하라 히지리 씨와 간담하고 의견교환을 가졌으며 노부하라 과장은 필름입수가 곤란하므로 이 기구의 장래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업자 측으로부터 즉시 폐지의 의견이 있어도 그다지 확고한 신념의 발표가 없었으므로 10월 7일 상임위원이 제출한 본 문제에 관해 당국에 대한 구신서를 쓴다.

조선총독부관방 문서과장 노부하라 히지리 전

### 문서과 영화촬영반에 관한 건

입전제제하 영화국책의 입장에서 당국의 알선으로 국책에 따른 영화회사를 창립하는 건에 관해서는 심대한 도움을 받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 통제회사는 말할 것도 없이 관민이 일치 협력하여 영화를 통해 비상시 국정을 조선 대중에게 인식시키고 시대에 맞는 건전오락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귀관의 적극적 지원을 기다리는 바입니다.

이 때 진정하고 싶은 것은 일본의 관청영화 폐지의 추세에 따라 귀과의 영화촬영반 폐지방침

을 올려주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의 형태는 각 성 차관회의의 합의 사항으로 각의 결정사항과는 다르지만 각 성 최고수뇌부의 합의사항이고 또 현 시국에서 자재나 기타 관계상 위 관청영화의 폐지는 당연히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국에서도 일본과 같이 폐지에 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는 일본 만의 정세에 기초하여 구신하는 것이 아니고 조선의 특수성을 보아 별지와 같이 폐지의 이유를 구신 진정하는 바입니다.

1941년 10월 7일  
영화합동 상임창립위원 연명

이 구신서에 첨부된 서류 즉 문서과 영화촬영반을 폐지해야 한다는 이유서에는 상당히 과격한 의견이 들어 있어, 당시 총독부의 영화관계 관리가 영화통제에 의한 합동의 열쇠를 거머쥐고 있는 상태의 업자이기는 하나 “정론은 정론이다. 당당히 의견을 말하자”는 실로 무사도적인 심각한 분위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내용은 대체로 6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당국의 영화정책에 따라 조선에 하나의 영화회사가 실현된다. 그리고 그것은 총독부의 시정방침을 구체화하고 또 당국은 이 회사의 경영 기획에 대해 발언한 과거는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관과 민이 각자 목적을 같이하는 기관을 따로 가질 필요가 없다. 관민대립은 국책에 역행하는 것이고 정치의 중점주의에서 보아도 당연히 폐지해야 할 일이다. 두 번째는 군사기밀상 군부가 촬영반을 특설하는 경우 등은 물론 예외이지만 행정관청으로서는 특수성 있는 만주국에서조차도 그러한 예가 없다. 제국의 세력권에서는 조선총독부만으로 당초 설비된 시대와는 완전히 정세가 다른 점, 세 번째는 당국에서는 촬영반 이외로 수만의 비용을 들여 녹음설비까지도 신설하고 있으나 영화 자체가 현재 대 변혁을 치르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방침은 시세와 너무나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민간영화제작업자는 일체를 백지로 만들어 큰 희생을 각오하며 국책의 견지에서 통제의 산하로 달려 나가고 있다. 심하게 말하면 신회사는 당국의 지도에 의한 회사이다. 당연히 총독부의 영화촬영기구도 합동에 혼연히 참가해야 할 것이다. 관에서 현재의 종업원은 무조건 신회사로 접수시키고 속히 선처를 구할 것. 네 번째는 기획 및 기술에서 관청사람들보다 민간인들이 뒤떨어진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현재 민간영화인은 소정의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실무를 맡기고 있는데 문서과 촬영반은 관청이기 때문에 자격(등록) 있는 자를 쓰고 있지 않다. 또 관리 기질의 영화인과 민간영화인과는 열의가 다르다. 다섯 번째는 영화령에 따라 제작착수 전 당국의 사전검열을 받은 뒤 제작에 착수하는 것이므로 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기획은 이것을 그대로 통제회사에서 제작토록 한다. 특히 지도할 경우에는 세부에 걸쳐 입회를 하면 되므로 별도의 기관을 막대한 예산으로 전용할 필요는 없다. 여섯 번째는 군사기밀의 이유에서 육해군만은 특수 촬영설비를 갖지만 녹음 현상은 민간에 의뢰하고 있는데 조선에서는 현재 군 관계의 것도 민간에 의뢰하고 있다.

대체로 위와 같은 내용의 구신서를 제출했으나 물론 이것으로 바로 그 준폐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모두 가까운 장래에 다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

## 26. 관민영화 관계자의 도쿄행(11월 20일)

신회사안은 생필품 배급량에 기초를 둔 이른바 제2안을 최종안으로 작성하고 당국에 제출 심의를 구하며 자본 관계 및 수뇌부의 인선도 병행하여 당국 및 업계에서 각각 연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제작기구의 일원화에 관한 정보국의 정식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고 또 장래의 생필품 증가에 대해서도 예비교섭을 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영화배급기구의 정비도 일본에서는 겨우 그 안이 구체화되고 조선에서도 배급통제가 당면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총독부 도서관에서는 시미즈 통역관과 함께 히로다 조쿠(廣田屬)를 상경시켜 당국과 교섭을 시도하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업계에서도 동행하기로 하여 배급조합을 대표하는 고인문(高仁文) 씨와 제작자협회를 대표하는 저자가 상경하게 되었다. 제국호텔을 본부로 약 10일간 체재하며 상황 파악에 힘썼다.

이 달 즉 11월 생필품배급통제협의회는 정보국에서 개최되었으나 이 회의에서 조선 할당의 11월분은 배급을 보류하게 되었다. 이유는 10월의 협의회 자리에서 조선에서는 이미 제작자에 대해 통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언명했기 때문에 이에 기초하여 공급했으나 아직 통제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일본에서 각 제작회사로의 직접배급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은 현상에 비추어 조선에 대한 11월 분의 공급은 유보한다는 것이었다. 척무성의 경무과장은 통제실현 운운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정보국에서 통제회사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은 조선에 독자적인 제작업자의 통제기구를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은가 하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보국은 “배급기구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있으나 제작회사의 설립은 승인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회답이었다. 이것이 정보국으로서 조선 독자의 제작기구를 승인할 의향을 분명히 한 최초의 언명이었다.

### 제작통제 실행기에 접어들다

## 27. 총독부 도서관 과장의 경질(11월 26일)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관 과장의 경질은 영화통제 일원화를 향해 활동 중인 업자들에게는 상당한 관심사였다. 1940년 9월 2일 도서관장의 자리에 앉은 혼다 다케오 씨는 영화 관계 현안의 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1941년 11월 26일자로 학무국 학무과장으로 옮겨 갔다. 후임과장의 발령이 늦어져 약 반 달간 후루카와(古川)보안과장이 겸임을 하였고 12월 8일 우연이겠지만 대동아전쟁 발발 당일의 발령으로 당시 함경북도 경찰부장이었던 모리 히로시(森浩) 씨가 도서관장으로 온 것이다.

시국이 급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모리 도서관장은 거의 발령 당일 출발이라는 전격적인 부임으로 기억한다. 이후 업자는 모리 도서관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구상 하에 예의 영화통제의 성과를 올리려 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듯이 도서관장의 경질로 우선 영화의 문제도 백지로 돌려지고 근본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해도 당면의 책임과장으로 믿을만한 방책과 수순에 따라 진행해야 함은 당연하였다. 당분간은 모리 새 과장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방책을 세우고 연구할 것인지를 업자로서는 먼저 대기하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제작업자 측의 상임창립위원과 모리 도서관장의 회견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으나 매우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열심히 업자의 뜻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어 당국과 업자가 일체가 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고 이에 점차 문제는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 28. 대동아전쟁 발발에 대한 조치(12월 8일)

1941년 12월 8일 미영에 대한 선전의 조치가 내려진 이 날이야말로 영구히 잊을 수 없다. 대동아민족 해방의 새로운 첫 날이었다. 전파는 개전 벽두 하와이 진주만에서 혁혁한 황군해군의 대전과를 전하고 시시각각 들어오는 대전 서막의 정보는 조선민중을 흥분의 도가니로 넣어 버렸다.

드디어 국민 하나하나가 총궐기하여 임전의 결의를 다져야 할 비상 시국에 조선영화의 새로운 발족을 팔짱끼고 기다릴 수 있을 것인가. 영화제작자협회는 바로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당국에 대해 우리의 진의를 피력하고 속히 영화 합동을 실현시키기 위해 의견 일치한 후 곧바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영화합동상임위원의 서명으로 대표자가 당국에 출두하여 관계자에게 전했다. 진정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진정서

일본은 드디어 미영에 선전을 포고하였다. 그리고 황공하옵게도 대조치를 발표하시어 “집의 백성들은 각자의 본분을 다해 역조일심 국가총력을 다해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미나미(南) 총독 각하께서는 또한 포고를 내시어 “국가의 이름으로 직역봉공과 신도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망하셨다. 우리가 업으로 하는 영화를 통해 이러한 초비상시국에 임하는 태도를 조선의 2,400만 대중에게 인식시켜야 할 시기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폐하의 신(臣)으로 성지를 봉체하고 총독각하의 마음을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직역봉공으로 멸사의 노력을 다할 시기가 다가왔으니 이에 화급히 영화제작합동의 실현을 기하여 즉각 조선대중 지도의 대임을 맡아야 할 것으로 압니다.

당국에서 신속하게 검토하시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실 것을 진정합니다.

1941년 12월 10일  
회사명 및 대표자명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전

## 29. 다나카 사부로 씨의 출현과 씨의 도쿄 행(1943년 2월 20일)

신 회사에 대한 제작업자로서 해야 할 일은 거의 완성된 상태에서 남는 문제는 당국이 신 회사 창립을 누구에게 위촉할지, 그리고 그것이 구체화 된 경우에 10사 통합의 정신을 어느 정도 발휘시킬 수 있을지 또는 기계 및 설비의 접수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과 같은 최종적인 것을 기다릴 뿐이었다.

저자는 전후의 정세로 보아 경성상공회의소 부회장 다나카 사부로 씨가 출마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물론 이전부터 다나카 씨는 화제가 되어 왔고 제작업자로서 현상타개를 위해 진지하게 다나카 씨를 대상에 올려 협의를 시작한 바 있다. 결국 업자를 대표하여 조선문화영화협회의 쓰무라 이사무가 타진하고, 다나카 씨와 쓰무라 씨가 회견 후 당국의 의지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리고 업자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면 당국으로서는 불평은 없다고 말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모리 도서과장은 다나카 사부로 의 출두를 기다려 간담을 시작하였다. 그것은 2월 20일 경부터였다. 다나카 씨는 회답을 보류하여 3월 1일 경성을 출발, 상경하였다. 당시 상업용 때문이라고 했으나 매사에 신중한 다나카 씨는 경성에서 영화업자를 만나 의견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상경하여 지인을 통해 영화계에 연락하여 일본의 영화통제가 조선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검토한 것은 사실이다.

이 사이 제작업자와 모리 도서과장의 회견으로 당국이 다나카 사부로 씨에게 회사 창립을 위촉하려는 방침이 판명되면서 업자 측에서는 다나카 씨를 논제의 중심에 두고 갑론을박하며 상당히 심각한 찬반양론이 있었다. 그러나 원래 중심인물의 천거를 당국에 일임하고 다나카 씨의 출마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업자 측에 강했던 이상 이래저래 논의해도 소용없는 문제였다. 다나카 씨가 비록 이상적인 인물은 아니라 해도 졸속주의로 갈 수 밖에 없었고 또 다나카 씨도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이 아닐 터여서 우리가 성의를 갖고 그를 지지하며 최초의 방침대로 일체를 당국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강했던 것도 당연한 귀추였다.

어쨌든 상경 중 다나카 사부로 씨가 귀성 길에 그의 태도가 분명해질 것으로 정세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었는데 다나카 씨의 귀성은 예정보다 늦어져 11일에 이르러서야 그로부터 관부연락선 승선 지정의 사정으로 16일 도쿄 발로 귀성한다는 연락이 왔다. 모든 일은 돌아가서 당국의 의견을 들은 뒤 정식으로 대답하겠다는 의미의 전보가 모리 도서과장 앞으로 도착하였다. 3월 19일 다나카 사부로 씨는 귀성하자마자 모리 과장과 만나 회사 창립의 허락을 받고 구 업자 접수라는 꽤 골치 아픈 문제는 당국의 책임으로 하길 바란다고 부언함으로써 드디어 현안이었던 회사 중심인물은 그로 결정된 것이었다.

### 30. 제작자협회의 유지비(3월 23일)

제작자협회가 결성된 1940년 12월부터 다나카 사부로 씨가 신회사를 접수하기로 결정한 마지막 날, 즉 1942년 5월 31일까지 18개월 동안 협회의 유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도 기록의 요체라고 생각한다. 우선 결성 당시는 업자 가운데 설비를 갖는 자와 갖지 못한 자를 구별하여 기금을 징수하고 매월 회비 5엔씩을 내어 회합의 경비로 충당했으나 통제문제가 적극화되면서 각종의 회합, 진정 등이 빈번해지고 경비도 많아져 각 사에 할당하여 수회에 걸쳐 경비를 거출했다. 즉 황국영화사 후루하타 세이조 씨가 회계간사로 회계사무에 종사하고 있던 당시 각사의 거출액은 4,150엔에 달하였고, 다음으로 1941년 9월 저자가 그 사무를 맡으면서 금액은 3,100엔이 되어, 협회의 창립에서 해산까지 총 7,250엔을 사용하였다.

이 경비는 창립 임시사무소의 경비, 각종 인쇄물, 사용인 인건비, 연회비, 여비 등에 사용된 것이지만, 앞으로는 당연히 신회사로부터 반환 받을 성질의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각 사의 기계류 평가사정에 포함하여 계산한 것이었다.

지금 이에 각 사의 경비부담액을 보면 히로가와 소요 1,150엔, 야나무라 기치조 1,150엔, 쓰무라 이사무 1,050엔, 다카시마 긴지 1,100엔, 장선영 850엔, 후루하타 세이조 700엔, 김갑기(金甲起) 500엔, 구보 요시오(久保義雄) 250엔, 이병일(李炳逸) 300엔, 구니모토 다케오(国本武夫) 100엔, 그 외에 탈퇴한 예흥

사(藝興社)가 100엔을 지출하고 있다.

저자는 3월 23일 전업자 회합의 석상에서 그날까지의 수지결산을 보고하며 승인을 구하고 명세서를 일동에게 배포하였다.

### 31. 제작업자 대표를 선정(3월 29일)

총독부 당국이 신 회사 창립의 수뇌자로 누구를 세울지는 의문이었으나 제작업자가 그에 앞서 전 당국의 요구로 “업자로서 출마하기 원하는 사람”을 여러 명 천거하였고 그 사람들에게 대해 당국이 절충하기로 하였으나 아무래도 허리에는 짧고 소매는 긴 것처럼 어중간할 뿐 이상적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앞에 언급한 경성상업회의소 부회장인 다나카 사부로 씨의 출마로 결정되었다. 원래 다나카 씨는 3, 4년 전 당시의 와타나베(渡辺) 일본활동사진주식회사(일활) 출장소장에 걸맞은 지혜를 가지고, 주로 배급을 하고 제작은 부수적으로 하는 회사를 창립할 계획을 세워 당국에 신청할 정도의 인물이어서 전부터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모리 도서과장은 한편으로 배급통제를 앞두고 있고 더욱이 일본이 4월 1일부터 신 기구에서 일을 시작하고 조선도 이에 맞춰 배급방법의 변혁을 말하는 목전의 과제에 직면해 있어, 그가 제작회사의 문제에 전념하는 것은 곤란하였다. 그러나 과장은 4월 1일 출발하여 배급관계의 요무로 상경했고 그에 앞서 여러 차례 다나카 사부로 씨와 만나 그의 출마를 타진하여 대체적인 내락을 받은 모양이었다.

제작자협회는 드디어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그래서 3월 29일 총독부 경무국 영화검열실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정보를 교환했는데 당일은 10사의 제작업자 전원이 출석하여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 협의의 간담하였다.

이렇게 각자 의견을 개진할 때 종래의 창립위원 및 상임위원은 전원 사직하고 교섭 일체를 간이하고 명쾌하게 하기 위해 의견을 모아 전체업자 대표 1명을 선출하였으며, 그 대표가 앞으로 총독부 당국 및 다나카 사부로 씨에 대해 업자 측의 의견을 대표하여 발언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협의한 결과 전원 일치로 창립상임위원이었던 저자가 중책을 맡게 된 것이다.

저자는 또 한명의 대표를 선임하도록 희망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32. 다나카 사부로 씨의 제1성(4월 8일)

다나카 사부로 씨는 모리 도서과장과의 수차에 걸친 회견으로 회사 창립의 뜻을 정하는 한편 도쿄에 있는 학창시절의 친구나 영화 관계의 지인을 모아 ‘조선영화제작경영의 성패’에 대해 타진하기 시작하고 “총독부가 밀어주면 괜찮지. 열심히 해”라는 성원 속에 나날이 그 방향으로 정열을 기울여 갔다.

동맹통신의 4월 8일호를 보면 다나카 사부로 씨는 연예기자의 인터뷰에 답하여 다음과 같이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신 회사 창립은 모리 도서과장의 귀임을 기다려 일본의 정세를 살펴가며 급속도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았으며, 기존 설비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지만 역시 신설비로 상당한 자본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선영화가 종래의 방법으로는 재산이 맞지 않으나 앞으로는 자매회사로서 탄생하는 배급회사도 창립됨으로 신 회사는 배급사에 출자함과 동시에 사원이사를 배급사로 보내고 상당한 발언권을 가지며 자매 관계로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타산도 맞을 것으로 생각한다.

기존업자에 대한 조치는 일체 총독부 당국에 맡기고 자신은 직접 관계는 없지만 신 회사의 장래를 활용하기 위해 (이 부분 의미가 불명하지만) 업자도 대승적인 마음으로 너무 기득권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지양하고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

규모는 작지만 국책회사이고 또 조선에의 문화적 영향도 다대한 한편 주식회사인 이상 타산적으로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회사운영의 수뇌부에는 아마추어라도 좋으니 유능한 사람이 필요하다.

기술진은 충분히 현재의 조선인을 존중하고 이를 살려 가는 것은 물론이나 결국 이번 신 회사는 국책적 견지에서 생긴 것이므로 구제사업이 아니라면 점은 업계인도 충분히 고려해 주기 바란다.

이 담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배급사에 대한 여러 문제, 매수에 관한 문제 등 중요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신념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등 전후 사정에 비추어 그의 출마는 확고부동의 것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3. 각 사 기계류의 사정 개시(4월 29일)

다나가 사부로 씨의 출마에 따라 당국은 제작자협회원 10사 중 기계 설비를 갖고 있는 회사의 기계 사정에 착수하게 되었다. 사정자로 다이에이 기술과장 요코다 다쓰유키(横田達之) 씨가 조선에 왔다. 그에게 그 같은 임무가 맡겨진 것은 다나가 사부로 씨가 상경하여 영화계 지인들의 추천을 받기도 하였지만 총독부가 요코다 씨의 인격을 조사하고 적임자임을 인정하여 정식으로 모리 도서과장이 다이에이 당국에 요코다 씨의 내방을 의뢰하여 실현된 것이다.

우선 요코다 다이에이 기사장(技師長)의 경성 내방으로 당국과 요코다 씨에 의해 사정의 기본방침이 협의되었으나 결국 사정방침은 다음과 같은 태도로 진행되었다. 즉

1. 각종 기계 모두에 대해 업계에서 비공식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의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정한다.
2. 기계 내부의 파손 혹은 고장의 정도는 일일이 분해하지 않으면 모르므로 분해 해체를 요하는 기계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리비 (사정액의 약 1할 정도인가)를 견적하여 이를 사정금액에서 뺀다.
3. 전 기계류 기구류는 중고품으로 사정한다.
4. 사정 당일 현품이 그 곳에 없는 것은 그 이름과 중고의 정도 등을 청취하여 사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가능한 한 사정일에 물품을 준비해 두도록 연락할 것.

이와 같은 방침으로 각 사의 사정이 행해지게 되었고 사정시설의 기초가 되는 각

사별 기계 기구대장은 이전의 제작자협회에 각 사가 제출한 것에 의해 행해졌다.

사정은 4월 29일부터 수일간 요코다 다쓰유키 씨와 도서과 이케다 조쿠(池田属)에 의해 순차적으로

각 사를 돌며 행하고 다음으로 5월 5일에는 각 사의 건물 관계의 사정이 위의 양 씨 외에 건축 관계 전문가에 의해 행해졌다. 또 지방에 본사를 둔 평양부의 동양토키촬영소에 대해서도 날짜를 달리 하여 요코다, 이케다 양 씨가 출장하여 사정을 완료하였다.

결국 당시의 정세에서 각 사의 사정 숫자에 대한 사정은 실로 요코다 다이에이 기사장 1인의 재량에 따른 셈으로 당사자인 요코다 씨는 저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심경을 토로하였다.

한 두 개의 기계를 빼고는 다 허술한 것으로, 이런 기계로 제작을 했더니 놀라울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조선의 기술자는 정말 소질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정의 결과는 업자 측에서는 불만 일 것이나 총독부에서 위탁 받은 일인 이상 사심은 일체 없다. 나도 프로이므로 기계를 사랑하는 업자의 마음은 잘 알지만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할 수 없다. 수리하거나 개조하거나 하면 당분간 쓸 수 있는 것도 있으므로 공평한 입장에서 사정한 것이고 설명이 필요하다면 책임자로서 언제든지 의견을 말하겠다.

#### 34. 전체 업자와 다나카 사부로 씨 정식 회견

조선영화제작자협회는 지난 3월 29일 총독부의 긴급총회에서 저자를 제작업자 대표로 선정하여 다나카 씨 및 당국과의 절충 일체를 위임받았으므로 저자는 그 사이 항상 이들과 연락을 취하여 연일 창립사무소에 근무하며 사무를 보았다. 업자대표라고는 해도 각 사의 매수 가격은 실로 중대한 문제로 저자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예비절충이나 업자 측의 의지 현상을 전하는 것은 힘닿는 한 노력하였다. 가격 결정 전에 다나카 사부로 씨와 협회 측 업자 일동을 회견시켜 어느 정도 쌍방의 생각을 얘기하고 또 회사로서도 매수에 관한 한 각자의 의견을 내 주라고 희망하였다. 또 총독부 당사자로서도 사정의 표준을 어디에 둘지라든지, 또한 오해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총독부 도서과장이 주최자가 되어 5월 14일 반도호텔에서 당국의 알선으로 다나카 사부로 씨와 전 업자의 첫 회합이 있었다. 총독부에서는 모리 도서과장, 무라카미 사무관, 시미즈 통역관, 이케다 조쿠, 히로다 조쿠, 다나카 사부로 씨와 전 업자가 초대면을 한 것이다.

우선 모리 도서과장이 다나카 사부로 씨를 소개한 후 다나카 씨가 신회사를 창립하기에 이른 경과보고를 하였다. 다나카 씨는 업자 측과의 회견이 늦어진 것에 대한 사과의 인사를 한 뒤 현재 아직 백지인 상태에서 업자 측의 협력을 바란다는 것과 매수의 방법, 구체적인 것은 일체 당국에 일임하겠다는 언명을 하였다.

저자는 업자 대표로서 질문을 하였다. 신 회사는 어디까지 10 회사 통합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니 그 자본 계통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알고 싶다. 기계설비 매수문제에서는 기계류만을 사정하여 평가하는가 아니면 각 사의 업적 등도 고려하여 계상하는가. 인사문제에 대한 사장의 의견 등을 질문하여 어느 정도의 언질을 받았고 기계사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직무담당자로서 이케다 조쿠 씨의 사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렇게 출석한 각 회사 대표에게 각각 질문이 있으면 충분히 물어보도록 저자가 말했으나 당일 이

중요한 회합에서 질문을 한 것은 저자와 고려영화협회 대표 히로가와 소요 씨 뿐이었다.

그리고 여러 잡담이 오가고 일당은 만찬 후 별실에서 환담했으나 다나카 사부로 씨가 퇴석한 뒤 저자는 업자 일동에게 업자대표로서의 임무도 마쳤다고 생각하니 오늘로 업자대표를 사임할 것을 밝히고 일동의 양해를 얻어 폐회하였다.

그 날은 각 사 대표 각각의 입장이 서로 다른 사정에 따라 상당히 철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 실망이 컸다.

### 35. 매수가격 결정에 의견서 제출(5월 19일)

5월 16일 총독부 당국에서 각 제작업자에 대해 접수가격이 정식으로 발표되었는데 물론 한 회사도 이에 만족한 회사는 없었다. 각 사 모두 별도로 별실에서 무라카미 사무관이 영화관계관(시미즈 통역관, 이케다 조쿠, 히로다 조쿠)과 함께 회견하여 발표한 숫자로 저자가 각각으로부터 들은 범위에서는 당초 제작업자가 예상한 숫자의 대체로 반 정도의 것이었다. 2일 전인 14일 반도호텔에서 다나카 사부로 씨와 제작업자의 정식회견 모양은 앞에서 언급했다. 이때도 매수가격에 관해서는 다나카 씨는 일체를 당국에 의존한다는 태도였고 어떤 언질도 주지 않았다. 당국도 다이에이의 요코다 기사장의 감정을 기준으로 정한 수치이니 대체로 정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제작업자로서는 기계 기구를 헐값으로 평가받아 용납할 수 없다는 업자들의 의견이 매우 강경하였으므로 태도 결정을 위해 시급히 집합하기로 하였으며 18일 정오에 조선폰텔에 전원이 모여 각자의 의견을 토로하게 되었다. 의견이 속출한 결과, 전면적으로 이번의 접수가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합의하고 구체안을 세워 당국에 의견서를 제출한 뒤 분위기를 보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리하여 바로 창립사무소에서 의견서를 작성하고 또 각 사 모두 각각의 다른 의견과 희망이 있을 터이므로 각 사별로 의견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다음날 19일 다시 모여 제작자협회로서 의견서에 각 사별 별도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모리 도서관장으로 제출하였다. 의견서는 다음과 같다.

#### 의견서

신 영화제작회사 설립의 기초가 되는 재선(在鮮) 영화제작업의 접수가격은 5월 16일 모리 도서관장 대리 무라카미 사무관에게서 개별적으로 당국안의 발표를 받았습니다.

이에 업자 일동이 모여 이 수치를 합계하여 일금 101,100엔(창립 임시 지출금 7,150엔을 포함)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업자는 이 접수가격에 대해 신중히 협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문서로서 의지를 발표하는 바입니다.

(결론) 조선에서 영화 합동은 일본의 영화 신체제 발표로부터 10개월 이전 즉 1940년 12월에 이미 당국에 의지를 표명한 이래 오직 실현을 위해 매진하여 최근 다나카 사부로 씨를 사장으로 추대하였다. 이에 당국과 다나카 씨를 지지하며 각 사의 자산, 기계, 기구의 사정을 완료하고 신 회사가 접수하는 방법, 범위, 가격의 발표를 보았으나 이 매수 금액 및 매수 물건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점은 매우 큰 불만이다. 10 사 통합 통제 조직의 정신은 매몰되고 영리회사를 만들려

는 강력한 자본력으로 다년 간 문화나 경제력이 부족한 조선 대중을 위해 영화제작에 각종의 악 조건을 이겨내며 오늘에 이른 업자의 존재를 무시한 것으로 과거의 노력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한 일방적인 숫자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 기계류의 사정에서 업자들 사이에 여러 의견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사정을 신뢰하기로 했지만 앞의 매수가격에 대해서는 그 중에 포함되지 못한 각 사의 업적 및 손실보전액에 대해 상당액의 증가를 희망합니다.

또한 각 사 별로 희망하는 의견은 별지와 같습니다.

당국의 이해 있는 선처를 기대함과 동시에 새로이 각종의 호조건을 획득하여 앞으로의 발전을 약속하고 본 영화 사업을 주재하시는 다나카 사부로 씨에 대해 대승적 견지에서 현 제작업자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도와주시기를 희망합니다.

1942년 5월 19일  
전 제작업자 서명 날인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과장 모리 히로시 전

결국 제작자협회의 총의로 사정 가격은 당국을 신뢰하여 할 수 없이 승낙하기로 했으나 각 사 모두 경제적으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것이므로 각 사의 실적을 참작하여 증액할 것을 희망한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각 사 별 희망가격은 이 총의와는 다른 것이 상당이 있었던 것 같다. 각 사로부터 제출된 의견서의 요점 중 주된 것은 다음과 같다.

(조선영화주식회사) 사정 결과로 보면 매수방법으로서 영화제작 기계류와 촬영소 및 그 부속설비를 분리하여 생각하고 전자만을 매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당사의 의정부 촬영소는 당초부터 영화촬영을 위해 건설된 것으로 이를 매수하지 않은 것은 회사로서 타격이 매우 크다. 기계류의 사정평가를 보면 당사의 생각과 너무 큰 차이가 있다. 요코다 씨를 신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계통의 전문가에게 다시 한 번 사정하게 하여 만전을 기했으면 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업원의 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할지, 전원을 채용해 주면 불만은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미리 선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밝혀주기 바란다.

(고려영화협회) 당사는 1925년 창업 이래 영화제작 직접비 35만 엔, 간접비 50만 엔, 계 85만 엔을 투자하였는데 회수 액은 겨우 50만 엔으로 영화제작 초창기에 이미 35만 엔의 희생을 치렀다. 또 1940년 12월의 통제 준비 개시 이래 인건비 3만6천 엔, 촬영소 유지비 9천 엔을 지불하고 있다. 또 이번의 사정에서는 촬영소 설비를 무시하고 기계만을 사정하고 있는 사실은 납득할 수 없다. 과거의 실적 기타를 참작하여 기정 사정 액보다 별도로 10만 엔을 증액해 주기 바란다.

(조선문화영화협회) 동 협회의 기계류는 1940년 1월 도쿄에서 개산 20만 엔으로 매수한 것이다. 촬영 기계, 녹음, 현상 등에 쓰는 건물의 전력 배선 공사비만으로도 25,000엔을 쓰고 또 한편 영화제작의 실적은 조선뉴스 35보(報)까지 고심하며 발행을 계속하였고 문화영화도 다수 세상에 선보였다. 37년간의 조선 생활 중 25년을 선전영화 제작에 종사하고 심혈을 기울여 이룩한 천직(天職)과 이번에 헤어지게

되는데 사정숫자를 재검토하여 증액해 줄 것을 바란다.

(경성영화제작소) 동 사의 설비 일체는 1940년 봄 경영자에게서 57,000여 원으로 매수한 것이나 설비 증가 때문에 1만 엔을 추가 투자하여 설비만 67,000엔이었다. 이 금액은 동 사의 후원자가 출자한 것으로 이 설비는 담보로 공정증서까지 작성한 것이다. 이 외에 경영자 자신이 55,000엔을 유지비와 기타로 투자하고 있다. 시국순응의 취지에서는 이번의 통합을 찬동하나 사정액은 예상 이상으로 적다. 후원자의 출자액만이라도 어떻게든 변제 가능하도록 해 주기 바란다. 경영자 자신의 손실은 상관없다.

여러 의견서 가운데 다른 회사로부터도 주목할 만한 것이 있었으나 생략한다. 어쨌든 제작자협회원 전원이 모두 작성한 이 의견서는 협회 측이 당국에 제출하였다. 5월 19일 오후 2시의 일이었다.

### 36. 각 사의 매수가격 결정되다(5월 30일)

5월 16일 무라카미 사무관으로부터 각 사 개별회견에 의한 매수가격의 발표가 있는 후 19일 제작자협회 총의에 의한 '매수가격 결정에 관한 의견'이 제출되었다. 당국에서는 이 의견서에 기초하여 태도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당국 자체로서는 이것의 정식발표까지는 요코다 다쓰유키 씨의 사정을 기초로 충분히 연구한 끝에 결정한 것이며 업자 측의 진정으로 사정금액이 변경되어 증액을 하는 것은 관청의 도리 상 있을 수 없다는 방침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신회사와 구 업자 가운데에서 조정을 하는 형편상 관청의 권위와 체면만을 내세워 원안을 고집할 필요도 없는 셈이었다.

이에 당국으로서는 공평한 태도를 견지하고 다나카 사부로 씨에 대해 사정 이후의 경과를 보고하고 업자 측의 의견도 함께 설명한 뒤 어느 정도 증액의 승인을 요청하고 그의 양해를 얻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자세로 나왔다. 이 때 당국과 다나카 씨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르나 5월 30일에 다시 당국이 업자들에게 출두 요망을 통지하였다.

그날도 도서과 영화검열실에서 각 사별로 회견이 있었는데 지난 16일 발표했던 평가가격 외에 각 사의 업적과 인적 기구 등을 고려한, 말하자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해산수당의 명목으로 첨부하게 되어 각 사 모두 최저 1할에서 2할 정도의 증액이 되었다 한다. 이렇게 공표하면서 이는 당국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그러나 업자 측에서는 매수가격은 기계기구에 대한 사정으로 촬영소의 건물 및 건물에 부속한 설비를 방치한 것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당국에서는 신회사로는 필요가 없으므로 그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 또한 당국은 이 사정숫자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절대적인 것이므로 당일 바로 매수승낙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업자는 “그렇다면 다시 모리 도서과장을 만나 진의를 듣고 그 뒤에 승낙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여 다음날 31일은 일요일이었지만 모리 과장 이하 관계관이 총독부에 출근하여 회견하기로 하였다.

### 37. 매수의 난문제가 드디어 종결(5월 31일)

5월 31일 문제의 각 사 매수에 관한 마지막 회합은 총독부 도서과장실에서 있었고 당일은 일요일이었으나 오후 2시 모리 도서과장 이하 영화 관계관이 전원 출석하였다. 문제는 드디어 벼랑 끝에 선 모

양이 되었다.

개별회견은 과장실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어졌다. 업자들은 다른 방에서 순서를 기다렸는데 과장실에서 흥분된 업자의 소리가 옆방까지 들려 올 정도였다.

결국 10사 전부의 원만한 매수는 실현되지 못하였고 조선영화주식회사와 고려영화협회가 개별 행동을 취했다. 그러나 고려영화는 매수가격에는 불만으로 승낙할 수 없지만 기계 기구는 영화통제의 정신과 신 회사 창립에 협력하는 의미에서 무조건 제공하겠다는 의외의 태도를 보였다. 각 사의 알려진 의견 범위는 다음과 같다.

(조선영화주식회사) 동 사의 대표이사인 장선영 씨가 출두했는데 동 사는 의정부에 촬영소를 갖고 있으며, 이 건물의 접수를 강경히 주장했으나 결국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전면적으로 기계류 일체의 매각을 거부한 것이었다. 기계류의 사정에 대해서도 불만인 것은 알 수 있으나 동 사로서 촬영소의 건물 및 이에 부속한 일체를 방기한 채 접수되는 것은 분명 치명적이었다.

(고려영화협회) 당 사로부터는 히로가와 소요 씨와 출자자 오덕섭(吳德燮) 씨가 출석했는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무조건 기계류를 신 회사에 제공하겠다는 당국도 예상치 못했던 결정이 나왔다. 모리 과장은 신 회사는 영리회사이므로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다, 부족하지만 매수금을 받고 기분 좋게 협력해 달라고 했으나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무상 제공의 의미를 명기하여 히로가와, 오씨가 승낙서에 날인하였다. 오씨로서는 뭔가 다른 뜻이 있었는지도 모르나 그 후로도 별다른 일 없이 기계류는 무상으로 현재의 신회사가 이어 받았다.

(조선문화영화협회) 대표자 쓰무라 이사무 씨가 출석했으나 그는 이미 매수가격사정 숫자에 대해 불만족하지만 정세 때문에 할 수 없이 승낙했다고 관계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회사의 인적 조직에 관한 희망을 구신하고 승낙서에 조인하였다.

(경성영화제작소) 대표자 야나무라 기치조 씨도 사정금액에 대해 과장에게 상당히 강경한 의견을 개진하며 장시간 논의하다 승낙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남은 각 사(명보영화, 선만기록(鮮滿記錄))도 승인의 뜻을 명시하였고 평양의 동양토키촬영소는 나중에 해결하였다. 또 설비를 갖지 않은 3사에 대한 당국의 방침도 결정하여 다음날에 대 난관인 매수의 고개를 넘게 되었다.

### 38. 다이에이 감독 다구치 테쓰(田口哲) 씨 경성 도착

경성에 온 다이에이 제2촬영소 감독 다구치 테쓰 씨는 6월 23일 경성을 출발하여 도쿄로 갔다. 다구치 씨가 다나카 사부로 씨의 신회사 창립에 발언한 이유는 다나카 씨의 아버지인 다나카 도타로(田中遼太郎) 씨와 다나카 사부로(田中三朗) 씨가 우연히도 서로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다구치 씨는 유명한 닛카쓰(日活)에서 〈장군과 참모와 병사〉를 계기로 일약 명감독이 된 신진 영화인으로 그는 경성



중학 출신으로 경성에서 자란 사람이다. 다나카 사부로 씨가 다구치 데쓰 씨의 조선 내방을 기다려 영화 경영의 지혜를 빌리는 것은 부자연스럽지 않은 것이다. 단 다구치 씨도 다이에이에 적을 두고 있는 이상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행동할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 한 영화인으로서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런 관계에서 저자는 다구치 씨가 조선 체류 중 몇 차례 신회사 창립안 건으로 회담하였다. 다나카 사부로 씨는 다구치 데쓰 씨에게서 지혜를 빌릴 뿐 아니라 다이에이를 그만두고 조선에 와서 일해줄기를 부탁할 생각이었던 모양이었으나 당시의 다구치 씨에게 그것을 바라는 것은 무리이고 또 감독인 다구치 씨가 경영에 깊이 관여하는 우를 범할 리가 없다. 그러나 일은 좋아하므로 조선에서도 1년에 한 편 정도는 다이에이의 양해를 얻어 찍고 싶다는 희망은 있었다.

저자가 다구치 씨와 수차례 회견한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결국 다구치 씨는 조선의 영화인을 위해 다나카 씨가 받아주길 원하는 점이 있으면 중재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는 친절한 말씀이 있었다. 그리하여 저자가 다구치 씨에게 희망한 점은 곧 다나카 씨에게 전해져 일이 잘 진행된 것도 있었다.

나카다 세이고(中田晴康) 씨가 반도호텔에서 창립 준비를 할 때 다구치 데쓰 씨도 함께 행동을 취하여 예비공작의 준비나 연락 등을 열심히 해 준 것은 조선영화 혁신의 한 조력자로서 기록될 일이었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다구치 씨는 다이에이의 사원으로서가 아니고 오직 개인 다구치로서 다행히 체재 중이었으므로 여러 가지로 편의를 봐 준 것이고, 이 점 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밝혀 두는 바이다.

### 39. 영화인 야구대의 탄생(6월 15일)

하세가와 조의 제작자협회 창립사무소에는 매일 많은 영화인들이 방문해 왔다. 협회의 창립상임위원과 총독부의 교섭 과정 혹은 다나카 사부로 씨와의 절충 경과 등은 반도 영화인으로서 하루라도 빨리 알고 싶고 도대체 언제 우리 신회사의 일이 시작되는지, 아니 그것보다 먼저 신회사의 산하에서 일할 수 있을지 염려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성질이 급하고 흥분 잘 하는 영화인은 크게 비분강개하기도 하고, 흐름에 맡기자는 유유자적파도 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영화 통제를 위한 1개 신 회사 창립의 이야기는 꽤 전부터 있었던 것이어서 그 즈음부터 각 사 모두 제작은 중지하고 영화인은 모두 폐업 상태였다.

언제부터인지 영화인 야구대 조직의 이야기가 부상하였다. 차제에 젊은 혈기를 스포츠로 푸는 것이 좋다고 저자는 찬성하였다. 그래서 드디어 '야구인영화대'가 탄생하게 되었다. 용구의 구입에 상당한 경비를 염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저자와 히로가와 소요군 둘이서 없는 주머니에서 수백 엔을 내고 다른 후원자 둘 셋에게서도 기부를 받아 대체적인 도구를 구비하였다. 먼저 야구대장에는 저자가 추대되었고 주장에 히로가와 소요 씨, 감독은 이병일 씨, 매니저에 김정혁(金正革) 씨, 응원단장은 연기자 김한(金漢) 씨로 결정하고 촬영, 연출, 연기 그 외 20명의 단원이 결정되었으며, 응원단은 문예봉(文藝峰) 김소영(金素英) 등 잘 생긴 연기자들을 쭉 내세운 당당한 불패(不敗)의 멤버들이었다.

저자는 연성(鍊成)의 목적도 좋고 영화인 간의 친목과 각기 흠어진 마음을 조금이라도 야구의 팀위

크로 결집하여 훈련하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았고 또 건강을 위해서도 정말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했다.

먼저 제1회 경기는 경춘선 연선의 퇴계원 운동장에서 금룡(金龍)구락부와 첫 시합을 가졌다. 이 날은 다수의 영화인이 얼굴을 보여 주었다. 초여름의 태양 아래 잔디 위에서 각자가 지참한 도시락을 열었고 웃어 가며 하루 종일 야외에서 놀았다. 저자는 이 정경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무 잡념도 없이 명량한 하루였다. 그 후 경성일보와도 시합하고 용사의 육군병원 위문시합에도 나가 위문품을 보내기도 했다.

이 영화인 야구대는 그대로 신 회사로 인수되었다.

#### 40. 나카다 세이고 씨 포부를 말하다(6월 24일)

다나가 사부로 씨를 중심으로 한 신영화제작회사의 베테랑으로 최고 수뇌자에 누구를 천거할지는 전 영화인이 주목하는 바였으나 도쿄에서 영화계의 일부 유력자들의 추천으로 나카다 세이고 씨가 경성에 오게 되었다. 씨는 조선에서의 영화 경영이 타산적 견지에서 매우 어려운 점임을 당국에도, 또 다나가 씨에게도 역설하고 상당한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도 전문가로서의 입장에서 설명했음은 저자 자신이 다나가 씨로부터 들을 바 있다. 당국도 다나가 씨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가자는데 합의한 것은 사실일 것이다. 닛카쓰 다마가와(多摩川)의 고투시대에 제작부장으로서는 이색편에 이어 계속 이색편을 만들어낸 파란만장한 나카다 씨의 과거 경력은 온실에서 자란 영화인과는 달리 말하자면 최고의 인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6월 24일 내신한 포부를 다음과 같이 밝혀 각오를 보여 주었다.

(동맹통신 6월 24일호) 나는 중국 중부나 만주에서 영화제작에 관계해 왔고 대륙 영화제작이 일본에서 영화를 만드는 것보다 어려운 것을 체험하고 있다.

대륙에서는 특히 오락 이상으로 많은 계몽적 요소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의 일부에서는 조선영화무용론을 말하는 자도 있으나 이들은 현지를 모르는 피상적인 생각으로 지역의 민속이나 생각을 떠난 예술이 지도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어디까지 지역에 뿌리를 내린 영화이어야 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종래의 조선영화는 큰 전환을 할 필요는 있지만, 쓸모없다는 것 같은 결론은 있을 수 없다.

일본에서도 통제 문제로 대륙을 희망하는 자도 있으므로 기술진의 교류는 활발히 해 나가고 싶다. 만영(滿映)도 만주국가의 절대적인 힘으로도 5년이나 걸려 겨우 궤도에 오른 정도이다. 영화제작은 이처럼 매우 어려우므로 조급해 하지 않으며 차분히 힘써 갈 생각이다.

나카다 세이고 씨는 반도호텔에 여장을 풀고 다나가 사부로 씨를 비롯하여 다나가 씨 밑에서 창립 사무를 보는 곤도 레이치(近藤廉一) 씨나 저자 등과 자주 연락하면서 창업에 관한 전반적 사무에 활약하였다.

## 신 회사 창립 착수 이후

### 41. 황금정(黃金町)에 현 사옥을 두다(7월 1일)

창립 사무는 다나카 사부로 씨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창립사무소로 적당한 것이 없어 본정 2정목 108번지의 다나카 시계점에서 했다. 우선 타이프라이터를 한 대 구입하고 다나카 시계점 뒤의 2층 구석 방에는 시계공들이 땀을 흘리며 시계의 수선을 하고 있는 이국적인 일본 건물에 낡은 책상을 놓고 가 부좌를 튼 채 일을 한 지금의 상임감사역의 곤도 켄이치 씨 외에 나카자와 마사히코(中沢貞彦) 씨나 현 본사 경영과 직원 기요하라 강이치(清原寛一) 군도 있었다. 이곳에서는 주로 주식의 모집과 재무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했는데 영화와 대개 관계없는 사람들뿐이어서 일은 생각보다 무척 힘들었다.

말이 없던 다나카 씨도 사옥을 물색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썼으나 허사였다. 부내에 있는 적산(敵産)관리의 집에도 두세 번 교섭했으나 이미 결정 난 후였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저자의 아는 사람을 통해 현재의 황금정의 사옥을 찾은 것이다. 좀 좁긴 했지만 당분간 이곳을 본거지로 촬영소가 건설되고 나면 사원의 합숙소나 분관으로 쓰기로 하고 7월 1일 계약하였다.

그런데 지상 지하의 세 방 외에는 모두 다다미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를 양식으로 개조하였다. 이 무렵 연예를 하고 있던 도쿠야마 요시타미(徳山義民) 씨가 정말 일을 잘해 주었다. 사옥의 정비에는 도쿠야마 씨의 공이 컸다. 좀처럼 입수하기 어려운 자재까지도 너무나 잘 조달해 주었다. 명치정(明治町)에서 극장 관계의 일을 하고 있던 와타나베 강이치(渡辺寛一) 씨도 이 사옥을 위해 진력해 주었다. 이 무렵의 열의 있는 창업 전주곡은 지금 생각해 보아도 실로 추억으로 남는 유쾌한 기억이다.

또 건축 관계의 일로는 9월 20일 현 촬영소 앞의 부지에 증축공사를 시작하여 지진제(地鎮際)를 지냈다. 촬영소라 해도 무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 문화영화협회의 건물로 녹음현상 인화의 설비만으로 실로 간소한 것이었다. 배우의 대기실도 없고 사원을 수용할 곳도 없어 사장에게 부탁해 공지에 증축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것도 와타나베 씨가 일체를 맡아 해 주었다. 한 평당 250엔의 계산으로 해 주었는데 자재난 때문에 와타나베 씨는 무척 고생을 했다. 그래도 그 무렵은 누구나 장래에 대한 큰 기대를 가슴에 품고 불평 한 마디 없이 열심히 해주었다.

### 42. 신회사의 제작 허가 신청서 제출(8월 11일)

조선에서의 유일한 영화제작회사, 다시 말하면 쇼치쿠(松竹), 다이에이(大映)에 이어 극영화제작회사로 인정받은 조선영화제작회사의 영화제작허가 신청서는 8월 11일자로 고이소(小磯)총독 앞으로 정식 제출되었다. 이는 다나카 사부로 씨를 중심으로 창립 관계자에 의해 출자 획득의 전망도 완전히 섰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신청서는 임시자금조정법 제 4조에 의한 재무당국에 제출하는 것과는 별도로 조선영화령에 기초하여 제출된 것으로 그 내용은 영화계 일대 변혁은 실로 이 서류 한 장이 해결하고 다년간 고생해 온 구 영화업자의 발자취는 새로운 것의 대두로 태양 앞에 안개처럼 사라질 운명이라는 것이었다.

신청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게재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 생략하지만, 별 무리 없는 정도에서 가능한

한 밝히고 싶다. 그것은 영화통제가 결실을 맺었다는 것으로, 영구히 기록될만한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조선영화령에 기초하여 영화통제라는 국책수행의 취지를 받들고 조선총독부 당국의 내명을 받아 지도와 지원 위에 주식회사를 조직하고 사단법인 조선영화 배급사와 보조를 맞추며 이와 긴밀한 연락 하에 극영화, 뉴스영화, 문화영화, 기타의 영화를 제작하고 배우 기술자 양성소의 경영, 영화관의 경영, 영화 사업에 대한 투자 및 각 처에 관련된 일체의 사업을 운영한다.

영화제작 방법은 조선영화령에 의해 완비된 촬영소를 세우고 인재를 초빙 혹은 양성하고 기재설비를 충실히 하여 문화의 진전에 맞추며 더욱 여러 기관을 정비하고 영화의 수준을 올리는 것이지만 당시는 종래 서로 각기 독립하여 소규모로 자유경쟁을 해 왔다. 때문에 약간의 재선영화 제작업자를 대신하여 오로지 제작부분을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더욱 군 관 민의 협력을 얻어 기획의 범위를 넓히고 일본, 만주, 중국, 기타의 업자와도 제휴하여 인재 및 자료의 교류를 꾀하고 제작기술의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조직의 충실, 설비의 완비를 기다려 더욱 효율을 높여 1년에 보통작품 6편, 특별작품 6편, 시국영화 24편, 문화영화 20편의 규모를 감당할 필요가 있다.

영화는 이전에는 민중의 오락을 목적으로 했으나 현대에는 국민에게 건전오락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국가 목적의 보급, 국민정신의 작흥함양, 문화의 향상 육성, 사상의 선도 등 국가적 중대 사명을 갖는 공익사업의 성질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우리 조선에서는 민도의 향상, 일반의 징병제도 실시 발표 등 중대시기에 비추어 영화가 갖는 특수사명을 한층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영화제작기업의 이념과 기구는 당연히 자유주의의 오랜 폐해에서 벗어날 시기가 되었다.

이에 조선영화제작 사업을 통합 정비하여 강력하고 기초가 견실한 존재로 되게 하고 실로 시국에 맞는 일대 제작회사를 실현시키는 것이 지금의 급무이다.

조선총독부 당국은 영화의 공익성에 대해 깊은 뜻을 보이고 먼저 조선영화령에 준거하여 일본의 영화 신체제의 방법에 어울리는 업계의 개혁에 착수하고 배급 부문의 정비를 완성시켰다.

이에 우리들은 조선총독부의 방침을 체현하고 주식 조직에 의한 조선의 독자적인 영화제작회사를 창립하여 영화보국에 매진하려 한다.

#### 43. 허가신청서에 나타난 주요사항

위와 같은 창립 전망에 따라 회사창립안이 구체화된 것이지만 허가신청서에 나타난 주요사항 중 지장 없는 범위에서 이를 발표하자, 다음과 같은 사항이 주목을 끌었다.

(자본 관계) 처음에는 3백만 엔 안에서 진행되었으나 재무국이 시국 관계 상 미불입자본금의 숫자가 큰 것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결국 당국안인 2백만 엔으로 낙착되어 제1회 불입금은 80만 엔을 징수한다. 즉 주권(株券)은 한 주에 50엔으로 하여 4만 주로 나누고 제1회 불입금을 한 주 당 20엔씩 징수할 것과 자본조달방법은 공모하지 않고 약 40명의 발기인 인수의 형식을 취하기로 함.

(제작 기업) 생필품의 배급제한으로 당사 앞으로 입하되는 필름량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우기로 하고 1년간 극영화 6종류, 문화영화 5종류, 시사영화 12종류를 제작한다.

(종업원) 종업원은 제1기 채용 인원을 109명으로 하고 본사 관계 13명, 연출 관계, 촬영 관계 각각

15명 씩, 연기자 16명, 녹음현상 14명, 그 외 장치, 기획, 제작, 조명, 이하 각 부문에 잔여 인원을 배치하기로 하였다.

(스튜디오) 촬영소는 후보지의 결정과 건설까지 상당한 일자가 필요하므로 우선 조선문화영화협회의 기구를 접수하여 사용한다.

(기계 및 설비) 촬영기 벨브형 5대 및 아이모 형 3대를 사용하고 녹음기는 에리야 식 더블용 기타 3조, 인화기는 벨형, 윌리엄슨 형, 기타 3조를 주요 기계로 사용하고 장래의 완비를 기한다.

(정관에 나타난 특징) 제17조에서 본 회사의 이사역 12명, 감사역 3명 이내로 규정하고 주식총회에서 선임한 뒤 조선총독의 승인을 받기로 한 점 및 본 정관을 변경하려는 점은 다른 회사와 다르다.

(발기인 성명) 당 사는 발기인 조직의 형식으로 창립하나 8월 11일 현재의 발기인은 다음 분들로 그 후 불입징수까지 두세 명의 변동은 있었으나 대체로 이대로 갔다.

다나카 사부로, 이와사 시게이치(岩佐重一), 하기와라 사부로(萩原三郎), 박흥식, 방대영(方台榮), 도이 세이이치(土井誠一), 조준호(趙俊鎬), 이근택(李根澤), 이성희(李聖熙), 오쿠이 도요조(奥井豊藏), 오가자키 고이치(岡崎康一), 오후지 이사무(大藤勇), 이마부치 부주(今淵武寿), 와타나베 신타(渡辺新太), 하본준석(河本駿錫), 다카기 데이이치(高木定一), 다카마쓰 세젠(高松世賢), 다다 준사부로(多田順三郎), 우치다 곤고로(内田鯉五郎), 구로가와 간사쿠(黒川官作), 구로타니 구니조(黒谷国藏), 마쓰모토 다카아키(松本高明), 도지마 텡이치(戸島典一), 고바야시 겐로쿠(小林源六), 아라이 도시쓰기(新井俊次), 아라이 하쓰타로(荒井初太郎), 김성호(金聖浩), 안정원(安錠遠), 가네하라 요시마사(金原義政), 김연수(金季洙), 미와 다이이치(三和泰一), 민규식(閔奎植), 박기효(朴基孝), 히로가와 소요, 곤도 링이치, 방의석(方義錫), 도지마 사쿠사료(戸島作太郎), 오미네 헤이조(大峰丙朝), 오타니 옹요(太谷雲用), 다카이 다케오(高居武雄).

#### 44. 제1회 불입금 징수가 시작되다(8월 28일)

신회사의 제1회 불입금, 즉 총 주수(株數) 4만주에 대한 한 주 당 20엔씩 합계 80만 엔의 불입징수는 8월 28일부터 시작되었다. 당일로 발기인 대표 다나카 사부로 씨의 이름으로 발기인 약 40명에 대해 각각 주식불입 청구통지서가 발송되었다.

취급점은 조선은행 본점으로 불입 기일은 1942년 9월 8일까지로 되어 있고 창립사무소에서는 경성부 내는 물론 지방의 발기인도 몇 명 있어 분담하여 기일 안에 불입금 징수가 순조롭게 끝나도록 마지막 노력을 기울였다.

#### 45. 신 회사에 제작이 허가됨(9월 2일)

신 회사에 대한 조선영화령에 의해 영화제작 허가는 9월 2일 당국으로부터 발기인 대표인 다나카 사부로 씨에게 정식으로 지령이 있었고 경기도를 통해 통달되었다. 한편으로 회사 창립을 서두르기는 해도 창립 완료 위에 허가신청을 하는 것은 쓸데없이 시간만 끌 뿐이기 때문에 당국의 양해 하에 8월 11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앞에서 말했다. 또 회사의 등기수속은 사업의 성질상(영화령에 의한 허가

사업인 관계 상) 총독의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서류가 완비되지 않으므로 먼저 제작허가서를 선결 조건으로 하부원(下附願)을 제출하였다.

이렇게 고이소 총독의 이름으로 제작업의 정식허가서가 발기인 대표 다나카 사부로 씨에게 하달된 것이고 이로써 당국의 방침인 영화제작기구의 일원화가 실현된 셈으로 허가의 이유로는 영화계의 추세와 조선영화의 현상 타개에 관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었음을 명백히 하였다.

첫 번째로 1940년 이래 내외의 정세가 점차 긴장의 도를 더해 영화제작계에서는 자재인 생필품의 수입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국내 생산 또한 어려워져 배급통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1941년 1월 정보국 내에 영화용 생필품통제협의회가 설치되었다. 조선에서 영화제작은 그 실적이 부진하고 또 생필품을 모두 일본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도의 제한을 받기에 이르렀고 당연히 종래와 같은 자유 제작이 곤란하여 조선영화 자체의 존속조차 우려되기에 이른 점.

두 번째는 전시 하의 영화의 사명을 최고도로 발휘한다는 점에서 조선에서는 독자적인 입장과 사명에 의한 영화제작의 필요가 커진 점.

세 번째는 당국의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영화사업 자체는 영화령 실시 후에도 여전히 구태를 벗지 못하고 소규모의 제작업의 난립에 의한 난작(亂作)이 그 질적 향상을 막고 있다는 사실과 시국 하 생필품의 결핍이라는 현실문제에 봉착하여 이에 근본적으로 영화제작의 개혁을 기도하기에 이른 점.

네 번째는 이러한 사정 하에 통제에 대한 준비를 단행한 이상 당국으로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며 추진력을 낼 필요가 있어서 먼저 설립된 사단법인 조선영화배급사 사장 다나카 사부로 씨에게 신영화제작회사 창립의 사무를 위탁하게 되었다.

#### 46. 구 업자의 제작허가 취소하다(9월 10일)

조선에서 영화제작업 10사는 조선영화령에 기초하여 모두 1941년 5월부터 7월까지 영화제작허가신청서를 당국에 제출했으며 이는 법규에 정해진 수속을 밟은 것이다. 한편으로는 영화통제에 의한 1회사 통합의 방침이 결정되어 이미 현실문제로서 점차 구체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당국으로서도 이 10사의 제작허가신청에 대해 시급히 가부를 결단할 일도 없었다. 또 업자로서도 영화통제문제에서 벗어나자사 앞으로만 허가의 지령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회사는 한 곳도 없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자사 중심의 안을 세워 책동한 경향이 있었던 점은 별기한 대로이다.

그러나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라는 신 회사를 총독부가 승인 허가한 이상 종래의 업자에 대해 영화제작허가의 신청 건은 처리하기 힘들다는 판결을 받을 것이 불 보듯 분명하고 일이 이에 이르러서는 업자 측에서도 더 이상 기대하는 자는 없었던 것이다.

즉 당국은 조선총독의 이름으로 9월 10일 자로 제작업 10 사에 대해 정식으로 영화제작허가를 결정하기 힘들다는 공문서를 경기도를 통해 각 사에 송달하였고 이로써 오랜 역사적 존재, 개별 영화사는 해소된 것이다.

#### 47. 발기인총회에서 임원 선출(9월 19일)

제1회 불입금의 징수와 전후하여 9월 19일 경성은행집회소에서 임원선거를 위한 발기인총회가 개최되었다. 총독부로부터도 도서관계관이 임석하고 발기인대표 다나카 사부로 씨로부터 회사창립의 경과 보고가 있고 임원선출이 시작되어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선임 결정되었다.

즉 이사에 다나카 사부로, 나카다 세이고, 박홍식, 방대영, 고바야시 겐로쿠, 아라이 도시즈기(新井俊次), 다카기 데이이치(高木定一), 김성호, 고모토 준세키, 다카이 다케오, 노자키 신조 등 11명(아라이 도시즈기(新井俊次) 씨는 후에 사임)

또 감사에 곤도 렌이치, 오타니 옹요 두 명이 선임되었다. 결국 정관에 의한 이사 12명에 1명의 여지를 남기고 감사 3명에도 2명 선임으로 1명의 공석을 남긴 셈이다.

이 임원 선임의 발기인회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역으로 사장에 다나카 사부로 씨의 취임을 본 것은 당연하고 전무이사역을 두지 않고 상무에 나카다 세이고 씨가 선임되었고 또 상임감사에는 곤도 렌이치 씨가 취임하였다.

이렇게 진용이 결정되었으므로 다나카 사부로 씨는 당일 정관 규정에 따라 고이소 조선총독 앞으로 임원 선임 승인원을 제출하였다. 선임된 이사역은 조선인 측의 박홍식 씨를 비롯하여 모두 조선에서 실업가 혹은 명문 등 일류를 망라하고 있으나 일본인 측 중역은 모두 신진실업가로 편성된 것이 특징으로 희망적인 영화사업 장래의 비약에 대응하는 흥미로운 멤버들이었다. 단 이 회사의 포스트로서는 매우 중요한 상임감사 1명은 다나카 사장의 의지가 반영되었는지는 모르나 인선에 대해서는 여러 말이 많았다.

조선총독은 위 임원 선임 승인원에 대해 심의한 결과 9월 23일 자로 승인의 통지를 발송하고 전 임원이 결정되었다.

#### 48. 신회사의 등기수속 완료(9월 29일)

신회사의 제1회 불입 징수와 제작업 허가의 정식 하달은 앞서 서술한대로이고 그 후 불입은 순조롭게 이루어져 9월 15일 총액 80만원의 제1회 불입을 무사히 완료했다.

9월 19일 발기인총회에서 사장 이하 이사, 감사의 선임, 등기 서류가 완비되어 곧바로 등기수속에 착수했고 9월 29일에는 일찌감치 등기를 완료했다. 이렇게 영화령으로부터 허가받은 신회사는 모든 의미에서 법률적 수속을 무사 종료하고 같은 날 즉 9월 29일 화려한 스타트를 끊게 되었다.

#### 49. 각 사 기계의 접수와 대금 지불(10월 3일)

지난 5월 31일 풍운을 일으킨 마지막 각 사 매수문제의 결정으로 모든 풍파가 가라앉은 형세가 되었으나 일단의 업자에게서는 기계류 인수의 재촉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신회사의 정식인가를 기다려 하는 것이 순서여서 10월 8일 사정한 다이에이의 요코다 기사장이 나카다 상무와 같이 조선에 와 12일부터 정식접수가 개시되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경성영화제작소 야나무라 기치조 씨 등으로부터는 인수방법에 대한 심각한 담판이 있어 건조 상자 등은 가져 왔다. 이는 그가 경영하는 조선문화흥업주식회

사의 설비 확장에 따라 그 회사의 내부 개조를 위해 비치해둘 장소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동 사의 촬영 기 발포 2대도 9월 8일에 가져 왔다.

요코다 다쓰유키 씨와 본 사 기술과 직원에 의한 접수는 연일 이어져 모두 본사 혹은 장래 사용할 곳인 조선문화영화협회로 운반되었다.

또 매수대금 대해서도 각 업자로부터 하루라도 속히 지불하라는 청구가 있었다. 이는 당연한 것으로 사정 가격 결정 당시에는 회사의 창립을 기다리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 편법으로 지불을 이행시켜 달라는 당국의 의지도 있었고 업자도 이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그런 임시의 편법은 쓰지 않고 지불은 10월3일 즉 등기 완료 후 이루어졌다. 우선 당일 경성영화, 한양영화, 황국영화, 선만기록영화 등에 지불을 하고 이어서 나머지 각 사에도 지불이 이루어져 10월 중순까지는 전부 완료되었다.

## 50. 조선영화인협회 해산하다(10월 7일)

조선영화인협회는 영화통제에 의한 조선영화의 기구개혁에 따라 그 존재가치에 대해서도 이전부터 일반 영화인 사이에 문제가 되었다. 결국 10월 7일 오후 2시부터 총독부 도서과 영화실에서 중역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당국의 입회 하에 조선의 영화신체제 실현에 즉응하여 만장일치로 발전적 해체를 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동 영화인협회에 가맹한 영화인 중 대부분은 신회사로의 입사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동 협회가 영화계의 변동기에 대해 선처한 이른바 ‘영화인 행복으로의 길’은 소수의 영화인을 빼고는 실현되었고 협회로서는 대개 만족할만한 결론에 도달한 것이었다.

되돌아보면 동 협회가 창립된 것은 1939년 8월 16일이었다. 그 해 10월 일본에서 영화법이 만들어져 조선에서도 동 법에 의한 영화계의 입법이 시급히 확립될 것을 예기하였으며 그 때 원만한 운영을 위해 전 영화인을 한 단체에 가맹시켜 통일된 지도를 하게 된 것이다. 앞서 말한 8월 16일 경성호텔에서 결성식을 갖고 이사, 평의원, 감사, 서기 등을 선임하였으며 제1회 총회를 1940년 2월 11일 조선일보사 강당에서 개최하고 일본 영화인연맹 가입과 그 외의 의안을 가결하고 조선군 보도부 사가와(茶川) 소좌, 총독부 도서과 시미즈 통역관과 그 외의 축사가 있었다. 그 후 수차례의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영화계의 제반 문제를 선처해 왔고 또 1940년 11월 18일부터 5일간 조선총독부 후원 하에 영화문화 강습회를 개최하고 매일 각 방면의 명사, 학자, 문화인의 강연을 공개하여 다대한 성공을 거두었다.

또 지나사변에 선처하기 위해 위문포를 기탁하거나 대동아전쟁에서 싱가포르 함락의 축하행사에 참가하거나 하여 상당히 다채로운 실적을 남겼다. 1940년 4월에는 키네마순보(キネマ旬報)사 주최의 영화문화전람회를 후원하여 10일간 3만 명 이상의 관람자가 모이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 사이 재정적으로는 상당히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협회원 간부는 이 난관을 잘 극복하며 조선영화를 위해 진력한 점은 특기해 둘 만한 사항이고 비록 영화 신체제로 발전적 해체를 하였으나 조선영화인협회는 조선영화 역사상 영구 불멸의 존재임은 말할 것도 없다.